전정한 삶을 위한 책

신성한 성경 가르침

제 4 권

교훈 29 - 55

구세주 모든 사람을 위한 삶

12 권으로 구성된 저서 『진정한 삶의 책(Libro de la Vida Verdadera)』
은 전임 대표께서 보유하여,
멕시코 D.F.의 'Dirección General del Derecho de Autor de la Secretaría de Educación
(Dirección General del Derecho de Autor de la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에 26002, 20111, 83848 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 원본에 대한 저자 연락처
아스이사 은데 에스트도스 에스파뇰레스 데 베르다데로, A.C.
Apartado Postal 888, México, D.F., - C.P. 06000

독일어 번역 및 독일어 판 서문
독일어 판 서문 해설 각주,
주석 및 참고사항
발터 마이어(Walter Maier) 와 트라우고트 겔텐보트(Traugott Göltenboth).

2017 년 1 월 기준

편집 사실 증명 법률 및 저작권 정보:
부흐 앤 트룸 라베
만프레트 배제
Kirchweg 5
D-88521 에어팅겐

전화 +49 (0) 7371 929 66 42
이메일 manfredbaese@gmx.de

편집후기책 은 아버전을 바탕으로 DeepL Translator 를 통해 여러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고풍스러운 스타일로 번역되었으며 출판사에서 수정한 적이 있는 전형적인 본문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본래 의도된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조기 피싱 의심 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이동 또는 변환하기 위해 제출될 수 있도록 저작권 정보는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은 이 글을 읽으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에는 그러므로 사람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스팅입니다.
(이메일 joanna64@yahoo.com)
DeepL - 다운로드 링크 www.DeepL.com/Translator (버전 수 버전)
DeepL 은 현재 100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며, 대규모에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Bookmundo 출판사 발행
제 호 – 2026
ISBN:

목차

진정한 삶의 책 1

서문 6

서문 7

가르침 29 9

가르침30 15

가르침31 26

가르침32 35

가르침33 46

가르침34 59

가르침35 67

가르침36 75

가르침37 85

가르침38 96

가르침39 109

가르침40 119

가르침41 128

가르침42 141

가르침43 153

가르침44 163

가르침45 176

가르침46 190
가르침47 202
가르침48 213
가르침49 224
가르침50 236
가르침51 247
가르침52 259
가르침53 272
가르침54 283
가르침55 294
주석 306
영적 관점에서 본 영혼에 대한 연구* 311
목차 321
참고 문헌 및 웹사이트 332

서문

독자는 전체 책을 읽기 전에 서문을 먼저 읽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서문을 쓸 때는 책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보다 독자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문을 통해 독자가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50여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기꺼이 나누었다는 점이다.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커리어와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실패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혼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았고,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았죠. 그때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다면 훨씬 덜 외로웠을 것 같아요."

"실패를 공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겪은 시행착오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인 태도인지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자신만의 실패 이야기를 용기 있게 세상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서문

제1판 서문

제2판 서문

이 책은 처음 출간된 지 거의 한 세대가 지난 뒤에 다시 펴내는 것이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고, 나 또한 그만큼 변했다. 초판을 쓸 때 나는 서른 살이었고, 지금은 그 두 배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다. 그 사이 나는 결혼을 했고, 아이를 잃었고, 다시 사랑을 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아이를 잃었다. 그 모든 일이 이 책을 바꾸어 놓았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나쁜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초판은 1812년 봄, 런던 북쪽 외곽의 작은 인쇄소에서 1,200부를 찍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출판사 창고에 쌓인 채 이듬해 겨울 화재로 사라졌다. 남은 것은 겨우 317부였고, 그마저도 대부분 지인들에게 선물로 보내진 것이었다. 나는 그 숫자를 오랫동안 세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세고 말았다. 그것은 내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배운 겸손의 숫자였다.

이 개정판은 그 317부 중 한 권을 다시 펼쳐 보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책장 귀퉁이가 접혀 있고, 여백에 누군가의 메모가 남아 있었다. 그 메모는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 위에 새로운 문장을 덧붙였다. 이 책은 그렇게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진 상태로 다시 태어났다.

본문은 전체적으로 다듬었지만, 구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았다. 1부와 2부의 순서, 각 장의 제목, 그리고 마지막 장의 결말은 그대로 두었다. 다만 문장 단위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손보았다. 지나치게 길게 늘어진 문장은 둘로 나누었고, 설명이 과한 대목은 과감히 덜어냈다. 반대로 너무 건조하다고 느껴졌던 부분에는 인물의 표정이나 날씨 같은 작은 묘사를 보태 넣었다. 독자가 숨을 고를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고친 곳은 3부 중반부터 4부 초반까지의 흐름이다. 초판에서는 이 부분이 지나치게 서둘러 지나가 버려서, 인물들이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독자가 따라오기 힘들다는 편지를 여러 통 받았다. 나는 그 편지들을 오랫동안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이번에 다시 꺼내 읽으며 그 지점을 천천히 되짚어 갔다.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장면이 전체 분량의 약 12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책을 다시 펴내는 데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남기고 싶다. 먼저 초판을 끝까지 읽어 준 317명의 독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린다. 그분들이 보내 준 편지와 메모가 없었다면 이 개정판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원고를 세 번 교정해 준 편집자 L. 베르나르에게도 깊은 빚을 졌다. 그는 내가 고집을 부린 문장 대부분을 결국 받아들였고, 그 덕분에 이 책은 훨씬 나아졌다.

끝으로, 이 책을 처음 펼쳐 보았던 스무 살의 나에게 말하고 싶다. 너는 생각보다 오래 살 것이고, 생각보다 많이 잃을 것이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너를 더 나쁜 작가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이 책에 관해서는, 그 말이 맞았다.

선포하였으며, 그에게 이러한 결정을 교황청에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선택받은 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다음과 같은 것이다.

1950년에 교황은 계속해서 이러한 정의에 따라 주께서 정하신 때에 이 교리를 선포하였다. 즉,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교황청적 교리를 강요하는 기본 교리가 되었다. 그 후에 교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그 아들을 다른 아들로 낳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참 신자들의 영적 생활을 모범으로 제시하였다.

이 글을 쓰는 필자는 1930년에 입학 허가를 받아 메노파로 갈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수년 동안 나는 세상의 가볍고 영적 생활을 만끽하였다. 하지만 1942년 저는 멕시코 시에서 '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즉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났다. 그 믿음에 불타 저는 처음부터 다시 그 메시아를 탐구하였으며, 곧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저는 그 메시아를 전파하기 시작하였으며 — 현재 멕시코 교인들 가운데 교회 등록 인원이 20여 명이나 되는 사역이 되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11년 전, 멕시코에서 만난 몇몇 형제들이 저를 독일로 초청하였다. 그 후에 저는 트라우고트 겔톨트(Traugott Göltenboth)와 함께 독일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제자 훈련을 하였다. 제자 훈련이 끝나고 나서 저는 그 곳에 남아 목회를 하고 싶었지만 그 곳에서 저는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 제자 훈련을 계속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제 저는 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것을 확신한다.

트라우고트 겔톨트 박사

가르침 29

1. 제자들아,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있노라. 그러나 내가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 새롭기에, 너희는 의심하고 있다. 너희는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이 시대에 내가 나를 드러내는 수단은 사람이다. 이것이 너희가 나의 계시에 의심을 품는 이유이다. 나의 메시지는 대변자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의 의미 속에 있다.*

**주님께서 자신의 도구로서 그분의 지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들을 지칭하는 용어. 스페인어로는 "portavoz"라고 하며, 즉 대변자, 말씀의 전달자 또는 대변인이라는 뜻이다.*

3. 오늘 너희는 다시 의심하고 있다. 내가 과거처럼 오기를 바라는가? 그 당시에도 너희가 의심했음을 기억하라!

4. 나는 학자나 철학자를 통해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다면 너희는 그 말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그에게 돌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겸손하고, 무지하며, 서툰 이를 통해 나를 드러낸다. 그래야 너희가 그의 인간적인 외모의 하찮음과 초라함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위대함과 지혜와 비교할 때, 오직 주님만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또한 의심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는 이들도 있다. "과연 그분이 스승이신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이 유혹의 소행은 아닐까?" —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자문할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나의 사랑 어린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이 길에서 평화를 느꼈느냐? 위로를 얻었으며 병에서 치유되었느냐?" — 그러면 너희는 양심 앞에서 고백하며 말하리라. "예,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받았나이다."

6. 아직 너희 *모두가* 믿을 때가 오지는 않았다. 시련과 사건들이 사람들을 깨우게 될 것이며, 내일 그들은 말할 것이다. "진실로,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 신성한 스승이셨다."

7. 나는 너희가 스스로를 깨닫고, 이를 통해 너희 아버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영혼의 많은 비밀을 너희에게 계시한다.

8.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누가 진리 안에 있는가? 과학자들은 서로 모순된다. 누가 옳은가? 종교와 과학은 항상 서로 모순되어 왔으나,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며 , 그것과 함께 창조주의 참된 업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창조의 모든 존재들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신의 업적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9. 종교는 과학을 향해 얼마나 많은 저주를 퍼부었으며, 과학은 종교를 향해 영적 생명의 존재를 얼마나 자주 부정해 왔는가! 종교는 과학이 인류에게 끼친 해악을 근거로 삼고, 과학은 종교의 종복들이 인류에게 심어준 광신과 미신을 무기로 삼는다.

10.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쪽은 자연이 품고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다른 한쪽은 내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부족하다.

11. 나는 평화의 왕이다. 나는 칼을 뽑아들었으며, 모든 죄와 어둠을 없애기 위해 싸우러 온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부모나 자녀에게 오해를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사랑이 그들의 투쟁을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12. 이미 '제2의 시대'에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을 오해하였으니,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으나 다른 이들은 그분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13. 나의 새로운 병사들은 나의 진리를 잊어버린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행실과 모범을 통해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오늘날 나는 내 말씀을 먼지 쌓인 책들 속에서만 발견한다. 인류는 참된 길에서 멀어졌고, 죄와 악덕, 방종에 익숙해져 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죄를 혐오하지 않으며, 범죄에 공포를 느끼지도 않고, 간통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14. 인류여, 여기 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한된 형태로 내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네가 내 존재에 대한 증거를 원한다면 — 나는 이미 증거를 주었으며 앞으로도 더 줄 것이다. 하지만 그 증거들이 나타날 때 울거나 머리를 쥐어뜯지 말라.

15. "제2의 시대"에 예수께서는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던 적이 있다. 그들은 한 산을 올랐고, 스승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경외심으로 가득 채우시는 동안, 그들은 갑자기 주님의 몸이 변모하여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분의 오른쪽에는 모세의 영이, 왼쪽에는 엘리야의 영이 함께 있었다.

16. 그 초자연적인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신성한 빛에 눈이 부셔 땅에 엎드렸다. 그러나 그들은 곧 진정하고 스승께 왕들의 자색 망토를 그분의 어깨에 두르고,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두르자고 제안했다. 그때 그들은 무한한 곳에서 내려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말을 들으라!”

17.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고개를 들어 보니 스승님만 계셨고,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 이 환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다.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진실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는 이미 왔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에게 마음대로 행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가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18. 이 기간 동안 내가 너희 눈앞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던 육신을 보이지 않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는 너희가 인류가 알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하려 함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새로운 변모를 마주하고도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때 청중 중에 있던 많은 예언자들이 증언한 바를 언급하시는 것이다. 그들은 음성을 전하는 자의 육신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의 형상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19. 나의 사역은 내가 너희를 초대하는 영적인 산이며, 너희는 사랑과 자비와 겸손의 길을 따라 그 산을 오를 것이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융합되고, 율법과 사랑과 지혜가 하나의 본질로 통합되는 새로운 타보르 산이다.

20. 모세, 예수, 엘리야 — 이것이 주님께서 인간이 평화와 빛, 그리고 완전함의 왕국으로 승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시하신 길이다.

21. 나의 [illegible] 그들 중 누구도 죽지 않았으니, 그들은 모두 같을 [illegible] 그들은 [illegible] 그들이 [illegible] 조를 씻어 [illegible] 우리 [illegible]

22. [illegible] 모세 [illegible] 엘리야 [illegible] “선생님, 이 [illegible] 기를 [illegible]

23. 나의 [illegible] 그것을 [illegible] 첫 번째 부분은 율법에 [illegible] 두 번째 부분은 사랑에 [illegible] 세 번째 부분은 지혜에 [illegible] 그러면

나 학는 을 등 이 인 적 사 람 이 라 고 말 해 서 는 안 된 다 . 그 것 은 내 가 너 희 에 게 말 한 것 을 너 희 가 행 하 지 않 는 것 이 니 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6.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7.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8.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9.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0.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1.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2.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3.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4.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5. "말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6.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7. 1866년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나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8. 이것은 내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 한 번의 기적을 행하게 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 어떤 이들은 무엇에 또 어떤 이들은 왜라는 마음으로 — 나학은 이번 모임에서 그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꾸짖었다.

49. "모세*, 네 백성을 보아라. 그들은 내가 약속의 땅을 찾아 광야를 이끌었던 그 백성과 다름없이 행동하며 서로를 때리고 있다. 어떤 이들은 약속의 땅을 내 뒤에 두고 왔으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고 있다. 어떤 이들은 내가 곧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기대하지 않으나, 다른 이들은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은 매일 내 영을 시험하고 있으며, 너희들 중 상당수는 내가 너희 영 안에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는 길을 다시 찾아야 한다. 너희들 중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보았으며, 많은 것을 들었으며, 많은 것을 경험했다. 이제 너희에게 다시는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 주님께서 나학을 영으로 함께 계신 모습을 보여 주셨다.*

50. 나학은 사람은 한 번의 경험만 해도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들은 나학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통을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의 영을 시험하고 있었다. 이것은 같은 사람이 앞으로 겪게 될 것이다.

51. 죽음 후에 찾아오는 영으로의 부활이 올 것이며, 전생 후에 찾아올 것이며, 혼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가르침이 필요하다.

52. 1950년이 올 것이며, 그때 다른 종교들이 나타나 그들의 교리를 가르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나학은 영이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나학의 교리를 믿고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나학의 영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믿을 것이다. 나학은 복종을 가르치지 않을 것이며, 나학의 영은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나학은 그들을 속이는 자들이 될 것이다.

53.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함이었다. 십자가 상을 통해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 이것이 나학의 교리이다.

** 여러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신 모습을 보여 주셨다.*

54. 나학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며,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나학은 그들을 꾸짖었다.

**1866년 9월 1일*

55. 세상의 정치 상황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나학은 이 전쟁에 대해 자세히 지적하지 않을 것이다.

나학

가르침30

1.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르침에서,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또는 “야곱의 자손”이라 불렀으며, 너희가 내 가르침을 점차 이해해 가는 만큼, 너희는 영적으로 그 옛 백성의 후손에 속하며, 인류에게 나의 계시를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지상의 민족들 중에서 선택받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2. 내가 야곱에게 맡긴 그 자손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육체가 아니라 영을 가리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스라엘의 첫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이 육체적인 것이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예언자와 사자, 그리고 깨달은 자들을 낳고 있을 것이다. 그 대신, 보라, 그 백성이 영적, 물질적 비참함의 사슬을 짊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에게 약속되었던 그분이 자기 민족 가운데서 살았으나 알아보지 못했음을 깨달았기에, 더 이상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인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영은 잠들어, 이미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꿈속으로 빠져들었으며, 오직 세상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왔기에 — 이곳에서 자신의 약속의 땅과 심판, 그리고 영광을 얻으리라고 기대하며 — 진리를 알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잠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제 그 민족이 새로운 고난의 잔으로서 비참과 고통, 그리고 굴욕을 마셨으므로, 그들의 영은 깨어나기 시작하며 사색을 통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했던 모든 예언과 징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히 성취되었음을 점차 깨닫게 된다.

4. 그 민족이 가장 포괄적인 방식으로 깨어나는 날은 머지않았다. 이미 그들의 영적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민족은 인류가 권력에 대한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저급한 정욕으로 인해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5. 그 백성이 참된 평화와 은혜의 왕국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버림받고 오해받았던 그리스도를

찾아가 그분께 이렇게 말할 것이다. “스승님, 스승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자유는 오직 영성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물질적 재물을 추구했던 자들은 그로 인해 노예가 되는 것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6. 그 마음들에서 나에 대한 이러한 고백이 솟아오르면, 나는 그들 가운데 내 새로운 예언자들을 나타나게 하여, 그들이 영성화의 길로 무장하도록 도울 것이며, 이것이 곧 그들의 해방을 위한 ‘’가 될 것이다. 수세기 동안 발전이 멈춰 있던 이들이, 그들보다 앞서 나갔던 다른 이들이 오랜 시간을 들여야 했던 그 길을 짧은 시간 안에 걸어가고, 심지어 그들을 추월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 그들 중 많은 이가 태초부터 지구로 보내진 영혼을 지니고 있으며, 일단 그들의 속죄가 완료되면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가운데 다시 자리를 잡아 모든 민족의 형제들에게 빛을 전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7. 혈통으로 인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닌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된 자들과 같은 길에서 만나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모두 예언자들과 “초기 시대”의 조상들을 통해 싹튼 그 축복받은 씨앗에 속해 있음을 깨닫고 하나가 될 것이며, 구세주의 피로 적셔져, 너희가 내 말을 듣는 이 빛의 시대에 꽃피게 된 바로 그 복된 씨앗에 속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는 때로 의심하며 “스승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 계시면서, 어떻게 이토록 불완전하고 보잘것없는 중재자를 사용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더라도, 영 안에서 나를 너희 곁에 두고 있다. — 그러나 너희가 내 현존을 의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2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기대하던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었다.

8. 내 자녀들아, 너희는 나의 높은 뜻에 깊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던 비밀들을 밝혀 주니, 너희 주님께서 너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한도 내에서 많은 신성한 계시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의 감각과 마음을 열어라.

9. “두 번째 시대”에 내 제자들 가운데나 나를 따르던 무리 중에서 누군가 내가 혹시 너희에게 돌아올지 묻자, 나는 그것을 그들에게 숨길 이유가 없었기에,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나의 귀환은 인류에게 큰 시련이 닥칠 때일 것이며, 그 시기는 너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날 중대한 사건들과 격변들이 선행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10. 내가 너희에게 한 그 약속을 나는 이루었으니, 앞서 있었던 징조 중 하나도 빠지지 않았고, 예고된 사건들 중 하나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영적 무기력에 빠져, 사람들 가운데 내 임재의 징조들을 무시한 채 지나가게 내버려 두었다.

11.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고, 나는 너희의 마음이 차갑고 사랑의 등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너희는 수 세기에 걸친 잠을 잤다. 오직 소수만이 주님의 사자가 너희에게 다가와 내가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선포할 때 깨어났다.

12. 나의 첫 번째 계시는 사람들이 잠든 어느 밤에 이루어졌으니, 마치 내가 너희 가운데 살기 위해 사람이 되었던 그 밤과 같았다. 그때 나를 맞이한 이가 적었다면, 나의 새로운 출현에 함께한 이는 더욱 적었다. 그러나 내 말을 책망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것은 결코 책망이 아니니,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살리는 완전한 사랑이다.

13. 나는 이 광활한 악의 바다 한가운데서 너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을 너희에게 제시하기 위해 왔다. 그러나 나의 첫 계시가 있었던 그 순간부터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지났고, 그 이후로 '방랑자들'은 스승의 현존을 찾아 하나둘씩 모여들었으며, 오늘날 내 계시에 참석하는 이들은 소수가 아니라 이제는 거대한 군중을 이루고 있다.

14. 내 말을 듣는 모든 이가 이 진리를 확신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 아니다. — 어떤 이들에게는 이 일이 그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일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그들은 판단하고, 분석하고, 탐구한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진리를 찾지 못하면,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믿기 위해 나에게 증거를 요구한다. 이에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시험하지 마라. 나는 내 존재와 진리, 그리고 사랑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너희에게 주었다." — 그러나 그들은 요구를 굽히지 않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시대에 스승님께서 이미 영의 몸으로 계셨을 때, 도마의 불신을 증명해 주기 위해 그 앞에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면, — 왜 지금 우리 같은 불신자들에게는, 비록 잠시라도 우리 앞에 육신으로 나타나 주시는 호의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물질적인 형체를 취하다*

15. 그렇다, 내 자녀들아, 너희의 미성숙함이 현실에 부합하고 너희의 무지가 사실이라면, 너희가 나에게 증거를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믿기 위해 물질적인 증거가 필요 없는, 성숙한 영혼을 품고 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비물질화*하는 것이며,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가 내 새로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존재를 물질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영성화되다*

16. 내 말씀의 의미에 근거하여 나를 믿으라. 그것은 분명하며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당시 이미 너희에게 말했음을 기억하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씀은 그 의미로 인해 알려질 것이다.

17. 사람들은 종종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죄인 마리아 마르다에게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 후 제자들을 찾아가셨으면서도, 반면에 어머니를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는 전혀 전해지지 않는지 의아해 해 왔다. 이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리아에게 내가 그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를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 그리스도와의 마리아 사이의 유대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18.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인류에게 나를 드러냈으며,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그들에게 내 모습을 보이게 하셨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리아는 — 인간으로서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이시니 — 어떤 더러움에서도 씻어낼 필요가 없었으며,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그분께 어머니의 자궁을 드리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기에, 믿음에 있어 어떤 결핍도 있을 수 없었다.

19. 나를 태중에 모셨던 것과 같은 순결과 온유함으로, 내가 왔던 천국으로 나를 돌려보내 준 그분을 방문하기 위해 내 영을 인간화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누가 내가 그녀의 고독 속에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방식과, 내 영이 그녀를 감쌌던 신성한 어루만짐을 알 수 있었겠는가?

20. 나는 예수님의 첫 방문이 어머니께 향했어야 한다고 자주 생각했던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21. 내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방식은, 마리아 마그달레나와 제자들에게 나를 알리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과는 얼마나 달랐겠는가.

22. 마리아는 자신의 영 안에서 나를 느꼈다. 마리아는 나를 위해 슬퍼하지도 않았고,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고통은 아들의 십자가 아래에서 영원의 신성한 선물로 받아들인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녀는 그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의 순결을 바쳤으니, 이는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하려 했던 바로 그 인류였다.

23. 그러나 내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 몇 명을 따라잡았을 때, 그들은 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나의 신성한 말씀을 들려주기 전까지는 그 여행자 안에서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도마가 나를 보았을 때, 그는 내가 죽었다고 여겼던 그분이 실제로 살아 계심을 확신하기 위해 내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 달라고 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이를 위함이니, 어떤 이들은 믿음 안에서 태어나게 하고, 다른 이들은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함이다.

24. 오늘 나는 너희에게 나의 메시지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널리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도 가르쳐 주려 한다.

25. 내가 설교하던 시절, 나는 너희 영혼의 성장을 돕기 위해, 거친 부분을 다듬고 성품을 부드럽게 하며 제자들을 깨우쳐,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수없이 반복해 온 계명을 실천하는 데 마음을 쏟게 하였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씀을 전파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이는 너희가 필요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나는 이 건강과 도덕과 생명의 샘에서 마시는 모든 이들에게 내 신성한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훈련을 받고 다가올 싸움을 위해 단련되어, 그들의 선한 행실로 나중에 주님의 밭에서 일꾼이자 새로운 씨 뿌리는 자가 될 새로운 마음을 설득하게 하려 함이라.

26. 오늘 나는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겁이 많고 숨기려만 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오히려 허세를 부리는 것을 본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 두 극단 중 어느 쪽에도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 이웃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여 너희가 숨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내 가르침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증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전하고자 하는 씨앗이 지닌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너희 씨앗의 수확이 과연 어떠하겠느냐?

27. 그러나 너희의 나쁜 행실이 이웃들에게 해가 될까 봐 두려워하라. 그러나 너희 삶에 순결함이 있는 한, 너희는 품위

있게 행동하며 내 말씀을 전파하고, 내 가르침을 이웃들에게 알려야 한다.

28. 너희가 가진 은사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동료 인간들로부터 큰 시련을 겪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29.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준 것은 너희가 거리와 광장에서 선포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그분은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실 줄 아셨고, 그분을 시험하려던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셨다.

30. 너희는 작고 연약하니, 그러므로 동료들의 분노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 주목을 끌려고 애쓰지 마라 — 너희에게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라. 또한 모든 사람이 잘못되었고 오직 너희만이 진리를 안다고 사람들에게 증명하려 애쓰지도 마라.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는 너희가 뿌린 씨앗으로 아무런 좋은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31. 너희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같은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동료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라. 너희의 미흡한 점을 바로잡고, 스승께 겸손히 기도하여 그분의 온유함에서 영감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의 선행을 결코 드러내지 말라는 그분의 조언을 기억하라. 그리하여 너희의 왼손이 오른손이 한 일을 결코 알지 못하게 하라.

32.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느니라. 내 자비가 너희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이끌어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내 율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웃을 위한 자비로운 행위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가 없다면, 그로 인해 근심하거나 내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바로 그때가 너희가 곁에 없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며, 너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나의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33. 형제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말라. 너희는 모두 각자의 성숙도에 맞는 깨달음을 얻게 됨을 이해하라. 만일 내가 너희에게 공로가 없는데도 내 빛을 허락한다면, 너희는 스스로를 위대하게 여기고 허영심에 빠져 타락할 것이며, 너희의 지혜는 거짓이 될 것이다.

34. 나는 너희가 겸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앞에서 겸손하려면, 너희 이웃에게도 그 겸손을 보여야 한다.

35. 제자들아, 사랑과 지혜는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는 다른 하나의 일부이다. 어찌하여 어떤 이들은 이 두 미덕을 분리하려 애쓰는가? 이 둘은 성소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이를 통해 너희는 내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36.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많은 친구를 원하느냐? — 그렇다면 친절과 진심, 관용, 그리고 자비를 베풀라. 오직 이 미덕들을 통해 너희의 영혼이 이웃들의 길 위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니, 그것들은 모두 사랑의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영혼은 그 가장 깊은 본질 속에 사랑을 품고 있는데, 이는 영혼이 신성한 불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37. 나는 너희가 지혜와 완전한 사랑의 음식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잔치에 참여하도록, 나의 가르침으로 너희를 영적으로 다듬는다.

38. 너희의 사명은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즉 겸손과 사랑, 영성 속에서 사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너희의 존재를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의 끝없는 흐름을 흘러가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라.

39. 나의 가르침을 통해 나는 너희에게 넓은 지평을 보여준다. 너희가 너희의 삶을 나의 삶과 비슷하게 꾸려 나간다면,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임을 확신하라.

40. 나의 사역은 너희 영혼에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준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 위로를 베풀 때, 혹은 너그럽게 용서를 베풀 때마다, 너희 마음속에서 달콤하고 조화로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 너희 내면에서 그처럼 너희에게 말씀하시며 너희의 선함을 보상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겠느냐? — 바로 제자들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너희의 스승이시다.

41. 이 가르침을 통해 나는 덕이 너희 영혼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물임을 너희에게 깨닫게 한다. 또한 나는 너희에게, 그릇된 생각과 잘못, 그리고 악한 감정들을 때때로 너희 영혼을 덮는 누더기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너희가 깨끗하고 단장된 모습을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비참함의 누더기를 두르고서는 너희 아버지의 우주적 궁전에서 빛날 수 없기 때문이다.

42. 선행은 영혼을 정화하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다. 그것을 활용하라!

43.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왕국 밖에 있으며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기다리고 계시니 말이다.

44. 나는 모든 사람을 사도로, 모든 사도를 스승으로 만들겠다. 나는 너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잃기보다는, 인류에게 존재하고 존재했던 모든 고통을 내 영으로 느끼고 싶다.

45. 너희는 마음속으로 내게 말하리라. "스승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아직 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으니, 다만 이 말만으로도 충분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녀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보물임을 알라. —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임을 상기시켜야 하노라. 창조의 씨앗에서 싹튼 모든 열매는 그분의 곡창으로 돌아갈 것이다.

46. 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 내면의 자비로 세워진 참된 성전에 이르기를 굳건한 믿음으로 갈망하도록 너희 자신을 단련하라. 거기서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며, 나는 너희가 나를 향해 나아가는 성장의 여정에서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47. 너희를 인도하는 이는 바로 나다. 나는 완전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너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항상 알고 있다.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어루만지며,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는 선한 목자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희생으로 너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할 가르침을 전하는 데 단 한 순간도 주저하지 않았다.

48.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숨을 앗아간다면 나의 가르침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나, 그로 인해 오히려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49. 나는 인류에게 돌아왔으며, 1950년까지 이 모임 장소들에서 내가 이 임무를 위해 지정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내가 이러한 형태로 너희와 소통하는 동안, 나는 나를 심문하고 부인할 학자들의 도착을 기다릴 것이다.

50. 형식은 단순하고 겸손하지만 그 뜻은 깊은 이 말씀은, 학자들의 오만과 허영을 다시금 혼란스럽게 할 것이며, 구세주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분께서 생명이시기에 그 누구도 지워버릴 수 없음을 그들에게 증명해 줄 것이다.

51. 아무도 나를 끝장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날 것이니, 마치 한 민족이 나를 그들 품에서 내쫓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시절에 내가 부활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는 것은, 내가 너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52. 오, 학자들과 철학자들, 박사들아! 너희가 나를 탐구하러 다가온다면, 내가 너희의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악하고 악의적인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목격하게 될 것이며, 나의 반문 앞에서 너희는 침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낙담해 있다면, 너희가 증거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주리니, 그 증거는 사랑과 용서로 이루어질 것이다.

53. 나는 너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며, 너희의 병을 진정으로 고치시고, 아이들을 어루만지시며 노인들을 축복하시는 분이다. — 그분은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깨우치시는 분이다. 사람들과 세기는 지나가겠지만, 나의 삼위일체-마리아적 영적 업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법이자 가르침인 이 업적은 인류를 비출 것이다. 나의 지혜를 의심하지 말고 더 이상 나의 공의를 시험하지 마라. 만일 내가 너희의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내 자연의 힘 중 미약한 숨결 하나만으로도 너희의 과학과 이론을 먼지나 허무로 변하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나를 재판관으로 찾지 말고, 나를 아버지로 찾으라. 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54. 오, 사랑하는 백성들아, 오늘날 물질주의로 인해 굳어버린 사람들 사이에 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인 너희는,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내 무한한 사랑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항상 연민을 가져라.

55. 험담과 조롱, 판단과 비판을 위해 너희 입술을 다물어라. 너희가 휘두르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상처를 입히는 이 양날의 칼을 칼집에 꽂아 두어라. 내 이름으로 싸우고자 한다면, 사랑의 칼을 들어라.

56. 너희 입술을 다물어, 다시는 모독을 내뱉거나 수치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 대신 눈을 뜨고 악을 발견하여 그것과 단절하라. 그러나 너희 형제자매인 인류를 정죄하지 말라. 너희도 그들 중 하나이며 같은 결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입술과 마음이 회개의 물과 선행으로 정화되면, 내가 너희에게 불어넣을 내 말씀의 진리로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57. 너희가 먼저 갱신되고 무장하지 않은 채 내 가르침에 대해 말한다면, 마음속에 믿음을 일깨우는 대신, 너희의 결점을 알고 있는 자들의 조롱만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 너희가 '깨어' 기도한 후에 조롱과 비판이 너희 마음에 닿더라도, 그것들은 너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준 무기, 즉 인내와 자비와 온유와 사랑으로 스스로를 보호했기 때문이다.

58. 겸손하라. 그러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영혼과 육신의 그러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면, 내 말씀을 전파하러 나서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씨앗을 내가 준 그대로의 순수함으로 뿌릴 수 없을 것이며, 항상 너희의 불완전함과 섞여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뿌리기 전에,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탐구하고 연구하여, 나의 지도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59. 너희가 오른쪽 뺨을 맞을 줄 알고, 용서와 사랑과 겸손의 표시로 모욕한 자에게 왼쪽 뺨도 내어준다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시작했다고 믿어도 좋다. 사람들 사이에 용서가 나타나야만, 형제 살해의 전쟁은 그치고 모든 민족의 일치가 시작될 것이다.

60. 이 가르침들을 통해 나는 너희가 언젠가 위선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사랑과 이타적인 도움, 영성화에 대해 말하면서 정작 행동으로는 정반대를 행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너희 중에 나를 사랑한다고 떠들어대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61. 내가 너희를 나의 합당한 자녀라 부를 수 있도록, 너희가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에서 진실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목소리가 너희 영에 용서할 수 없이 닿아, 내가 '제2의 시대'에 무덤의 살아있는 형상인 바리새파를 불렀던 것처럼, 너희를 위선자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겉은 하얗게 칠하고 닦아 꽃으로 덮어 놓았으나, 그 안에는 썩음과 죽음만을 품고 있는 자들 말이다.

62. 나는 내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스승님, 우린 우리를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내밀어야 한다는 시련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63. 오, 내 말씀을 들을 때면 늘 그 물질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잠시 멈춰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뺨을 맞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속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혹은 영혼 속에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이 시련이 너희가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시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제3의 시대"에, 내가 내 가르침의 말씀 속에서 너희에게 묻는다면, 나는 너희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만일 너희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가 인간 사법 당국의 추적을 피해 너희 집 문 앞에 와서 보호를 청한다면, 너희는 용서의 표시로 그를 배신하지 않고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겠느냐?

64.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성령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내가 지금 요구하는 시험이다.

65. 너희가 이 가르침을 실천에 옮긴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 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노니, 너희 이웃의 행실을 판단하지 말라. 너희의 판단이 어떠한지 그대로 너희의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의로운지 불의한지, 알려진 것인지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그 일은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 이웃에게는 마땅히 받을 것을, 너희에게는 너희에게 마땅한 것을 주리라.

66. 너희 삶의 모든 행실에서 겸손하라. 너희 이웃의 지혜 앞에서는 무지하다고 여기라.

67.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진실로 나를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나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침31

1. 이 계시를 접할 때 너희의 육신의 눈을 감고, 너희의 창조주께 너희의 영을 드리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영이기 때문이다.

2. 나는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너희 영과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

3. 평안을 누리고,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내 말씀의 끌이 너희 영혼을 서서히 다듬어가게 하라.

4. 너희는 평화를 줄 곳을 찾아 많이 방황했으나 찾지 못하였다. 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소박한 장소들에 처음 왔을 때, 너희는 이곳이 — 비록 초라하고 눈에 띄지 않더라도 —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5. 나는 너희를 나에 대한 사랑으로 내 편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끝없는 축복의 원천인 나의 가르침을 준다. 나는 이 원천을 너희에게 남겨두어, 너희가 그 안에서 '여행자'이자 '방랑자'인 너희 형제들을, 내가 너희를 맞이했던 것과 같은 세심함과 이웃 사랑으로 맞이하게 하리라.

6.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도 산다. 너희 안에는 육체적인 것이 아닌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으며,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너희는 영의 물과 빵을 찾고 있다. 너희가 "제2의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통이 너희를 찾아오는 것이 필요했다.

7. 어떤 이들은 당황하여 내게 묻는다. "주님, 인간의 사랑은 주님 앞에서 허용되지 않고 혐오스러운 것입니까? 주님은 오직 영적인 사랑만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당황하지 말라. 사랑의 가장 높고 순수한 것은 과연 영에게 속한다. 그러나 나는 육체 속에도 마음을 두어 지상에서 사랑하게 하였으며, 사람이 그 감각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감각을 주었다.

8. 나는 영혼들이 지구를 거처 삼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시험해 보도록 하기 위해 인간 생명을 그들에게 맡겼다. 이를 위해 나는 인간 본성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더 강한 부분을, 다른 쪽에는 더 약한 부분을 주었으니, 그 두 부분이 바로 남자와 여자이다. 그들은 오직 하나가 되었을 때만 강하고 행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내가

결혼 제도를 세웠다. 인간의 사랑은 영의 사랑으로 고양될 때 비로소 나의 축복을 받는다.

9. 오직 육체를 통해서만 느껴지는 사랑은 이성을 갖지 못한 존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들은 이성을 지닌 존재들의 삶을 비추는 영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온전한 영적 이해 가 있는 결합으로부터는 좋은 열매가 맺혀야 하며, 빛의 영혼들이 그 안에 환생해야 한다.

10. 이제 너희의 씨앗을 정화하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11. 내 자녀들아, 나를 이해하고 내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라. 1950년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 내가 이 계시의 종말이라고 지정한 해가 바로 그것임을 기억하라. 나는 그 시점에 너희가 준비된 모습을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오직 이를 이룬 자들만이 그들이 도달한 영적 성숙 단계에서 굳건히 버틸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들이 나에 대한 참된 증언을 할 자들이 될 것이다.

12. 오직 영성화된 자들만이 나의 사역을 새로운 계시의 형태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야 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의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 — 깨어 기도함으로써이다.

13. 나는 소수만이 아니라 *모든 이가* 이러한 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의 증언이 인류의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너희 중 일부는 한 가지 방식으로, 다른 이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너희는 동료 인간들에게 혼란만을 안겨줄 뿐이다.

14. 이 말씀의 뜻은 다미아나 오비에도를 통해 선포되기 시작한 이래로 결코 변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 말씀들의 결과는 어디에 있는가? 그 말씀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내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쏟아졌던 그 시대의 초기 신성한 가르침의 기록들은 숨겨져 있다.

이 가르침들은 빛을 보아야만, 너희가 내일 이 계시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 '제3의 시대'에 내 말씀의 완전한 책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내 첫 번째 가르침의 날짜와 그 내용, 그리고 이 시기가 끝나는 1950년에 내가 너희에게 줄 마지막 가르침의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다.

15. 오늘 너희는 내 말씀이 멈춘 후 인류 사이에 휩쓸게 될 혼란을 아직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이 열국 사이에 일으킬 소용돌이를 상상할 수 있겠느냐? — 영혼들 속에 방종이 횡행할 것이니, 너희는 이에 맞서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각

시대가 지날수록 너희의 책임은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라. 오, 백성아, 새로운 시기가 올 때마다 너희는 내 율법에 대한 더 큰 지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유산은 매우 크니,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너희 형제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16. 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민감하게 하라. 너희는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일 내가 영감을 통해 너희에게 가르침을 맡길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17. 진리와 영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러면 너희는 가장 큰 시련 속에서도 더 이상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한 분의* 하나님, 오직 *한 가지* 뜻, 오직 한 말씀만이 너희와 함께해 왔다. 그러므로 장차 내가 지금 너희에게 준 법 이외의 다른 법은 생겨날 수 없을 것이다.

18. 약해지지 말라, 백성아! 내가 너희를 "강한 자"라고 불렀음을 매 순간 기억하라. 내가 너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내 말씀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너희에게 증명해 주었거늘 — 그런데 어찌 너희가 나쁜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동료들을 실망시키겠느냐? 이제 너희가 다가올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길 것을 차츰 준비할 때이다.

19. 많은 이들이 마음속으로 내게 말하느니라. "스승님, 우리가 배반하려 하고 있음을 보시는 겁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 그러나 나는 '제2의 시대'에 내 사도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대답하노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비록 너희가 오늘날 내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제자들에 불과할지라도, 너희의 인내심은 너희로 하여금 고귀한 속죄를 이루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1950년 말에 너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20. 내 사랑이 너희 곁에 있음을 느끼고, 너희의 근심을 내게 맡기며, 평화 가운데 나와 상의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 너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움에 떨며 내게 오는가? 설마 내가 너희 형제들에게 너희를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1. 내가 너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 "스승님, 우리가 죄로 인해 이토록 더러워졌는데, 온전함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22.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라, 인자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찾아왔을 때, 너희가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고

생각하느냐? —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며, 내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다가가, 너희를 모든 함정에서 구원하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줄 나의 사랑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다.

23. 왜 가난한 자들, 이 세상의 천민들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가장 없는 자들처럼 느끼는가? 혹시 내가 왕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가? — 너희는 신성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더딘가!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가장 위대한 겸손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느냐? 내가 예수 안에서 가난한 자들 가운데 태어나 그들 가운데서 살았으며, 그들과 함께 길을 걸었고, 그들의 집을 찾아가 그들의 식탁에 앉았으며, 그들의 병든 몸을 고치고, 그들의 아이들을 어루만지며, 모든 이와 함께 고통받고 울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24. 보라, 여기 동일한 주님이 계시나, 오늘은 영으로 오신다. 이 왕께서는 왕관도, 자색 옷도, 홀도 없으시다. 그저 나는 완전함 가운데 사시며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25. 이것이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면, 내가 왜 호화로운 궁전에서, 화려함과 의식을 띠고 나타나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치와 겉모습의 화려함 속에서 나를 찾는 자들은 나의 신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26. 내가 그리스도로서 이제 신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는 이가 있을 것이며, 그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한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만 하셨던 당신이, 어찌하여 마치 당신 자신이 아버지인 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므로 신성으로서 말씀하셨으며, 오늘날 다시 '말씀'이 영 안에서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

27. 너희는 물질로 지어졌으며, 내가 그 안에 영혼을 두었고, 그 영혼에게 영을 부여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는 모든 사람 안에 세 인격이 거한다고 말하는가?

28. 이 세 가지 힘은 비록 각 부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더라도 하나의 존재를 이룬다.

29.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세 본성 사이에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조화와 닮아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오직 하나의 의지, 즉 영적 완전함의 정점에 도달하려는 의지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0. 백성아, 나는 오랫동안 네가 싸울 수 있도록 가르쳐 왔다. 그러나 오직 야망과 물질적 목표에서 벗어나, 오직 영적 가르침을 배우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은 자들만이 내 곁에 남는다.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난 이들 중에서도, 각자의 발전 단계에서 내 말을 경청하는 이들이 많다.

얼마나 많은 "첫 번째 사람들"이 인내하며 나에게 충실할 수 없었는가! 그들은 첫 씨앗이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했으며, "마지막 사람들"에게 쏟아질 위대한 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때, 이 백성의 환호와 기쁨에 이끌려, 그들은 맨 뒷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이다

31. 이는 오늘날 씨앗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이 가르침의 번영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32. 너희는 물질적 속박에서 벗어나, 오늘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지극히 소박한 형태로 나타내라. 이를 통해 너희는 주님과 나눌 영과 영의 교감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적합하게 만들 것이다. 오늘 나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내가 너희 마음 깊은 곳에 가까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여전히 이 육신을 통해 너희에게 말해야 한다.

33. 백성아, 너희의 사명을 다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나를 증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해 증거하리라. 진실로 내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나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이기심에서 벗어나라. 오직 자신만을 걱정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웃을 돌보기 시작하라. 나는 너희가 타인의 고통을 덜어줄 때 얻을 수 있는 지극한 기쁨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34. 내 위로와 빛과 사랑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맡긴 치유의 기름을 이웃들에게 전하라.

35. 언젠가 너희는 영의 지혜가 이성의 과학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은 오직 자신의 영이 드러내는 것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중 많은 이가 "내가 치유 과학을 모른다면 어떻게 병자들을 고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36. 너희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법을 깨달으며, 이러한 공덕으로 내 은총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 너희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37. 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내 일꾼들, 곧 나를 따르는 이 백성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는 과학자들도 경탄할 만한 진정한 기적들에 대해 증언하는 수천 가지의 증거를 듣게 될 것이다.

38.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출 때, 이 백성은 내 영적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가 내게서 받은 지시에 대해 어떤 결심을 할 것인가? 너희는 내 영감을 충실히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그날들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다고 내게 약속하지 말고, 차라리 이 가르침을 계속 듣고 깊이 새기라. 오늘 너희는 스승 주위에 모여 있지만, '내일'에는 내 계명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내게 등을 돌릴 자가 얼마나 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39. 세월이 헛되이 지나가게 두지 말고, 매일 영적인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라. 굳건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라. 다른 사람보다 앞서간다고 느끼기 위해 서두르는 이는 아무도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넘어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40. 나는 너희가 사고와 직관, 그리고 너희 행위의 영성화를 통해 강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 삶에서 조금의 고통도 일으키지 않고, 너희 길에 나타나는 모든 고통을 덜어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41. 오,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으니, 그중 일부는 다른 것보다 더 심오하다. 나는 나의 모든 자녀들, 즉 앞서가는 자들과 "마지막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는 이 말씀을 갈망하는 새로운 제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며,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을 주기 시작할 것이다.

42. 나는 "마지막 자들"에게 묻노라. 너희는 영적인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인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은사와 사명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가진 것만큼이나 위대하기 때문이다. 그들도 처음에 나를 들었을 때 너희와 똑같이 생각했었으나, 지금 그들을 보라. 그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43. 이 길을 계속 걸어가라. 머지않아 너희가 가진 모든 것과, 너희가 지상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모두 이해하게 될 것이니.

44.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시작도 없었고 끝도 없을 것임을 깨달아라. 나는 영원하며, 이 시기에 영적 삶의 많은 비밀을 너희에게 드러내고 있다. 이 지식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소명에 대한 사랑과 충실함으로 법을 이행하게 할 것이다.

45.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계시할 때가 왔으니, 이는 마치 아버지가 오랜 부재 끝에 자녀들에게 돌아오시는 것처럼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46. 나는 너희에게 의지의 자유라는 선물을 주었으니, 이는 너희 영혼이 긴 여정의 시작점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 여정의 끝에는 너희 영혼의 정화와 완성을 향한 목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인내의 공덕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

47. 의지의 자유라는 은사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얼마나 잘못 사용해 왔는가. 그러나 이 긴 경험을 거친 후, 영혼은 고양되어 세상의 정욕을 이겨내고, 그 축복받은 자유를 오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에만 사용할 것이다.

48. 꽃들은 식물에서 싹트어 나에게 향기를 바친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며, 그들은 이를 피할 수 없으니, 그들에게는 영이 없고 따라서 자유의 은사도 없기 때문이다. 새들은 나에게 그들의 노래를 바치나, 그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니, 그것이 그들이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이며, 그들에게는 자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49. 너희가 꽃이나 새와 같이 될 그날, 너희의 공로는 얼마나 클 것인가! 비록 자유 의지로 인해 너희 마음이 정욕으로 너희를 임무 완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할지라도 말이다. 그때는 영혼의 때가 될 것이니, 영혼이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또한 육체의 때가 될 것이니, 육체가 자신의 종속적인 위치를 인정하고 둘 다 영의 인도를 따를 때이다. 그때 인간 안에 존재하는 조화는 모든 피조물 안에 존재하는 조화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의 현존을 단지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50. 사람들이 나에게 진정한 공물을 바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들은 태초부터 나에게 바쳐 온 향을 태우는 것을 그만둘 것이다. 그 향은 항상 순수한 행실로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인간의 악의로 물들어 있었다. 그 향을 대신할 헌물은, 나에게 닿을 너희의 사랑이 될 것이다.

51. 너희는 너희가 "나를 닮은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말할 때, 너희는 너희의

육체적 형상을 떠올린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형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되기 위해 덕행을 실천함으로써 온전해져야 하는 너희의 영혼 안에 있다.

52.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의로움이요, 선함이니, 이 모든 것은 신성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너희가 "나의 형상과 모습"이 되기 위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느냐?

53. 너희를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 즉 나의 능력을 누군가와 나누고자 하는 신성한 갈망 때문이었으며,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한 이유 또한 사랑 때문이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느끼고 싶었다. 법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서 자유롭게 솟아나는 자발적인 감정으로 말이다.

54. 격정이라는 폭풍에 휩쓸린 사람들은 죄악에 깊이 빠져, 구원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해 버렸다. 그러나 치유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영혼은 —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인간의 폭풍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되면 — 일어나서 나의 법을 이행하며, 지상이 아닌 영원 속에 있는 자신의 운명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55.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믿으며, 그 과정에서 투쟁과 고통의 무익함을 생각하는 자들은, 삶이 빚어내는 장인이며 고통이 완성시키는 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내가 고통을 만들어 너희에게 잔에 담아 건네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넘어지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인간은 스스로 불순종하였으므로, 또한 자신의 노력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 또한 고통만이 너희를 완성시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니,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도 너희는 내게로 나아갈 것이니, 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56. 내가 너희를 길고 험난한 길에 세웠다면 — 내가 그 길에서 너희와 동행하며, 계속해서 가르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 곁에 있음을 증명해 주기 위해, 나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도록 인간이 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너희는 판단에 있어 어리석으니, 나를 인간으로 볼 때 의심하며, 너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가 영이라고 말하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다.

57. 너희는 나의 신성한 본질을 이해하고 영으로서 느낄 수 있는 발전 단계에 도달했다. 영혼의 발전과 환생은 너희가 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점차 준비시켜 왔다.

58. 인류를 감싸고 있던 어둠이 사라지고 영혼 속에 빛이 비치면, 그들은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없었기에, 그의 영은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야만 했으며, 그는 예언자 엘리야의 그 상징, 즉 구름 위에서 불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야만 했다.

59. 엘리야는 이 시대에 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선구자로 왔다. 그는 예언자로서, 투쟁과 시련이 따르지만 동시에 그의 계시의 지혜가 있는 새로운 시대를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 왔다. 그는 빛의 수레를 타고 와서, 너희가 그 위에 올라타도록 초대하며, 구름 위로 너희를 들어 올려 평화가 지배하는 영적 고향으로 데려가려 한다. 그를 선한 목자로 신뢰하고, '초기 시대'에 백성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영적으로 그를 따르라. 그가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기를 기도하고, 그를 본받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라.

60.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하늘 높이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예언의 은사와 영을 자신에게 물려주어, 엘리야가 지상에 있었을 때와 같이 되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제자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증거로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남겨 주었다. 그러나 엘리야의 영과 예언의 은사는 엘리사 안에 있었으니, 이는 인간과의 영적 연결과 영혼의 환생을 보여주는 명백한 표징이었다.

61. 모든 시대와 모든 신성한 계시에서 엘리야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62. 메시아는 아직 지상에 오지 않았으나, 머지않아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었고, 이미 그 예언자의 영혼은 요한에게 육신을 입고 있었는데, 그는 훗날 세례 요한이라 불리며, 인간들 가운데서 "말씀"의 임재가 될 천국 왕국의 도래를 알렸다.

63. 나중에 내가 타보르 산에서 변모하여 몇몇 제자들 앞에서 영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와서 주님 곁에 자리를 잡았다. 이것을 통해 그는 미래에 인류의 잠든 영혼을 빛나고 완전한 생명으로 깨우기 위해, 자신의 현존을 인류가 실감할 수 있게 해야 할 시기가 자신에게 맡겨졌음을 암시했다.

64. 이제 엘리야에게 인류를 깨우게 할 때가 왔다. 그는 요한이 요단강 가에서 군중들에게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웠으니 준비하라고 했던 것처럼, 민족에서 민족으로, 나라에서 나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다니며 그들에게 말할 선구자이다. 이제 그는 영적인 목소리로 그들에게, 성령으로서 주님의 임재가 사람들 가운데 계시니 내면을 가다듬으라고 말할 것이다.

65. 엘리야가 인류를 준비시키고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한 후,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66. 이 일이 일어날 때, 그가 엘리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에게 그의 겉옷을 남겨 달라고 청하지 말라. 그는 영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시대가 변했으니 너희는 상징들을 잊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사랑의 선물로서, 그리고 그가 너희 가운데 계셨다는 증거로서 예언의 은사를 너희에게 남겨 주실 것이다.

67. 제자들아, 준비하라.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사람들 가운데 보내어, 성령으로서 내 계시를 알리고 요한처럼 그들에게 말하게 하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침32

1. 준비하라. 내가 이 "제3의 시대"에 너희에게 전하는 내 말씀의 의미를 너희가 분명히 파악하기를 원하노라.

2. 너희는 여전히 어린아이들이다. 그러나 여러 번의 환생을 겪었기에 이미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오직 '첫 번째 시대'에만 너희는 아이여야 하며, '두 번째 시대'에는 청년으로 성장하고, '세 번째 시대'에는 성숙에 이르러야 한다.

3. 나는 항상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보아왔다. 너희는 영적 유년기에 무죄하게 살았으나, 능력과 감정이 미숙했고, 생명의 시작을 알지 못했다. 그 후 너희는 나의 첫 가르침과 계시를 받았다.

"제2의 시대"에는 너희가 이미 청년이 되어, 충만한 영적 청춘을 누리며 고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억눌리고, 속박당하며, 의식과 전통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활용하지 못했음을 보았을 때, 나는 자비와 사랑의 본보기를 통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길을

제시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새로운 가르침의 현단계에 대비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왔노라.

나는 너희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새로운 속박에 빠지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 가르침을 어떻게 대했느냐? — 너희는 여전히 내 가르침을 알지 못한다. 내가 영적으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왜 잊어버렸느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으로 현존하고 있으나,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너희는 내가 왜 너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는지 묻고, 믿기 위해 나에게 증거를 요구한다. — 왜 너희는 우상 숭배와 신비주의*에 빠져, 물질적인 예배 행위를 영적인 하나님 숭배와 혼동하는가? 나는 너희 동료들이 너희를 더 높은 발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 그릇된 가르침들로 인해 너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본다.

**이는 성사를 받거나 순례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의 힘이 발휘된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너희는 자유가 없다고 불평한다. 나는 너희가 그 쓰라린 잔을 끝까지 비우며 겪은 고통을 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징계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 나는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나의 신성한 보호를 느낄 수 있도록, 항상 너희의 한 발걸음을 인도하고자 했다.

4. 내가 예수님을 통해 너희에게 내 말씀과 마지막 권면을 전한 날로부터 수세기가 지났으나, 오늘 나는 너희에게 성신으로 나타나 너희에게 한 약속을 이루려 한다.

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며, 준비된 자들만이 나를 볼 것이다. 너희가 내 말씀을 믿고 나를 따르는 동안, 다른 이들은 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한다. 나는 그들에게 큰 증거들을 보여 주어야 했으며, 그 덕분에 점차 그들의 불신을 이겨냈다.

내가 너희에게 늘 보여 온 사랑과 인내로 말미암아, 오직 너희 아버지만이 이런 방식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가르치실 수 있음을 너희는 깨닫게 된다. 나는 너희를 지켜보며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의 십자가를 가볍게 해 준다. 너희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며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평안을 너희가 느끼게 해 준다.

5. 너희는 내 겸손의 본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에 늘 고통을 겪어 왔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내 뜻을 이해시키기 위해 얼마나 깊이 내려왔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는 첫 번째 백성, 곧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나의 본보기를 따라 살며, 인류가 나를 사랑하고 내게 다가오도록 하라.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찾는 법을 모르며, 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나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며, 나의 기적을 우연으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큰 혼란 속에서 무심하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나무의 잎사귀 하나도 내 뜻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노라. 너희는 내가 사랑의 법칙으로 우주를 다스리며, 모든 피조물이 내게 순종한다는 것을 알고 있노라.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자유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려 하지 않고, 이 법칙들을 회피하려 하노라.

6. 삶의 우여곡절에서 잠시 쉬어 가라. 오늘 너희는 고통의 짐에 짓눌려 있고, 영혼에는 아픔이 있으며, 눈에서는 너희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너희는 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너희가 마음을 다잡으면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얻게 될 힘으로 주변 사람들의 비판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7. 내가 너희를 내 말씀을 전파할 도구로 선택한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신뢰를 둔다. 나는 너희에게 어려운 사명을 맡기니, 그것은 너희의 모범을 통해 이웃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씨앗은 너희 안에 있으며, 그것은 내가 태초부터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던 그 씨앗과 같다. 너희의 수고와 보살핌의 결과로, 나는 너희 씨앗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사랑으로 완수함으로써, 너희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가볍게 하라. 너희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라.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라. 그것은 단지 너희가 지상에서 살기 위해 도구로 부여받은 육체의 물질에서 벗어날 뿐이며, 그 임무가 끝나면 땅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영혼은 자유로워져 무한한 지평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8. 그릇된 관습과 전통을 버려라. 내 가르침에 담긴 빛을 활용하여, 너희의 의심이 사라지고 비밀들이 밝혀지도록 하라. 이것이 내 뜻이니라.

9. 나는 너희가 부당한 위협 아래서 살지 않고, 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자들이 너희에게 말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만 내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영혼의 참된 삶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내 율법을 깨달아라. 그것은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고 그에 따라 행하는 자는 누구도 망신당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된 말이나 예언, 그릇된 생각이나 잘못된 해석에 자리를 내주지도 않을 것이다. 나의 법은 단순하며, 너희가 따라야 할 길을 언제나 가리켜 준다. 나를 신뢰하라. 나는 너희를 하얗고 빛나는 도시로, 너희의 도착을 기다리며 문을 열어 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길이다.

10. 너희에게, 단지 너희만의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속한 유산을 전해 드리는 것이 내게 기쁨이었습니다. 너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기에, 이를 청하는 모든 이에게 이 풍요로움을 나누어 줄 의무가 있다.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갚고 있는 형제들에게 빛을 전하고, 병자들을 위로하며, 내가 "제2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의 사랑으로 그들을 "기름 부어"* 주라. 그러면 그들에게 내 자비의 향유가 넘쳐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슬퍼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며, 새로운 힘을 주라. 이처럼 너희는 너희의 은사를 실천하게 될 것이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책 부록의 주석 1 참조*

11. 너희 주변에는 너희를 돕기 위해 오는 덕이 있는 영적 존재들의 세계가 있다.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그들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편애도 없이 그들을 부르라. 그들은 모두 나에 의해 똑같이 준비되었으며, 이 시대에 인류를 돕기에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범을 본받고, 영적 진보라는 고귀한 목표 안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라. 나는 이 "영적 세계"*가 너희를 가르치도록 허락하였으며, 다가오는 싸움에서 그들은 무적의 전사이자 너희의 방패가 될 것이다.

**부록의 주석 2 참조*

12. 나의 법은 제한되지 않으며, 무한하며, 너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완전한 업적을 이루기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너희는 그것을 연구하고 깊이 탐구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 너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이 "순간들"을 헛되이 보내거나 잘못 활용했다고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가 인내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할 것이며, 그러면 너희는 동료들에게 마치 펼쳐진 책과 같을 것이다.

1950년 이후, 너희는 더 높은 차원의 고양에 도달할 것이다. 나는 영감을 통해 너희와 계속 소통할 것이며, 백성들은 너희의 말을 내가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가르침이 얼마나 지혜롭고 심오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14. 1950년, 즉 내 계시가 이러한 형태로 끝나는 해가 지나면 인류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자연은 격변을 겪을 것이며, 모든 것이 뒤흔들리고 모든 분야에서 해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준비하라. 그리고 그 시기에 약한 이들을 도와주라. 많은 이들이 그 시련 속에서 굴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15.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해인 1950년이 곧 다가올 것이다. 많은 교회와 종파들이 이 날짜를 염두에 두고, 내 사역을 심판하기 위해 그 무렵 나타날 사건들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이들은 세상의 혼란의 원인을 묻게 될 것이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 혼란이 지나간 후 인류는 갈망하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할 것이다.

16. 이는 내가 너희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 고통은 내게 닿아 내게 아픔을 안겨준다. 너희는 이 세상이라는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왜 서로를 낯선 이로 여기며, 인종과 계급, 신앙 고백으로 나뉘어 지내는가? 나는 너희에게 약속하노니, 내가 그 경계를 없애고 모두를 서로 가까이하게 하리라. 왕관과 홀은 무너지고, 권력은 사라지며 부도 사라질 것이니, 이제 그러한 차이들이 사라져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17. 너희 모두가 지구를 동등하게 소유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너희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위선과 악의, 허영은 사라지고 사랑과 화합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빵이 부족하여, 평화와 기쁨이 없어 과부와 고아들이 내게 올리는 그 통곡은, 내 모든 자녀들에게서 솟아나는 사랑과 감사의 찬양으로 변할 것이다.

18. 너희는 평화와 안녕을 누리고 있기에 너희 나라에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며, 이 평화를 지키고자 한다면 공덕을 쌓아야 한다.

19. 일꾼들아, 내가 인내심 많은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시련 속에서 너희를 찾아가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통받게 하려는

욕망으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 그것은 너희 영혼이 이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 강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20. 너희의 양심이 너희의 잘못과 죄로 인해 너희를 고발할 때, 내 앞에서 깨끗한 척하려 하지 말라. 차라리 너희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이 정화하는 강물처럼 너희의 모든 얼룩을 씻어내게 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너희는 내 가르침이 담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들 앞에 설 자격이 있다고 느낄 것이다.

21. 내 평화가 너희 나라에 있다. 너희의 악한 행실로 인해 이 은혜를 잃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내 평화를 지키고, 내 지혜를 보물처럼 간직하라. 전쟁이 너희를 노리고, 너희 문 앞에 두드리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올가미를 놓는 것을 깨닫지 못했느냐? 그러나 깨어 있는 법을 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곁에 있어 너희가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울 것이니.

22. 나는 모든 때에 너희를 죽음에서 구원해 온 여호와이다. 나는 모든 때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신 "나의 말씀"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오늘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또한 곧 나다. 왜냐하면 오직 *한* 분의 성령, 오직 *하나의* '말씀'이 있을 뿐이며,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23. 들으라, 나의 제자들아: "첫 번째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고, 두 번째 시대에는 너희가 그 계명들을 해석해야 할 사랑을 가르쳤으며, 이제 이 세 번째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빛을 보내어, 너희에게 계시된 모든 것의 진의를 깨닫게 하노라.

24. 그런데 어찌하여 오직 나의 것인 *하나의* 신성한 영만이 존재하는 곳에 굳이 세 신성을 발견하려 하는가?

25. 나는 첫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었으나, 그럼에도 모세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리라고 예고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말씀"을 전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명이 이미 끝나가던 때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나온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그분은 또한 너희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후 그분은 내 뜻에 따라, 그리고 너희의 성장에 맞춰 내 계시의 신비를 밝혀 줄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

26. 그러나 누가 내 비밀에 빛을 비추고 이 신비들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나 외에 누가 내 지혜의 책에 찍힌 인장을 풀 수 있겠느냐?

27.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현재 여호와와 그리스도와는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성령은,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보고 느끼게 하려고 내가 너희 영에게 드러내는 지혜 그 자체일 뿐이다.

28. 오늘 나는 너희가 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노니, 그것이 마치 목마른 식물 위에 내리는 이슬처럼, 너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수정처럼 맑은 물처럼 내려오게 하리라.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어린아이들처럼 품에 안으리라.

29. 너희는 단단한 땅 위에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한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멈춰 서서 나중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너희 형제자매들의 길을 막지 말라. 그들은 나를 섬기려는 간절한 소망으로 너희를 찾아올 것이며, 준비하여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너희가 내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내 사역 속으로 깊이 들어가 빛을 받아,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나는 알파이자 오메가이며, 모든 가르침의 시작이자 끝이다.

30. 이 시기에 나는 너희에게 반드시 닥쳐올 재앙들을 예고한다. 땅의 4분의 3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닥칠 것이며, 세상은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준비한다면, 너희 중 한 사람을 통해 온 땅이 구원받을 것이다. 인류가 이룬 과학만으로는 앞으로 닥칠 기이한 질병들을 치료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악을 치유하고 를 막기 위해 세속적인 것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인류를 큰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가. 이 시대의 사도들은 나라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이며, 그들의 은사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넘치게 할 것이다.

31. 내가 그들에게 허락하는 모든 기적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사도들의 믿음을 일깨울 것이며, 그들의 사명은 위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진다면 화가 있을 것이니, 그때 그들은 그들의 은사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2. 너희 형제들에게 허락된 은사를 소중히 여기라. 내가 너희에게 맡긴 나무를 가꾸어라. 너희는 모두 한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이다. 나의 자비는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며, 나는 너희의 행실과 생각을 알고 있다. 깨어 기도하라. 사람들은 영적 성장을 위해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3.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너희의 고통이 아버지의 사랑의 법칙과 모순된다고 믿는다.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나를 창조하셨다면, 왜 나를 넘어지게 하셨는가? 왜 나를 순종적이고 선하며 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는가?”

34.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바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너희가 내 법칙에 대한 모순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바로 사랑의 법칙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들어라: 신성한 천상의 사다리에는 영혼의 완성을 통해 그들이 도달한 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한 단계를 차지할 수 있는 무수한 존재들이 있다. 너희의 영혼은 이 완성을 향한 사다리 위에서 발전하고, 창조주의 높은 뜻에 따라 정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속성을 지니고 창조되었다.

35. 너희는 그 영혼들의 운명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은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처럼 완전하다.

36. 너희는 여전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나중에 너희는 그 은총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37. 너희 영혼들처럼 서로 다른 삶의 차원을 거니는 무수한 영혼들은, 곧 사랑인 더 높은 힘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다. 그들은 정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투쟁과 더 높은 발전을 위해 창조되었다. 내 계명을 이행한 자들은 신성한 사랑 안에서 위대해졌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상기시켜 주노니, 설령 너희 영혼이 위대함과 권능과 지혜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속성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하듯 무한하지 않으므로 전능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창조주의 사랑이 첫 순간부터 너희에게 그려 놓은 바른 길 위에서, 너희를 완성의 정점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38. 너희를 창조하실 때, 나는 너희가 형제자매들에게 쏟아붓는 사랑과 자비를 통해, 너희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나를 영화롭게 하도록 자유의지의 은사를 주었다.

39. 의지 자유가 없는 영혼은 지고하신 존재에 합당한 피조물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완성을 향한 열망이 없는 나태한 존재일 뿐이다.

40. 오늘날 너희는 형제애의 결핍으로 인해 여전히 물질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한 조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41. 신성한 사랑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영혼의 퇴보를 초래하며, 이는 올바른 길로 돌아가고, 확고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만 피할 수 있다.

42. 너희의 현세에서 과학을 연구하는 동료들은 너희를 발전의 정점에 이르게 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너희를 고통과 심연, 그리고 오만함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순간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으니, 내 사랑의 부르심에 주저하며 응답한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43. 너희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과 정의로운 자유를 남용했으므로, 너희는 고통과 눈물로 너희 영혼에 새겨 넣은 오점을 씻어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순종하며 속죄하는 자는 더 높은 발전을 이룰 것이며, 그의 상승은 그의 추락보다 더 빠를 것이다.

44. 수세기에 걸쳐 나는 너희에게 때로는 너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외치게 했던 자애와 신성한 사랑의 본보기와 증거들을 주었다. 그러나 내가 묻노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찌하여 나를 본받아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가? 왜 너희는 영적인 삶에서 멀어져서 그로 인해 너희의 발전을 지연시켰느냐? 어떻게 감히 너희 자신의 추락과 고통, 그리고 어리석음을 하느님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느냐?

45. 오늘, 내가 너희를 부르는데도 너희 모두가 내 말을 듣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모두에게 약속하노니, 결국 너희 모두가 내 말을 듣게 될 것이며, 내 자녀 중 그 누구도 영의 영원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46. 어떤 이들은 내 사랑에 응답하여 나를 찾겠지만, 다른 이들은 고통에 짓눌려 내 자비가 그들의 고통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빌 것이다.

47. 나는 예수님을 통해 너희에게 전했던 메시지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불확실한 길들을 아직 떠나려 하지 않는다.

48. 너희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너희가 자초한 모든 일에 대해 나를 탓하려는 것이냐? —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뿌리라고 말했으나, 너희는 그 대신 증오를 뿌렸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거두려 하느냐?

49. 나는 너희에게 평화 속에서 단순하고 순수하며 너그러운 삶을 살라고 가르쳤으나, 너희는 증오와 물질주의, 그리고 광적인 야망으로 인한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기를 고집하고 있다.

50. 너희는 거의 항상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구하지만, 너희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드리지 않는다.

51. 너희가 이토록 허영에 빠지고 신성한 가르침에서 이토록 길을 잃었다면, 어떻게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너희의 상상이나 뜻대로 다스리시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간적인 변덕에 따라 우주를 다스리게 하신다면, 우주는 단 1초도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52. 나는 너희에게 신성한 근본 지혜의 또 한 방울을 주었다. 앞으로의 강의에서 더 많은 것을 주겠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것은 오직 너희가 내 계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를 빛으로 채워 줄 나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53. 가르침의 의미를 파악하고, 너희의 영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석하라.

54. 영성은 교파의 경전이나 과학 서적에서 찾을 수 없다. 그것은 너희 영혼 속에 (숨겨져) 있으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항상 실천한다면 그 영혼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다.

55. 이 가르침에서 파생된 새로운 철학이나 이론을 만들지 말고, 물질적인 성전을 세우지도 말며, 상징이나 표상도 만들지 마라. 나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주어져야 할 모든 계시를 너희에게 주리라.

56.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리를 소유하게 될 자는 너희만이 아니다. 여러 종교의 성직자들과 과학자들, 신자들과 불신자들, 그들 모두는 그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들이며, 나는 그들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에게 은총을 쏟아 부을 것이다.

57. 겸손하게 너희 이웃들을 초대하여, 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영적 고양에 관한 가르침을 연구하게 하라. 너희가 보는 모든 것, 심지어 명상 중에만 어렴풋이 감지하는 것들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어떤 행위도 완전할 수 없음을 잊지 말라.

58.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생명이 있다 — 그들을 감지하고, 축복하며, 사랑하라.

59. 우상 숭배나 광신, 세속적인 서열을 만들지 마라. 덕을 통해 완전함에 이른 영혼을 장식하는 빛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60.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직분이나 허영심 때문에 스스로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61. 예수를 기억하라!

62. 이 시대에 너희의 이해력은 더욱 맑아졌으며, 나의 말씀도 더욱 명료해지고 있다.

63. 나의 성전은 너희의 마음이며, 그 빛은 나의 사랑이다. 너희가 그 안에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제물은,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며 사랑할 때 얻는 너희 영혼의 평화이다.

64. 너희 내면에 비천한 정욕만을 품고 있다면, 찬송과 기도와 의식이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향이 아니라 너희의 사랑을 갈망한다. 눈물은 적게, 빛은 더 많이, 이것이 내가 너희의 삶을 위해 바라는 것이다.

65. 너희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너희의 악한 행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너희 스스로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맑은 상태에 있는 너희 자신의 영이 바로 너희를 향한 무서운 고발자이자 끔찍한 심판자이다. 반면 나는 너희를 그 맹렬한 고발로부터 변호하고, 너희를 무죄로 선고하며 구원하리니, 나는 정화하고 용서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66.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리니, 이는 너희가 이 교훈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또 다른 한 장으로, 너희가 '참된 생명의 책'을 완성하게 하려 함이라.

67. 내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의 겸손과 자비와 사랑의 모범을 통해 이 작은 무리가 배가되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침33

1. 스승이 다시금 가르침의 책을 펼치며, 한 글자 한 글자 사랑의 교훈을 너희에게 설명해 주리라. 너희가 아버지인 나를 경청하고자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보라, 여기 차려진 식탁이 있으니, 너희가 앉아서 내가 너희를 위해 그토록 큰 사랑으로 간직해 둔 음식을 맛보라.

2. 나는 내 제자들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 영으로 오노라. 너희는 이 시기를 빛의 시대라 부르니, 이는 모든 영혼과 육신이 나의 영적 임재를 느꼈기 때문이라.

3. 나는 빛이자 길이지만, 너희 모두가 너희 가운데서 내가 나타난 목적을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 나의 신성한 가르침과 계시를 기뻐하기보다는, 너희는 나의 영감*에 무감각한 채로 남아 있다. 내가 단지 너희의 물질적 필요와 근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빵, 일, 돈, 혹은 건강을 구하는 데 그치고, 내가 그 모든 물질적 은혜를 덤으로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부록의 주석 3 참조*

4. 너희 중 일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구했던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오며, 나는 그들을 축복한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존재 안에 있는 영적인 은사들은 더 크며, 내 가르침의 자극 아래서 그 첫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는데, 너희는 아직 그것에 대해 나에게 감사하지 않았다.

5. 너희 마음을 열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라. 보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음에도 너희가 나를 느끼지 못했다고 내가 너희에게 자주 말해 온 이유이다.

6. 내가 '제2의 시대' 때처럼, 너희가 기적이라 부르는 일들을 다시 행해야만 너희의 믿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맹인에게 시력을, 마비된 자에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어야만 너희의 믿음을 일깨울 수 있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에 많은 '맹인'이 빛을 보았고, 많은 '마비된 자'가 다시 걸었으며, 많은 '죽은 자'가 은총의 삶으로 부활하였다.

7. 두 길이 다시 너희 눈앞에 펼쳐져 있다 — 너희가 순례의 시작부터 알고 있던 바로 그 길들이다. 하나는 넓고 꽃이 만발해 있고, 다른 하나는 좁고 가시가 가득하다. 너희는 다른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덕의 길인 좁은 길을 걷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8.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 길을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무수한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평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반면, 매우 넓은 길은 즐거움을 선사하지만, 마음에는 오직 고통과 혐오감만을 남길 뿐이다.

9. 나는 너희의 영이 영원히 나의 평화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영에게 나를 드러내어, 이 방식으로 가르치려 한다. 이 시대에 너희가 새 언약의 언약궤 앞에서 너희 아버지와의 언약을 새롭게 맺었음을 잊지 말라.

10. 다가올 고통의 시기에 너희가 굳건히 서서 이웃에게 나의 가르침을 전하러 나서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인류 가운데서 나의 말씀과 너희의 증언을 전파할 때, 동료들의 의심 앞에서 용기를 잃지 말라. 너희가 처음 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모두가 믿었느냐? — 이제 너희가 이 육신을 소유했으니, 인류에 대한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라. 영적 세계에 사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육체를 소유하기를 갈망하는가!

11. 나는 너희 영혼에게 말하노니, "영의 인도를 따르라"; 그리고 너희 육체에게 말하노니, "영혼의 인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 평화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행할 때, 너희 영혼은 등불을 밝히고 신랑의 도착을 기다리던 비유의 처녀들처럼 깨어 있을 것이다. "깨어"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를 맞이하기 위해 깨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시간이 와서 영적 계곡의 문을 두드리면, 내가 그들에게 열어 주리라.

12. 너희가 열심을 다해 일하면, 내일 너희는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이 가르침들로 준비하여, '제2의 시대'의 내 제자들처럼 길을 떠나, 이웃에게 빛을 전하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베풀게 하라. 너희의 나태한 무관심에서 깨어나라! 너희는 율법을 가진 자로서 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나에 대해 증언하지도 못한다면, 심판이 닥칠 *것이니*, 너희는 심문을 받게 될 것이며, 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면 – 무엇을 대답하겠느냐? 그때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두려움과 후회를 느끼고 스승께서 사랑으로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생각한다면, 이 계시에 대해 말해야 할 때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며, 너희를 이해하는 이들은 "신성한 스승께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할 것이다.

비록 너희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오해를 받게 된다 해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수고를 인정할 것이며, 너희가 큰 시련을 이겨낸 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지극한 평화의 기쁨을 주리라.

13. 장차 너희 중 많은 이가 인류 가운데 이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너희의 수고가 결실을 맺고 신성한 씨앗이 배가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14. 나는 모든 지상의 순례자들에게 내 목소리를 듣도록 부르니, 이는 너희를 영적 승화와 영생의 소유로 초대하는 것이다. 신성한 말씀이 드러나는 이 날에, 그 말씀을 활용하고 그것으로 너희 자신을 비추게 하라. 지식 속에 빛이 있고 너희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15. 내 법이 너희에게 삶의 모든 행위에 있어 도덕과 의로움, 질서를 가르쳐 주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로 고통을 초래하는 반대되는 길을 찾는가? 그리고 너희가 저 세상으로 떠나 이 땅에 육신을 남겨두고 갈 때, 너희는 이 육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울게 된다. 몸이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며, 내게로 올 때까지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고 느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 아이야, 네가 내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네가 땅에서 내 계명을 지키며 살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분께 드릴 사랑의 선물이 없어 부끄러워하고 낙담하여, 너희 영혼을 짓누르는 사슬을 만들어 냈고, 그 영혼은 빛을 잃은 채, 은총을 잃어버렸기에 스스로를 향해 울고 탄식한다. 그 영혼은 오직 자신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만 듣는다. 그러나 자라지 못했고 그분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에,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기다리기만 한다.

시간이 흐르고, 영혼은 다시 그 목소리를 듣게 되며,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찬 채 누가 자신에게 말하는지 묻자,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나라!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느냐?" 그러자 영혼은 눈을 들어 헤아릴 수 없는 빛을 보게 되고, 그 찬란한 빛 앞에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땅에 보내지기 전에도 이미 존재했고, 그 목소리가 나온 아버지께 이미 사랑받고 있었으며, 이제 그분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녀를 위해 슬퍼하고 계심을 깨닫는다. 그녀는 투쟁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공로로 상을 얻기 위해 여러 고향으로 보내졌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아이는 묻습니다. "제가 지상에 보내지기 전에 당신의 지극히 사랑받는 피조물이었던 것이라면, 왜 저는 덕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여, 당신께로 돌아오기 위해 고 고통받고 고군분투해야만 했습니까?" 그 목소리가 그에게 대답했다. "모든 영혼은 발전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길 위에서 나의 아버지신은 언제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분은 자녀들의 선한 행실을 기뻐하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지상으로 보낸 것은, 너희가 이곳을 전쟁과 고통의 전장이 아니라 영적 완성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만들게 하려 함이다.

나는 너희에게 번성하라고, 불모의 존재가 되지 말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너희가 영적인 골짜기로 돌아올 때, 너희는 아무런 수확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직 울기만 하며,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은총 없이 돌아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내며 말하노니, 너희 자신을 정화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영적인 승화를 이루어라.

영혼은 땅으로 돌아와, 그 안에서 쉬며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작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찾습니다. 영혼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린아이의 몸을 찾아, 그것을 사용하여 내 법에 대한 자신의 위반을 속죄합니다. 원인을 알고 있는 영혼은 이 땅에 오며, 자신이 아버지의 숨결임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알고 있다.

16. 처음 몇 년간 영혼은 순수하며 그 순결을 지키고, 영적인 삶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 후 영혼은 죄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의로운 법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교만과 오만, 그리고 반항심을 가까이서 목격하게 되며, 본성상 반항적인 육신은 악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유혹에 빠진 그녀는 지상에 가져온 사명을 잊고,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려 한다. 영혼과 육신은

금단의 열매를 맛보고, 파멸에 빠졌을 때 마지막 시간이 그녀를 덮친다.

다시 영혼은 (영적인) 삶의 공간에 놓이게 되는데, 죄책감의 무게에 지쳐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때 영혼은 한때 자신에게 말했고 여전히 자신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떠올린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길을 잃은 듯 느껴져 많은 눈물을 흘린 뒤, 영혼은 자신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던 적이 있음을 기억해 낸다.

그녀를 그토록 큰 사랑으로 창조하신 아버지가 그녀의 길에 나타나 말씀하신다. "너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 아이는 그 목소리에서 자신에게 존재와 지성, 능력을 주신 분의 말씀을 알아차린다. 바로 아버지이시니, 그분은 아이에게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정화하시며,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빛으로 인도하신다. 그 아이는 자신이 심판자 앞에 서 있음을 알고 떨며 말한다. “아버지, 제 불순종과 죄가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 크니, 저는 공로가 없기에 아버지의 왕국에서 살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영적인 계곡으로 돌아와 보니, 제가 쌓아온 것은 속죄해야 할 죄뿐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자애로운 아버지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길을 보여주시고, 그는 다시 육신으로 돌아와 인류의 일원이 된다.

하지만 이제 경험을 쌓은 영혼은 육신의 껍질을 더 큰 힘으로 길들여, 우위를 점하고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려 한다. 싸움이 시작된다. 그녀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죄와 싸우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허락받은 기회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며, 관자놀이에 흰 머리카락이 반짝이고, 예전에는 강인하고 튼튼했던 몸이 세월의 무게에 굽어지기 시작하며 힘을 잃을 때에도, 영혼은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며 경험이 풍부해졌음을 느낀다. 죄가 얼마나 거대하고 혐오스럽게 보이는가! 그것은 죄에서 등을 돌리고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제 그녀는 오직 아버지가 그녀를 부르시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신성한 법이 의로우며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것,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기 위해 살아계신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이 왔을 때, 그녀는 육신 속에서 죽음을 느꼈으나 고통은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고요하고 경건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영 안에서 자신을 보았고, 마치 눈앞에 거울이 있는 것처럼, 빛으로 가득 차 아름답고 환하게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때 목소리가 그녀에게 말하며 물었다. “딸아,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던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 그분의 빛이 자신의 존재 속으로 흘러들게 한 뒤 이렇게 말했다. “오 창조주여, 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이시여, 저는 쉬기 위해, 그리고 성취를 당신께 바치기 위해 당신께 나아갑니다.”

빛은 갚아졌고, 영혼은 건강하고 순수하며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그녀를 기다리는 큰 상을 눈앞에 보았다.

그 후 그녀는 그 아버지의 빛과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행복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으며, 평화의 장소, 거룩한 땅을 바라보았고, 깊은 고요함을 느끼며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취했다.

17. 나는 너희에게 영적 삶이 품고 있는 기적들에 대해 말하며, 내 가르침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 이스라엘 백성아, 오 인류여, 나의 딸아, 네가 내게로 오기 위해 지상에서 네 사명을 다하고자 하느냐? 너희는 공덕을 통해 천국( )에 들어갈 것이며, 덕행을 실천함으로써 지상에 평화를 이룰 것이다.

18. 너희는 거듭거듭 육신으로 태어났으며, 매번 환생할 때마다 너희의 죄와 속죄의 의무를 더 크게 만들었다. 너희의 고통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 *내가* 너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너희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19. 이제 너희에게는 너희의 잘못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20. 나는 너희에게 했던 약속에 따라 너희에게 돌아왔다. 태초부터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었으며, 끝까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내 식탁에 앉을 준비를 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양식이자 열매이며, 빵이자 포도주이다.

21. 너희는 지칠 줄 모르고 내게로 나아와 내 말씀을 듣고, 정의에 대한 너희의 굶주림과 갈증을 채우려 한다. 마치 제2시대에 사랑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나를 따랐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골짜기와 산에서 내 말씀을 전했고, 심지어 바다와 사막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다. 그들의 믿음에는 지침이 없었고, 그들의 확신은 무너질 수 없었다. 그러자 나의 자비가 그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 나의 말씀이 지닌 사랑의 정수로 그들을 감쌌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왔고, 남자들은 나를 듣기 위해 일을 멈추었으며,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도 군중을 따라왔다.

22. 그런 기회 중 하나에서 스승께서는 빵과 물고기의 기적을 행하셨으니, 이는 사랑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나누어 줄 때면

어떤 빵이라도 충분하다는 증거였다. 왜냐하면 화합과 형제애 또한 양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3. 제자들조차도 그처럼 빈약한 양식이 그렇게 많은 무리를 먹이기에 충분할지 의심했었다. 그러나 기적이 현실이 된 것을 보고는 부끄러워하며 스스로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24. 이제 제3의 시대에, 너희는 나를 다시 맞이하게 되었다. 나는 인류가 먹을 영생의 양식을 너희에게 준다.

25. 나는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는 이 시대에 인간을 통해 나를 나타내기 위해 인간의 영적, 지적 발달을 기다려야만 했다. 나의 뜻은 이루어졌으며, 이 비밀은 당장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명료함으로 변할 것이다.

26. 교회와 종파들의 비판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예언의 서적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나를 기다릴 줄 몰랐다. 반면 너희는 성령으로서 내가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렸다. 이제 "제3의 시대"가 왔으나, 인류는 복음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였다.

27.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나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두 번째 시대' 때와 같이 가난과 낮음 속에서 나를 드러냈다. 인류가 나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 나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병든 자, 슬퍼하는 자, 비천한 자, 지친 자, 의를 갈망하고 목마른 자, 믿음으로 죽은 자들 — 바로 그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다.

28. 이 시대에 내가 어떤 교회의 품 안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도 놀라지 말라. 내가 '제2의 시대'에 회당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29. 나는 허영과 물질주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는 머물지 않으리라. 나는 가장 큰 단순함과 겸손의 품 안에서, 내 율법의 핵심을 잊게 만드는 의식이 없는 곳에서 나를 드러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가난한 자, 무식한 자, 죄인들로 둘러싸인 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유익한 존재로 변화시켰고, 많은 이를 회심시키도록 그들에게 은사를 주었으며, 너희인 그들을 통해 내 권능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망설임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라. "자기 고향에서는 예언자가 될 수 없다"고 했으니 말이다. 내일 이방인들이 올 것이며, *그들은* 너희를 믿을 것이요, 아니면 너희가 낯선 땅으로 가면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니, 모든 이가 너희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를 따르며 너희의 사랑과 도움에 의지하는 이들도 있으니, 그들은 너희가 험난한 길을 오르는 데 있어 자극과 격려가 되어 줄 것이다. — 만일 너희가 흔들리게 된다면, 너희를 따르며 너희 안에서 힘을 얻는 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낙담함을 느낀다면,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리라. 너희가 고통을 마주할 때, 내가 너희를 징계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시련이 너희의 성장을 위해 담고 있는 유익을 얻으라.

30. 내가 원하기만 하면, 너희는 이미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면, 그 속에 무슨 공로가 있겠느냐? 각자는 내 법에 대한 자신의 위반을 속죄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공로이다. 그러면 고통이 그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기에, 너희는 앞으로 넘어짐과 실수를 피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31. 저지른 잘못과 그 자연스러운 결과 사이에 진실한 회개가 자리 잡으면, 고통은 너희에게 닿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미 그 시련을 순순히 견뎌낼 만큼 충분히 강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매우 쓰라린 잔을 마시고 있지만, 나는 결코 그들을 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통이 지나간 후, 그들은 나를 부르는 나에게로 올 것이다. 그때 배은망덕했던 자들도, 그들의 삶에 오직 은혜만을 쏟아 부어 주신 분께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이다.

32. 지금까지 세상에서 승리해 온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었다. 인류의 태초부터 그랬듯이, 지배하고 승리해 온 것은 폭력이었다. 사랑했던 자는 악의 희생양이 되어 패배했다.

33. 악은 그 왕국을 확장하여 땅 위에서 강해졌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에 내가 와서 그 세력들에 맞서 내 무기를 휘두르리니, 이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정의의 왕국이 세워지게 하려 함이다. 그 전에 나는 싸울 것이다. 너희에게 내 영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전쟁을 치르고 모든 악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34. 심판의 날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산 자와 죽은 자 모두 이 시기에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35. 이 세상은 너희 영혼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육신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며, 너희에게 생명을 준 부모님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것은 덧없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이곳에* 온통 행복과 즐거움만 있었다면, 너희는 결코 너희 영혼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며,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도, 나를 기억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36. 너희 영혼이 걸어온 고통의 길은 매우 길었으며, 나는 너희가 이미 겪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기를 원치 않는다. 평화를 찾아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완성을 추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스승으로 변화시켜, 무지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을 가르치고 구원하게 하리라.

37. 내 용서의 말씀에 눈물을 흘렸던 너희들아, 너희의 오른손이 형제의 피로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심판이 아직 너희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진실한 회개는 너희를 보호해 줄 망토가 될 것이며, 나의 용서는 너희의 속죄를 통해 너희를 강하게 해 줄 수정처럼 맑은 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 죄를 갚지 않은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속이고, 수치를 끼치고, 부모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때 삶과 고통이 현명한 재판관처럼 그들을 심판하고 스승처럼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38. 오늘 너희는 모든 저항을 이겨내고, 내 말씀을 다시 듣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 때문에 내게로 왔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기에, 내 신성한 가르침을 듣고 연구하기 위해 온 것이다.

39. 너희는 너희의 영혼을 비추고 너희 안에 영적 순결에 대한 참된 사랑을 일깨워 주는 나의 말씀보다, 너희를 새롭게 하고 너희의 정욕을 이겨낼 힘을 얻기에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40.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계시하는 바를 너희가 무지하지 않도록, 내 말씀이 가장 상세하게 제시되는 때이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비유로 너희에게 말할 때는, 너희가 내 가르침을 더 잘 마음에 새기게 하려는 것이다.

41. 나는 익사 직전의 조난자에게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나타난 구명정이다. 평화가 깃든 해안으로 무사히 구조된 이들은, 나중에 이웃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야 할 의무를 마음속으로 느끼게 된다.

42. 배들은 턱없이 부족했고,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난파당한 이들이 수없이 많다. 인류가 어떻게 악덕과 타락, 그리고 범죄 속에서 파멸해 가고 있는지 보라!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의 삶에

빠져 있는 남자들을 보라! 여자들은 사방에 만연한 죄악에 익숙해져, 그들의 순결과 섬세함을 잃어가고 있다. 인간의 성전인 가정은 빛과 온기, 평화가 사라짐으로써 더럽혀졌다.

43. 나는 이 행성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인 인간의 영혼을 찾고, 도덕적 쇄신과 형제애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평화의 새로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그 영혼 안에 믿음을 불태운다.

어떤 이들은 가슴이 힘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신성한 이상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만, 다른 이들은 나를 따르지 않기 위한 핑계로 장애물과 어려움을 한탄한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신의 운명에서 등을 돌리는 자는 온 길을 다 걸을 때까지 끊임없이 같은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44. 나는 너희에게 세상의 의무나 마음과 감각이 주는 건전한 기쁨을 저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너희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몸을 병들게 하는 것들을 포기하기만을 요구할 뿐이다.

45.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양심이 명하는 바를 이행하는 것이다. 허락된 기쁨을 외면하고 금지된 쾌락에 빠져드는 자는,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리는 순간에도 왜 자신이 행복하지도 않고 평화를 찾지도 못하는지 자문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쾌락에서 쾌락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마음과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한 채 심연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46. 어떤 이들은 굴복하여, 즐거움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한 그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워야만,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잔치로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47. 나는 제자들의 제물을 받아들인다. 엘리야가 너희를 준비시켰고, 너희가 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으며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렸다. 내 약속은 마음의 고통 속에서 나를 찾는 모든 이가 위로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48. 지금이 바로 내가 인간과 교감하는 성령의 때이다. 나를 들은 이들 중 일부는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다른 이들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 계시의 때가 지나면 인류는

누가 오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인류는 은총과 권능으로 충만한 선구자 엘리야를 알아볼 것이며, 마찬가지로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내려오신 스승도 알아볼 것이다.

49.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를 본보기로 삼아, 너희가 속히 속죄의 끝을 맞이하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때에 너희를 인도해 온 목자 엘리야가 너희를 내게 소개해 줄 것이다.

50. 나는 영혼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모든 이를 기다리는 광활한 영적 계곡 속에서 외롭거나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너희에게 말하며 이 전환을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으니, 너희는 목자이시며 인간과 그 창조주 사이의 중재자이신 그분 의 정신을 너희 동료들에게 알리도록 하라.

51. 너희는 고난과 심판의 시기를 겪고 있으며, 너희 모두는 지금 너희 행위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이 시기는 반드시 와야만 했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기도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일깨워 주었으나, 너희는 내 말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지켜보고 있으며, 너희에게 매우 넓은 지평을 보여주는 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왔노라. 너희가 이를 깨달을 수 있다면, 너희는 용감하고 의지가 강해질 것이며, 이 빛이 너희 영혼에 스며들면, 다른 이들에게 가서 그들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라. 무지함으로 죄를 짓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을 가르쳐 주라.

52. 예전에 제자였던 자들을 나는 제자로 삼고, 제자들은 더욱 가까이 내게로 이끌어 온다. 나는 너희 모두를 하나의 천국 사다리 위에 세웠으며, 너희의 고난에 동참하였다. 인류의 고통이 내게 닿고, 엘리야는 인류의 영적 일치를 위해 싸우고 있다. 새로운 바벨탑은 교만과 분쟁 속에서 자라났으나, 그 맞은편에 나는 겸손과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이스라엘의 탑을 세운다. 싸움은 거대하겠지만, 결국 미덕이 죄를 쓰러뜨리고 평화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약했던 자들은 강해지고, 눈먼 자들은 눈을 뜨며, 영혼의 진정한 각성이 이루어져 발전의 삶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53.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는 금과 권력은 그의 영혼에 평화를 주지 못할 것이며, 병상에서 위안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오직 그의 마음을 굳게 할 뿐이다. 내가 부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고통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여주었는가. 그러나 그들은 고아와 비참함, 그리고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했으며, 내가 그들을 물질적 재물의 청지기로 삼은 것은 오직 그들이 이를 정의와 사랑으로 나누어 주기 위함임을 깨닫지 못하였다.

54. 자신을 치유해 줄 자비로운 손길, 위로의 말, 혹은 구원해 줄 모범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영혼은 사랑과 진실,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스라엘아, 너는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네게 나누어 주어야 할 영적 재물을 넘치도록 주었기 때문이다.

55. 모든 시대가 너희에게 평화로운 시절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직 행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오늘, 열심을 다해 일하고 기도를 통해 다른 민족의 형제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너희는 이미 영이 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 가르침이 나의 사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그날, 그들은 비틀거리지 않고, 그들의 사명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지지와 온기를 주는 친구들과 형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56. 이 메시지를 맡은 자, 그리고 나와 교제하며 사는 자에게는 내가 완전한 일을 주겠고, 그의 말 속에서 내 영을 드러내리라.

57.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스승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멸을 맛보았다. 어떤 이들은 부모의 집에서 배척당했고, 또 어떤 이들은 배우자에게 버림받았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며, 너희의 희생을 풍성히 보상해 줄 것임을 기억하라.

58. 너희를 둘러싼 모든 사람에게서 적을 보지 말고 형제를 보라. 누구에게도 벌을 요구하지 말고, 너그러워하여 용서의 본보기가 되고 너희 영혼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 않게 하라. 입을 다물고 너희 일을 내게 맡겨라.

59. 병든 자들을 고치고, 혼란에 빠진 자들에게 이성을 되찾아 주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악령들을 쫓아내고, 그들* 모두가 잃어버린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라.

**부록의 주석 4 참조*

60.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지켜볼 것이니. 내 말씀을 모든 이 마음속에 전하라. 그 후 너희가 받은 은혜에 대해 나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무의 잎사귀 하나도 내 뜻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61.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은 심판의 때가 왔음을 깨닫게 될 것이니, 그들에게는 예감과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62. 내 목소리는 나팔 소리처럼 영혼들을 부르며 깨운다. 그러나 만일 인류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대'의 예언들을 연구하고 깊이 탐구하는 데 신경을 썼더라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 중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놀라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이다.

63. 어제의 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 왕의 별이 빛을 잃기 전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64. 민족들 간의 전쟁이 너희에게 안겨주는 괴로움을 견뎌라. 그들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지 말라. 그들의 고통의 잔은 이미 충분히 쓰기 때문이다. 너희의 판단과 생각, 기도에 자비를 베풀어라.

65. 아직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은 전쟁의 고난과 궁핍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다.

66. 만일 너희가 인류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주는 자들에 대해 동정 대신 분노나 경멸을 느낀다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때 너희는 영적 고양과 모든 이해력을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다.

67. 내 목소리가 너희 마음속에 메아리치게 하고, 내 말씀을 실천에 옮기라. 이것이 바로 내 가르침이 땅 위에서 힘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내 가르침은 병들고 쇠퇴해 가는 인류에게서 나온 사상에 맞서 싸울 빛이다.

68. 사람들이 영혼의 발전을 위해 바랄 수 있는 모든 정의와 위대함, 그리고 모든 빛을, 그들은 나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멈춰 서서 나의 가르침을 탐구하고 그 내용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제자들의 갱신과 덕행 속에서 그 가르침의 첫 열매를 깨달아야 한다.

69. 너희가 평화롭게 살면, 내가 너희에게 큰 비밀들을 밝혀 주리라 약속한다. 그때야말로 내 빛이 너희 존재 안에서 빛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70. 너희 모두는 내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 가운데 속하기를 원하며, 인류의 길 위에서 항해자에게 등대처럼, 순례자에게 별처럼 빛나기를 원한다.

71. 오늘 너희는 이 계시를 통해 나를 너희 가운데 모시고 있다. 내가 머무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 제자에서 제자로 거듭나라. 그래야 내가 말을 멈춘 후에도 내 말씀을 품위 있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72. 배우고, 깨어 있고, 기도하며, 형제들 사이에 사랑과 자비를 뿌려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의 행실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침34

1. 사랑하는 백성아, 인류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더 나은 시기를 기다리지 마라. 지금보다 더 적절한 때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현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들을 꿈꾸지 마라. 온 땅에 내 가르침을 알리는 것이 너희의 사명임을 깨달아라.

3.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미래의 사자들, 새로운 사도들,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칠 줄 모르는 일꾼들을 발견한다.

4. 어떤 이들은 동쪽으로 갈 것이며, 다른 이들은 내가 서쪽으로 보내리니, 언어의 다양성이 내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5. 내 가르침 속에 있는 빛과 사랑과 정의의 칼은 길을 뚫고, 무지의 벽을 무너뜨리며, 경계를 지워버릴 것이다. 모든 것이 민족들의 통합을 위해 준비될 것이다.

6. 투쟁이 시작될 때,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마리아 영성 교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세속적 권력과 그릇된 해석에 대한 위협을 보며 이를 거부하고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해가 빛을 비추는 것을 막으려는 것과 같을 것이다.

7. 나는 너희에게 경고하노니, 이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나를* 거절한 것이요, 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인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영적 의미 안에서 내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냈으며, 그 안에 내 영이 현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내게 마음의 문을 열어 내게로 들어올 것이며, 나를 자기 안에 모시게 될 것이다.

8. 나의 의는 너희에게 죄를 속죄하고 갚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맡겨 준 너희 삶의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9. 너희는 회개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이며, 나는 너희가 상속권을 되찾도록 이끌기 위해 사랑으로 너희를 맞아 주었다.

10. 나는 울며 내 앞에 나아오는 이들 중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들은 진실한 회개의 눈물로 자신의 죄를 통곡하며, 속죄할 기회를 내게 간청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아버지를 상처 입혔기에 우는 것이지, 자신들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다 . 반면, 겉으로는 나를 상처 입힌 것을 후회하는 듯 보이며 울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맹세까지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서약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의 재물을 구한다. 이들은 곧 다시 아버지의 집에서 멀어질 자들이다.

11. 그들이 나에게서 찾던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낭비할 것이다. 얻지 못하면, 나를 모독할 것이다. 그들은 이 길의 낮음 속에 가시만 있다고 믿으며,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 가장 불안정하고, 울퉁불퉁하며,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세상의 쾌락에 온전히 몸을 맡기면 재물을 늘려 궁핍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 십자가의 달콤한 짐을 거부함으로써 어깨에 엄청난 물질적 짐을 짊어지게 되었고, 그 무게에 짓눌려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12. 사랑으로 신의 법을 실천하며 평화와 빛, 조화의 낙원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이들은 얼마나 적은가.

13. 사람들이 걸어온 길은 매우 길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 고통과 실망만을 쌓아가는 금단의 열매를 먹는 것을 선호한다. 금단의 열매란, 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좋은 것이지만, 사람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해로울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14. 남자와 여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생명의 열매를 취하며, 지상에서 새로운 존재들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할 때 창조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깨닫지 못한다.

15. 과학자는 경외심 없는 손으로 과학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내는데, 먼저 내 법이 그에게 말하여 지혜의 나무의 모든 열매는 선하며, 그러므로 그것을 따는 자는 오직 이웃을 위한 선을 위해서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양심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16. 내가 든 이 두 가지 예는, 왜 인류가 그 내면의 낙원의 사랑도 평화도 알지 못하는지를 너희에게 보여준다. 그 낙원은 인간이 법에 대한 순종을 바탕으로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해야 할 것이다.

17. 너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는 죄인들과 불순종하는 자들, 배은망덕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가르친다. 이는 너희가 영을 부여받았으며, 양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온전히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고, 너희를 평화와 지혜, 무한한 사랑, 불멸, 영광, 그리고 영원의 낙원으로 인도할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18. 나는 죄를 지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의인들은 이미 영적 낙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을 소유하지 않아 양심도

없는 나머지 존재들은, 온 창조물과 완벽한 순종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들의 낙원인 자연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19. 오늘 나는 너희가 발전해야 할 길을 밝혀 주며, 그 길의 끝에서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강요하지 않으나, 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으러 오게 될 것임을 알려준다. 그러나 그때는 너희는 너희의 비인간성, 오만, 그리고 교만의 공포 앞에서 도망치게 될 것이다.

20. 나는 엄한 태도로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너희 자신의 잘못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21.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마음에 내 말씀의 정수를 두어 너희가 영적으로 그것으로 양분을 얻게 하노라. 너희 마음은 꽃과 같고, 그 향기는 내가 그 안에 담아 둔 사랑의 정수이니라. 이 꽃이 시들게 하지 마라. 시들면 곧 그 향기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정원의 꽃들은 연약하지만, 너희 마음은 더 연약하며, 그 신성한 본질은 더욱 그러하다.

22. 1950년 이후에는, 너희가 '음성 전달자'나 '통역자'라고 부르던 이러한 전달 매체를 통해 더 이상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땅을 떠나 영의 계곡으로 향할 것이며, 다른 이들은 남아 첫 번째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 이는 영과 영 사이의 계시에 앞서 나타나는 징조들이다.

**부록의 주석 9 참조*

23. 이 계시가 너희 가운데서 전개되기 시작하면, 너희는 현재 받고 있는 가르침을 진정으로 탐구하고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며, 동시에 음성 전달자가 내 말씀에 섞어 놓았을지도 모르는 모든 불완전함으로부터 내 말씀의 본질을 분리해 낼 줄 알게 될 것이다.

24.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너희는 이 땅에서는 가난하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느냐? 아니면 영생의 깨달음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선호하느냐? —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니, 너희는 마음속으로 내게 말하기를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25. 이 시기에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메시지, 즉 제3의 성서를 준다. 많은 이들이 이 계시의 증인이 되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것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 너희가 아니며, 이 메시지가 지닌 중요성을 헤아릴 수 있는 자들도 너희가 아닐 것이다.

26.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자주 주었으나, 너희는 물질에 얽매여 있어 그것을 잘못 해석해 왔다.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깨달음에 대해 말했을 때, 너희는 그것에 물질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영적으로 더 발전한 다른 세대들이 올 것이며, 그들이

이 계시들에 담긴 가르침을 연구할 때, 영적인 감동에 전율할 것이다. 또 다른 때에는 그들은 내 말씀의 온화한 평안 속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며, 또 다른 기회에는 내 사랑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들에 대해 놀라워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말할 것이다. "어떻게 그 당시 그 말씀에 함께 있던 증인들이 그 말씀의 의미와 위대함, 그리고 빛을 깨닫지 못했을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2시대에도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오직 세상과 세속적인 것만을 위해 살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27. "제2의 시대"에 나의 외피가 되어 주었던 육신이 죽음의 고통에 빠졌을 때, 내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했을 때, 나의 마지막 말들 중에는 그 순간에도, 그 후 오랜 시간 동안에도 이해되지 않았던 말이 하나 있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8. 그 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의심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소심함이나 흔들림, 혹은 한순간의 약함이라고 생각하여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마지막 말이 아니었으며, 그 후에 내가 완전한 힘과 명료함을 드러내는 다른 말들을 더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29. 이제 내가 너희의 혼란에 빛을 비추고, 너희가 비밀이라 불렀던 것들을 밝히기 위해 돌아왔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죽음의 고통은 길고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으며, 다른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했던 예수의 육신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으나, 죽음은 오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다하셨고, 이미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다. 그때 그 고문당한 몸, 그 찢겨진 살이 영과의 분리를 느끼며 고통에 찬 목소리로 주님께 물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 그것은 상처 입은 어린 양이 목자를 부르며 내뱉은 부드럽고 고통스러운 탄식이었다. 그것은 그리스도, 곧 말씀이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사람이 되셨으며, 그분의 고난이 실재했다는 증거였다.

30.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리스도*께 이 말씀을 돌릴 수 *있겠는가*? — 이제 여러분은 그것이 사람들의 맹목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의 육신이 내뱉은 신음 이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그 고문당한 육신 위에 내려오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 "다 이루었다."

31. 인류여, 언제쯤 너희도 나에게 이렇게 말하겠느냐? 언제 너희는 이 부드러운 탄식을 내뱉겠느냐? 그것은 책망도, 의심도, 믿음의 부족도 아닌, 아버지께 대한 사랑의 증거로서, 마지막

순간에 그분을 가까이 느끼고 싶다는 것을 그분께 알리는 것이다. — 내 모든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나는 너희에게 약속된 진리이기 때문이다.

32. 지금 내가 너희를 가르치면서, 나는 무식하고 배운 바 없는 자들을 이용하였으니, 과학자들과 학자들은 나를 부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죄인들을 찾아 그들을 회개시키고, 내 진리에 대해 증언하게 하려고 그들을 파송하였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이 내 자녀들은, 그들이 전파할 가르침의 빛으로 깨어나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모범을 보이고 선한 행실을 보여야만 동료 인간들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이 은혜에 합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33. 이 준비의 시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데 유익할 것이다.

34. 나의 가르침은 생명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투명한 물과 같으니, 너희는 이를 통해 정화되고, 성령의 제자라 불릴 자격을 갖추게 할 변화를 얻게 될 것이다. 내 말씀을 통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안에서 좋은 씨앗이 싹트리라. 내 말을 들으며 너희의 영과 이성을 단련하라. 그러면 너희의 행실과 말과 생각이 내 진리를 발산하리라.

35. 비록 너희만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아니니, 온 창조물이 내 진리의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에서 너희는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으며, 너희 자신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나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에게 빚진 것이다.

36. *너희가* 너희 주님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싸움의 시간에 스승 곁에 있지 않았기에 쓰라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37. 너희의 증언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냐? — 너희 자신에게 진실하라. 너희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결코 말하지 말고,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을 드러내려 하지도 말라. 너희가 아는 것만 가르치고, 너희가 직접 목격한 것만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대답할 수 없는 것을 묻는다면, 침묵하되 결코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의 '예'는 항상 '예'가 되고, 너희의 '아니오'는 항상 '아니오'가 되어야 하며, 그리할 때 너희는 진리에 충실할 것이다.

너희는 맹세해서도 안 된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행실로 진실을 밝히므로, 믿음을 얻기 위해 맹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을 행한 자, 즉 신뢰가 필요한 순간이 닥쳤을 때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야만 하는 자에게 맹세를 맡겨라. 너희는 하나님이나 마리아를 두고 맹세하지 말며, 너희 부모나 너희 생명을 두고 맹세하지도 말라. 다시 말하노니, 너희의 행실이 너희의 말을 증언하게 하라. 그러면

둘 다 나를 증언할 것이다.

38. 너희가 진실을 말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믿는다면, 너희를 믿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너희를 거부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조롱한다면, 그 일을 내게 맡겨라. 진실의 일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변호해 주리라. 또한 거짓의 베일로 진리를 가리려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의 심판은 클 것이니라.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힘과 지혜를 갈망하며 들어갔던 예루살렘의 그 거대한 성전에 대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곳은 그 품이 영혼들을 위한 평화의 보금자리였던 한, 위대하였느니라. 그러나 위선과 거짓, 탐욕이 침투하자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나중에는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39.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지기 시작해야 하며, 스스로를 속이려 하지 말아야 한다. 즉, 너희는 진리를 사랑하기 시작해야 한다. 세상의 거물들이 쓰러지고, 열방이 나의 신성한 심판을 맛보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통곡이 터져 나올 것인가! 거짓과 오류, 불의의 세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정의와 빛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많은 인간의 업적에겐 이것이 끝이 되겠지만, 영성화의 시대에는 이것이 시작이 될 것이다.

40. 사라질 세상은 너희가 만들어낸 타락한 세상일 것이다. 그곳에서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아이들의 순수함마저 사라졌으며,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신성한 원칙과 제도가 인간들에 의해 더럽혀졌으며, 형제처럼 사랑하기보다는 서로를 죽이고 있다.

41. 이 새로운 바벨이 사라지려면, 그 타락은 잡초처럼 뿌리째 뽑혀야 한다. 고통은 클 것이나 , 이 고난의 잔 속에서 부정한 자들은 정화되고 눈먼 자들은 눈을 뜰 것이며, 죽음은 많은 사람의 생을 멈추게 하겠지만,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42. 인류의 악한 행적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과거의 폐허 위에, 나는 인류가 평화롭게 살고, 사랑하며, 나의 사랑의 법칙 안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과 같은 새로운 세상을 일으키리라.

43. 새로운 세대들이 지구를 채우게 될 것이며,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들의 선조들이 남긴 경험과 발전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 전체에서 좋은 열매만을 골라낼 것이기 때문이다.

44. 나의 신성을 향한 불완전한 숭배들 위에 참으로 영적인 신 숭배가 솟아날 것이며,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의 물질주의적

과학 위에 형제애와 번영, 평화를 위한 새로운 과학이 솟아날 것이다.

45. 사람들 사이의 분열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불화로 인해 서로 멀어지고 각 민족마다 방언과 언어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지상에 조화가 빛나기 시작하면 모든 이가 하나의 언어로 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에 대한 형제애가 이 일을 수월하게 할 것이니, 이는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나의 계명에 기초할 것이기 때문이다.

46. 같은 종의 동물들조차도 어떤 것은 이 지역에서, 어떤 것은 저 지역에서 왔더라도 서로 이해하는데, 어떻게 인류끼리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옳겠느냐?

47. 너희 아버지의 영감 아래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러면 온 창조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께서 너희에게 보편적인 언어를 주실 것이다.

48. 내 말씀으로 힘을 얻으라, 힘을 얻으라. 그것은 너희 언어의 분열 위에, 너희의 시작과 끝 너머에 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대변자들의 입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지극히 상세하고 무궁무진한 방식에 놀라워했다면, 그것이 내가 이 지각 기관들에 보낸 나의 신성한 빛의 한 줄기일 뿐임을 알라.

49. 너희는 내게 묻는다. "주님, 우리를 이 계시의 증인으로 택하셨다면, 왜 우리를 지상의 고통과 불행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까?" — 이에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비록 적을지라도 너희 형제들이 마시는 고통의 잔()을 비워야만 너희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 내가 너희에게 이 시대에 인간의 교만과 악이 만들어 낸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거늘, 너희에게도 파괴하거나, 잘라내거나, 속죄해야 할 것이 있다고 믿지 않는가?

51. 너희는 은총을 받았으나, 동시에 시련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고통이 너희를 깨어 있게 한다면, 그것은 다른 민족들이 마시는 쓴 독주의 *한* 방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 마음이 그 고통을 함께 느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며, 그 안에서 이 민족이 지상에 가져온 사명 중 하나를 직관적으로 깨닫게 된다.

52. 내 자녀들아, 빛과 평화, 형제애를 품고 기도하라. 이 기도들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그 힘이 영적인 영역에서 진동하며 유지되어, 너희가 기도한 이들의 마음에 닿게 될 것이니라. 내 말씀이 너희에게 일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기도가 형제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처음 날들처럼 같은 겸손과 경건함으로 나아오라. 왜냐하면 너희의 온 존재가 뒤흔들리는 날이 올 것이니, 그날이 바로 내가 이 모습으로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53. 너희 인간들아, 내가 이 시기에 너희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단지 너희의 병을 고치거나,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였겠느냐? — 아니요,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참된 삶으로 일으켜 세우고, 너희 마음속에 믿음을 불태우며, 너희 얼굴에 미소를 되찾아 주고, 너희 몸에 힘을 되찾아 준 것은, 너희가 싸움을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방법으로 너희를 준비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영혼의 평화를 찾기 위해 내 가르침에 참석할 뿐, 그들을 기다리는 사명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을 본다. 다른 이들은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자마자 떠나버리는데, 내 가르침의 의미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54. 너희 모두는 이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에게 내 말씀을 쏟아 부어, 비록 단 한 마디일지라도 그 마음이 그것을 간직하게 하였노라.

55. 나의 가르침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인류 가운데 내 말씀을 알리지 않는다면, 돌들이 말하여 내 진리와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돌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돌들은 땅을 진동시키고( ), 바다를 요동치게 하거나, 화산의 분화구에서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며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56. 이 세상이 전염병과 알려지지 않은 질병, 온갖 종류의 환난으로 황폐해질 때, 너희가 — 땅의 모든 길에 흩어져 — 내 자비롭고 힘을 주는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전하여, 폭풍우에 시달린 이들에게 상쾌한 산들바람처럼 다가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57. 너희의 나태함을 버리고 오늘 누리고 있는 귀중한 시간을 활용하라. 장차 닥칠 시기에 내 말씀을 연구하고 그 안에 깊이 잠길 여유가 있을지 너희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58. 선한 제자로서 기도하고, 너희 마음을 고귀한 목표로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인종, 계급, 또는 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마치 고향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가 어떤 인종에 속하든 간에 그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즉 너희의 형제로 여기게 하라.

59.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여 너희 언어로 듣게 하였으나, 나중에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모든 이가 알게 하도록 너희에게 명한다.

60. 이 방식으로 너희는 이스라엘의 참된 탑을 짓기 시작할 것이다. 바로 모든 민족을 영적으로 하나로 통합하고, 모든 사람을 너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들었던 그 신성하고 변함없으며 영원한 법, 즉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그 탑을 말이다.

61. 너희는 내 말씀의 순수함과 진실을 확신할 때까지 그것을 깊이 탐구하라. 그래야만 너희는 용기 있게 너희의 길을 걸어가고, 영을 위협하는 물질주의적 사상의 침투에 맞서 굳건히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물질주의는 곧 죽음이며, 어둠이며, 영을 짓누르는 멍에이자 독이기 때문이다. 결코 너희 영혼의 빛이나 자유를 세상의 양식이나 하찮은 물질적 재물과 바꾸지 말라!

62.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율법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에게는 결코 물질적인 생계 수단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내 영과 하나 되는 순간마다 그는 내 무한한 자비로 인해 언제나 영생의 양식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침35

1. 겸손과 믿음으로 영혼의 성장을 위해 나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기다리는 법을 아는 이들이 복이 있나니, 내 자비로운 도움이 적절한 때에 그들의 손에 닿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내 사랑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구하는 법과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 너희의 모든 필요와 시련 속에서 내 뜻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라.

4. 자녀는 정의와 사랑의 법칙 안에서 아버지께 청할 권리가 있으며, 아버지는 자녀를 돌볼 의무가 있다.

5.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땅에서 내 뜻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다.

6. 너희 십자가의 짐이 너희를 짓누를 때, 너희의 십자가를 지시는 분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즉시 너희를 도우러 오리라.

7. 시련의 순간에 짧지만 진실하고 성실한 기도를 드리면, 너희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너희가 주님과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나는 너희에게 내 뜻이 너희의 뜻이고 너희의 뜻이 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8.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안할 때에도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될 것이니라. 또한 너희에게 선을 베푼 자나,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라. 비록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긴 하나, 어떤 형태로든 너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만큼 위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9. 너희의 스승이자 도우미이자 구세주인 내가 바로 빌라도 앞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라. — 너희도 기도와 생각, 말, 그리고 물질적인 방법으로 형제들이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하여 고통이나 투쟁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의 속죄를 더 견딜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0. 지금은 자비를 베풀기에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청하며, 일하십시오. 밭은 비옥하여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 열방(列邦)을 위해 평화를 간구하며, 너희의 기도로 그것을 끌어당기라. 너희의 생각을 통해 치유의 향유를 보내고, 형제들의 이성에 빛을 전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간구는 너희 아버지께서 결코 듣지 않으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12. 준비하라. 많은 이들이 내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냈다는 사실을 부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세 시대에 걸쳐 *인간을* 통해 말씀하셨으며, 태초부터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예언과 영감과 계시는 인간의 매개를 통해 받아들여진 신성한 목소리였으며, 이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인도해 왔다고 말하라.

13. 너희의 증언을 부정하거나 반박하거나 분노하는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학자라고 자칭할지라도 영적 계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14. 내 뜻은, 이러한 형태로 나의 계시를 증언해 온 이 백성을 통해 인류가, 인간이 태초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감하며 이 행성에서 그분의 대변자로서 섬기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며, 비록

과거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의 사례가 드물었으나, 너희는 이제 사람들이 대대로 아버지와 영과 영의 대화에서 더 큰 완전함과 명료함에 도달하게 될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라.

15. 너희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신성한 법의 계명 안에서 이루기 위해 주님과 모든 것을 상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해야 한다. 가장은 주님께서 그의 입술에 두신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말할 것이다. 교사들은 더 높은 영감 아래 가르칠 것이며, 통치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며, 재판관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빛이시며,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이 완전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의 양심의 목소리에 복종할 것이다. 의사들은 무엇보다도 신성한 능력을 신뢰할 것이며, 그들의 말과 치유력은 주님께로부터 올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들이 이 땅에 가져온 그토록 어려운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며, 영적 준비를 바탕으로 신성한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마침내, 영혼들을 발전의 길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세상에 가지고 온 모든 이들은, 나의 계시를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를 고양할 줄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이 그 계시를 받아들였던 빛과 순수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을 전하게 될 것이다.

16. 나는 너희에게 다가올 시대에 대해 말하노니, 너희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형제들이 너희의 예언을 비웃는다 해도 낙심하지 말라. 사도 요한도 아버지와의 교감 속에서 받은 것을 전했을 때 조롱을 받았고 심지어 미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에게는 불가능해 보이고 다른 이에게는 낯설고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이 성취되는 때가 도래했다.

17. 너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가 그 선견자이자 예언자이며 스승의 대변자를 통해 말한 모든 것이 성취되는 바로 그 시기이다.

18. 그 영적 통찰력 때문에 그 사랑과 진리의 사도는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며, 추방당했다. 그러나 그를 박해하고 처형하는 자들로부터 나의 보호가 그에게 부족하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이 이유로 너희를 감옥에 가둔다면, 내가 너희를 자유로이 풀어 주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일이나 양식을 거절한다면, 내가 너희를 부양하리라; 그들이 너희를 모욕하거나 비방한다면, 내가 너희를

칭찬하고 너희에게 정의를 실현해 주리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죽인다면, 내가 너희를 참된 생명으로 부활시키리라.

19.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노니, 기도로 준비하여 이 예언을 전파하고, 온유와 힘과 믿음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 증언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

20. 이 준비 과정에서 내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너희가 갈망하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1.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었듯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22. 너희는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시대에 사람들은 고통의 잔을 바닥까지 비우며 정화되고 있다. 그러나 예언을 연구해 온 이들은 이미, 나라들 간에 화합하지 못하여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할 시기가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다.

23. 아직 인류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질병과 전염병이 나타나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일이 남아 있다. 그러나 고통이 인간들에게 절정에 달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신의 벌이다!"라고 외칠 힘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벌하지 않는다. 너희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는 법칙에서 벗어날 때, 스스로를 벌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24. 인간의 무모함이 아니라면 누가 자연의 힘을 풀어놓고 도전했느냐? 누가 내 법칙에 거역했느냐? — 과학자들의 오만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고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라난 잡초를 뿌리째 뽑아내는 데 쓰일 것이다.

25. 들판은 시체로 뒤덮일 것이며, 무고한 자들조차 죽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불에, 어떤 이들은 굶주림에, 또 다른 이들은 전쟁에 죽을 것이다. 땅은 흔들리고, 자연의 힘은 요동치며, 산들은 용암을 뿜어내고, 바다는 거세게 일렁일 것이다.

26. 나는 사람들이 자유 의지가 허락하는 한도까지 타락을 저지르게 내버려 둘 것이니,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경악하여 영혼 속에서 참된 회개를 느끼게 하려 함이라.

27. 겸손한 제자들아 — 비록 너희가 불완전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아: 전쟁으로 인해 풀려난 열정의 영향에 맞서 평화의 생각으로, 영적 빛으로 가득 찬 기도로, 형제애의 말로, 그리고 진리와 이웃 사랑을 담은 행실로 맞서라. 너희는 준비해야 한다. 전쟁이 끝나고 이 분쟁이 종식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몸과 영혼을 위한 치유제를 찾아 먼 곳에서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28. “그 시간이 오면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오 스승이시여!”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느니라. 이에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나는 너희를 떠날 수 없나니, 모든 피조물 안에 내가 현존하느니라.

29. 나는 자연의 힘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며, 바다에서 내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요, 이 행성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영혼들은 오직 참된 다정함으로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의 빛에 감동받을 것이다.

30. 이 계명은 많은 이에게 심판자가 될 것이며, 어떤 이들은 이를 마음속의 열린 상처처럼 느낄 것이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성취를 위해 잠들지 못하게 할 파수꾼과 같을 것이다.

31.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와 헤어질 수 없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한때 나의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말한 바와 같이, 이 시대에 “나의 영이 모든 육체와 모든 영 위에 부어지리라” 한 것과 같다.

32.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가리라. 너희가 나를 어디서 찾든지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시선을 어디로 돌리든지 나를 보리라. 그러나 나는 이 날, 내 말씀으로 너희에게 단지 괴로움과 큰 환난의 전조만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깨어 기도하며 지내게 하여, 시련이 닥쳤을 때 너희가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33. 내가 인류를 기다리고 있는 전쟁과 큰 재앙들을 너희에게 예고해 주었듯이,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에게 지상의 모든 나라가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서로 사랑하며, 그들의 삶과 노동, 세상에서의 행실이 향기로운 향처럼 이 행성에서 나에게로 올라가는 기쁜 경배가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노라.

34. 너희는 내게 묻는다. “주님, 그 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인류가 고통과 회개, 갱신, 그리고 선행 실천을 통해 정화되었을 때이다.

35. 사람들의 영이 아버지와의 언약을 이행할 때, 나 또한 내 약속을 마지막까지 다 지키리라. 나는 내 보물 창고를 열고 그 안에 담긴 지혜와 평화, 계시를 내 자녀들에게 쏟아 부으리라.

36. 내 백성아, 이 세상을 거니는 동안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준비하라. 곧 내가 너희를 보내어 내 진리를 전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37. 내 가르침이 너희에게 보여주는 기도와 이웃 사랑, 겸손을 실천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준비하라. 또한 육신을 악덕과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고 순종하게 하여, 영혼의 완전한 협력자로 만들 때까지 준비하라. 일단 준비가 되면, 너희 앞의 길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혼의 삶은 신성한 품에서 출발하여 돌아올 때까지 발전의 사다리이다.

38. 아버지께서 너희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창조주를 진정으로 알고 이해할 기회를 갖도록 그 사다리의 첫 번째 단에 너희를 세우셨다. 그러나 첫 번째 발판을 떠날 때, 위를 향한 발전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는 얼마나 적었는가! 대다수는 불순종과 반항으로 뭉쳐, 자유라는 선물을 잘못 사용했고 양심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그들은 물질에 지배당하여, 그 발산으로 악의 힘을 만들어 냈고, 심연 하나를 파내어 그 영향으로 인해 형제들을 그 속으로 끌어내려야만 했으며 , 형제들은 자신의 약점과 타락, 그리고 고양과 순결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39. 너희가 선과 의로움 안에 꾸준히 머물렀더라면, 지상에서 살았을 너희의 삶은 얼마나 달랐겠느냐.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는 내 사랑의 열매를 거두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너희는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며, 내가 너희를 내 왕국에서 추방한 것도 아니다. 그 증거는, 내가 내 현존을 인간의 형상으로 감싸고 너희에게 다가왔을 때, 너희가 수많은 오류와 불완전함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이다.

40. 이 세상에서 나는 너희의 타락과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 피와 내 몸을 너희에게 주었다.

41. 내가 태초에 너희에게 주신 변함없는 법, 선을 향한 선지자들의 권면, 나의 가르침, 그리고 나의 모든 메시지는 인간이 양심을 통해 받아들인 영적인 빛이다. 만일 인간이 발전의 시작부터 법과 순결함 안에 머물렀더라면, 그의 영은 나의 영과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42. 사람들의 음행과 무지, 영적 고양의 결여, 그리고 그들의 범법으로 인한 고통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신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경멸했던 지혜의 책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참된 길을 보여 주셨다.

43. 수세기가 지났고, 사람들은 여러 번 세상에 다시 돌아와야만 했으나, 여전히 그들은 내 율법의 본질과 자기 영혼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44. 나는 여전히 인간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있으나, 이 시대에 내가 계시하는 바가 바로 영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단계로 끌어올릴 가르침임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곳에서 그들은 모든 오류를 깨닫고 바로잡으며, 파괴된 것을 재건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45. 나의 신성한 파종에서 씨앗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나, 사람들의 추락으로 인해 그들의 영적 꽃피움과 결실이 지연되었을 뿐이다.

46. 이 시기에 지구는 인류의 큰 고통 속에서 갈아엎어지고 있으나, 내가 내 씨앗을 찾아 잡초와 분리해 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47. 너희의 죄와 내 법에 대한 불순종의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48. 들으라, 제자들아: 너희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나는 이미 존재하였고, 내 영 안에 너희의 영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아무런 공로도 쌓지 않고 내 왕국을 상속받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너희가 누가 너희를 창조했는지 알지 못한 채 이미 존재하는 것을 소유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방향도, 목표도, 이상도 없이 길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다.

49.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양심을 주어 너희의 인도자가 되게 하였다. 나는 너희의 행위가 내 앞에서 참된 가치를 가지게 하려고 너희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영을 주어, 그것이 언제나 빛나고 순수한 것으로 승화되기를 갈망하게 하였노라. 나는 너희에게 육신을 주어, 너희가 마음을 통해 선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갖게 하였으며, 그것이 너희에게 시금석이 되고, 끊임없는 시험이 되며, 또한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되게 하였노라. 지구는 너희 영혼을 위한 학교였으며, 그곳에는 신성한 스승의 임재가 결코 결여된 적이 없었다. 인간의 삶은 육신을 입은 영혼을 위한 깊은 지혜의 책이었다.

50. 우주가 영들의 현존으로 처음 밝아졌을 때, 그들은 — 아직 어린아이들처럼 비틀거리며 더듬거리고, 높은 영성화 단계에 머물 만한 발전이나 힘을 갖추지 못했기에 — 자신을 강하게 느끼게 해 줄 지주와 발판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물질과 물질 세계가 주어졌으며, 그들은 새로운 상태에서 경험과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부록의 주석 5 참조*

51. 너희는 이 시대에 인류 가운데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내 말씀을 통해 너희의 투쟁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리라.

52. 너희의 뇌는 작아서, 그 자체만으로는 너희가 가진 은사의 가치와, 아버지께서 이 백성을 통해 인류 가운데서 이루셔야 할 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53. 나의 지혜롭고 강력한 뜻은 나의 사자들, 나의 제자들, 나의 예언자들이 내 말씀의 선포라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갈 길을 닦아 주며, 동시에 너희가 이방인이라 부르는 너희 형제들의 큰 무리가 너희 민족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게 한다.

54. 그 무리들은 겉보기에는 육신을 위한 양식과 마음을 위한 평화를 찾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영혼이, 모든 영혼의 깊은 곳에 간직되어 온 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갈망하며 나아올 것임을 알고 있다.

55. 너희는 먼 땅과 나라들에서, 영혼의 해방을 갈망하는 너희 형제들이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옛 팔레스타인에서도, 마치 이스라엘 지파들이 광야를 건너던 때와 같이, 그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올 것이다.

56. 그 땅은 자신의 왕국을 새로운 유산으로 제시한 분을 그 품에서 내쫓은 이래로 길고 고통스러운 순례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제 그 땅은 오아시스에 다가가고 있다. 그곳에서 쉬며 내 말씀을 묵상한 뒤, 내 율법을 깨달음으로 힘을 얻어 오랫동안 잊혀졌던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계속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많은 이들이 너희 나라가 새로운 약속의 땅,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은 이 세상 너머에 있으며, 그곳에 이르려면 이 시대의 시련이라는 거대한 사막을 건너고 나서 영적으로 그곳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또한 너희는 그들에게 이 나라가 단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일 뿐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백성아, 그 오아시스가 지친 방랑자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그곳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들의 갈증으로 메마른 입술에 수정처럼 맑고 시원한 물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57.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그늘과 그 물은 무엇인가? — 나의 가르침이니라, 백성아, 사랑의 실천에 관한 나의 신성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내가 이 은총과 축복의 풍요로움을 누구에게 두었느냐? — 바로 너에게, 백성아, 그리하여 네가 네 마음을 모든 이기심에서 점점 더 자유롭게 하여, 네 모든 행실 속에서 그것을 맑은 거울처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려 함이니라.

58. 너희의 사랑으로 인해, 전통에 얽매여 영적으로 정체된 그 백성을 삼위일체-마리아적 영성 교리로 회심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너희의 영과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겠느냐? 옛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을 통해 회심하게 된다면, 즉 전자가 후자를 통해 은총을 얻게 된다면, 너희 가운데 기쁨이 넘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유대 민족을 도덕적, 영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옛 전통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로 설득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여호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믿지만, 실상은 여전히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민족이다. 이 길 잃은 백성이, 전 세계( )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더 이상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태초부터 그들의 구세주로 약속되었으나 가난하다고 여겨 그분 안에서 아무런 선함도 찾지 못해 오해하고 죽였던 그분을 찾게 될 때가 가까워졌다.

59. 이제 그들이 판결로 내게 씌운 그 십자가가,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의의 척도가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마침내 그들의 입술이 "예수는 메시아였다!"라고 외치게 될 때까지.

60. 그들은 영적 빈곤과 비참함, 그리고 고통 속에서 나를 찾게 될 것이며, 그들의 눈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그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심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며, 그분이 그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보물과 그 왕국이 진실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 그 어떤 보물도, 부도 영혼의 평화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61. 그 백성이 내게 등을 돌렸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린다. *사람은* 자신의 말과 심지어 맺은 언약마저 어길 수 있지만, 나는 변함이 없으니 내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62.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리라 말해졌다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내 왕국으로 데려가리라 말해졌다면, 내가 그들을 내 왕국으로 데려가리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36

1. 내 말씀의 온유한 자비 앞에서, 발전의 길에서 벗어난 영혼은 깊은 회개를 하게 된다. 내 말씀의 사랑 어린 온유함은 사람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여 눈물을 흘리게 한다.

2. 나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의 잘못을 용서하며, 그가 저지른 악을 보상하도록 돕는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내게 이르지 못함을 알라. 오직 회개에서만 갱신과 개선, 그리고 정화가 비롯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는 정화된 영혼만이 내 면전에 나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느낄 수 있었겠느냐? 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신성한 정의 앞에서 동포의 생명을 앗아가고, 믿음을 파괴하고, 영혼을 속이고, 마음을 배신하고, 순결을 더럽히고, 수치를 끼치고, 동포에게서 그 소유물을 빼앗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짓말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 모든 것에 익숙해져 버렸기에 무시해 버렸던 수많은 불완전함들 말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의 의미 속에서 너희는 완전한 정의의 현존을 발견했다. 그 정의는 너희의 양심을 통해 너희의 모든 악한 행위를 깨닫게 하고, 너희의 생각을 살피게 하며, 너희가 이미 잊고 있던 영적 충만함을 상기시켜 주었다.

3. 비로소 그때서야 너희는 이전에는 하찮게 여겨졌던 너희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너희의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고, 비로소 그때서야 너희가 초래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너희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고, 너희의 모든 나체와 모든 오점을 가진 채 내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내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한순간 내 사랑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러나 곧바로 너희가 바로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고, 너희가 회개하고, 정화되어 나를 섬겨야 한다는 증거로서 눈물로 씻긴 너희 마음은 영적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4. 내 자녀 중 누구도 나를 잊을 수는 없으니, 그 영혼 속에 내 영의 빛인 양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그 빛을 통해 조만간 나를 알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 어떤 이들에게는 내 말씀의 뜻을 꿰뚫고 그 안에서 빛을 찾는 것이 쉽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내 말씀이 수수께끼와 같다.

6.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에 모든 이가 내 메시지의 영성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영이 내 계시의 빛을 향해 눈을 뜨기까지 새로운 시대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7. 나는 결코 비밀에 싸여 사람들에게 온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신성을 계시하거나 영원을 어떤 물질적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 비유적인 말로 말했을 때, 그것은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가르침의 본질을 찾으려 하기보다 형상이나 사물, 상징을 숭배하는 데 그친다면, 수세기에 걸쳐 정체에 빠지고 모든 것에서 신비를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8.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머물던 시절, 내 피가 어린 양의 피로 상징되었던 때부터, 그 희생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 흘리실 피의 예표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단지 전통과 의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다른 이들은 내 몸으로 양육받는다고 믿으면서도, 물질적인 빵을 먹을 뿐, 내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빵을 주었던 것이 — 내 말씀의 의미를 양식으로 삼는 자가 바로 나로부터 양육받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9. 진실로 나의 신성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 얼마나 적은가! 그리고 그 소수는 바로 영으로 그 가르침을 해석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신성한 계시를 한 번에 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 조금씩 설명해 주고 있음을 명심하라.

10. 너희가 때때로 혼란에 빠지고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오해를 쌓아왔다면, 오늘날 너희가 "제3의 시대"의 영적 가르침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1. 너희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래된 오류를 없애며,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아버지가 태초부터 항상 영을 통해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며, 비록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 물질적인 형상을 자주 사용하셨더라도, 항상 영적인 삶을 가리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12. 잠에서 깨어나라, 사람들아, 너희의 영으로 내 말씀을 탐구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가르침 중 *하나를* 깊이 연구하고 이해한다면, 너희는 내 계시의 영적 핵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13. 내가 너희에게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던 가르침을 기억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는 법을 *배우라*."

14. 내가 지금 너희에게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의 기도가 예전에는 불완전하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오직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 생각했다. 오늘 나의 가르침은 너희가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너희 이웃의 고통과 고난, 너희 형제들을 괴롭히는 불행을 체험하고 느껴라. 너희는 은밀히 상처를 안고 있는 이를 이해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볼 수 없는 이들의 고통을 느끼도록 배워야 한다. 후자 중에는 다른 민족과 나라에 사는 이들, 다른 세계나 저승에 머무는 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언젠가 너희 자신을 잊고 오직 타인만을 생각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곧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15. 너희가 아버지를 찾아 생각의 돛을 올리는 것을 볼 때,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을 얻는지.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내 임재를 느끼게 하고 평안으로 너희를 가득 채워 주리라.

나를 찾으라, 나와 대화하라. 너희의 생각이 너무 서툴러서 간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개의치 말라. 내가 그것을 알아들을 것이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듯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게 말하라.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듯 나에게 너희의 고민을 털어놓으라. 너희가 모르는 것, 너희에게 낯선 모든 것을 내게 묻거라. 그러면 내가 스승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너희의 영혼이 내게로 향하는 그 축복받은 순간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빛과 힘과 축복과 평화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16. 나는 앞으로 기도를 통해 영에게 줄 많은 계시를 준비해 두었다. 이 계시를 통해 너희 자신을 온전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간구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니, 곧 간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17. 너희 영혼이 영적인 골짜기에 이르러 지상에서 보낸 시간과 행한 일들에 대해 책임을 다할 때, 내가 너희에게 가장 많이 물을 것은 너희가 이웃을 위해 간구하고 행한 모든 일일 것이다. 그때 너희는 오늘 내가 한 이 말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18.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와 혼란을 초래했다. 이는 회복이 다가올 때 중병을 앓는 이에게 일어나는 것과 같다. 마치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보일 뿐이다.

19. 인류에게 닥친 이 위기가 클수록, 그 후의 회복은 더욱 클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반드시 그러할 것이며, 나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너희에게 이를 예고해 왔다. 이제 너희는 무장하고, 믿음으로 굳건해지며,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20. 이 말씀을 자주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깨어 기도하라. 모든 이에게 큰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니, 그 때에는 인간의 모든 권세와 금, 학식도 신성한 정의의 무게를 덜어주지 못할 것이다. 그 날들에는 너희가 교만하고 자만하는 자들에게는 터무니없고 비논리적으로 보일 사건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학자들이 자신들이 무지하다고 여겼던 이들에게로 돌아서게 될 것이며, 부자와 권력자들이 궁핍한 이들을 찾아가게 될 것이니, 그들에게는 시련에 대한 더 큰 이해와 평정심, 더 큰 이웃 사랑과 더 큰 영적 풍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1. 어떤 이들은 마음속으로 내게 말하되, "스승님, 저는 당신이 예고하신 이 고통의 시기를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온 생애가 고통스러운 시련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이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고통 속에서 단련된 너희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 날들이 오면 너희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며, 대신 그러한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2.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의 잔을 마시는 것은, 군인이 오직 전투 속에서 단련되기 때문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최후의 전투, 그 큰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그 순간에 형제들의 고통 앞에서 눈과 귀를 막지 말고, 또한 죽음 앞에서 숨으려 하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이 종말을 보는 곳, 바로 그곳이 시작이 될 것이며, 그들이 죽음을 보는 곳, 바로 그곳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곁에 있어 내 사랑으로 너희를 감싸고, 너희가 회복해야 할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23.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놀라움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미리 모든 것을 알려준다. 다른 이들을 경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준비와 기도, 회개와 깨어 있음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할 방법을 찾으라.

2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이며, 너희가 이 말씀 안에서 받는 신성한 본질이 바로 이 창조주의 영으로부터 오는 빛이며, 내가 너희 각자에게 내 영의 일부를 남겨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나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를 둘러싼 궁핍함과, 너희가 모인 이 공간의 소박함을 보며, 너희는 마음속으로 내게 묻는다. "스승님, 왜 이 시대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당신께 합당한

화려한 제단과 엄숙한 의식을 드릴 수 있는 그 거대한 성전이나 대성당 중 한 곳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25. 스승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들에 내가 대답하노라. 나를 이 가난한 처지로 이끈 것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나 스스로가 내 계시를 전하기 위해 너희 도시의 가난한 교외에 있는 이 소박한 거처를 선택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서 물질적인 공물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제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임을 너희가 깨닫게 하려 함이다. 나는 바로 그 이유로 다시 돌아와 겸손을 설교하여, 너희가 그 안에서 영성을 찾게 하려 함이다.

26. 나는 인간의 허영과 허세인 모든 것을 경멸한다. 왜냐하면 내 영에게 이르는 것은 오직 영적인 것, 고귀하고 너그러운 것, 순수하고 영원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 한다." 무한한 것, 순수한 것 안에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를 발견하리라.

27. 인류가 나에게 바치는 물질적인 제물 중에서, 나는 그것이 진정으로 선한 경우에만 그 선한 뜻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제물 속에 항상 너그럽고 고귀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자신의 악행을 감추거나 그 대가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제물을 바치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으며, 너희의 어두운 얼룩은 아무리 큰 보물을 내게 바친다 해도 물질적 부로 씻어낼 수 없느니라.

28. 회개, 나를 모욕했다는 것에 대한 아픔, 갱신, 개선, 저지른 잘못에 대한 보상,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겸손함으로 행할 때, 그래,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마음과 영과 생각의 참된 제물을 내게 바치게 되며, 이는 향과 꽃과 촛불보다 너희 아버지께 훨씬 더 기쁘게 여겨지는 것이다.

29. 내가 너희를 위해 창조한 것을 왜 나에게 바치는가? 꽃이 너희의 작품이 아닌데도 왜 나에게 꽃을 바치는가? 반면, 너희가 나에게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정의, 그리고 이웃을 돕는 행실을 바친다면, 그 헌사는 분명 영적인 것이 되어, 마치 자녀들이 땅에서 주님께 보내는 애무와 입맞춤처럼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30. 인간의 이성을 통한 나의 계시는 단순하고 명료하며, 내가 나를 표현하는 방식 또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희를 떨게 하며, 너희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과거를 깨닫게 하고, 미래에 속한 사건들을 선명하게 보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씀을 듣는 동안 매료되어 있을 것이니, 이 스승만큼 마음속을 읽어내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31. 너희는 각지에서 모여들어, 모든 여행자들을 그 잎사귀 아래서 시원함을 누리도록 초대하는 넓게 뻗은 나무의 자비로운 그늘로 피신하러 온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먼 나라의 사람들이 이 나라로 오는 때가 이미 가까워졌다.

32. 직관과 예지력이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증언과 평화를 찾아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들 중 많은 이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말씀 *한* 마디만으로도 충분하여, 영성주의의 참된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33. 만일 이 백성이 사랑 어린 마음으로 이방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화가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들의 도시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34. 너희의 정화가, 너희 문 앞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전해야 할 나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느냐? 너희는 이 폭풍과 전쟁과 정욕의 시대에, *너희가* 악의 파도 사이를 거침없이 항해하며 이웃을 구원하는 구명정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느냐?

35. 준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영과 영으로 나를 들을 것이니라.

36.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이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정화를 얻도록 하라. 이 백성은 지상에 큰 영적 사명을 안고 왔으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더 순수하고, 준비되어 있으며, 깨어 있어야 한다.

37. 너희는 내 가르침에 쓸모없는 것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는 내게서 받은 그대로의 순수함으로 그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 너희의 모범과 증언을 통해 내 가르침을 들판과 마을, 지방 곳곳에 전파하고, 너희의 동료들도 이를 통해 힘을 얻도록 하라. 이 백성은 번성하고, 준비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로 이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8. 오, 백성아, 공덕을 쌓아라. 그리고 그 공덕을 통해 내일 너희 집에서 너희를 맞아줄 이들, 혹은 너희가 너희 집에서 맞아들여야 할 이들이 이 은총을 얻게 하라.

39. 그들에게 가르쳐라. 내가 오늘 영으로 와서 서툴고 죄 많은 육신을 통해 나를 드러내려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하라. 아무도 이 인간의 육신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씀 안에 내 영에서 나오는 신성한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며, '그 말씀'은 바로 무한한 곳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나다.

40. "그 말씀"은 사랑이며,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지혜이다. 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 무리여, 그리고 무관심해지지 말라. 너희는 내 신성의 성소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새롭게 되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정화하지 않는다면, 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41. 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 안에 곧 지혜의 빛이 비칠 것이기 때문이다.

42. 영혼의 완성을 위해 투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이상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43. 내가 너희의 마음을 닦아내리니, 내가 그곳에서 목마른 자들을 위해 생명의 물을 솟아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44. 너희의 사명을 완수할 때가 왔을 때, 너희의 뜻대로 행하지 말고, 내 말씀이나 내 일에 너희의 불완전한 생각을 덧붙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신성 모독과 왜곡에 빠지게 될 것이며, 너희의 선한 행실들이 참된 생명의 책에서 지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45. 너희는 나의 진리로 무장하고 집집마다 들어가라. 너희는 나의 말씀을 전해야 하며, 그러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46. 때로는 너희가 삼위일체-마리아 영성 교리의 사자나 일꾼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반면, 거리로 쫓겨나거나, 비방받거나, 사기꾼으로 고발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정죄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심판의 순간이 올 것이니,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했을 때 진리를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들이 언젠가 내 심판 앞에 섰을 때 너희의 말을 기억하고 빛을 *깨닫게* 될 것이다.

47. 어떤 큰 죄인의 영혼이 이 물질적 삶에서 벗어나 영적 세계로 들어갈 때, 그 영혼은 자신이 상상했던 지옥이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에 들었던 그 불길이란, 양심이라는 무자비한 심판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영적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된다.

48. 이 영원한* 심판, 그 죄인을 둘러싼 어둠 한가운데서 비치는 이 빛은,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보다 더 강렬하게 타오른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상처 입힌 자를 위한 형벌로 미리

준비된 고문이 아니다. 아니, 이 고통은 저지른 잘못을 깨닫는 데서 비롯되며,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상처 입혔다는 슬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시간과 모든 선물을 잘못 사용했다는 자책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영원"이란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것의 반대, 즉 내세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49. 너희는 내가 죄로 인해 나를 상처 입힌 자를 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비록 그 죄가 그것을 범한 자 자신을 더 크게 상처 입힌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말이다. 죄인 자신이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것임을, 그리고 내가 그를 벌함으로써 그가 자초한 불행을 더 키우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나는 단지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양심의 가차 없는 목소리를 듣게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고, 물질로 인해 잃어버렸던 영적 기억을 되찾아 자신의 기원과 소명, 그리고 서약을 기억하게 할 뿐이다; 그리고 그곳,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악을 근절하고, 도가니 속의 금처럼 그를 다시 녹여, 해로운 것과 쓸모없는 것, 그리고 영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해 주는 "불"의 작용을 경험해야 한다.

50. 어떤 영혼이 양심의 목소리와 심판을 듣기 위해 잠시 멈춘다면 —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순간 그 영혼은 내 면전에 있는 것이다.

51. 이 평온과 고요, 그리고 명료함의 순간은 모든 영혼에게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재빨리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그 과정에 들어서며,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덜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실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즉시, 그들은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악한 행실을 끝까지 속죄하기 위해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악덕이나 어떤 원한, 혹은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이들은,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다른 이들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을 때 너무 일찍 이 땅에서 데려가졌다고 믿어 불만을 품고, 저주와 비방을 퍼붓는 바람에 자신의 혼란에서 벗어날 기회를 늦추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들 외에도 오직 나의 지혜만이 아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52. 또한 내 자녀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속죄를 위해 내가 특별히 창조한 장소는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나의 기적과 축복을 두지 않은 세상은 없다.

53.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눈물의 골짜기, 즉 속죄의 골짜기라고 말하지 않느냐? — 그러나 누가 이곳을 눈물의 골짜기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 나는 기적과 즐거움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 천상의 낙원을 닮게 만들었으며,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가장 작고 하찮은 것까지 생각했다. 그런데도 인류의 안녕과 진보, 기쁨과 영적 성장을 위해 창조된 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은 고통받고, 울고, 절망하며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

54. 그러나 내가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창조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은 그곳의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대로 되는 것이다. 인간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으로 진리를 왜곡해 왔는지, 영적 생명이 그에게 계시된 *상징을* 얼마나 전혀 다르게 해석해 왔는지 깨달아라.

55.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한 영적 계곡에는 어둠도, 불도, 사슬도 없다.

56.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양심의 가책과 고뇌, 즉 그 삶을 누릴 영적 성숙함이 부족하여 겪는 고통,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의 것들이 영적 삶의 문턱에 오점을 남기거나 준비 없이 다가온 영혼들의 속죄 과정에 존재한다.

내가 인간의 죄나 불완전함, 타락을 아버지께 가해진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아라. 나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악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57. 땅 또한 더럽혀지지 않았으니, 한때 아버지의 손에서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선하고 순수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그 순수함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않으리니, *땅은* 인간의 어머니이자 안식처, 그리고 고향이 되라는 본래의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새롭게 되며, 영혼과 몸을 정화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이 본래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 나아가 발전과 투쟁, 그리고 덕행의 실천을 통해 얻은 빛을 영혼 속에 드러내기를 요구할 것이다.

58. 제자들아, 이 부분에서 멈추어라. 이 책의 가르침을 너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는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이 생에서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며, 너희를 기다리는 저 세상에서의 길을 수월하게 해 줄 것이다.

59. 나는 시대와 세대를 넘어 너희에게 가르침을 부분적으로 전해 주었다. 오늘날 너희에게는 내가 현재 가르치는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는 너희가 지성으로 영적 가르침에서 더 큰 완전함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며,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전해진 이 계시가 마지막 가르침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더 이상 이를 생각하지 않도록, 나는 지금 너희에게 너희가 결코 나의 *마지막* 말씀, 나의 *마지막* 가르침을 받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영원한 말씀"이기에, 내가 *영원히*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영원히* 너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내게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37

1. 인류 역사상 언제나 큰 영적 빛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이웃들의 발전의 길을 밝혀준 사람들이었다.

2. 이 존재들은 어디에서 지구로 온 것일까? 혹시 이 행성으로 돌아와야 할 자들이 거주하는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 온 것일까? — 아니, 내 백성아,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존재들의 지식과 선함을 통해 그들이 온 세계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구에 가까운 저세상의 영역, 즉 아직 정화되어야 할 영적 존재들이 머무는 "천국의 사다리"의 하층부를 의미한다.*

3. 영적 승화의 단계들은 영원 속에서 끝없는 사다리를 이룬다. 그러나 완성에 이르는 그 여정은 일곱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마찬가지로 일곱 발전 단계로 나뉘어 있는 인간 삶 속에서 그 반영을 볼 수 있다.

4. 인간의 모든 부분은 그들이 가져야 할 빛에 도달하고 진정한 영성화를 이루기 위해 펼쳐지고 발전해야 한다.

5. 그의 육체, 이성, 도덕, 영혼, 그리고 온 존재는 이 일곱 가지 큰 과정, 이 일곱 가지 시련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정화되어 빛과 기쁨, 힘과 깨달음, 경험으로 충만해진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진정한 삶의 책』 제1권에 있는 일곱 인에 대한 해설을 참조하라.*

6. 신의 뜻에 대한 순종, 영적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감수성, 생각을 통해 아버지 및 영적 세계와 나누는 대화는 새로운 시대가 너희에게 마련해 둔 발전의 단계들이다.

7. 인류는 이미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 살았던 시기가 있었고, 권력, 지배, 그리고 덧없는 부를 좇았던 시기가 있었으며, 주변의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몇 가지 감각을 발달시켰던 시기가 있었고, 또 다른 시기에는 영혼의 평화 를 갈망하며 종교의 길로 들어섰고, 또 다른 시기에는 이 지구를 자신의 지배 영역으로, 이 삶을 영원으로, 그리고 물질을 신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8. 지금은 인류의 삶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이며, 너희가 면밀히 관찰한다면 모든 영역과 모든 자연의 힘과 권세 속에서 거대한 투쟁, 거대한 전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9. 인류여, 이는 한 단계의 끝이다. 그러나 너희는 새로운 시대가 언제 시작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나, 인장을 떼는 어린 양만이 너희에게 이를 말해 줄 것이다. 너희는 여전히 여섯 번째 계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시대에는 예언의 성취로서 사건들이 차례로 일어나고 있다.

10.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침묵과 평화가 마음속에 스며들며, 사람들에게 참된 기도와 참된 영성이 깃들 때, 얼마나 많은 종교 공동체와 종파, 교리가 내 권능의 빛의 검 아래 쓰러질 것이며, 얼마나 많은 과학과 이론이 망각 속에 묻힐 것인가.

11. 종교들이 연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의 차이점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사랑과 정의와 진리의 법 안에서 사람들이 연합하게 될 것이다.

12. 모든 신성한 영감에 무관심한 이 인류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시기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는 이제 내 존재가 사람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예언들을 깊이 생각할 때, 깊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제7의 인장이 열려 그 빛을 너희에게 가져다줄 때, 너희 *모두는* 깨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3. 우선 나는 이 백성을 내 말씀으로 준비시켜, 진리에 영감을 받아 나아가게 하고, 내 가르침의 사랑의 교훈으로 동료 인간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14. 오직 진리만을 양식으로 삼고 순수함이 담기지 않은 모든 것을 물리치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이다.

15. 아이들이 너희 안에서 영적 고양을 보게 하라. 그래야 그들이 이 생에서 따를 수 있는 확실한 길을 갖게 될 것이다.

16. 너희 마음이 사랑스러운 감정과 다정한 생각으로 대할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을 돌보아라. 그러면 너희는 그들에게 선을 행한 것이 될 것이다. 너희의 행실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라.

17. 너희가 지켜줄 수 없는 모든 이들을 내가 지켜볼 것이며, 이 시대에 사람들이 뿌리는 악한 씨앗이 그 영혼들을 오염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리라.

18. 발전의 법칙에 따라 영혼들을 육신으로 보내시는 분은 바로 나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상의 영향들이 나의 계획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야심 찬 권력 추구를 넘어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19. 모든 인간은 지상에 사명을 가지고 오며, 그 운명은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 두셨고, 그 영혼은 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람들이 의식을 치르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나이에 있더라도 물은 내 율법을 어긴 죄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모든 죄에서 깨끗한 영혼을 보내신다면, 교파의 성직자들은 세례를 통해 어떤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인가?

20. 이제 너희는 인간의 기원이 죄가 아니라, 그의 탄생이 자연법의 성취 결과임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이 법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을 이루는 모든 피조물이 성취하는 법이다. 내가

"인간"이라고 말했지 "그의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알아두라. 인간은 자신과 유사한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는 나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영들은 오직 나로부터만 나옵니다.

21. 성장과 증식은 우주의 법칙이다. 별들도 씨앗이 번식하듯이 다른 더 큰 별들로부터 생겨났으며, 나는 결코 그 사실로 인해 그들이 죄를 지었다거나 창조주를 모독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 신성한 계명을 이행한다고 해서 왜 죄인으로 여겨져야 하는가? 법의 이행이 결코 인간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22. 사람을 더럽히고 영혼을 발전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저급한 정욕, 즉 방종과 악덕, 음행이다. 이는 모두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23. 진리를 찾을 때까지 연구하고 탐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생명의 창조주의 계명을 더 이상 죄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선한 행실의 모범을 통해 자녀들의 삶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24. 내가 무한한 곳에서 왔다고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를 갈라놓는 거리를 생각할 때 너희 가슴에서 슬픈 한숨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감각을 집중하여 그것을 나에게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너희의 영을 — 너희가 상상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처가 있는 곳까지 — 끌어올리려 애쓴다. 때로는 너희가 기도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신성한 영이 거하시는 그곳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25. 들으라,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무한함을 너희는 결코 너희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 무한함은 너희에게 다정함, 빛, 순결, 지혜, 사랑, 그리고 완전함에 대해 말하노니, 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므로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이다.

26. 이 점이 명확해진 이상, 내가 내 말씀 속에서 내 사랑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내 다정함이 여인이 되었다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이해하라.

27. 나는 무한 속에 거하는 특정하거나 제한된 장소가 없으니, 나의 임재는 신성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왕국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시선을 높이 들어 하늘을 향한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다. 너희의 행성은 끊임없이 회전하며,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하늘의 구역과 새로운 높이를 너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28. 이 모든 것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거리가 없으며, 너희를 나로부터 분리시키는 유일한 것은 너희가 나의 완전한 법과 너희 영 사이에 끼워 넣는 허락받지 못한 행위들뿐이라는 것이다.

29. 너희의 순결함이 클수록, 너희의 행실이 고상할수록,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확고할수록, 너희는 나를 더 가깝고, 더 친밀하며, 너희 기도에 더 잘 응답하시는 분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30. 마찬가지로, 너희가 선과 의로움, 그리고 허락된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어둡고 이기적인 삶의 물질주의에 빠져들수록, 너희는 나를 너희로부터 점점 더 멀리 느끼게 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내 율법의 성취로부터 멀어질수록, 내 신성한 임재에 대해 무감각해질 것이다.

31. 내가 왜 이 시기에 내 말씀을 이러한 형태로 선포하며, 영과 영 사이의 계시를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는지 깨달아라.

32. 너희는 나를 무한히 멀리 계신 분으로 여겼기에, 내게로 오는 법을 알지 못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내 신성한 현존을 느끼게 하고, 아버지와 그 자녀들 사이에는 그들을 갈라놓는 공간이나 거리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너희를 찾아갔다.

33. 또한 내가 너희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드러냄으로써 너희를 나로부터 갈라놓았던 그 영적 거리를 좁혀 주었으니, 이것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깨달아라. 이는 너희의 한계를 고려하고 너희의 영성 부족을 감안하여 그분이 베푸신 자비의 또 다른 증거이다.

34. 이러한 이유로, 이 음성 전달자들의 이성을 통해 내가 계시하는 이 은혜의 시간은 짧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영성화와 공덕을 통해 얻은 선물이 아니므로, 너희 영적 성취의 일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하건대, 이는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였으며, 1950년이 끝나면 나는 이 형태의 전달을 끝낼 것이다. 너희가 자신의 공덕을 통해 영과 영의 계시 속에서 나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말이다.

35. 이 새로운 계시는 깊이 영적이며,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순수하며, 완전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불완전하고, 우상숭배적이며, 광신적이고, 어두운 숭배의 종말을 알리는 시작이 될 것이며, 너희 존재의 성소를 열어, 그 안에 내 영이 영원토록 거하게 할 것이다.

36. 겉으로 드러나는 황홀함도, 열광도, 그 어떤 종류의 과시도 없을 것이며, 오직 순수함과 경외심, 그리고 진리만이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영성화이다.

37. 이 약속의 성취가 너희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모든 기적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 공덕을 쌓는 일을 시작하여, 이를 통해 마침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해 둔 그 은총에 도달하고, 그것이 너희 삶의 일부가 되게 하라. 그러므로 더 이상 지금처럼 그 끝을 정할 특정 시점이 없을 것이니, 이는 본질적으로 신성한 것이기에 너희에게 영원히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천국이 인류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38.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땅에서 일하되 믿음으로, 형제들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생계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39. 실을 잣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는 새들이 결코 몸을 감싸는 옷이나 먹을 것을 결핍하지 않는데, 너희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들이니 어찌 내 보살핌을 결핍하겠느냐? 너희가 굶주림이나 추위로 죽게 되려면, 너희의 악함과 배은망덕함이 너희로 하여금 나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40. 나는 생명이며, 온기이며, 빛이다. 나는 양식이며 맑은 물이며,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돌아왔고,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을 깨워 빛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왔다.

41. 오래전에 모든 눈이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으니, 나는 지금 여기에 있으며, 인류가 나의 진리를 바라보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42. 사람들이 나를 보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부족한가? — 영성화이다. 영성화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감수성 있게 만든다. 그가 정화되고 그의 마음에서 나에게 드리는 참된 기도가 솟아오르면, 그는 처음으로 내 존재를 자신 안에서 느끼게 되고, 나의 다정함을 깨닫게 되며, 나의 무한한 사랑에 휩싸인 듯한 느낌을 받고 외치게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을 보았도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그분을 느꼈도다!"

43. 내가 땅에서 의인을 *한 명이라도* 찾았다면, 그를 도구로 삼아 그를 통해 너희에게 가르침과 본보기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땅을 두루 살펴보아도 나는 의인을 *한 명도* 찾지 못하였다.

44. 첫 번째 시대와 두 번째 시대의 의인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그들의 덕행과 충성, 그리고 내 율법을 이행하는 데 쏟은 열정,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배울 수 있도록 말이다. — 그들은 영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비록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너희의 물질적 본성이 여전히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짙은 장막이기에 너희는 그들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다.

45. 너희는 마치 난파당한 자들처럼, 격정이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아주 긴 밤의 어둠에 휩싸여 있다. 이 폭풍 한가운데서 내가 나타나, 나의 돕는 사랑은 너희를 구원의 항구로 이끄는 길을 비추는 등대 같았다.

46.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의 영에게 이 물질적 삶을 초월하여 바라볼 수 있는 은사를 주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는가? — 아니, 백성아,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은사도, 새로운 능력도 주지 않는다. 모든 것은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너희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개발하고 활용해 온 것만이 너희 존재 안에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반면, 너희가 잊거나 소홀히 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 비록 숨겨져 있더라도 — 잠든 능력으로 계속 존재해 왔다. 왜냐하면 내가 준 것은 결코 다시 너희에게서 빼앗지 않기 때문이다.

47. 많은 숨겨진 능력들이 내 목소리가 그들을 깨우기를 기다리며 너희 존재 속에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때가 왔으니, 너희는 모두 이 생을 넘어선 곳에서 나사로를 향해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했을 때 그가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48. 내 오심을 기다릴 줄 알았던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각성은 완전할 것이며, 그의 영성화는 그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담고 있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49. 물질적인 영역에서나 영적인 영역에서나 사랑으로 일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의 평화를 누릴 것이다. 너희의 희생과 투쟁의 열매를 마침내 거두게 될 때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

50. 너희 영혼의 더 높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하라. 내가 너희 *인간들에게* 묻노니, "너희는 너희 영혼을 어떻게 다루었느냐?" 그리고 너희 *영적 존재들에게* 묻노니, "내가 너희에게 맡겨 준 몸을 너희는 어떻게 다루었느냐?" 어느 쪽도 나에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잘못과 약점의 무게를 깨닫는 데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오직 나만이 너희의 행실을 판단할 수 있기에, 너희가 너희의 영에 의해 깨달음을 얻어 내 진리의 거울 속에서 너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빛의 광선을 보내노라.

51. 너희 영혼이 너희가 벗어날 수 없는 발전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었느냐? 내가 너희 마음에 심어 놓은, 사랑과 생명과 상향 발전의 씨앗인 그 본래의 본질은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는 이 말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한다. 마치 내가 너희에게 낯선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52. “사랑”이야말로 너희가 창조된 목적이었다.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이며, 바로 이것을 너희는 잊어버리고 너희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

53. 삶의 매 순간마다 너희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린 고통으로 느끼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러나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실을 되새기는 대신, 너희는 마음이 더욱 굳어지고 오염되도록 내버려 둔다.

54. 너희는 너희의 미친 질주를 멈추게 하려고 다가온 목소리들을 듣기를 원치 않았고, 이제 심연의 가장자리에 이르러 그곳으로 추락하여 형제들을 함께 끌어내릴 지경에 이르렀다.

55. 너희 중 누가, 너희가 그토록 많은 증오와 타락으로 파헤쳐 놓은 그 심연의 깊이가 어떠한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 아무도, 아무도 수세기, 수천 년, 그리고 영겁에 걸쳐 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잔에 쌓여 온 어둠이나 고통을 상상할 수 없다.

56. 나는 이 세상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진보했다고 자부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묻는다. 너희는 그 모든 재능을 가지고도, 이웃을 죽이거나, 파괴하거나, 노예로 삼지 않고 평화를 이루고, 권력을 얻으며, 번영을 이룰 방법을 찾지 못했느냐? 도덕적으로는 진흙탕에 뒹굴고 영적으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너희의 진보가 진실하고 진정한 것이라고 믿느냐? 나는 과학을 반대하지 않는다. 나 자신이 인간에게 과학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문제 삼는 것은 너희가 때때로 과학을 사용하는 목적이다.

57. 나는 너희가 내가 너희를 둘러싼 가르침들 안에서 이해력이 뛰어나고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지만, 인생의 모든 걸음마다 항상 양심을 등대 삼으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정신의 능력이 꽃피는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과 힘이 너희 몸에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58. 내가 너희에게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 본성 속에 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들만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으며,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물질 너머에 있는 것, 즉 영이 솟아나는 완전한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 곧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다.

59. 내 빛은 너희에게 단 한 순간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무덤을 덮고 있는 차가운 돌판과 같아서, 잠시 따뜻해졌다가 곧바로 다시 차가워진다.

60. 나의 능력과 인내는 무궁무진하며, 너희가 심연의 가장자리에 서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증거를 하나 더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허락하리라. 그러나 내가 지금 다시 한 번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는 이 무한한 사랑 속에는, 나의 지혜롭고 무자비한 정의가 함께할 것임을 너희에게 말해야겠다.

61. 너희를 돕기 위해서는 나를 신뢰해야 한다. 그러나 깨어 있고 싸울 준비를 하라. 전사가 되되, 이웃의 생명을 파괴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과 도덕, 평화와 선행으로 세우는 자들이 되라.

62. 궁핍이나 억압 때문에 다시 물질주의적인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유혹과 시련 앞에서 영적으로 고양되어 일어서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 시련과 삶의 우여곡절을 잘 활용할 줄 안다면, 이를 통해 더 높은 삶으로 승화할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아버지의 사랑을 따르는 용감하고 고귀하며 열정적인 제자가 될 것이다.

63. 내 가르침을 듣고 있는 가정의 가장과 어머니들에게 말하노니, 용기와 빛과 평화를 무장하라. 큰 사건들이 지상에 닥쳐오고 있으니, 그들은 침착하게 제자리에 굳건히 버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64. 너희 자녀들에게 자존감과 힘을 주는 것을 항상 찾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오류들을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65. 나는 너희가 내게 한 약속, 즉 물질적 추구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비의 법칙이며 언제나 너희 양심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영적 길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

66. 이 길에서 너희의 발걸음이 확고해지면, 너희 자신을 잊고 이웃들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7.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모든 이들에게 쓰라린 고통의 잔, 상처, 혹은 무거운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68.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자신의 고통을 조용히 눈물로 삼키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이 해석할 줄 모르는 미소 뒤에는 얼마나 많은 쓰라림이 숨어 있는가! 그러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마음속을 읽어내는 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직관을 키워 이웃의 내면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마음들이 항상 열려 너희에게 그 고통을 보여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9. 고통받는 이들의 얼굴에는 드러나지 않는 이 은밀한 탄식, 이 내면의 울음, 이 슬픔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이는 오직 영성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영성화는 너희 안에서 이웃 사랑을 꽃피우게 한다.

70. 아, 너희가 너희의 모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은 것을 주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너무나 물질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 많은 이들이 오직 돈으로만 선행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와서 말해야만 했다. 고통과 굶주림, 비참함 앞에서 울면서도, 너희가 깨닫지 못한 채 몸에 지니고 있는 보물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이다.

71. 아니요, 여러분 인간들아,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은 단지 죄의 짐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생의 정욕과 투쟁 속에서 점점 더 약해져 가는 여러분의 육신이, 자신의 육체를 그 약함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자신의 영혼의 힘과 권능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72.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그 밤을 기억하라. 그 밤은 춥고 어두웠으나, 지금 이 시대 인류의 마음이 그러하듯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날 밤 내 영혼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 왔다는 기쁨으로 가득 찼으나, 사람들은 내 존재를 느끼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약속된 이가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73. 갓 태어난 아기에게 요람이 되어 준 짚과 소박한 동물들의 온기가, 내가 도착했을 당시 그 가족이 가진 전부였다.

74. *너희는* 자연이 신성한 현현에 무감각하다고 믿지만, 이는 인간의 착각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제외한 모든 피조물,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내 법칙에 복종하며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영과 양심, 그리고 자유 의지를 지녔기에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지어진 인간만이 나의 신성에 무감각한 존재이다.

75.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도 듣지 못할 정도로 너희 마음을 굳게 닫아 버렸느냐? — 너희의 자유 의지 때문이다. 이번에는 내가 인간으로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류가 나를 맞이한 사랑 없는 차가운 마음을 느꼈다.

76. 이 말씀을 듣는 이 지상의 이 곳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찾아가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나의 계시는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77.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내 계시를 위한 길을 닦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나타난 엘리야는, 너희가 사는 이 땅에만 온 것이 아니다. 그는 지구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새 시대를 알리고 천국이 가까워졌음을 선포했다.

78. 사방에서 내 도착을 알리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뒤흔들린 자연은 땅을 뒤흔들었고, 과학은 새로운 계시 앞에서 경탄했으며, 영적 세계는 사람들에게 쇄도했으나, 그럼에도 인류는 새로운 시대의 전조인 그 외침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79. 신성한 빛의 홍수가 쏟아져 내려 사람들을 어둠에서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물질에 매몰된 이들은 영혼의 완성을 추구하거나 지상 생활의 도덕적 개선을 갈구하기는커녕, 그 빛을 이용하여 육신을 위한 왕좌와 영광, 안락과 쾌락을 누리고, 필요하다고 여길 때는 동료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기 위한 무기까지 만들어 냈다. 그들의 눈은 내 빛의 강렬함에 눈이 부셨고, 그들의 허영심은 그들에게 파멸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바로 그 빛을 통해 진리를 찾고, 길을 발견하며, 구원받을 것이다.

80. 이 빛을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것을 신성한 메시지로 받아들인 자들은 양심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그들의 행위에 지침이 되도록 했다.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셨고, 그분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는 예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81. 여러 종파와 교파의 대표자들은 나를 영접하려 하지 않았으니, 그들의 마음과 자존심, 그리고 허영심이 그들이 영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 때문에 온 땅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느끼고, 기도하며 주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고독을 추구하는 이들의 모임과 형제단, 연합체가 생겨났다.

82. 내 자녀들아, 너희는 신성한 영감의 빛 아래서 점차 형성된 이 무리들에 속해 있다. 비록 내가 너희에게 말해야 하겠지만, *너희는* 이 영감이 인간의 말로 변환된 것을 은총으로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류에 빠지거나 이 영적 가르침의 목적을 놓치지 않도록, 많이 깨어 있고 기도하며 묵상해야 한다.

83. 이 길에서 무엇이 너희를 타락시킬 수 있겠느냐? — 바로 허영심이다, 나의 백성아.

84.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영감은 겸손한 자들과 자비로운 자들, 그리고 진리와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승리할 것이다.

85. 너희가 기도를 통해 얻는 평화와 힘은 너희로 하여금 부지런하고 지칠 줄 모르게 선을 심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며,

믿음을 불태우고, 땅의 모든 민족에게 축복과 위로가 되게 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침38

1. 나는 "마지막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첫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과 같은 빛을 쏟아 부어, 그들이 일어나 내 가르침을 널리 알리도록 한다.

2. 너희가 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짧으니, 내가 1950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치겠다고 예고했으므로, 그 시점 이후로는 내 목소리가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더 이상 울려 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자는 만족하고 강해질 것이나, 들은 후 의심한 자는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반면, 나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많은 이들이 내 제자들을 찾아가 스승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을 것이다.

3. 빛을 찾으라. 그리고 빛을 가진 자는 어둠 속을 걷는 모든 이가 그것을 찾도록 도우라. 이 생에서 혼란스러운 생각을 품고 있는 자에게는, "영적" 계곡에 들어설 때 그 혼란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세 시대에 걸쳐 나의 모든 자녀들을 도우며, 그들이 영혼의 발전을 통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다.

4. 영혼의 삶에 관하여 나는 너희가 차츰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계시해 주었다. 오늘 나는 그 지식의 더 깊은 면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5.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했던, 모든 눈이 나를 보게 될 그 때이다. 모든 영혼이 나를 듣게 될 것이며, 이 가르침이 인류에게 이해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우상 숭배나 광신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성화가 주는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나에게로 들어 올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6. 사람들의 영혼은 양심의 목소리 속에서 하늘 종소리의 메아리를 들을 때 서서히 깨어난다. 그것은 엘리야의 영이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요, 이 시대의 보이지 않는 사자로, 마치 목자처럼 사랑으로 양들을 부르며, 그들이 순종하여 그들을 기다리는 평화의 우리로 들어오게 하는 자이다.

7. 내가 내 왕국을 떠나 죄인들을 찾아 나선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자는 진실로 나를 알지 못하는 자이다. 나는 의인들을 남겨두니,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상속권을 잃은 자들, 길을 잃은 자들, 더러워진 자들에게로 간다. 그들도 내가 의인들처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기 때문이며, 내가 그들을 내 고향으로 데려가 그들이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8. 내가 오직 의인들만 사랑하고 죄인들을 경멸한다면, 너희 양심은 아버지가 의롭게 행하셨다고 생각하겠느냐?

9.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내 앞에서 의로워질 방법을 보여 주마. 바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다양한 형태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너희는 배운 것을 전할 수 있다. 또한 병자들을 방문하여 내 이름으로 너희의 사랑을 담은 연고를 건네줄 수 있다. 너희는 믿음 안에서 치유할 권한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너희의 자비가 최고의 연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자신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

10.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자선을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제2의 시대"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 "한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 동전 한 닢을 헌금으로 남겼다. 그 후, 잘 차려입은 한 바리새인이 일곱 렙돈을 내며,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가 많이 바쳤음을 모두 알게 하려고 하나씩 떨어뜨렸다. 그 후, 병들고 가난한 한 여인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자신이 가진 전부인 두 렙돈을 내려놓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더 많이 줬다고 생각한 사람은 적게 줬고, 적게 준 사람은 더 많이 줬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즉 오늘 먹을 빵까지 바쳤기 때문이다."

11.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너희가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있는지 깨닫게 하리니, 그리하여 참으로 궁핍한 이들을 마주할 때 결코 자신이 궁핍하다고 느끼지 않게 하리라.

12. 너희는 한때 성령의 시대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것이 곧 모든 영혼이 진리의 눈을 뜨게 될 빛의 시대이다. 이미 나의 낫이 잡초를 뿌리째 뽑아내기 시작하였다. 세상이 전쟁에 휘말려 있는 와중에 내가 왔다고 해서 놀라지 마라. 이는 예언된 바와 같다.

13.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 너무나 많은 빛을 보아 눈이 멀어 버렸다. 그러나 이 눈이 멀어짐이 지나가면, 그들은 나의 자비로

참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 길 위에서 그들은 길을 잃은 자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나, 마치 목자가 길 잃은 양들을 대하듯 하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14. 이 시대에 나는 너희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왕국에서 너희의 영에게 보내는 빛으로만 왔노라. 무한한 곳에서 나는 너희에게 영감을 주어, 내일 너희의 영이 기도를 통해 나에게로 솟아오를 수 있게 하노라.

15. 오늘 너희는 너희의 영혼이 준비를 통해 정화되고, 너희 가운데 내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도록 하라. 그것이 내게는 결코 지나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요구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 영혼의 필요를 잊지 말라. 너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신성한 가르침임을 깨달아라. 그리고 지금 그 가르침이 이 형태로 넘쳐흐르고 있으니, 그것을 찾고, 깊이 탐구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 실천하라.

16. 나는 너희 안에서 내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너희 삶의 개선을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계시한 이 일을 헤아릴 수 없는 가치의 보석처럼 간직하고, 이 은총을 소유했다는 사실에 자만하지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거절하지도 않으며, 더구나 그것으로 물질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도록 하라.

17.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섯 번째 인의 성전은 결코 시장이 되거나 강도들의 소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영적 세계에 있는 이 성소는 모든 내 자녀들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고 있다. 그곳에서 죄인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증오심과 복수심, 그리고 악한 성향들은 사라질 것이다.

18. 너희는 지금 이 기쁜 소식을 참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 또한 나는 너희의 행실이 더 순수해지도록, 너희가 내 말씀에 부여하는 해석이 올바르기를 원한다. 나는 내 제자들 가운데 광신자나 청교도, 혹은 열광자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며, 오히려 너희 영혼의 고양이 내면적으로 이루어지고 너희의 모든 외적인 행동이 소박하고 자연스러우기를 원한다. 또한 이 백성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늘어날 때 — 그들이 내 영적 가르침의 참된 제자로 이루어져, 그들이 들은 말씀을 해설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의 행실로 내 가르침의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19. 너희가 말해야 할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나 너희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시련의 순간에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지 말라. 너희의 믿음과 영혼의 고양만으로도 충분하여, 나의 신성한 빛이 너희 입술을 통해 말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받은 영감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를 요구할 때,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계시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너희가 동료 인간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하리라. 사자들 가운데에는 백성을 깨우라는 사명을 받은 나의 예언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언자 요나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 요나는 이교적이고 죄 많은 도시로 가서, 주민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과 고통, 역병과 질병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던 자이다. 그의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자, 그는 큰 놀라움 속에 자신의 말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가 예고했던 재앙 대신, 그 백성은 평화와 건강, 그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예언자는 부끄러움을 안고 고독 속으로 물러났고, 그곳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제 입에 담아 주신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저를 주님의 예언자로 여기지 않고 사기꾼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은, 만일 그 사람들이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닥칠 재앙들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네 말을 듣고 회개하며, 거짓 신들을 무너뜨리고 무릎을 꿇어 나를 경배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울며 두려움으로 나의 심판을 기다렸다.

20. 나는 그들이 준비된 것을 보았고, 고통 대신 그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내려주었다. 네가 이해하는 대로 네 말을 이루기 위해서만 수천 명을 상처 입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들 중 *한* 명에게도 동정심을 갖지 않는다면 — *나는* 그들 모두에게 동정심을 느낀다! 네가 전한 말씀은 그들이 새롭게 되어 재앙을 피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들은 회개하였으니, 보라, 그들이 얼마나 기쁨에 차 있고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21. 제자들아, 이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이는 너희의 여정에 도움이 될 본보기들이다. 너희 안에는 영적 통찰과 예언적인 꿈, 그리고 직관의 은사가 깃들어 있어, 너희가 가는 길을 항상 밝게 비추고 형제들을 깨우치게 할 것이다.

22. 너희의 임무는 경고하고, 깨우치고,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동료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하지만 그 때문에 속았다고 느끼거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사명은 고통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데

국한된다. 너희의 은사로 이 결과를 이룬다면, 만족해도 좋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모두 함께 성소를 이루어 그 안에서 너희 이웃들이 치유와 평화, 영감을 찾을 수 있게 하라.

23. 와서 이 빵, 곧 내 말씀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은총으로 너희 영혼을 양육하는 동안, 내가 너희 가운데서 사랑에 대한 나의 갈증을 해소하게 하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때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한 것이며, 너희가 원수들을 용서할 때마다 너희는 나와 화해한 것이니, 너희 믿음의 제단에 너희 공로의 제물을 바치라. 이는 나의 신성께 언제나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24. 들으라: 나는 너희를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이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며, 나보다 먼저 존재한 이는 아무도 없고, 나의 영은 창조된 것이 아니며, 나는 영원하고, 항상 있었으며, 영원히 있을 것이다.

25. 나는 너희에게 나의 존재와 내 안에 존재하는 삼위일체를 계시하였다. 너희가 "첫 번째 시대"에 율법을 전해 주신 여호와이신 아버지 안에서, "두 번째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빛과 지혜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 "제삼의 시대"에 모든 계시를 설명해 주시는 성령 안에서 — 그분은 이 시대에 모든 영혼 안에서 진동을 일으키시며,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26. 아버지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셨고, 예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예고하셨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인류에게 나를 드러낸 세 가지 계시의 단계이다 — 곧 율법, 사랑, 지혜로서 — 세 가지 계시의 방식과 단 한 분의 하나님, 세 가지 작용 방식과 단 하나의 뜻, 단 하나의 사랑이다.

27. 아버지가 영원하시다면, 아들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시니, 이는 예수 안에서 말씀하신 "신성한 말씀"이 항상 아버지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그 지혜가 항상 그분 안에 계셨으므로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 내가 사람을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면, 이는 그 안에 이 삼위일체의 형상이 존재한다는 뜻이므로, 나는 그에게 세 가지 본질적 구성 요소, 즉 육체, 영혼, 그리고 영을 부여했다. 이 존재는 세 가지 기본 요소, 즉 물질적인 요소인 몸, 영적인 요소인 영혼, 그리고 신성한 요소인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28. 너희 영혼의 가장 고귀한 곳에는 나의 신성한 지성의 불꽃이 빛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의 영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실로 내 영의 자녀들이다.

29. 아버지가 되는 행복을 너희와 나누고자 하였기에, 나는 너희를 인간의 부모로 삼아, 너희와 닮은 존재들을 형성하게 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영적 존재들이 그 안에 육신을 입게 하려 하였다. 신성하고 영원한 곳에 모성애가 있기에, 나는 인간 삶 속에 그것을 구현하는 존재가 있기를 원했고, 그 존재가 바로 여성이다.

30. (특정한) 생명의 시작에서 인간 존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두 성별이 창조되었으니, 하나는 남자요, 다른 하나는 여자라. 그에게는 힘과 지성, 위엄이 있고, 그녀에게는 다정함과 우아함, 아름다움이 있다. 하나는 씨앗이요, 다른 하나는 비옥한 땅이다. 보라, 이 두 존재는 오직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하고, 온전하며,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의 조화 속에서 그들은 하나의 '육체', 하나의 의지, 하나의 이상을 이루게 될 것이다.

31. 이 결합이 양심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결혼이라 불린다.

32. 결혼의 법은 "첫 번째"*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 빛으로 내려왔으니, 이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창조주와의 언약을 의미함을 그들이 깨닫게 하려 함이었다. 이 결합의 결실은 자녀였으며, 그 자녀 안에는 부모의 피가 하나로 어우러져,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것은 땅 위에서 결코 풀려서는 안 된다는 증거가 되었다.

**초기 이스라엘 백성*

33. 자녀를 낳았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느끼는 그 행복은, 창조주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아버지가 되셨을 때 경험하신 것과 비슷하다. 나중에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율법을 주어 배우자를 선택하는 법을 알게 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게 한 것은, 사람들이 자유 의지로 인해 간음과 정욕의 길로 빠져들었기 때문이었다.

34. 그 시기가 지나자, 나는 예수로 세상에 오셔서, 언제나 사랑의 법칙인 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결혼을, 나아가 인간의 예의와 덕성을 높여 주었다. 나는 내 말씀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비유로 말하였고, 결혼을 거룩한 제도로 만들었다.

35. 이제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있으니, 남자와 여자들아, 묻노라. 너희는 결혼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에 만족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나의 거룩한 제도는 더럽혀졌고, 그 생명의 샘에서 죽음과 고통이 솟아나고 있다. 이 율법서의 순백한 종이 위에는 남자와 여자의 오점과 흔적이 묻어 있다. 달콤해야 할 열매는 쓰며, 사람들이 마시는 잔은 쓸개로 가득 차 있다.

36. 너희는 내 율법에서 멀어지고, 비틀거릴 때면 두려움에 떨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이토록 고통이 많은가?' 육신의 욕망이 언제나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내가 너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어찌하여 너희에게는 평화가 없는가?

37. 나는 하늘의 천장에 푸른 망토를 펼쳐 놓았으니, 너희가 그 아래에서 너희의 '사랑의 보금자리'를 짓고, 세상의 유혹과 얽힘에서 멀리 떨어져 새들처럼 단순하게 살게 하려 함이라. 단순함과 진실한 기도 속에서만 내 왕국의 평화와 수많은 비밀의 계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38. 남자들아, 너희가 선택한 배우자가 너희에게 열매를 맺어 주지 못한 불모의 땅과 같다면, 너희는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너희의 운명과 속죄의 의무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너희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했으면서도, 왜 결혼 생활에서 마주하는 시련과 고통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가?

39. 나의 신성 앞에서 혼인하는 모든 자 — 비록 그 결합이 어떤 성직자에 의해서도 확인되지 않았을지라도 —는 나와 한 가지 협정, 즉 계약을 맺게 되며, 이는 모든 운명이 기록된 하나님의 책에 영원히 남게 된다.

40. 누가 그곳에서 이 서로 얽혀 있는 두 이름을 지울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세상에서 내 법 안에서 결합된 것을 풀 수 있겠느냐?

41. 내가 너희를 갈라놓는다면, 나는 내 자신의 업적을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땅 위에서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나에게 청했고, 내가 그것을 허락해 주었는데 — 그런데 왜 그 후로 너희는 서약을 지키지 않고 맹세를 저버리는가? 이것이야말로 내 법과 내 이름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42. 불임인 여인들아, 스승이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는 너희 몸이 생명의 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청하였으며, 어느 날 저녁이나 아침에 너희 뱃속에서 연약한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리기를 희망했노라. 그러나 낮과 밤이 지나갔으나, 너희 문 앞에 아이가 두드리지 않았기에 오직 울음소리만이 너희 가슴에서 터져 나왔을 뿐이다.

43. 나를 듣고 있는 너희 중, 모든 희망의 과학으로부터 박탈당한 자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 능력을 믿고 이 기적을 통해 많은 이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인가. 깨어 있으라. 인내하라. 내 말을 잊지 말라!

44. 가정의 가장들아, 실수와 나쁜 본보기를 피하라. 나는 너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만을 원할 뿐이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준비하라. 저 세상 에는 너희 가운데서 사람이 될 순간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45. 나는 수적으로만 아니라 덕으로도 성장하고 번성하는 새로운 인류를 원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약속된 도시를 가까이서 보게 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려 함이다.

46. 나는 지구가 사랑의 열매인 선의의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

47.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라. 너희 마음이 그들의 죄악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고, 그 주민들과 같아지지 말라.

48.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제3의 시대'를 위해 준비시키노니, 내가 너희에게 예고한 수많은 무리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49. 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맡으라. 그러니 이제 내 가르침을

비유로 내 가르침을 들어라:

50. "하나님 앞에 빛과 순결과 순수함으로 가득 찬 한 영이 있었는데, 그가 주님께 말하였다. '아버지, 제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섬기고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대답하셨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합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결합으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너는 그 아이에게 환생하여, 인간의 자녀로서 세상의 시련 속에서 경험을 쌓고, 어머니의 다정함과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보살핌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리라."

51. 그 영은 기뻐하며 기다렸다. 그 사이 주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랑의 끈으로 맺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가 된) 그들을 삶의 길로 보내셨다. —

52. 여인의 자궁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자,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보내어 그 육신에 깃들게 하셨고, 아홉 달 만에 그는 세상의 빛을 보았다. 어머니는 행복에 찬 미소를 지었고,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아들은 두 사람의 결실이자, 그들의 사랑의 열매였다. 여인은 자신감이 넘쳤고, 남자는 마치 창조주와 조금 닮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두 사람은 그 연약한 마음을 돌보는 데 전념했다.

53. 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그 영은, 어머니의 다정한 시선과 아버지의 엄숙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빛났다.

54.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삶의 투쟁 속에서 그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멀어졌고, 길을 잃어 점점 더 멀리 가다가 결국 길을 잃고 가시덤불 속에 옷자락 조각을 남겨두게 되었다. 그는 독이 든 열매를 먹고, 길에서 마주치는 꽃들의 꽃잎을 뜯어냈다. 병들고 낙담한 기분이 들자, 그는 자신이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렸다. 그는 돌아가 그녀를 찾으려 했으나, 힘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해, 기어가는 듯 비틀거리며 긴 길을 걸어 집 문 앞에 도착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품에 안았고, 아들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다.

55.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을 보자, 신의 자비를 빌어 아들의 회복을 간청했고, 절망에 빠져 머리를 쥐어뜯으며 신을 모독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육신을 떠나 저 세상으로 떠났다. 부모는 비통한 마음으로 남게 되었고, 자신들에게 닥친 불행에 대해 서로를 탓하며 번갈아 가며 책임을 돌렸다. 아버지는 떠나버렸기 때문이라 했고, 어머니는 그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다.

56. 그 영혼이 창조주의 면전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왜 저를 그 다정한 어머니의 품에서 떼어내셨습니까? 어머니께서는 제가 없는 것을 보고 통곡하며 절망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기다려라, 인내하라.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법을 이해하게 되면, 너는 다시 그 품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57. 그 남자와 여자는 계속해서 함께 살며 외로움을 견디고, 마음속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다시 새로운 아이의 징후에 놀라게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그 영혼을 다시 그 자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셨다. "생명을 준비하는 그 육신 안에 머물며, 그 자궁에서 다시 한 번 기쁨을 누려라."

58. 맏아들을 잃은 줄로만 알았던 부모는 그가 다시 그들 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이 남긴 공허함은 둘째가 채워주었고, 기쁨과 평화가 그 집안으로 돌아왔으며, 어머니는 다시 미소를 지었고, 아버지 또한 기뻐했다.

59. 이제 그 남자는 가족 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는 과거의 경험을 잊게 되었고, 나쁜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 방탕과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아내는 그에게 따지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집안은 전쟁터로 변해버렸다. 머지않아 그 남자는 패배하여 병들고 하게 쇠약해진 채 쓰러져 있었고, 아내는 요람에 아이를 홀로 남겨둔 채, 그 무고한 아이를 위한 양식과, 사랑도 보호도 모르는 그 곁을 지키는 이를 위한 식량을 구하러 나섰다. 그녀는 모욕과 비난을 견디고, 위험을 겪으며, 악의에 찬 남자들의 욕망을 물리쳤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에게 매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었다.

60. 하느님께서는 그 무고한 아이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어, 아이가 이성의 빛을 깨닫기도 전에 다시 그분께로 불러가셨다. 그러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고통에 찬 목소리로 그분께 말했다. "아버지, 다시금 저를 제가 사랑하는 이들의 품에서 뺏어 가셨군요. 보소서, 제 운명이 얼마나 가혹한지요! 이제 저는 주님께 간청합니다. 저를 그들의 품에, 혹은 주님의 품에 영원히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더 이상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하지 마소서, 저는 지쳤습니다."

61. 남자가 무감각한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또 다른 고통의 광경을 목격했다. 아내가 둘째 아들이 죽어 누워 있는 침대 머리맡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다. 남자는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아내는 그를 말리며 말했다. "자신의 목숨을 해치지 마시오. 손을 거두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시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원인이 있음을 깨달으시오." 남자는 그 말 속에 진리의 빛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날들이 지나며, 그들을 떠나간 아이들을 아픔 속에 떠올리던 그 마음들에 평안이 찾아왔다. 그 아이들은 그 집안의 기쁨이었으나, 그 집은 그 후로 절망에 빠져들었다.

62. 그때 그 영혼이 주님께 물었다. "아버지, 저를 다시 지상으로 보내시겠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마음들이 매끄럽게 다듬어질 때까지, 필요한 만큼 몇 번이든 보내겠다." 그녀가 다시 육신을 입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병들었기에 그녀의 몸도 병들었다. 그 영혼은 고통의 침상에서 일어나 아버지께 안식을 청했다. 이번에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고*, 부모의 입가에는 미소가 없었으며, 오직 눈물만이 있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의 요람 곁에서 울었고,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병을 물려받았음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깊은 회한에 잠겼다.
**그는 부모의 병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것이다.*

63. 그 병든 육신에 머문 영혼의 시간은 짧았고, 영혼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64. 다시 고독이 부부를 감쌌지만, 그 고통은 그들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로 묶어 주었고, 그들의 마음은 서로를 사랑했으며, 그들은 생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함께 걸어가기로 서로 맹세했다. 남편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고, *아내는* 남편을 돌보았으며, 두 사람 모두 병에서 회복되었다.
65.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아들을 허락하실 것이라고는 거의 믿지 못했으나, 그러나 보라, 주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육체적, 영적 건강이 꽃피는 것을 보시고, 아내의 자기 희생과 남편의 회개를 보상해 주시려 그 영혼을 보내셨으니, 아내의 자궁에서 꽃봉오리처럼 싱그러운 작은 육신이 싹트어 그 가정에 행복과 평화를 가득 채웠다.
66. 남자와 여자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그 인내심 많고 순종적인 영혼은 아들을 통해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제발 저를 부모님 곁에서 다시는 떼어 놓지 마십시오. 제 집에는 평화가 있고,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내 요람에는 온기가, 어머니의 가슴에는 젖과 꿀이, 식탁 위에는 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어루만지시며, 그분의 손에는 일할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 안에서 기쁨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하나의 '몸',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으로 연합하게 하셨다."
(**비유의 끝**).

67.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포도주, 곧 나의 가르침을 마시고 기뻐하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 곁에 모일 때, 주님의 집에는 잔치가 열리기 때문이다.
68. 이 시기에 내 말씀을 들을 때,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이가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나는가. 너희는 믿음에 있어 죽은 자들이었으니,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의 의사들이 모든 희망을 앗아갔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사제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69. 너희는 내 말씀이 병자를 고치고, 죄인에게 사랑으로 용서하며, 스승께서 모든 이에게 영생의 양식을 베푸신다는 것을 느끼고 마음을 열었다.

70. 너희는 삶의 여정에서 타락의 강물과, 진창 늪, 그리고 아무도 비옥하게 만들 줄 모르는 불모지를 보았다.

71. 너희는 예전에 비옥하여 세상에 평화와 행복의 풍성한 열매를 선사하던 들판이, 오늘날 피와 파괴와 죽음의 들판으로 변해버린 것을 목격했다.

72.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밤의 고요 속에 들판에 내려와 꽃잎 위에 떨어지는 이슬이다. 그러나 시든 꽃들, 희망을 포기한 마음들은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73. 제자들아, 내가 너희 마음에 가르침을 통해 자비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음을 깨달아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고, 그들의 갈등과 시련, 비극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74. 마음을 하나로 모아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라. 나는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고 너희의 청을 들어주리라. 너희는 아직 너무 약하여 자신의 고통이나 근심을 잊고 타인을 생각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용기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시련들을 받아들여라. 너희의 반항이나 거부로 인해 그것들이 너희 삶의 길에서 사라지거나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 고양과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가장 끔찍한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극복하는 모든 가시, 모든 심연은 너희 영혼에 빛의 불꽃을 남길 것이다. 시련을 침착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다른 이들에게는 영원히 느껴질 고통의 순간들이 점점 짧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75. 이 삶은 너희의 십자가의 길이다. 그 길에서 너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운명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사랑 가득한 도우미가 매번 너희를 일으켜 세워 주므로, 너희는 그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고 있지 않음을 느낄 것이다.

늑대가 너희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그를 쫓아냈다. 불신자들과 엿보는 자들이 너희 모임의 품속으로 침투하여 잘못을 찾아내어 너희를 고발하려 했을 때, 나는 내 자비의 망토로 너희를 덮어 주었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였다. 사람들이 질문으로 너희를 시험했을 때, 너희가 빛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기에, 나는 성신의 음성을 너희 입술에 미리 얹어 주었다.

76. 나는 너희를 책망하지 않으나, 내 말씀의 자비 속에서 희망과 개선, 그리고 심판을 찾으라. 만일 내가 너희의 미숙함을 아첨하고 너희의 죄를 칭찬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 내가 너희가 열정적으로 영적 진보를 추구하며( ),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날씨가 궂은지에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병자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언제나 너희를 격려해 왔노라. 그리고 너희가 재판관들 앞에 섰을 때, 너희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증언하였노라.

77. 그리하여 너희는 마음이 너희가 경작해야 할 밭이며, 밭이 넓을수록 너희의 노력도 그만큼 더 커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또한 너희가 뿌린 것을 더 이상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78. 너희 중에는 새로운 씨 뿌릴 밭을 찾아 다른 나라로 갈 자들이 있다. 나는 너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를 주었으니, 이는 인간의 입술로 말하는 고상한 언어가 아니라, 사랑으로 영이 표현하는 그 언어이다.

79. 다른 이들에게는 이러한 먼 여정을 떠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준비를 하고, 혼란에 빠진 육체를 벗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 수많은 궁핍한 이들의 도움 요청에 문을 닫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80. 부지런한 제자는 매 걸음마다 나를 축복하리니, 그는 자기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며 나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게으른 자는 자신의 자유를 빼앗긴 듯 느끼며, 지독히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다. *나는* 누구도 묶지 않으며, 누구도 노예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참된 자유를 주니, 감옥도 죽음도 너희를 쇠사슬로 묶을 수 없게 하려 함이며,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라 여겼던 그곳에서 너희 영혼이 발전의 끝없는 사다리를 오를 수 있게 하려 함이다.

81. 제자: 너희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의 원수는 누구냐?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웃을 원수라 부르지 말아야 한다! 나는 너희를 사람들을 대적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무지를 대적하게 보내는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침 39

1. 나는 너희 위에 내려오는 평화이니, 이는 내가 세상에서 오직 혼돈만을 보기 때문이다.

2. 깨어 기도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자비를 베풂으로써 너희는 전쟁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3. 사람들이 가꿔 온 지식의 나무는 인류에게 쓴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맑은 물을 주니, 그 나무에 물을 주어, 그 나무가 맺게 될 열매가 얼마나 달라질지 체험하게 하리라.

4. 너희가 나의 가르침 속에서 지식의 나무를 가꾸는 비결을 발견하기 전에, 그 나무는 거센 폭풍우에 휩쓸려 나쁜 열매들이 마지막 한 알까지 떨어지고 정화될 것이다.

5. 이 폭풍이 지나간 후, 너희는 너희 영혼 속에서 점차 새로운 빛이 비추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빛은 너희 삶의 모든 길에 비춰질 것이다.

6. 너희는 지금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다. 나의 신성한 정의의 낫이 지칠 줄 모르고 잡초를 베어낸다고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에게 말했는지 기억하라.

7. 과학도, 종교도, 권력자들도 내 공의를 맛보게 될 것이다. 내 시선에서 벗어나거나 내 저울에 달리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류의 태초부터 죄는 죽음을 선고받았으며, 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8. 내 백성아, 너희가 땅 위에서 이 사건들의 징조를 보게 되면, 기도로 나에게로 나아가라. 가족들과 한마음으로 연합하고, 평화가 필요한 너희 형제들에게 내 사랑의 사자로 너희의 영을 보내라.

9. 기도의 힘을 의심하지 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동료 인간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0. 내가 너희에게, 심지어 거칠게 휘몰아치는 자연의 힘조차도 너희의 기도를 듣고 진정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들이 내 목소리에 순종한다면, 준비된 주님의 자녀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11. 내가 이 세상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나는 너희가 시련의 순간에 너희 아버지 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께로부터 힘을 얻어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과 자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12.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총으로, (영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사다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 자신을 가르치기 위한 책, 그리고 자신을 치유하고 모든 병에서 회복하기 위한 연고 역할을 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13. 참된 기도는 이 땅에서 사라졌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시도할 때조차, 영으로 나에게 말하기보다는 입술로만 기도하며, 공허한 말과 의식, 그리고 위선을 일삼는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신 형식과 관습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기적을 볼 수 있겠는가?

14. 참된 기도가 사람들 가운데로 돌아와야 하며,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다시 가르치는 자이다.

15.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이 나를 향해 올라가는 데 발판이 되어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가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볼 때, 그는 자기 아버지 곁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6. 너희가 사명을 다했음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말라. 내 법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뿐이니라. 너희 삶의 매일이 이 신성한 계명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17. 누구나 각자의 길에서 사랑하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영혼을 인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과학자, 통치자, 가장, 너희 모두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나의 최상의 계명에 영감을 받아 이웃을 섬길 수 있다.

18. 모든 것이 정화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니, 그리하여 새로운 세대들이 그들의 위대한 영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된 지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19. 사랑해야 할 사람을 골라내지 말고,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라. 영적인 사랑에는 편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20.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가족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초월한 것이다.

21. 너희의 물질적 가난을 생각할 때, 이 사랑의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으로 깨달아라. 그러면 너희 이웃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 지상의 재물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이 가난하고 소박한 마음을 가진 백성 중에서 내 일꾼들을 뽑아, 고통받는 이들의 조언자, 의사, 그리고 신뢰받는 친구로 삼았으며, 사람들이 위로와 평화를 갈망하며 그들에게로 오는 것을 보라.

22. 그들의 사랑에서 치유의 향유가 마르지 않고 흘러나왔으며, 이전에는 무거웠던 그들의 입술에서 가르치고, 새롭게 하며, 내면을 감동시키고 확신시키는 빛의 말씀이 나왔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유산을 드러내기 전, 이 일꾼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다고 믿었는가? —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천민처럼 여겼으며, 이웃을 사랑하거나 스스로를 이끌어 갈 능력이 없다고 느꼈다.

23. 보라, 이 일꾼들의 겸손함 앞에 부자들이 나타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 의사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그들에게 묻기 위해, 그리고 신학이나 철학 지식의 분야에서 훈련받은 자들은 첫 번째 교훈을 배우기 위해 다가온다. 너희 가운데 일어난 이 기적에 놀라지 않는가? 그러면 너희는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백성아, 그리고 인류여, 너희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세상의 권력과 부는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유익하게 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24. 너희 영혼에 사랑이 깃들어 있고, 그 사랑을 이웃들이 느낄 수 있게 한다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미덕을 실천하기 시작하라 — 영적 삶의 본질인 자비, 사랑, 선함으로부터 무감각하거나 멀어져 있던 너희여. 그리고 누군가 목마름과 피로, 굶주림에 지쳐 너희 문 앞에 찾아온다면, 찬장에 빵이 충분한지 생각하지 말고 그를 너희 식탁에 앉혀라. 그 방랑자를 진정한 연민과 진심 어린 사랑으로 너희 식탁에 초대하는 것이 과연 진심인지 너희 마음에 물어보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빵이 배가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너희 모두 배부르게 될 것이며, 그 나그네의 마음속에는 나를 감사하고 축복하기 위한 믿음의 불꽃이 타오를 것이다. 그는 너희가 그에게 행한 것과 똑같은 일을 자신의 삶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는 가장 제한된 이해력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교훈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25. 겸손하라.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낮음 속에서 태어나고, 나중에는 단순한 겉옷으로 내 몸을 가렸음을 기억하라. 어찌하여 너희는 늘 좋은 옷을 꿈꾸며, 심지어 왕의 예복을 갈망하는가?

26. 너희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다. 이 생은 마치 전장과 같으니, 너희는 그곳으로 나아가 공로를 쌓고, 그 후 정복한 땅에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뎌 그곳에서 너희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27. 결코 십자가를 도중에 버려두지 말고, 너희의 사명을 저버리지 말라. 그것은 마치 전투 중에 무기를 내던지고, 비겁하게 싸움에서 도망쳐, 너희 영혼을 기다리던 승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28. 나는 완전한 길이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나는 내 모범을 통해 너희에게 참된 생명의 책을 남겼으니, 그 가르침을 통해 너희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의 사랑의 검은 인류의 악과 무지 against 끊임없이 싸웠다. 나의 무기는 살인적인 것이 아니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죽음을 가져다준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었다. 나의 온유함은 나를 모욕하던 자들을 절망과 혼란에 빠뜨렸고, 나의 사랑 어린 용서는 그들의 굳은 마음을 이겼으며, 인간으로서의 나의 죽음은 그들을 은총의 삶으로 깨우쳤다. 약속된 메시아가 무적의 전사로 예고되었음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29.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과 용서, 겸손이 솟아나, 증오와 오만함에 맞서는 진정한 무기가 되어야 할 때이다. 증오가 증오를, 오만함이 오만함을 부딪히는 한, 민족들은 서로를 멸망시킬 것이며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을 것이다.

30. 사람들은 오직 평화 속에서만 행복과 진보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거부하고, 권력과 허위의 위대함이라는 이상을 좇아 형제들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파괴하며,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31. 교만한 과학을 가진 인간은 나의 법에 도전하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시 한번 그의 죄와 싸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내 안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재판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는 인간의 결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복수의 무게를 느끼지도 않을 것이다. 저급한 정욕은 오직 너희의 불완전함에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무자비한 재판관을 만나게 될 것이며, 위대한 사랑의 가르침으로 그를 지도하는 스승을 만나게 될 것이다.

32. 너희 모두가 전쟁을 원하거나, 무고한 자들과 선의와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해 증오나 오만을 품는 것은 아니다. 전쟁이 발발하려 할 때, 나는 신자들이 깨어 기도하도록 징조를 주리라. 그들의 기도와 '깨어 있음'을 통해 그들은 살상 무기에 대해 무적의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33. 동쪽에서 서쪽으로 민족들이 일어나 서로 싸울 것이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또한 나아갈 것이니,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교차로에서 마주치게 될 것이다. 이 충돌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화형대가 생겨날 것이며, 그곳에서 증오가 불타고, 오만함이 소멸되며, 잡초가 근절될 것이다.

34. 평화와 사랑이 꽃피우려면 새로운 세대들이 깨끗한 지구를 물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인류가 여전히 그 유산을 품고 있는 가인의 범죄 흔적조차도 사라질 것이다.

35. 내 가르침의 영적 빛 아래 있는 너희는, 다가오는 이 모든 고통 속에 하나님의 형벌이나 보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느냐? —

아니요, 너희는 내게 말하리라. 그것은 우리가 키워낸 열매이며, 이제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라고.

36. 나는 항상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긴다. 너희는 서로에게 가하는 모든 악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미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는 것이며, 내 말씀을 현실로 드러내며* 너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훈계하고, 너희의 악한 길에서 벗어나도록 경고한다. 그러나 너희는 언제 내 부르심을 귀담아들었느냐? — 결코 없었다. — 이것이 바로 인류가 고통받는 이유이다.

** 이는 신성한 말씀이 대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며, 영감에 의해 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씀과는 달리, 물질적으로 말해지고 청취자들에게 물질적으로 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37.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가 목격하게 될 혼돈 앞에서 그저 구경꾼이 되지 말라. 너희는 내게서 받은 평화와 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8. 그 평화와 그 힘은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의 이성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며, 선을 행하고, 믿음을 불태우며, 사람들 사이에 위로를 전파하는 데 부지런하고 지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39.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 이웃들에게 내 가르침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분명하게 말하라고 명한다. 이 책의 모든 부분을 꼼꼼히 연구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일 너희 형제들이 너희에게 질문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마리아의 순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을 것임을 알고 있다. 너희는 이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

40.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하나님 안에 세 명의 서로 다른 인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신성한 영이 인류를 향해 세 가지 다른 발전 단계로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 는 진리의 본질을 파악할 능력이 부족하여, 오직 하나의 영만이 존재하는 곳에서 세 신성을 보았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이자 심판자로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스승이자 사랑으로 보라. 그리고 성령이 어디서 오시는지 이해하려 할 때는, 그분이 더 진보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임을 깨달으라.

41. 만일 내가 태초의 인류가 오늘날의 인류만큼 영적으로 발달해 있는 것을 보았다면,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로서, 스승으로서, 그리고 성령으로서 나를 드러냈을 것이며, 그러면 사람들은 오직 한 분만이 존재하시는 데도 세 분의 신성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가르침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기에 혼란에 빠졌을 것이며, 계속해서 자신들의 상상대로 접근하기 쉽고 작은 신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내 길에서 멀어졌을 것이다.

42. 이제 너희는 아버지께서 단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를 알게 되었으며, 삼위일체 개념에 관한 사람들의 오해 또한 이해하게 되었다.

43. 나의 신성한 영 안에는 무한한 수의 형상과 속성이 있다. 그러나 내가 세 시대의 기간 동안 세 가지 주요 속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삼위일체론자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이미 이 세 가지 계시 안에서 나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해하며, 그 안에서 오늘 심판자로서, 내일은 스승으로서, 그리고 나중에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지닌 아버지로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단 한 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44. 더 이상 너희의 상상 속에서 나에게 육체적 형상을 부여하려 하지 마라. 내 영 안에는 형상이 존재하지 않으니, 지성이나 사랑, 지혜가 형상을 갖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45.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나를 노인의 모습으로 상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노인이 아니다. 나는 시간 밖에 있으며, 나의 영에는 나이가 없기 때문이다.

46. 너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너희 마음속에는 곧바로 예수의 육체적 형상이 떠오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육신으로 태어난 신성한 사랑이요, 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는 육신의 껍질을 벗으셨을 때, 그분이 나오신 내 영과 합쳐지셨다.

47.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대해 말할 때, 너희는 비둘기라는 상징을 사용하여 그분을 어떤 형태로든 상상하려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상징의 시대는 지났으며,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의 영향 아래 있다고 느낄 때, 그분을 영감으로, 너희 영혼 속의 빛으로, 불확실성과 비밀과 어둠을 없애주는 명료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48.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신성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영성이 결여된 세상에 그

사랑을 알리기 위해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무엇이 이상한가? 이것이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그분께서 찾으시는 이들에게 주어진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49.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나*보다 못하지도 않고, 나보다 뒤따르는 것도 아님을 보여주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은 그 어떤 다른 힘보다 앞선 것도 뒤따르는 것도 아니며, 절대자, 신성, 완전함을 이루는 모든 (신성한 본질적 힘)과 연합하고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신성한 본성적 힘들의 일체성 안에서 말씀하신다*

50.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모실 어머니로 지상에 보내신 마리아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겠느냐? 그분의 육신 안에서 말씀이 현현하실 그분을 말이다.

51.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녀는 신성한 자애가 육신으로 나타난 존재였다. 그러므로 그녀가 자택에서 주님의 사자가 전한 말씀, 즉 자신의 태중에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신의 뜻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 어떤 의심이나 반항도 없었다. 그녀의 모범은 겸손과 믿음이었으며, 그녀의 행적은 조용하고 고귀했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 천상의 메시지를 성취하고 그 고귀한 소명을 허영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이였다.

52. 예수께서는 마리아 곁에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셨으며, 그녀의 품과 곁에서 그녀의 모성애를 누리셨습니다. 여인이 되신 신성한 자애는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신 첫 몇 해를 달콤하게 해주셨는데, 때가 되면 그분은 지독한 괴로움을 겪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53. 예수님의 육신이 형성된 마리아의 품과 스승께서 함께 사셨던 마리아의 곁에서, 마리아에게 영적 고양과 순결, 거룩함이 결여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54. 나를 사랑하는 자는 먼저 나의 모든 것, 즉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한다.

55. 너희는 이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을 너희 형제들에게 전해야 한다. 너희는 온 인류가 내가 너희에게 드러내는 그 형태로 나를 들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백성이 여기 있어 이 가르침을 듣고, 나중에 동료 인간들에게 나의 증인이자 사자가 되어 주기만 하면 나에게는 충분하다.

56. 만일 이 계시 방식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라면, 나는 이를 온 세상에 알렸을 것이며, 일단 시작되면 끝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매체를 통한 이 계시는 영과 영 사이의 완전한 계시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므로, 나는 그에게 일정 기간만을 허락하였고, 1950년이 될 그 계시의 종결 시기를 알려 주었다.

57. 해마다 스승의 가르침을 들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후에 인류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정해져 있다.

58. 그들은 내가 떠나기 *전에* 가르치려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마지막 가르침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가르침은 가장 심오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을 강하게 하고 싸움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59. 가장 오래된 교회들부터 가장 최근에 모임을 시작한 교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은 나로부터 이 계시가 1950년이 끝남과 동시에 중단될 것임을, 이것이 나의 신성한 뜻이며 그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그리고 백성들이 아버지가 명하신 바에 결코 거역해서는 안 됨을 들었노라.

60. 나를 더 이상 너희 가운데서 기다리게 하려는 것은 완고한 일이며, 그것은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공의하심을 부정하는 것이요, 변함없는 나, 곧 너희에게 말씀하신 이가 바로 나였음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61. 비록 이 순간에 아무도 그러한 모독을 저지를 수 있다고 느끼지 않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들, 내 이별의 쓰라리고 슬픈 시각에, 내 식탁에 배신자가 한 명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자신을 먹여 살렸던 빵을 멀리 내던지고, 거짓된 사랑의 입맞춤으로 나를 인류의 조롱과 비웃음에 내어주는 연약한 자 말이다.

62. 내 계시의 시간이 끝날 때, 과연 누가 이 뇌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설마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해 나까지 공범으로 만들려는 것이냐?

63. 너희의 불순종이 나중에 사람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며, 그토록 큰 모독이 백성들 사이에 혼란을 조장할 것임을 명심하라. 아무도 성령으로서 내 계시를 믿지 않을 것이며, 모두가 믿음을 잃게 될 것이다.

64. 이미 지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정한 때가 지난 후에도 내가 여전히 그들을 통해 계시된다고 믿게 하려는 자들은 배척받고 사기꾼이라 불릴 것이며, 자신의 이성을 통해 계시하는

자는 '거짓 그리스도'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그 사기꾼과 한통속이 되는 예언자들은 "거짓 선지자"라 불릴 것이다.

65. 백성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굳게 믿으라. 그래야 시련의 시간이 닥쳤을 때, 너희가 나의 율법에 굳게 매여 내 뜻을 존중하며 굳건히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행실로 너희는 이 말씀이 지극한 진리임을 믿었다는 가장 큰 증거를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반대를 행하는 자는 나를 부인한 것이 될 것이다.

66. 내 말씀에 충실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사자로 삼아, 내가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인류에게 남기는 이 신성한 메시지의 증인으로 삼을 것이니, 이는 너희 아버지의 참된 계시를 위한 선구적인 교훈이라.

67. 오늘 나는 너희의 영을 찾노라. 영의 세계가 그 존재를 갈망하고 있느니라.

68. 너희는 스스로를 고양시키지 못하였으니, 너희의 모든 불완전함은 너희를 세속적인 재물에 묶어 두고, 영에 상응하는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슬의 한 고리이기 때문이다.

**부록의 주석 6 참조*

69. 너희는 이 생 이후의 (존재)를 위해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가? 너희는 과연 *너희* 영혼이 오직 영성화만이 빛이자 버팀목이 되는 세계에 확고한 발걸음으로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70.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음미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무익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도록 이 말씀이 도움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향들은 너희 영혼을 자유롭게 두지 않기 때문이다.

71. 내 면전에서 너희 영혼의 모든 불순물을 떨쳐 버리고 자유롭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게 아무런 비밀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니, 나는 너희 자신보다 너희를 더 잘 알고 있다.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 내게 고백하라. 나는 그 누구보다 너희를 더 잘 이해할 것이며, 너희의 법 위반과 죄를 용서해 주리라., 나는 너희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화해하고, 너희 영혼이 부르는 승리의 찬가를 너희 존재 안에서 듣게 된다면, 평안히 내 식탁에 앉아 내 말씀의 핵심에 담긴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라.

72. 식탁에서 일어나 하루의 일과로 돌아갈 때, 너희의 모든 길에 내 법이 함께하며 내 시선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모임 장소에 들어설

때뿐만 아니라, 영과 생각으로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보이는 나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그 경외심이 어디서나 언제나 너희와 함께해야 함을 말하고자 함이다.

73. 너희는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을 걸을 때 그분께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너희 영 안에 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

74. 나를 듣는 모든 이에게 나는 똑같은 말씀을 준다. 가난한 자에게 그가 궁핍하다고 해서 더 많이 주지도 않고, 부자에게 덜 주지도 않는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 안에서 너희는 모두 궁핍하다.

75. 나는 너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 나는 계급, 인종, 언어, 또는 신앙의 차이를 보지 않으며, 심지어 성별의 차이조차 보지 않는다. 나는 영을 대변한다. 내가 찾는 것은 바로 그 영이며, 나는 그 영을 가르치기 위해 왔으니, 내 가르침의 빛으로 그 영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40

1.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의 숭고한 모범을 통해 그들에게 속죄의 길을 보여주시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2. 먼저 그분은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방식과, 인간으로서 그분의 사역과 고난, 그리고 죽음이 어떠할지를 예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나타나실 때, 예언을 아는 자가 그분을 즉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 하심이었다.

3. 내가 예수로 임재하기 수세기 전,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표적을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 예언을 비롯한 여러 예언을 통해 나의 오심을 예고했습니다.

4. 다윗은 내가 오기 수 세기 전에, 고통과 예언적인 의미로 가득 찬 시편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메시아가 겪으실 고난을 노래했습니다. 그 시편들에서 그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하신 일곱 말씀 중 하나를 언급하며, 군중이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갈 때 보일 경멸과, 사람들이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말을 들을 때 보일 조롱 섞인 표정, 인간의 배은망덕함 앞에서 내 육신이 느낄

버림받음, 내가 겪게 될 모든 고문, 심지어 그들이 내 옷을 두고 제비를 뽑을 방식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5. 나의 모든 예언자들은 나의 오심을 예고하고, 길을 준비하며, 그날이 왔을 때 아무도 착각하지 않도록 정확한 징후들을 알려 주었다.

6. 나자렛에는 순결과 자애의 꽃과도 같은, 마리아라는 이름의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예고했던 바로 그 이였으니, 그녀의 태중에서 참된 생명의 열매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영적인 사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가 이 땅에 가져온 사명을 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총을 받은 이여, 평안하시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모든 여자 중에서 복이 있도다."

7. 신성한 비밀이 드러날 때가 왔고, 메시아이자 구세주, 구원자에 대한 모든 예언이 이제 곧 성취될 참이었다. 그러나 나의 임재를 느낀 마음은 얼마나 적었으며, 나의 진리의 빛 속에서 하늘나라를 알아볼 준비가 된 영혼은 얼마나 적었는가.

8. 대다수가 야망으로 인해 물질주의에 물들었고, 모든 것을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종속시키며, 물질주의적 과학을 통해 영적인 것을 검증하려 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마주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나를 부인했다.

9. 나를 사랑하고 따르는 이는 적었고, 나를 오해하는 이는 많았다.

10. 나를 사랑한 이들은 영적인 감수성과 믿음을 통해 나의 현존을 알아본 자들이었으니, 이는 인간의 이성, 과학, 지성보다 더 높은 은사들이다.

11. 사람들은 내 발걸음마다 나를 캐물었다. 나의 모든 행적과 말은 악의적인 의도로 판단받았으며, 대개 그들은(비평가들은) 나의 업적과 증거를 보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의 이성은 오직 영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12. 내가 기도할 때면 그들은 말하였다. “자기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왜 기도하는가?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거나 무엇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종교적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13. 제자들이 먹을 때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어기고 있다고 판단했고,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그들은 “자기가 생명이라고 말했던 그가 살기 위해 왜 먹어야 하는가?”라고 의아해했다. 그들은 내가

인류가 긴 정화의 시간을 거친 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의 비참함, 육체의 필수적인 욕구, 그리고 육체적 감각의 정욕을 초월한 영적인 세대가 탄생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4. 내가 내 현존으로 사람들을 깨우친 지 수세기가 지났으나, 그들이 마리아의 잉태와 나의 인간적 본성, 그리고 나의 영적 존재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려 했을 때, 그들의 혼란스러운 이성은 이를 파악할 수 없었고, 또한 그들의 오염된 마음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15. 그 이성과 그 마음이 잠시 어둠에서 해방되면, 그들의 영혼은 빛의 영역으로 도피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그들은 이성의 것이도, 과학의 것도 아닌 더 높은 명료함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16. 그러면 그들은 이제 성숙해진 영혼을 통해, 그들의 작고 한정한 이성으로는 드러낼 수 없었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17. 만일 사람들이 내 영이 자연을 통해 그들에게 쏟아붓는 모든 사랑을 느끼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모두 선해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무지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배은망덕하다.

18. 오직 자연의 힘이 나의 공의를 드러낼 때에만 그들은 떨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나의 공의의 목소리임을 깨닫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나 세상의 재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19. 인류의 태초부터 현재까지, 나의 정의는 자연의 힘을 통해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되었으니, 이는 원시 시대의 미개함과 현 시대의 물질주의 속에서 그들이 오직 물질적인 재앙에 대해서만 민감했기 때문이다.

20.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깨닫고 양심을 통해 나의 현존을 느낄 수 있게 되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더 발전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그들에게 조언하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법을 지키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 물질주의의 시대가 끝났다는 징조가 될 것이다.

21. 당분간 그들은 자연의 힘으로부터 여러 형태로 시련을 겪어야만, 인간의 물질주의가 그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더 높은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22. 땅은 흔들릴 것이며, 물은 인류를 정화할 것이고, 불은 그들을 정련할 것이다.

23. 인간 존재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생명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알지 못한 곳에서는, 자연의 모든 원소와 힘이 지구상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24. 자연은 자신을 모독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과 모든 피조물 사이의 조화를 추구할 뿐이다.

25. 자연의 정의가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위반 행위와 법칙에 대한 부조화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26. 나는 너희에게 나무의 잎사귀 하나도 내 뜻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거니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자연의 어떤 요소도 내 뜻 외에는 다른 뜻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말하노라.

27.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연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축복과 어루만짐, 양식이 풍성한 어머니 이거나, 굶주림과 갈증이 지배하는 메마른 사막이거나; 삶과 선, 사랑, 영원에 대한 지혜롭고 무한한 계시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모독과 불순종, 그리고 오류에 맞서는 무자비한 심판자가 될 수도 있다.

28. 나의 아버지의 음성은 첫 인간에게 축복하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 위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9. 그렇다, 인류여,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은 그가 공중과 물과 온 땅, 그리고 창조의 자연계에서 주인이 되어 권세를 가지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학으로 지구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노예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자연의 힘을 다스린다고 믿지만, 그들은 자신의 미성숙함과 오만함, 무지함의 희생양이 된다.

30. 인간의 권력과 과학은 땅과 바다, 그리고 공중을 침범하였으나, 그들의 권력과 폭력은 신성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생명, 지혜, 조화, 그리고 완전함인 자연의 권력과 폭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인간의 업적과 과학, 그리고 권력 속에는 오직 오만과 이기심, 허영과 악의만이 드러날 뿐이다.

31. 머지않아 자연의 힘이 인류를 깨울 것이다. 사람들은 고통의 잔을 통해 물질주의를 뒤로 하고, 지혜와 참된 힘을 얻어야 했던 길을 보여 줄 진리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32. 회개하기에는, 잘못을 바로잡기에는, 죄인이 새롭게 되기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을 것이다. 내 왕국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며, 오랫동안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방황하던 아이가 마침내 눈을 빛으로 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법을 아는

영의 자유보다 더 완전하고 경이로운 자유는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기다릴 것이다.

33. 사랑과 선과 정의, 그리고 완전함 속의 무한한 자유.

34. 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는 항상 너희의 영을 아버지께로 들어 올리며 기도해야 한다.

35. 나는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 주로 고독과 고요함을 찾는 것을 보았으며, 기도를 통해 영감을 얻고자 하거나 나에게 감사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평정심과 자제력, 내 임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내 도움을 구할 줄 알게 될 것이다.

36. 기도는 필요에 따라 길거나 짧을 수 있다. 원한다면, 몸이 지치지 않거나 다른 의무가 주의를 요구하지 않을 때, 그 영적 황홀경 속에서 몇 시간이나 보낼 수 있다. 그리고 갑자기 닥친 어떤 시련에 직면했을 때는, 단 1초로만 제한될 수도 있다.

37. 너희의 이성이 기도를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말들이 내게 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 드러내는 사랑과 믿음, 혹은 절박함이 내게 닿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익숙한 대로 생각이나 문장, 아이디어를 정리할 시간이 없을 때, 너희의 기도가 단 1초밖에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38. 너희는 어디서나 나를 부를 수 있다. 나에게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으니, 내가 찾는 것은 너희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39. 야외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든, 이 모임 장소에서 더 깊은 경건함을 느끼든, 아니면 침실을 선호하든, 너희가 아버지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곳에서 기도하라. 그러나 어디에나 계신 나에게는, 너희의 영과 교감하기 위한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다는 것을 잊지 마라.

40. 너희가 항상 같은 내적 집중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기에, 따라서 항상 같은 평안이나 같은 영감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다.

41. 너희가 영감을 받아 마음이 고양되는 순간도 있고, 반대로 전혀 무감각한 채로 있는 순간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 메시지를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너희는 기도하는 순간에 영과 협력할 수 있도록 마음과 심지어 육체까지 단련해야 한다.

42. 영은 언제나 나와 하나 되기를 준비하고 있으나, 그 순간에 고양되어 지상 생활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올바른 상태가 필요하다.

43. 참된 기도에 이르도록 힘쓰라. 기도를 아는 자는 평화와 건강, 희망, 영적 힘,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열쇠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44. 내 율법의 보이지 않는 방패가 그를 박해와 위험으로부터 지켜 줄 것이다. 그는 입에 보이지 않는 칼을 지니고 다니며,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적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등대가 폭풍한가운데서 그의 길을 비춰 줄 것이다. 그가 필요로 할 때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하든 동료 인간들의 복지를 위하든, 기적은 언제나 그에게 닿을 수 있을 것이다.

45. 기도하라, 이 고귀한 성령의 은사를 실천하라. 왜냐하면 이 힘이야말로 미래의 사람들, 즉 (이미) 육신 속에서 (그들의) 영과 (나의) 영의 연합에 도달할 사람들의 삶을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46. 가장들은 기도를 통해 자녀들을 인도할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47. 병자들은 기도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통치자들은 기도 속에서 빛을 구함으로써 그들의 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며, 과학자 또한 기도의 은사를 통해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48. 이 영적 빛의 세계를 찾고, 영의 기도를 실천하며,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이 방식을 완성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이 지식을 전하라. 그들이 너희가 온 곳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 믿고. 너희의 기도를 돕기 위해, 나는 내 가르침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과거에 너희에게 주었던 계시들을 밝혀 주리라. 너희는 왜 (지금) 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아느냐? — 너희 영혼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49. 머지않아 너희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르침에 대해 말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너희가 선포하는 가르침을 이해했음을 증명하고, 너희의 선한 행실로 너희의 말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모범을 보고는 가장 완고한 자들조차도 이 가르침의 진리를 확신하게 될 것이다.

50. 내 제자들 중에서 영적인 은사를 발전시키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을 강하게 한 자만이, 사람들이 그에게 가하려는 모든 시련을 견뎌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내 말씀의 의미와 진리를 표현하는 데 이르렀고, 그가 자신의 마음을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마르지 않는 샘으로 변화시켰다면 — 즉,

그가 기도했고 그의 덕행으로 인해 영성화의 길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 그 제자는 나를 증언할 준비가 된 것이다.

51. 이제 내 계시가 이 형태로 끝나기까지 몇 년이 남지 않았으니 — 내 말씀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내게서 배우라. 너희가 투쟁의 길에서 그렇게 행한다면, 언제 형제들에게 말해야 할지, 언제 침묵으로 가르쳐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52. 너희는 내 신성한 도우심이 너희 안에 있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너희가 행하거나 전하는 모든 것이 내 율법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53. 너희 말과 행위의 효력은 바로 이 신뢰와 믿음에 달려 있다.

54. 너희가 항상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모든 기회에 너희 영의 은사가 펼쳐지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55. 준비하라. 그러면 시련의 순간에 너희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비치고, 폭풍이 평화로 변하며, 너희의 영적 기도가 기적을 일으켜, 너희가 기도하는 이들에게 자비와 온유의 망토가 펼쳐질 것이다.

56. 너희의 선한 영향력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모두를 지배해야 한다. 너희는 보이는 요소들과만 싸우는 데 그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도 싸워야 한다.

57. 내 영의 빛이 과학자를 비추어, 그가 육체의 악의 원인을 발견하게 하듯이, 그것이 바로 너희가 질병이라 부르는 것이라면, 그 빛은 또한 너희를 비추어 너희의 영적 감수성으로 인간 삶을 괴롭히는 모든 악의 근원을 발견하게 할 것이다.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성을 흐리게 하거나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까지도 말이다.

58.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인간의 과학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힘들이, 끊임없이 너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59. 선한 힘도 있고 악한 힘도 있다. 어떤 힘은 너희에게 건강을 주고, 어떤 힘은 너희에게 질병을 일으킨다. 빛나는 힘도 있고 어두운 힘도 있다.

60. 그 힘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 제자여, 정신과 이성, 그리고 감정에서 온다.

61. 육신을 가진 영혼이든* 육신을 떠난 영혼이든* 생각하면 진동을 발산하며, 모든 감정은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은 이러한 진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 이 용어들은 자주 등장하며, 물질적 육신에 여전히 깃들어 있거나 더 이상 그 안에 살지 않는 모든 영혼을 의미한다.*

62. 이제 너희는 선하게 생각하고 사는 곳에는 치유의 힘과 영향력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선과 정의, 사랑을 특징으로 하는 법칙과 규칙을 벗어나 사는 곳에는 해로운 힘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3. 이 둘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서로 싸우며, 사람들의 감정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이를 구별할 수 있다면, 선한 영감을 받아들이고 악한 영향은 물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연약하고 선을 행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면, 이러한 진동에 저항할 수 없으며 악의 노예가 되어 그 지배에 굴복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64. 이러한 진동은 육신을 입은 영혼들뿐만 아니라 육신을 벗은 존재들로부터도 발산되는데, 이는 지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선한 영혼과 혼란에 빠진 영혼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65. 이 시대에는 악의 영향력이 선의 영향력보다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게 지배적인 힘은 악의 힘이며, 이로부터 이기심, 거짓말, 음란, 오만, 해치려는 욕망, 파괴, 그리고 모든 저급한 정욕이 비롯된다. 이러한 뒤틀린 도덕적 균형에서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들이 생겨난다.

66. 인간에게는 이러한 세력과 싸울 무기가 없다. 그들은 패배하여 영적 빛이 없고, 건전한 기쁨도 없으며, 선을 향한 열망도 없는 삶의 심연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67. 바로 지금, 인간이 지식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심연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68. 영원 속에서 너희의 시작과 미래를 아는 나, 나는 태초부터 사람들에게 악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경멸하고, 악이 악을 대적하는 싸움을 택하였으니, 그 싸움에서는 아무도 승리하지 못하리니, 모든 이가 패배자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69. 악이 지배권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세상의 끝에는 선이 승리할 것임을 의미한다.

70. 너희가 나에게, 내가 악의 세력이나 영향력에 맞서 싸우도록 사람들에게 준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묻는다면, 나는 너희에게 그것이 기도와 율법에 대한 인내, 내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말하리라.

71. 이제 나는 이 인류에게 영적으로 나를 드러내어, "제3의 시대"의 거대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과 악의 근원과 싸우는 방법을 한마디 한마디 명확히 알려 주어야 했다.

72. 나는 너희의 영에 감수성을 주어 너희가 깨어 있게 함으로써, 너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선을 받아들이고 악을 물리치며 싸우는 법을 배우게 하리라.

73. 아무도 내가 하는 말을 조롱하지 말라. 조롱을 통해 그는 자신의 엄청난 무지를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74. 너희는 너희에게 보내진 모든 사자들, 즉 영적 또는 과학적 계시의 선구자들이 조롱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인류는 그들이 선포한 진리에 설득되어, 얼마 후 그들의 계시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75. 고대의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혹은 전염병이 퍼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가? — 아니, 그들은 알지 못했고, 그 무지에서 미신적인 관념과 신비로운 숭배가 생겨났다. 그러나 어느 날, 창조주의 빛에 비추어 인간의 지성이 자신의 육체적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과학자에게는 이전에는 숨겨져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인류는 과거의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지식을 얻게 되었다.

76.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마침내 선과 악의 힘이 인간에게 미치는 기원과 영향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 지식이 널리 알려지면, 이 가르침을 듣고도 내 교리의 진리를 의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77. 나는 이 가르침의 빛으로 너희를 비추어, 너희가 인류에게 태초부터 경멸받아 온 능력을 너희 영혼 안에서 발견하게 하고, 너희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양심의 빛에 비추어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법을 깨닫고, 영적 발전의 완성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오염된 공기를 통해 질병의 세균이 너희에게 다가오듯이, 보이지 않고 소리 없이 악한 영적 영향들이 다가와 너희의 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너희의 정신을 흔들리게 한다.

78. 오직 기도만이 너희에게 내면의 깨달음과 감수성, 힘과 영감을 주어, 악에 맞선 매일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너희가 굳건히 설 수 있게 한다.

79. 나는 너희에게 악의 힘과 영향력에 대해 말해 주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영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가? 내가 혹시 그 이름을 직접 불렀는가? — 아니라고 너희는 내게 말한다. 나는 오히려 이 시기에 너희에게, 악의 근원이 되는 영이나 악 그 자체인 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부록의 주석 7 참조*

80. 과거의 사람들이 악을 인간적인 형상으로 묘사하고 영적인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악을 표현했던 옛 신앙적 신념들, 이미지들, 형상들, 그리고 상징적인 이름들 — 현재 세대까지 이어져 온 그러한 신념들 — 은 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를 자각하지 못한 채, 그것들을 통해 인간이 이 시대에 도달한 영적 발전 수준에 걸맞지 않은 미신적인 신화와 숭배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81. 악은 인간, 즉 인간의 약점에서 비롯되었으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불완전함과 죄악만큼이나 악의 힘이나 영향력 또한 커졌다는 것을 이해하라. 생각과 상상, 감정과 정욕으로 형성된 이 힘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뚜렷이 드러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분명 악의 화신인 어떤 영이라고 믿게 되었으나, 그 힘이 바로 *자신들의* 불완전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였다.

82.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41

1. 나는 언제나 물질 너머에 존재하는 영생에 대해 너희에게 말해 왔다. 나는 너희 모두가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너희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저지른 악을 속죄해야 한다는 사실도 너희에게 밝혀 주었다.

2. 너희를 돕기 위해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뿌린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고, 길이자 생명이신 내가 그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3. 나는 인류가 반항적이며 물질주의에 빠져 있음을 보았기에,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나에게로 나아갈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내 가르침을 전해야만 했다.

4. 완전함에 이르는 길은 길며, 나의 신성한 도우심이 없이는 너희가 그곳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저 세상의 영적 삶은 인간에게 있어 신비이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그 내용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라. 그러면 너희가 참된 삶의 문턱을 넘을 때, 놀라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5. 인류의 초기에는 영적 발달이 너무나 미약하여, 육체적 죽음 이후 영혼의 삶에 대한 내적 인식이 부족하고 최후의 운명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기에, 영혼은 육신의 껍질을 벗어날 때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 잠에서 깨어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혼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셨을 때, 그분은 인간들 사이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자마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혼란에서 벗어나 창조주에게로 승화하기를 기다려 온 수많은 존재들에게 빛을 보내셨습니다.

6.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어둠을 밝힐 수 있었고, 오직 그분의 목소리만이 잠들어 있던 그 영혼들을 깨워 그들의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죽으셨을 때, 신성한 영은 영적 세계와 심지어 무덤들 속까지 빛을 비추었으며, 그곳에서 자신의 육신 곁에서 죽음의 잠을 자고 있던 영혼들이 나왔다. 그 존재들은 그날 밤 세상을 떠돌며, 구세주가 *모든* 존재에게 생명이었으며 영혼은 불멸임을 증언하듯 인간의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

7.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산 정상에 이르는 길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역 을 신뢰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정체된 상태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8. 제자들아, 너희의 길을 밝혀 주는 이 계시들을 듣는다고 해서 너희가 동료 인간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며, 여러분은 그 길에서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저 세상의 몇 가지 비밀을 밝혀 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길을 알고, 길을 잃거나 그 길에서 비틀거리지 않도록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길을 잃을 수 있는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광활한 영적 세계에도 영혼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음을 깨달으라.

9. 내 사랑의 "생명의 수액"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도록 허락하라. 내가 너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너희가 나온 나무를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10. 너희는 내 말씀을 인내심을 가지고 깊이 탐구해야 한다. 그래야 내일 너희 동료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그 안에 담긴 진리에 따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언제 내 율법이 가르치는 완전함에 도달할 것인가? — 첫 번째 계명을 이행했을 때이다. 지금까지 인류는 창조주보다 세상의 모든 재물을 더 사랑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나에게 기도를 올릴 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죄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는 나에게 묻는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왜 저를 벌하십니까?" 그러나 나중에 내가 그들을 상처 입힌 가시를 그들의 길에서 치워 주면, 그들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분을 잊어버린다.

한 비유:

11. 들으라. 한 회당에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화려한 축제 예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거의 벌거벗은 채였다. 전자는 창조주께 감사드렸는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로 얻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곁에 있는 그 사람이 가난하고, 벌거벗고, 굶주린 것은, 그가 자신의 죄로 뿌린 대로 그 열매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12. 가난한 자는 주님 앞에 서기에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며, 속죄를 완수할 수 있도록 용서와 힘을 간구했다.

13. 권력자는 자신의 육신이 화려하다면 영혼은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표했다.

14. 시간이 흘러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 부자는 가족들에게 애도받았고, 장례식은 성대했으며, 호화로운 묘지를 얻었다. 그의 영혼은 육신을 떠나 영적 계곡으로 들어섰으나, 물질주의가 상승을 방해하여 혼란스러워했다. 그 영혼이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든 비틀거렸고,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둠에 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편, 노숙자였던 그 불쌍한 사람은 지쳐서 나무 아래에 앉았고, 한숨을 내쉬며 이 세상을 떠났다.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이도, 그 순간 곁에 있는 이도 없었으며, 그의 시신은 맹금류의 먹이가 되어 무덤조차 없었다. 그의 영혼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믿음, 즉 미래를 향한 믿음을 품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출입을 막히지 않고 '영혼의 계곡'으로 들어섰다. 그 영혼은 빛을 향해 나아가더니, 그 빛에 다다랐을 때 옷을 입고 장신구를 차려입은 것을 느꼈고, 그 옷들은 눈부신 광채를 띠고 있었다. 그 영혼은 긴 생의 여정 끝에 휴식을 취하려던 참이었는데, 눈앞에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믿음과 순종의 행실로 얻은 상을 사랑스럽게 주시는 것을 보았다.

15. 한때 권세 있던 자는 여전히 혼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자신이 누구인지 잊기도 했고, 때로는 울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육신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보물을 어디에 두었는지 물었다. 그러다 그는 주님을 떠올리고 그분께 말하였다. "저는 성전에 들어가 제 축제 의상과 권세를 과시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만족한다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고 부르지 않으십니까?" — 그때 그는 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땅에 있을 때, 너는 오직 인간의 허영을 위한 명성만을 좇았으며, 교만했고, 가난한 자들을 모욕했으며, 나병 환자를 혐오했다. 네가 세상에서 모은 그 어떤 것도 이곳에서의 삶을 돕는 데 쓰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네가 가장 궁핍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궁핍한 자가 된 것이다."

16. 그 영혼은 신의 공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겸손히 속죄를 시작하기는커녕, 주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하며 그분을 모독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졌다. 분노로 인해 점점 더 혼란에 빠진 그 영혼은, 인류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지상으로 향하던 수많은 존재들을 길에서 만났다. 그 영혼은 그들과 동맹을 맺고, 지나가는 길에 허영, 물질주의, 이기심, 그리고 오만을 퍼뜨렸다. 그러나 점차 그녀는 그토록 많은 악을 저지르는 것에 혐오감과 싫증을 느꼈고, 그래서 잠시 멈춰 서서 생각에 잠겼다. 수세기가 흘렀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희생양이 되었으니, 그녀가 영향을 준 모든 이들을 파멸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외로움을 느꼈지만,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게 된 양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창조물 앞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녀의 오만함이 꺾인 후, 그녀는 겸손히 주님을 찾았고, 기도 중에 그분께 말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그러자 아버지의 음성이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나 회당에서 네가 정죄했던 그 굶주린 자를 찾아 나서라." 그녀가 그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마쳤을 때, 시선을 들어 올려 보니, 세상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보았던 그 사람이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고, 길을 잃은 영혼들의 길을 밝혀 주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자 한때 오만했으나 이제 회개한 그녀는 자신의 (영적) 형제에게 말하였다. “제 영적 속죄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형제는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 차, 그녀의 영혼에 깃든 더러움에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그녀의 정화를 도왔다.
(**비유의 끝**).

17. 이 비유를 통해 나는 너희가 인간 생애를 넘어 마주하게 될 것들을 더 쉽게 이해하게 하여, 사랑의 행위로 영적 계곡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은 모든 이에게 닥칠 수 있는 시련에 대해 너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리라.

18. 나는 너희에게, 광신 없이 영적이며 건전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의 영혼으로부터, 빛나는 등불과 같은 좋은 본보기가 솟아나, 육신을 입은 영혼의 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거하는 자의 길까지 비추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

19. 그리스도 이전에는 죄의 어둠 속에 살던 영적 존재들 안에 빛을 밝혀 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20. 나는 혼란의 세계에 들어가 그곳에 빛을 가져오고, 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그들의 동료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도록 가르친 첫 번째 이였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만이 참된 삶과 참된 지혜의 위대한 책을 지키고 있던 봉인을 풀었기 때문이다.

21. 너희가 듣는 이 목소리는 여섯 번째 인의 목소리이며, 모든 나라에서 들리지 않은 것은 오직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부르심의 목소리에 대해 오만했고, 굶주리고 벌거벗은 자들*만이 나를 듣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영적 필요를 상징하는 표현들이다: 가난한 자 – 영적 깨달음이 부족한 자; 굶주린 자 – 정의와 사랑을 갈망하는 자; 벌거벗은 자 – 선행이라는 옷을 입지 못한 자.*

22.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군가 너희에게 청하면 용서하고 손을 내밀어라.

23. 엘리야의 겸손과 인내의 발자취를 따르라. 그는 영혼들을 정화하여 내게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지칠 줄 모르고 일하여, 내 말씀을 듣게 하려고 순수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며 준비된 백성을 내게 바치고 있다. 그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게 하려고 너희를 새 시온의 산으로 데려왔고, 너희가 나를 들었을 때 깊이 감동받았다. 내가 지금 인간의 매개를 통해 너희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라. 나는 언제나 너희를 놀라게 하고 너희의 믿음을 시험해 왔다. 너희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으며, 영혼의 발전 길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한다.

24. 영혼을 완성하기 위해 육신의 껍질을 희생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겸손과 인내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가 준비되었다고 판단하면, 너희가 그들을 이끌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너희 앞에 두겠노라. 그리고 너희가 덕을 굳게 지키면, 교만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느끼게 될 것이요, 이 무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내 계명을 잘못 해석하고, 형제들이 성장의 산을 오르게 하기는커녕 심연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적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며, 그 싸움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상할 것인가. 그러나 순종하는 너희는 — 너희가 모든 고통이 나의 축복으로 보상받는 산 정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음을 기억하라.

25. 머지않아 약속된 세대들이 지상에 올 것이며, 그들은 영적 발전의 길에서 큰 진전을 이룰 것이다. 그들은 너희보다 내 말씀을 더 잘 해석할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그것을 전파할 것이다. 내가 오늘 준비시키고 있는 이 새로운 인간들은 영과 영으로 나와 대화할 것이며, 이웃들 가운데서 그들의 권능을 증명할 것이다.

26. 사랑하는 백성아, 네가 준비할 때, 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법칙과 행적을 네게 불어넣으리라. 너희의 깨달은 이성은 자연과 너희 영혼 속에서 위대하고 완전한 모든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능력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며, 너희의 행위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 안에서 위대해질 것이다.

27. 주님의 동산에서 착한 일꾼이 되라. 잡초를 뽑고, 식물을 가꾸며, 꽃이 피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너희의 수고를 내게 바치라. 내가 너희에게 식물에 생명을 불어넣으라는 임무를 맡길 때, 너희는 이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나는 너희의 이웃과 그들의 예민한 마음을 말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항상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아라.

28. 내 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깨달아라. 너희는 단지 기도하고, 확고한 의지와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하며,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내 능력을 너희 안에 두리라. 나는 너희가 희생양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랑하고, 덕을 행하라.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29. 너희의 잘못된 길에 대해 나를 탓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그 빛을 따라 인도받도록 양심을 주었다. 그것은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선의 길을 보여주고 경고해 온, 굽히지 않는 재판관이다. 또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사명을 이해하고 겸손과 온유라는 미덕을 얻도록 도와줄 존재들로 너희를 둘러싸 주었다.

30. 사랑으로 내 가르침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너희는, 내 가르침 중 단 한 번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며, 마음속으로 이 시기에 내 마지막 말씀까지 들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나에게 간구하고 있다.

너희는 계속해서 이 은총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할 때, 너희는 기도 속에서 너희 영혼에 유익한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음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오직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에 따라 너희의 기도에 응답한다. 만약 내가 항상 너희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끈질기게 구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너희는 자신이 틀렸고,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 센 자, 불만스러운 자, 요구하는 자에게는 그가 원하던 것이 주어졌으니, 이는 고통스럽고 불리한 결과들이 그를 겸손하게 진리를 인정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나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 시련을 주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을 통해 배우는 반면, 다른 이들은 고통을 통해 배운다.

31.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것을 보니 기쁨으로 가득 차며, 너희가 고양될 때 내 영혼 속에서 아이의 애무가 느껴진다. 자신의 왕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아버지는, 너희의 입맞춤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다가오셨다. 그러나 인류가 스스로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한, 어떤 이들은 내가 날마다, 세기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다른 이들은 내가 그들의 사랑 부족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음을 짐작하게 될 것이다.

32. 너희는 그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내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정죄하는 대신 용서해 주셨음을 체험했다. 나는 너희 입술이 쓰다는 것을 보았고, 내 말씀으로 그것을 달게 했다. 나는 너희가 삶의 시련으로 지쳐 있는 것을 보았고, 내 힘을 너희에게 주었다.

33. 고통으로 인해 몸이 망가진 것을 느끼는 자는 자신이 몸을 혹사하지 않았는지 자문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계속 싸워 나갈 수 있는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고자 한다. 이에 내가 그에게 말하노니: 법이신 내 말씀의 핵심을 깊이 파고들라. 그 계명과 교리 속에서 각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발견할 것이다.

34. 이 상의 모든 열매를 다 먹기 전에는 떠나지 마라. 그 후에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른 음식을 찾아 나서도 좋다. 그러나 내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마음을 준비하고, 내게 구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 임재를 의심하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영의 은밀함 속에 너희의 선물이 쉼을 얻고 있으며, 너희가 준비되는 순간을 기다리며 너희 영 안에 머물기를 기다리고 있다.

35. 어떤 이들은 이 길에서 굳건히 서 있지만, 다른 이들은 유혹에 빠지게 하는 형제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이 가르침을 떠나게 되므로 매 순간 흔들리고 있다.

36. 스승이 너희에게 말씀하노니, 내 가르침을 받는 이 '새벽'들이 몇 번 더 지나갈 때까지 머물며, 내게서 듣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래야 너희가 적어도 영혼에 빛을 품고 갈 수 있으리니, 너희는 아직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하며, 이 사역의 사도들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

37. 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마음속에 결코 아물지 않을 사랑의 상처를 지니고 있다.

38. 이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평화를 찾은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 위해 그 평화를 (다시) 잃어야만 할지 모른다. 그들은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보물인 만큼, 물질적인 재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9. 평화는 사람들에게서 도망쳤으며, 그것을 찾기 위해 그들은 나를 향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오늘날 권력자들은 권력을 잃었고,

왕들은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 앞에서 떨며, 주인들은 종이 되었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여겼던 자들은 나의 정의에 묶여 있으며, 학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40. 너희는 인간의 모든 보물과 권력으로 평화의 원자 *하나도* 얻을 수 없으며, 치유의 은사조차 의사들에게서 사라졌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모든 과학을 동원해도, 그들의 마음이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내 향유 한 방울도 살 수 없다.

41.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너희 옷차림이 초라하거나 동료들 사이에서 낮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말라.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속해 있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천하다고 느끼지 말고, 만족하고 당당하게 생각하십시오. 육체적으로는 동료들의 명령에 복종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그들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노예가 될지 모르지만, 너희의 영은 내 빛으로 해방되어 무한하고 영원한 곳에 거하게 되었다. 진정으로 나의 종인 영은 평화와 참된 자유를 안다.

42. 너희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이웃에게 빛을 전하게 할 것이니, 너희는 자신의 소명을 다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도 수행할 수 없는 임무를 맡긴 적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내게는 충분하다.

43.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게 되며, 기도는 신성한 비밀을 열어주는 열쇠이자, 자녀의 영혼이 주님과 대화하는 언어이다.

44.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　준비한다면, 너희는 너희의 길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인가. 너희는 지식을 얻거나 가르치기 위해 과학 서적이나 철학 서적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 시기에 걸쳐 너희에게 준 가르침을 연구하고 깊이 탐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45. 너희가 가난하다 해도 결코 천민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땅의 양식을 위해 투쟁하되, 필요 이상으로 고생하지 말고, 세상의 재물을 얻고 축적하려는 노력 속에서 너희 몸을 희생하지 말라. 너희 영혼의 발전을 위해 잠시나마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배분하라.

46. 내가 인간 내면의 무제한적인 물질화를 비난한다고 해서, 오직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라고 권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있고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 한, 너희의 발전이 삶 속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육체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조화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상의 것은 세상에 돌려주라.

47. 너희 몸을 입히고 날씨의 혹독함으로부터 보호하되, 너희 영혼은 빛으로 입히라. 너희 몸을 위한 양식을 구하되, 그것이 맛이 좋고 너희를 지탱해 줄 영양소를 함유하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 영혼을 위한 참된 생명의 양식도 마련하라.

48. "육체"가 우세하면 영혼이 고통받고, 영혼이 우세하면 육체가 고통받는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두 구성 요소 사이에 조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조화는 둘이 하나의 "몸"과 하나의 뜻을 이룰 때 비로소 존재한다. 기도로 너희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만족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단 5분간의 기도만을 요구할 뿐이니, 나머지 시간은 물질적인 삶을 위해 투쟁하고, 그 안에서 선한 행실로 동료 인간들 사이에 사랑과 자비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너희 영혼의 의무를 다하는 데 쓰기를 바란다. 나의 말씀은 너희를 준비시킨다. 나는 너희를 연약한 자로 보내어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게 할 수 없으며, 병든 자로 보내어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49. 제자들아,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길에 돌을 놓는 자들을 위해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 너희는 그들에게 용서가 있기를 구한다. 나는 내 일을 위해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조차 직접 축복한다.

50. 너희 집안에서 평화롭게 살며, 그곳을 성소로 삼아라. 그리하면 영적 세계 의 계곡을 혼란스럽게 방황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침입했을 때, 그들이 너희 안에서 그들이 찾는 빛과 평화를 발견하고, 저 세상에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라.

51. 만일 그들이 너희 집에서 다툼만 보게 된다면, 이 존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궁핍한 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52. 횃불을 들어 불을 밝히고,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빛은 너희 이웃에 대한 사랑과 너희 아버지의 자비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면 너희 가정에 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고, 회개와 갱신을 통해 너희 영혼을 정화하여, 내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힘을 얻으라. 내가 너희 가운데 내려와 내 말씀으로 내 가르침을 선포하노니, 이는 너희가 내 임재를 느끼고 나에 대해 증언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내 가르침을 들을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약속의 땅, 즉 너희의 순례 여정에서 쉴 수 있고 너희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큰 상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땅을 찾을 때까지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53. 너희가 내 말씀을 이해해야만, 마치 교만한 아이가 자신에게 건네진 빵을 경멸하듯 그것을 내팽개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며, 종교들이 너희를 빠뜨린 그릇된 관습과 광신, 그리고 혼란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하려 한다. 만약 너희가 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연구하려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를 거절하는 것이며, "제3의 시대"에 이루어진 내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종결을 알린 날짜가 올 것이며, 그때 너희는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가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은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씀은 더 이상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의 무지라는 짐이 너희에게 얹혀질 것이며, 너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토록 쓰라린 잔을 마시겠느냐? — 나는 너희를 고통스럽게 바라보며 너희가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겠다. 너희 영혼을 해방시켜 내게로 오게 하라. 영적으로 깨어나, 참된 삶으로 향하는 고양과 진보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라.

54. 너희의 모든 행실에서 의로워라. 그리고 이웃을 책망할 때, 재판관도, 집행자도 되지 말라. 이웃을 징계하기 위해 채찍을 들지 말라.

55. 제2시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기도와 하나님 숭배를 위한 성소인 성전이 시장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시고, 스승께서는 열정을 담아 그곳을 모독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하도록 사람들의 영혼을 인도할 임무를 맡은 자들보다 죄가 덜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명예욕과 허영심이 지배하는 곳으로 변모시켰고, 그 지배는 무너져 내렸다.

56. 오늘 나는 내 율법을 모독한 자들을 벌하기 위해 채찍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직접 체감하게 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줄 알고 내 법이 굽히지 않고 변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였노라. 나는 인간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었으니, 그가 그 길에서 벗어나면 공정한 법의 엄중함에 직면하게 되리니, 그 법 안에 내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이라.

57. 너희 자녀들에게 열정을 다해 길을 가르치고, 영과 물질의 법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이 이를 어길 때에는 훈계하라. 너희는 부모로서 이 땅에서 나를 대변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거룩한 분노로 예루살렘의 상인들에게

하나님의 일, 즉 변함없는 법들을 수호하며 영원히 기억될 교훈을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라.

58. 사람들은 나에게 평온한 삶을 구한다. 그들은 그 안에서 의무를 다함으로써 얻는 평화의 선물을 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평화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먼저 전쟁을 겪어야만 하는가? 보라, 선한 씨앗이 악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어떤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오늘은 강하던 자들이 내일은 잿더미가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순간에도 인류를 위해 중보하며 내게 말하느니라. "스승님, 제가 기도하였으나 주께서 제가 구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아, 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덜어주었는지, 그리고 네 기도가 그 피조물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불어넣었는지 아느냐? 세상에 평화가 임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사랑과 겸손으로 돌이킨 인간이다.

59. 인류가 내 눈앞에 보여주는 무지란 얼마나 큰가! 학자도, 무지한 자도 내 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비록 내가 스승으로서 그들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은 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너희의 잘못이 너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면, 내 말을 영생의 양식으로 삼아라. 깨어 있으라, 내 가르침을 실천하며,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60. 이 가르침은 인류의 길을 밝혀주는 새로운 날과 같습니다. 너희는 지는 해처럼 사라지는 한 시대를 목격했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았으니 , 그날 너희는 위대한 각성을 통해 사람들을 비추는 거대한 빛들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정욕이 풀려나는 것을 보았고, 죄가 어떻게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열매를 맺는지, 악이 어떻게 가정과 국가를 덮치는지, 불의가 어떻게 사람들을 지배하는지 보았다. 그러나 나는 이 거품을 멈추기 위해 온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눈앞에 내놓고, 너희 스스로 만들어낸 그 고통을 내게 돌리지 말라. 나는 너희가 살아가고, 경험을 쌓으며, 너희의 공로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너희를 창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의 고통이 내게 닿았고, 나는 위로자이자 스승으로서 너희가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 주고, 평화의 왕국이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함을 알리기 위해 왔다.

인류는 변화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선함이 사람들의 마음에 깃들 것이다.

61. 태초부터 나는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로 너희에게 말해 왔으며, 특히 나의 친밀한 친구들이자 나의 대변자,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한 전령들이었던 너희에게 말해 왔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사명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야 하며, 동료 인간들의 불신과 무지 앞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너희는* 이 시대에 이루어진 나의 계시를 신성한 영으로 믿고 확증하였으나, 다른 이들은 아직 이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때문에 이를 오해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너희가* 이루지 못하는 일은 내가 행할 것이며, 세상에 나의 일을 드러내고 나의 약속을 성취하리라.

62. 나는 이 나라를 택하였으며, 내 일꾼들이 그곳에서 나와 씨를 뿌리는 것을 기뻐한다. 나는 너희가 형제들의 스승이 되되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내가 너희를 형제들 가운데서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남겨 두었음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이 너희 형제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이를 찾게 되면, 나는 그들에게 말하리라:

63. 오라, 나그네여,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 영혼을 갉아먹는 갈증을 해소할 물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궁핍한 것을 보나, 너희가 내게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려 한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의 왕국을 선사하노라 — 내가 이 세상에 보낸 첫 피조물들에게 선사했던 바로 그 왕국이다. 그것은 샘물의 물도 아니요, 단 한 순간 만 지속되는 덧없는 평화도 아니며, 오직 영원한 은총과 영원한 평화, 진리와 빛이다.

64.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자들에게도 용서와 위로를 가져다준다. 나는 나를 상처 입힌 자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축복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언젠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65. 너희는 세상의 즐거움을 좇아서는 안 된다. 오늘 있는 것은 내일 사라진다. *영원한* 생명을 찾고 이를 위해 노력하라. 그 생명은 최고의 진리이므로, 아무도 거기서 되돌아오지 않는 생명이다. 내 가르침의 길을 따라 그곳에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언제나 주었던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지키며 오라.

66. 너희 아버지는 자녀들과 교감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사람을 통해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했던 이 시기가 지나면, 너희는 무한한 곳에서 나를 찾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나와의)

너희의 교감은 더욱 순수하고 견고해질 것이며, 그것은 영과 영 사이의 대화일 것이다.

67. 내 자녀들이 나를 다시 들었기에 내가 그들 안에서 어떤 기쁨을 보는지, 그리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보고 따르는지 보라!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늘 가르쳐 온 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 말하노라.

68. 나는 너희를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위대하게 하려고 너희를 부르셨다.

69. 너희가 내 일을 위해 모욕을 당하면 내가 너희를 칭찬할 것이며, 너희가 고통을 견디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침 42

1. 나는 너희가 내 밭에서 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들을 너희 길에서 치워 주리라. 너희는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선택받은 자들이며, 인류에게 내 가르침의 진리를 알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해지라! 내가 보기에 너희에게는 믿음이 부족하고, 낙담에 굴복하며, 결단력 있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제2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의심하며, 믿기 위해 내가 허락할 수 없는 물질적인 증거를 내게 구하고 있다. 성경을 손에 쥐고,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내 강림이 아주 특정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처럼 되지 말라. 그들은 내 사명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계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의심했다. *그들이* 요구했던 기적들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으니, 이는

길이 이미 나에 의해 정해져 있었고 모든 것이 영원 전부터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 너희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에 의심한다. 너희는 나의 예언을 알지 못했고, 극소수만이 나의 계시를 온전한 진리로서 깊이 탐구하고 이해했다. 그러나 너희 마음이 무지했더라도 — 영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야 할 것임을 예감했고, 오늘 나의 말씀은 마치 정교한 끌처럼 너희를 다듬으며 내 계시의 진리를 너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를 시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기도하고 깊은 묵상에 잠겨라. 이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고, 너희 창조주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다시 하나 될 때이다.

3. 기억하라. 너희가 땅에서 울었을 때, 그 고통을 너희에게 안겨준 것은 내가 아니었음을. 나는 너희의 속죄를 기뻐하지 않았으며, 너희의 고통에 무관심하지도 않았다. 나는 오직 너희의 영혼을 다듬고 고양시키고자 했을 뿐이다. 나는 항상 너희를 사랑했고, 항상 너희를 용서해 주었다.

4. 내 말씀의 심오한 뜻을 깊이 헤아리고, 내가 대변자들의 서툰 입을 통해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발견하라. 그러나 오로지 *그들의* 매개를 통해서만 나를 듣으려 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아버지와의 영과 영의 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완전한 기도를 가르쳐 주었으니, 이를 통해 너희는 영에 합당한 언어로 나에게 말할 수 있고, 나의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5. 왜 너희는 나의 영성화 사업을 외면하고, 너희 내면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양심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가? 왜 너희는 오직 인간의 말과 판단만을 믿고, 제때를 살아가는* 영이 물이 부족하여 뜨거운 태양 아래의 꽃들처럼 시들어 가도록 내버려 두는가?

**성령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사람 안에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될 하나님의 영.*

6. 자녀들은 나와 하나가 되어 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성장으로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사랑의 가르침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며, 그들의 신념은 확고할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라! — 너희 가정 안에서 그들이 영성화의 증거를 보일 때,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라. 의인들이 사는 높은 영역을 바라보며 그들이 기뻐하고 황홀함에 빠지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승천하는 동안 내게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그들의 고통을 잊게 될 것이다.

7. 너희 자녀들이 너무 더디게 깨어나는 것을 보며 너희 아버지의 인내와 슬픔을 보지 못하느냐? 나의 아버지의 사랑은 너희를 평화로 이끄나니, 시련은 인류에게 나를 향한 좁은 길을 보여준다. 이 길 위에서 너희는 모두 창조주와 다시 하나 되어야 한다.

8. 너희 가운데는 인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 투쟁하는 "일꾼들"이 있다. 오늘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수고의 열매를 내 앞에 바친다. 내 가르침을 듣고 자신에게 주어진 몫의 일을 맡아 수행한 "아이"가 있는데, 그가 오늘 영적 씨앗의 첫 열매를 내게 바친다. 그의 기도는 그의 인간 형제들을 위한 평화를 간절히 청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가 평화로워진 것만으로는 그가 행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탄식이 들려오지만,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형제들을 위해 간구하며, 나는 그에게 이 평화가 오늘날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에 시련이 씨앗을 남기고, 고통이 그들의 영혼을 정화했을 때 찾아올 것이라고 말해준다.

9. 너희는 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의 순간에 내게로 나아가 내게 온전히 가까이 머물 때, 많은 동료들이 전장에서 쓰러지고, 많은 어머니들이 아들을 떠나보내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을 슬퍼하며 울고, 모두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어떤 시대에 들어섰는지 알지 못한다. 이는 속죄와 혹독한 시련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내 제자인 너희는 형제들에게 평화와 위안이 내리도록 기도할 의무를 느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평화를 너희가 제대로 활용했는지 묻겠다.

10. 아버지들이 가정이 어깨에 지고 가는 무거운 십자가라고 느낄 때 왜 불평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이토록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이들은 영혼이 병들어 있는가? — 그것은 그들에게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했고,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1. 이스라엘 백성아,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죄인들을 구원하라. 오류에 빠진 자들을 깨우쳐 주라. 그리고 너희의 평화를 지키고자 한다면, 그들을 위해 일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서로를 형제라 여기라. 서로 사랑하라!

12. 너희가 내게 다가올 때마다, 내 사랑이 너희의 영혼과 몸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느낀다. 또한 너희가 멀어지면 평화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고 너희의 영혼이 슬퍼진다는 것도 알고 있다. 너희 양심은 너희가 율법의 길 위에 있는지, 아니면 그 길에서 벗어났는지를 언제나 완전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해 준다. 나는 율법 그 자체이며,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항상 너희를 독려한다.

13. 너희가 금지된 쾌락을 누리려고 고집을 부릴 때, 나는 너희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 잔이 너희에게 항상 고통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허락한다. 한 번 넘어진 후에야 너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고통이 너희의 속죄가 되기를 바라며 내게로 돌아온다.

14. 배우라. 그리하여 내 말씀을 알고자 갈망하는 마음들을 준비시키고,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하라. 너희 마음에 이기심이 자리 잡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내가 모든 내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 자비를 마음에 새기고, 같은 사랑으로 너희 이웃에게 베풀어라.

15.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와 민족에게 보내어 내 빛을 전하게 할 때가 이미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내 가르침을 연구하고 깊이 탐구하며, 사랑과 자비의 행실로 형제들에게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준비해야 한다. 나는 너희가 내 가르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놓쳐버린 시간을 나중에 후회하며 슬퍼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큰 재앙들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나를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을 한탄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1950년이 되기 전에 이미 “영의 세계로 떠나” 있을 것이다.

16. 내 자녀들 중 어떤 이들은 내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니, 이 눈물이 더러워진 자들을 정화하는 데 쓰이기를 바란다!

17. 내 말을 듣는 너희는 – ‘첫 번째 시대’와 ‘두 번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내 뜻을 행하라. 너희는 시대마다 계속 발전해 온 바로 그 영혼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속죄의 길을 끝까지 다하면,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기 위해 내게로 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노라. 만일 내가 이 시대에 ‘제2의 시대’ 때처럼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왔더라면, 나는 다시 순교의 길로 이끌렸을 것이다. 그 교훈은 끝났고, 오늘 나는 이 시대에 걸맞은 교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사람들의 이성 기관을 통해 내 뜻을 전할 때, 내가 드러내는 그

방식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임을 깨달아라.

나를 섬기는 자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으며, 나를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겪고, 오해를 받고, 조롱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영혼을 보호할 것이며, 나중에 그들이 사명을 다했을 때, 그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리라.

18. 오늘 너희는 너희의 육신을 위해 나에게 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차라리 너희의 영혼을 위해 구하라. 나머지는 내가 너희에게 덤으로 주리라.

19. 너희는 이 땅에서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며, 긴 여정 속에서 고통을 겪었고 죄로 인해 넘어졌으며, 넘어진 후에도 너희를 일으켜 줄 도움의 손길을 찾지 못한 채, 저 세상에는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실 자비로운 아버지가 계시며, 그분께서는 너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라. 단지 육체를 병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을 괴롭혀 고통스러운 짐처럼 짓누르는 것들까지도 말이다.

20. 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영혼을 고양시키려 하지 않았고, 성찰하고 그 의무를 다할 데 필요한 시간을 허락하려 하지 않았다. 너희 안에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는지 생각해보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산 정상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너희는 모두 깨달음을 얻었으며, 이 시대의 계시를 알 준비가 되어 있다. 에서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형제들이 사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허락할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는 훌륭한 일꾼으로서 아버지가 너희에게 맡기신 사랑과 자비의 씨앗을 뿌리게 될 것이다.

21. 너희가 받은 첫 번째 교훈에 만족하지 말라. 계속 나아가라. 내 말씀을 구하고 그 영적인 뜻을 깨달아, 너희 형제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라. 사람들의 판단이나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진실함이 있고 모든 행실에서 의로움을 보인다면, 그들이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씌울 수 있겠느냐?

22. 나의 도움을 간구하는 순수하고 선한 마음들, 곧 나를 '의사 중의 의사'로 찾는 이들을 맞이하는 것은 내게 기쁨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너희가 자신의 고통을 잊고, 나의 가르침으로 변화시킨 고통받는 이웃들을 내게 데려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본다. 나는 고통을 덜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눈 이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힘을 주어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계명을 지키게 하리라.

23. 나는 내 자녀들 중 일부가 나를 의심하며, 그들의 영혼이 가진 은사를 발전시키지 못하게 막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가르침을 전해야 할 때, 그들은 침묵을 지켰다. 내가 준비된 모든 이를 통해 말할 것이며, 그런 이가 없다면 내 창조물의 자연의 힘을 통해 말할 것이라고 내가 말했음을 마음에 새기지 않은 채 말이다.

24. 자신의 높은 소명을 깨닫지 못한 채 땅 위를 걷는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말하노라. 언제 너희는 너희의 사명을 다할 생각인가? 오늘 잠든다면, 내일 저 세상에서 깨어나 놓친 시간을 후회하며 울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하겠지만, 그때 너희의 속죄는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25. 스승이 너희에게 경고하는 소리를 듣고, 양심의 빛으로 너희의 행실을 돌아보면, 내가 너희에게 준 씨앗이 번성하지 못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을 너희의 행실로 증언할 수 없다면, 이 유산을 찾아 올 새로운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겠느냐?

26. 1939년 첫날, 나는 너희에게 임박한 전쟁을 예고했었다. 너희는 많은 나라들이 빠져든 파괴와 혼란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너희는 전쟁이 하나씩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으나, 여전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너희는 국가들 사이에 큰 분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27. 강자들은 강자들과 맞서게 될 것이며, 이 전투에서 그들은 권세를 잃고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영혼들이 육신을 잃고, 나에게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당혹감과 고통 속에서 영적 계곡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속죄할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28. 오늘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인류의 평화와 더 높은 발전을 위해 일할 위대한 영혼들이 땅에 내려올 때가 가까웠느니라. 이 세대들을 위해 길을 준비하라.

29. 내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더 말하노니, 나를 듣지 못했음에도 믿고 마음속에 성전을 품으며,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그 믿음이 속죄의 길을 비추는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나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0. 오늘 너희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은총의 샘가에 서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던 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이 시대에 너희의 갈증은 빛과 진리와 평화를 향한 갈증이다. 너희는 오직 고통과 거짓만을 알고,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줄 연고를 찾고 있다. 보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위로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해 줄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내게 말하느니라. “아버지, 오직 이 순간에만 내 영혼이 평안을 얻나이다. 주님께로 마음을 드릴 때, 나는 세상의 것을 잊고 주님의 영의 평화가 내 존재를 관통함을 느낍니다.”

31. 이것이 내 가르침이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의 속죄를 돕는 은총의 때임을 깨달은 너희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나를 듣고 내 법 안에 머무는 법을 안다면, 너희를 해칠 인간적인 권세는 없을 것이며, 너희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것이다.

32. 비록 너희가 예전에 나를 찾지 않았을지라도, 오늘날 너희는 내 진리를 깨닫게 될 그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유산을 알려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너희가 나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내 일꾼이 되게 해 달라고 청하고, 나는 허락하노라. 왜냐하면 나( )는 너희가 복음을 알고 사람들 사이에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 너희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여받은 영적 은사를 깨닫고 꽃피우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주의와 죄, 그리고 약함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스스로 준비가 되었고 속죄를 통해 정화되었다고 느낄 때, 너희 이웃에 대한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보물처럼 간직하라.

33. 너희는 세상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니, 너희의 의무는 더 높으며, 너희 아버지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내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싸웠고, 가시덤불에 발이 상처 입었으며, 긴 여정 때문에 옷이 찢어졌다면, 내게로 오라. 옷도 신발도 없이, 여정용 식량도 없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모든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내가 너희가 그들에게 내어준 것을 다시 돌려줄 것이며, 너희가 그들에게 베푼 사랑과 선행 때문에 은혜로 너희를 넘치게 채워 주리라.

34. 너희를 기다리는 큰 싸움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은 너희 영혼에 피로를 느끼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선한 목자와 영적 세계의 도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다면, 그 일은 너희에게 쉬울 것이다. 나는 완고한 영혼들의 불신을 이겨낼 것이며, 그들은 너희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다른 이들은 이 현생에서 이 빛을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너희에게, 오늘날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이가 '제3시대'의 이 가르침의 빛을 알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영적 계곡으로 가야 할 것이며, 그곳에서 그들은 이 사랑의 사업을 바라보고 믿게 될 것이다. 나를 들었으나 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내 뜻을 깨닫지 못한 이들은 '영 안에서' 활동하며 그렇게 그들의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35. 내 가르침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우나, 너희 모두가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너희는 이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이 열매로 양육받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했고, 내 말씀의 '맛'은 달콤하며 그 의미는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러나 너희는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지 않았다.

36. 너희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연약한 배와 같았으며, 너희의 믿음을 자주 꺼뜨려 버렸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알면서도 나를 느끼지 못하며, 내가 이미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듯이, 너희의 속눈썹이 너희 눈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보다 내 영이 너희 영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더 멀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37. 깨어 있으라. 양의 옷을 입은 늑대가 너희를 속이려고 항상 매복해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미 이 신성한 사랑과 자비를 형제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을 때, 유혹이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의 결심을 바꾸게 한다.

38.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동료들이 너희의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려 할 때, 겸손히 그들의 말을 들어라. 내 영감은 준비된 모든 이에게 임하기 때문이며, 내가 너희를 바로잡기 위해 그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내 뜻인지 너희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회 계층에서 제자들을 택하였으니, 하루 먹을 양식을 구걸하며 살아가던 자들도 있었으나, 안락한 삶을 살던 자들 가운데서도 내가 부른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보물을 깨닫지 못한 채, 이곳의 백성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한다.

39. 너희가 잘못을 저지른다는 자각 속에서 죄를 지었더라도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며,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있는 길을 항상 보여 주노라. 영혼이 더럽혀지고 선한 행실이 없는 아이가 아버지 앞에 나타날 수 있겠느냐? — 그 아이의 양심은 임무를 완수한 후에야 비로소 내게 올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40. 지나가는 매 순간이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할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을 깨달아라. 내일 너희가 놓친 가르침을 후회하며 울지 않도록 그 시간을 잘 활용하라.

41. 너희의 길에 너희를 부르던 이가 있었듯이, 너희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 내 말씀을 전하며 너희를 내 앞으로 인도해 준 그 사람을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 너희도 누군가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너희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 않느냐?

42. 선한 일에 꾸준히 힘쓰고, 너희 마음을 덕으로 정화하라. 그러면 너희는 영적 은사가 꽃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물러서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 은사들이 너희를 떠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니.

43. 이제 너희는 단순히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깨달아야 할* 때이다. 그래야만 "아버지, 저는 많은 것을 구했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44. 내가 너희가 내게 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너희가 아버지께 주시기를 구하는 동안, 나는 너희가 받는 법을 알기를 구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45. 나의 착한 제자들, 즉 참된 사랑과 참된 믿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어제 불확실하고 금기된 길을 걸었다면, 오늘은 내 율법의 길을 걸어야 한다. 과거에 어리석음 속에서 이웃을 해치기 위해 손을 들었다면, 이제 바로 그 손이 다정함으로 어루만지는 법을 배우도록 힘쓰라. 어제 너희 삶의 길에 증오나 악의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 평화와 형제애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라.

46.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어제의 행실을 기억하고 지금 너희가 나의 제자로 변모된 것을 보는 자는, 너희의 믿음의 기초가 진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너희가 가르치려 하는 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행실이 너희 형제들 앞에서 너희가 남기는 가장 훌륭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47. 어머니들에게 이르노니, 자녀들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첫걸음을 내딛도록 가르치라. 그들이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며, (영적으로) 고양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너희 가운데 자라나는 모든 새로운 세대에서 그들이 이룰 영적 성장은 점점 더 커질 것임을 명심하라. 직관을 활용하여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여주거나 (영적) 양식으로 쓸모없는 열매를 주지 말라.

48. 나는 이 새로운 세대들이 너희의 잘못으로 인해 비틀거리거나 길을 잃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그들의 가족들 사이에 사랑이 부족하여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49. 오늘, 내가 너희의 마음이 겸손해진 것을 보니, 그들에게 나의 새로운 계명을 주노라. 지난 시절 너희는 모두 권력, 부, 세상의 영광, 그리고 쾌락을 꿈꾸었노라. 그때 너희는 예수님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다. 그리스도께서 겸손을 설교하시고,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오늘날 너희는 약간의 평화와 빵 한 조각, 그리고 단단한 지붕만으로도 만족한다. 삶의 교훈들이 너희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너희의 영혼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50. 사람이 세상이 주는 겉보기에 평화로운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믿는 한, 그는 내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참된 영성화에 이르면, 그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상쾌함과 기쁨은 깊고 진실할 것이다. 마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말이다.

51. 나의 아버지의 사랑이 너를 바라보고 있노라, 오 이스라엘 백성아, 그리고 네 행실을 심판하노라. 신성한 심판은 이미 모든 사람을 덮었으며, 그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느니라.

52.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 오직 평화와 안녕만을 원했으나, *그들은* 고통과 정화를 추구하였으니, 이는 나의 법이 불완전함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자신을 더럽힌 자는 누구나 정결하게 해야 하며, 길에서 벗어난 자는 누구나 그 길로 돌아와야 한다. 너희는 이 나라를 통해 민족들을 휘몰아치고 파괴하는 회오리바람을 보고 있으면서도, 동요하지도 않고, 누리고 있는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특권들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뜻에 만족하지 못한 채, 너희는 너희의 시련을 불공평하다고 여기며 나를 거역한다.

나는 너희가 이 세상을 다 살아갈 때까지 기다리니, 그리하여 너희 스스로 너희 삶을 심판하게 하리라. 그때 너희는 너희 영혼의 용서할 수 없는 심판자가 될 것이며, 나 안에서 오직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만을 보게 될 것이다.

53. 너희는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지쳐 있으며, 그 결과로 인해 눈물을 흘리게 된다. 너희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고, 너희의 깨어남은 쓰라릴 것이다. 나는 인류에게 전 세계에 흩어질 14만 4천 명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며, 인류는 이 군대를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병사들 각자가 나의 계명을 선포하고 해석하는 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54. 지구가 한 극에서 다른 극까지 재앙을 겪고, 모든 나라와 모든 제도와 모든 가정이 뿌리까지 심판받으며, 인류가 모든 오점을 씻어낸 후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나가서 내 가르침을 너희 이웃들에게 전할 준비를 해야 한다.

55. 나, 아버지께서는 인류가 타락의 극치에 이르러, 고의로 내 말씀을 외면하고 내 율법을 더럽히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가 이미 다가오고 있으며, 그날에 나는 그들을 위해 준비해 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리니, 그들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딸들이기 때문이다.

56. 나를 믿는 자들은 의심하는 자들보다 나를 더 빨리 알아볼 것이다.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의 마음을 두드렸는지, 그러나 너희는 듣지도 않았고, 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였다. 나는 단지 너희가 자신을 고치고, 이 빛과 은총의 시대로 더 순수하게 들어서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뿌려 메마른 들판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라. 이때 너희의 기도가 열매를 맺게 하는 관개가 되어야 한다.

57. 서로 사랑하고 너희 집에서 평화롭게 살아라. 내가 보기에, 한 가정을 이루는 다섯 사람 중 두 사람이 세 사람을 대적하고, 세 사람이 두 사람을 대적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58. 너희의 살과 피였던 존재들이 이제 영의 세계에 있음을 알게 되더라도, 그들을 잊지 말고 기도를 통해 그들과 연결되어 그들을 도우라. 그들이 (성장에서) 멈춰 서 있다고 느낀다면, 일하고 그들의 영을 고양하도록 격려하라. 지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의 능력과 힘을 사용하여, 너희를 구원하고 구원을 가져다줄 위대한 업적을 이루라.

59. *나는* 너희에게 영의 양식을 주나, *너희는* 물질적인 양식을 구한다. 그러나 너희가 열정을 다해 안식과 육체적 안녕을 구하듯이, 영적 진보도 구하라. 너희의 십자가는 무겁지 않다. 내가 온 인류의 수고와 고통과 죄의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 산의 높은 곳을 오르는 법을 너희에게 보여주었거늘, 내가 단지 소수의 무리를 맡긴 너희가 어찌 그곳에 오르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그

무게 아래에서 힘이 다해 쓰러질지라도, 너희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내가 있으니, 내가 너희를 넘어지게 하지 않으리라.

60. 너희가 그토록 피하려는 고통은 영혼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마르지 않는 샘이다. 너희 스스로도 시련을 겪은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정화되며, 양심과 화해하게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61. 이 말씀은 오늘날 고통으로 지쳐 있는 그 나라들의 주민들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머지않아, 아주 머지않아, 십자가 위에서처럼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며,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 내 평화의 왕국으로 데려가려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43

1. 내가 여호와로서 너희에게 다가갈 때, 왜 너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드는 것이냐? 내가 너희 아버지라면, 나는 사랑이며, 너희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너희 영혼을 인도하시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2. 나는 창조의 자연계가 전쟁의 소란으로 뒤흔들리는 이 시련의 순간들에 너희에게 힘을 준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고양된 마음과 열정이 살아나, 형제 살해의 전쟁으로 짓눌린 형제들의 고통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그들과 함께 괴로움의 잔을 나누고, 그리고 너희가 조용히 올리는 기도가 사람들 사이의 평화와 화합, 선의를 촉구하는 외침이 되게 하라.

3. 너희 아들들은 무기를 들도록 소집될 것이다. 그들을 보내라, 그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오늘 그들을 나의 은총의 전달자로 삼았으니, 그들은 동료 인간들 사이에 나의 가르침의 빛을 전파할 것이다.

4. 나는 전쟁이 초래한 모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나라들의 주민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하노니, 그리하여 내일 너희가 그들을 형제로 여길 수 있도록 하라.

5. 오늘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뭉쳤다. 민족들이 서로에게 달려들어 국경을 지워버리고 언어를 뒤섞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 아니라, 형제 살해의 전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증오였다. 그러나 권능이신 나는, 너희의 실수를 통해 내가 너희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리라. 이 분쟁이 끝나면, 마음은 고통을 통해 정화되고, 생각에는 빛이 비칠 것이며, 사람들은 평화를 얻기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6. 평화를 위해 싸우고 수고한 자들에게 복이 있기를. 내 목소리를 믿고 나서서 길 위에서 내 빛과 진리를 전파한 자들에게 복이 있기를.

7. 인류의 고통을 보며 내 영혼은 깊이 감동하고, 하늘에서도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나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로서의 나의 고통은 은혜의 이슬로 변하여 내 자녀들에게 내리리라.

8. 인내와 온유함으로 이 고통의 잔을 비워라. 너희의 울음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니라.

9. 만일 아버지께서 이 순간 너희에게, 땅에서의 사명을 다했는지, 너희 손안에 너희 수고의 황금 이삭을 들고 있는지, 서로 사랑했는지, 그리고 서로 용서했는지 묻는다면, 너희는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내게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자신의 공로로 내 말씀을 들을 자격을 얻었다고 믿느냐? — 아니라고, 너희의 영이 내게 말한다.

10. 내 백성아, 시대가 지나갔으나 너희는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깨어나서, 이 땅에서 누렸던 삶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음을 깨달아라.

11. 내 목소리는 사랑과 자비로 너희를 깨웠으나, 이 말씀을 잠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자장가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너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계시기 때문이다.

12. 너희는 내 공의가 닥쳐와서야 비로소 믿고 깨어나는 자들 중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

13. 아직은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기다려라.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너희 입술이 아니라 너희의 행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순수함을 자랑하지 말고, 동시에 너희의 오점을 숨기려 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흉내 내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4. 내가 여전히 스승이자 아버지로 온다는 것을 깨달아라. 만일 내가 오직 심판자로만 온다면, 너희가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니,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나의 공의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15. 너희가 내 면전에 나아올 때, 너희는 들었던 말씀에 대해, 그리고 너희 양심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6. 지치지 않는 엘리야의 영이 너희의 길을 비추고, 그 길의 장애물을 치우며, 너희가 지쳐 있을 때 자비의 지팡이로 너희를 돕는 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를 찾고, 기도 중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 너희는 그의 임재를 아주 가까이에서 느낄 것이다. 그는 이 제3시대의 영혼들의 목자이시니, 너희를 "천상의 동산"인 약속의 땅 문 앞까지 직접 인도하실 것이다.

17. 너희는 세 시대에 걸쳐 내 신성의 음성을 들었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한다. 너희는 다시 한번 나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고 너희 입술에 축복을 내리니, 내일 아직 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생명의 말씀이 너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리라.

18. 너희의 믿음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기적들로 인해 불타오르고 활기를 얻었다. 나는 곧 길이며, 내가 항상 너희에게 보여 주었던 그 선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 길을 걸으면 위험과 유혹, 함정을 겪게 되겠지만, 너희를 돕기 위해 나는 양심의 빛을 등대처럼 주어 길을 안내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 게다가 나는 너희의 평생 동안 인도자이자 보호자로서 한 영적 존재를 허락해 주었다. 이 은혜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너희가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녀들 중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영혼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 중에 고양될 때 너희의 영적인 목소리를 듣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다.

19. 너희의 영적 감수성을 깨워라. 그래야만 고양되지 못한 나머지 너희 영혼을 스쳐 지나가는 내 계시의 광채를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세상의 영적 광경을 바라보며 활력을 얻으라. 마치 너희가 때로 자연을 관조할 때, 그 조화와 아름다움, 그리고 완전함을 경탄하며,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 없이는 살 수 없고 오직 조화의 법칙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발견할 때 놀라움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말이다. 저 세상도 그러하다. —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영적 발전의 길 밖에 있는 영혼들이 존재하는 한, 완전한 평화도, 완전한 조화도 없을 것이다. 이는 마치 우주에서 몇몇 별들이 궤도를 이탈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나머지 별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체가 균형을 잃지 않겠는가?

20. 만일 사람들이 내 법의 계명을 따르고 그들의 물질적 본성을 영적 본성과 조화시킨다면, 그들의 삶은 더 즐거울 것이며, 삶의 길은 어려움 없이 평탄하고 일도 수월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질병이 닥치지 않을 것이며, 조기에 늙지도 않을 것이다.

21. 영적 존재들은 물질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 그들은 순수한 상태로 나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나는 그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여기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너희의 아버지요, 나는 사랑의 영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사랑의 영을 발전시키고 깨달아야 한다. 살아가고, 행하며, 깨닫고, 선함 안에 꾸준히 머물러라. 그리하여 너희가 들은 이 목소리가 영원히 너희 영혼의 빛이 되게 하라; 그것은 너희의 양심이며, 너희를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더 이상 갓 태어난 아이로서가 아니라, 덕과 경험,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능력 안에서 성장한 성숙한 존재( )로서 말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나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22. 지상에서 살지 않은 존재들도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큰 고통을 겪은 자들이, 어떤 이들은 '눈물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반면, 아버지 곁에 있는 다른 이들은 고통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어떤 이들은 지상에 오지 않았을지라도, 저 세상에서 그들은 형제들이 속죄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왔습니다.

23. 오늘날 서로 다른 "계곡"*에 거주하는 존재들은 영적으로 분리되어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형제들의 사랑 사이에 (분리하는) 거리를 두지 않았다. 너희가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 알기만 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물질주의로 모든 형제들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주던 유대를 끊어버렸으며, 인류가 타락할수록 그 분열과 조화의 결여는 더욱 커져만 갔다. 인류는 영적인 것에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의 세계 안에서도 왕국과 민족, 국가로 분열되어 점점 더 이기주의에 갇혀 버렸다.

**이 표현은 "눈물의 골짜기", 즉 지상의 "고통의 골짜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지닌 저세상을 의미하는 "영적 골짜기"를 모두 가리킨다.*

24.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빛은 꺼져 버렸고, 영생에 대한 내면의 깨달음은 혼란에 빠졌다.

25. 오늘날 가족 중 한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며 "잘 가라"고 말할 때, 너희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배웅한다. 왜냐하면 그가 어린아이로 떠난다면 어쩌면 성인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청년으로 떠난다면 노인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가 돌아와 다시 그를 껴안을 수 있기를 항상 희망합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가 여전히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 저 세상으로

떠나고, 그의 육신이 땅속에 굳어지고 차갑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다시 만날 희망을 잃어버렸기에 여러분의 마음은 마치 칼에 찔린 듯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혼이 육신을 초월하여 살아남으며, 둘 다 발전의 길을 따라 상승해 다시 만날 때 여러분이 그와 다시 밀접하게 연결될 것임을 잊어버립니다.

26. 너희가 잊어버린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사셔야만 했다. 그분은 너희에게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셨고, 때가 되면 새로운 계시를 주실 것이라고 예고하셨다.

27. 신성한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오셔야만 했다. 인류는 이미 영성화의 씨앗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생에서 자신의 행복과 영원, 그리고 행운을 추구하느라, 자신들을 가차 없이 기다리고 있는 저 너머의 존재를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28. 이 생에서 기쁨과 부를 누리지 못하고 오직 눈물만 흘리던 자들은 이 세상을 저주하며 불공평하다고 불렀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불행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다시 빛을 가져다주셨다. 그분은 이미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던 죽은 자에게 영혼을 되돌려 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셨으며, 이 모든 명백한 표징들을 통해 영적 삶이 존재하며 그것이 참된 삶임을 세상에 증명해 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그분은 신자와 불신자 앞에 영으로 나타나, 그분의 말씀이 선포한 진리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29. 너희는 왜 이 세상에서 떠난 자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죽은 자라고 여기느냐? 그들은 여전히 느끼고,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그들이* 살아 있는 자들이고 *너희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머지않아 너희는 '제2의 시대' 때처럼 너희의 믿음 부족을 통탄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이렇게 말했었다. "우리가 죽인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여호와의 사자이셨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사흘 만에 하늘로 올라가신 참 생명이셨다."

30. 이제 내가 영으로 너희에게 돌아왔으나, 비록 내가 가장 소박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너희는 나를 신비로 감싸인 채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믿음을 얻게 하려면, 나는 나의 계시를 물질화하여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야만 했다. 그때 백성들은 믿었으니, 사람들이 나를 보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눈으로,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영의 빛 속에서 나를 보았다.

31. 이 시기에 내 빛이 너희를 비추니, 너희가 영원으로부터 너희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게 하려 함이라.

32. 너희가 끊어 버렸던, 너희를 너희 아버지 및 영적 세계와 연결하는 끈을 내가 다시 묶어 주리니, 그리하여 너희 모두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으며, 여기에는 거리가 없음을 느끼게 하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 사랑의 끈으로 그들의 삶을 묶게 될까? — 그들이 정의가 머무는 내 율법의 길 로 돌아왔을 때이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내 계명을 이행할 때이다.

33. 제자들아,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이 죽은 것이 아님을 깨달아라. 땅에 묻은 육신에게 작별을 고하고, 더 이상 그에게 가서 자신의 곤란을 호소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 육신은 이미 존재를 멈췄으며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34. 육신이 죽으면, 그것은 마치 잘려나간 뒤 시들어가는 꽃과 같으나, 그 향기는 마치 영혼이 해방되어 그 정수를 주위에 퍼뜨리는 것과 같다.

35. 그 당시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묻게 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쪽도 저쪽도 새로운 생명으로 깨우라.

36. 그들에게 말하라. 육신이 땅속에서 썩어가는 동안, 영혼은 저 세상에서 정화되고 있다고. 죽음은 육신에게는 안식이며 영혼에게는 해방이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의 의지로, 즉 내가 정한 때를 벗어나 해방되려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순간에 너희 곁에 영적으로 도와주는 고해 신부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믿지 말며, 또한 그 순간의 회개를 통해 내게 도달할 수 있다고 믿지도 말라. 마치 너희의 성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너희 삶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행실을 통해 너희 영혼의 정화를 이루라.

37. 선의의 사람으로서 지상에서 나의 법을 지키라. 그러면 평화가 너희 마음에 임할 것이다. 너희 영혼이 이 세상에서 떠나 영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 눈은 열릴 것이며,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랑과 빛으로 감싸 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을 바라보며 황홀함에 빠질 것이다.

38.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결심을 품고 나서야 한다. 너희는 내 은총의 상속자이므로, 나는

너희에게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영적 부를 가져다준다. 사랑으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길을 간다면, 마지막 날에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가 그토록 간절히 찾던 위안과 평화를 발견하게 될 참된 삶으로 들어갈 것이다.

39. 나는 이 시대에 (학식이 낮은) 평범한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으니, 이는 너희가 본성상 불신자이기에, 너희가 듣는 이 말씀이 신지학자나 과학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너희에게 증명해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눈앞에서 너희 형제자매, 부모, 혹은 자녀들을 택하여, 그들을 내 영적 계시를 받은 나의 대변자로 삼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연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빌려 겉보기에는 빛나는 말을 너희에게 할 남자와 여자들이 일어날 날이 올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40. 깨어 기도하라. 나는 모든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살피고 아시는 시선이다.

41. 너희는 교파들이 너희를 지목하고 너희의 행동을 비난하므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눈물을 닦고 위로를 받으라:

42. 고난 중에 조용히 나와 연결되기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하리라. 그들은 내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신성한 은총을 베풀기 위해 그들을 찾았느니라. 엘리야가 제3시대에 너희를 인도하리니, 너희가 발전의 길에서 나아갈수록 나를 더 가까이 느낄 것이다.

43. 내 말을 들으라

비유

을 들어라:

44. 한 길가에 지팡이도 여행 가방도 없이, 소박하고 위엄 있는 모습의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을 짊어지고 있었다. 가는 길에 그는 마음이 경쾌하고 목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오는 세 명의 젊은 여행자를 만났다. 노인은 그들 중 첫 번째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여행자여, 나는 배고프고 목마르며 옷차림도 초라하오. 네 배낭에 든 것 중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고, 네 옷 한 조각도 내게 주시오.” 젊은이는 배낭을 뒤져 보았으나 빵도 물도 찾을 수 없었고, 자신의 옷은 내어주고 싶지 않았다. “내 형에게 가시오.” 그가 말했다. “그가

당신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소."

45. 노인은 두 번째 사람에게로 몸을 돌려 똑같은 부탁을 했다. 그도 배낭을 뒤져 보았으나, 그 안에는 먹을 것도, 갈증을 해소해 줄 물도 없었다. "세 번째 사람에게 가보시오." 그가 말했다. "내가 줄 수 없었던 것을 그가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도 같은 부탁을 받고 찾아보았으나, 그의 대답은 똑같았다. "내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두려움을 느꼈다. 갈증과 굶주림이 그를 지치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여행 가방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을, 앞으로 닥칠 일을 알지도 못한 채 어떻게 계속 가려고 하느냐? 길은 길고 엉겅퀴와 가시로 뒤덮여 있다. 들판은 메말랐고, 그늘을 찾을 나무도 없다. 열매도 없고, 태양은 불타는 듯 뜨겁다. 여행자에게 시원함을 줄 강도 샘도 없다."

46. 여행자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젊고 강하며, 활력이 넘치고 인생의 우여곡절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노인을 떠나려 했으나, 노인은 그들에게 말했다. "잠깐만, 먼저 생계를 위한 것을 좀 챙기라고 충고하겠네. 여행에 필요한 것을 식량 주머니에 챙겨 두어, 이 길을 가다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거라." 그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대답했다. *"당신이* 지치고, 헐벗고, 굶주린 것은 늙었기 때문이며, 고된 노동이 당신을 지치게 한 것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새벽을 맞이했고,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게 변했으니, 그래서 낙담한 것입니다. *우리는* 젊고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7. 그러자 노인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도 한때는 젊고 강했으며, 길 위에서 노래하고 몸에 활력이 넘쳤지. 하지만 세월이 나를 가르쳐 주었고 경험을 주었네. 너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보여 주마." 그리고 그들을 산 정상으로 이끌며, 그는 그들에게 세상을 보여주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좌우로 폭풍이 일어나 민족들을 몰아치고 그들 속에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바다의 물이 땅을 덮쳤고, 사람들은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자연의 힘 아래서 멸망해 갔다.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물었다. "이 일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노인은 그들에게 대답했다. "지금 너희가 보고 마음이 아파하는 바로 그 일들을,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가며 겪게 될 것이다." — 그러나 그들은 의심했다.

노인은 다시 그들에게 말했다. “저쪽을 보아라!” 하며 동쪽을 가리켰다. 그곳에서 그들은 여러 나라가 잔혹한 전쟁을 벌이며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어머니와 아들들이 울부짖는 모습과, 아들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으며 임종 시에 가족들을 부르짖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남편이나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슬픔에 잠긴 여성들과, 굶주리고 벌거벗은 아이들을 보았다. 나중에 한 빛나는 영이 그들의 눈앞에서 황폐해진 땅 위에 눈처럼 자신의 망토를 펼쳤고, 그곳에서 가슴 아픈 통곡이 치솟아 올랐으며, 그 영이 나타난 곳에서는 수확 의 때가 되어 밭의 곡식이 베어지듯 사람들의 생명이 끊어졌다. 그리고 청년들이 물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입니까?" — "나는 너희에게 다가올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인이 대답했다. "너희가 겪게 될 시대 말이다."

48. 마침내 노인은 그들이 지켜보도록 그들을 붙잡았고, 그들은 자연의 힘이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것을 보았다. 불길은 숲과 도시를 삼켰고, 전염병은 안개처럼 사람들을 뒤덮었으며, 화산들은 불을 뿜어내며 온 땅을 재 속에 묻어버렸다. 그는 그들에게 거대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바다를 보여주었다. 어떤 바다는 말라버리고, 다른 바다는 위치를 바꾸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하늘에 나팔을 든 네 천사가 나타나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것을 보았다.

49. 청년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때 노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닥칠 일들과 너희가 견뎌내야 할 일들을 보여주었다.”

50. 얼굴이 일그러진 채 그 젊은이들은 자연을 향해 부르짖었으나, 자연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울부짖던 바로 그 순간, 노인의 목소리가 아버지 같은 자비로 그들에게 말했다. “절망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분께 기도하라.” 그는 말없이 손을 뻗었고, 모든 것이 고요와 평온, 평화로 가득 찼다. 환상은 사라졌다. 그들은 새로운 날의 빛을 보았고, 그 노인이 이 사건들을 미리 예언했음을 깨닫자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생의 끝까지 그분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나이다."

(**비유의 끝**)

51. 백성아,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빛에 눈을 떠라. *너희는* 내가 시대를 초월하여 부르시고 가르치신 세 명의 순례자라. 너희가 나의 지혜로 충만해지고 믿음을 불태우게 하려 함이며, 생의 여정을 준비하고 목표에 도달하여, 너희가 나의 평화를 찾을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52. 지난 시절에 너희는 내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였고, 스승이 너희 곁을 떠났을 때 너희 영혼은 평안을 찾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은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53. 이 시대의 준비된 자들인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나는 너희의 사랑을 갈망하고 목말라 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영성화의 부족으로 인해 너희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너희 는 내가 너희에게 쏟아 부은 미덕들을 경멸하고 너희의 보물을 잃어버렸다.

54.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섯 번째 계시 기간 동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세상의 책들에서 너희 영혼을 위한 빛을 찾지 말라. 거기서는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책들에서* 너희의 질문에 대한 답이나 너희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말라. 기도하고, 나와 하나 되어라. 내가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리라.

55. 너희가 너희의 마음의 아픔을 내 앞에 가져오기도 전에, 신성한 어머니께서 너희를 위해 중보하시며 너희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중보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청하신다. 그분은 인류에게 권력 추구와 전쟁을 그만두고 더 이상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 것을 간청하신다. 그분의 사랑 가득한 영은 너희를 보호하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히 기다리신다.

56. 너희도 그녀를 축복하고 경배하라. 평화의 날에도, 시련의 날에도 그녀가 너희의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임을 너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57. 내 피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와 정의가 임하도록 흘려졌으나, 나는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였다. 너희가 그 교훈을 활용했더라면 더 높은 발전 단계에 이르렀을 것이며, 내가 세월을 통해 퍼뜨린 빛이 너희 영혼을 온전히 비추었을 것이다.

58. 너희는 나를 본보기로 삼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겸손을 가르쳤으나, *너희는* 오만하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와 건강의 비밀을 주었으나, *너희는* 다툼 속에 살며 병들어 간다. *나는*

너희에게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가르쳤으나, *너희는* 이웃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 있다.

59. 인류여, 네가 내 존재와 네 영적 은사를 얼마나 부인해 왔는가!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단단한 바위 위가 아니라 모래 위를 걷고 있으며, 이 길은 네가 창조된 목적을 향해 너를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60.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위대한 "참된 생명의 책"을 읽고 배우라.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를 때, 너희가 이 길로 나를 찾아올 것임을 확신하라. 그러나 명심하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에게서 멀어질 것이며, 그때 너희의 속죄는 매우 클 것이다.

61. 위로 없이 방황하는 남자와 여자들아, 어찌하여 내게서 힘을 얻지 않는가? 너희가 유배지에서 울고 고통받을 때, 나를 불의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나는 이 세상이 눈물의 골짜기이며, 평화와 상급의 골짜기 가 아니라고 너희에게 예고했노라. 이 땅은 너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다. "울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44

1.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오늘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찾아 다가오는 "탕자"를 나는 사랑으로 맞이한다. 내 자녀들 중 어떤 이들은 상속받을 유산을 갈망하며 내게 다가오고, 어떤 이들은 아직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 모두의 영혼은 깨어 있으며 내 목소리가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2. 너희는 나의 "제2의 시대"에 대한 말씀을 잊지 않았으며, 비록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영은 강하다. 영은 위로의 영으로서 다시 오겠다는 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한다.

3. 오늘 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너희가 지나온 어둠과, 내게로 오기 위해 걸어온 길의 굴곡을 기억하라. 너희는 강가, 나무 그늘 아래에 서서 오랫동안 기다려 온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가진 모든 빛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 산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고, 완전함의 절정에 있지도 않다. 너희는 오직 영으로 오시는 너희 스승 앞에 이르렀을 뿐이며, 나를 들었을 때 너희는 제자가 되었고, 그 후 내 새로운 가르침의 추종자가 되었다. 너희가 나에게서 배우면 강해질 것이며,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할지라도 너희는 영의 풍요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4. 내 말씀에 대한 소식은 머지않아 너희 나라의 경계를 넘어 퍼질 것이며, 학자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은 내 계시를 부정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 표적과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크게 흥분하게 할 것이다.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높은 영성을 지닌 사람들, 곧 나의 삼위일체-마리아 영성 교리의 예언자들에게 나는 빛의 칼을 주어, 사랑과 진리를 기초로 하는 것들만이 남도록 모든 거짓 이론과 교리를 물리치게 하리라.

5. 나는 모든 시대에 덕이 있는 영혼들을 땅에 보내어, 그들이 너희를 가르치고 그들의 행실로 너희가 나에게 이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본보기를 보여주게 하였다. 조언자, 내율법의 종들, 입법자, 그리고 지도자들: 그들은 너희에게 너희의 의무를 보여주었으며, 너희의 임무가 단지 가족에 대한 사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또한 그들은 너희에게, 이 생의 시련이 지나면 영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곳에서 너희는 지상에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6. 나는 영혼들을 준비시키고 지혜와 능력을 부여한 뒤 그들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였으며, 그들의 육체가 발달하고 능력을 온전히 갖추게 되었을 때, 그들의 영혼은 강하고 위대함을 드러냈다. 이들은 과학자, 영적 지도자, 통치자들이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재능을 개발하며, 확고한 믿음으로 일한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허영에 빠지거나 자신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였으며, 사람들의 영혼을 양육하지 못했고, 그들을 인도하는 법도, 동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법도 알지 못하였다.

7. 그러므로 이 시대에 내가 내 양 떼가 길 잃고 지도자 없이 땅 위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선한 목자로서 너희에게 나의 진실하고 순수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왔노라. 나는 너희가

평화롭게 살며 내 율법을 지키고, 내가 사랑의 행실로 보여준 본을 따라 영혼의 발전의 길로 나아가도록 내 가르침의 계명을 주었다.

8. 사람들의 악의 희생양이 된 나의 겸손한 사도들의 후계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인류를 위해 과학이 베푼 은혜는 무엇인가? — 지혜롭다고 주장하면서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을 가르치지도 않는 자들이 많다. 지혜는 빛을 의미하며, 빛은 신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9. "제2의 시대"에 나는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인간이 되었다. 그 육신은 내 영의 작품이었는데, 과학자들은 내 가장 깊은 의지에 속하는 이 신비를 얼마나 많이 논해 왔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신성한 업적은 인간의 과학으로 판단될 수 없다.

10. 예수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영은 바로 나, 너희의 하나님이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며 내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인간이 되셨으니, 이는 필연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의 고통을 느꼈다. 인간의 본질을 연구해 온 학자들이 내게 와서, 그들이 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대한 자와 작은 자, 덕 있는 자와 죄인, 무고한 자와 유죄한 자 모두가 내 말씀의 본질을 받아들였으며, 나는 그들 모두를 내 곁에 두었다. 그러나 많은 이가 부르심을 받았으나, 선택받은 자는 소수에 불과했고, 내 곁에 머문 자는 그보다 더 적었다.

11. 나는 죄인들을 변호했다. 간음한 여인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군중에게 쫓기고 정죄당하여 내게로 끌려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내게 물었다.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제사장들은 내가 "정의가 실현되게 하라"고 말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면 그들은 "어찌하여 사랑을 설교하면서 이 죄인이 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는가?"라고 반박하려 했던 것이다. 만약 내가 "그녀를 풀어주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네가 — 네 말대로 — 인정하는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일지라'는 규정이 있다."

내가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고는 그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몸을 굽혀 땅의 흙에 그들을 정죄하는 자들의 죄를 적었다. 그들은 다시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으나,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제야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얼굴을 가린 채 물러났다. 누구도 깨끗한 이가 없었으며, 그들이 마음 깊은 곳까지 내게 꿰뚫어 보였음을 느꼈기에, 더 이상 그 여자를 고발하지 않았다. 그들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자와 함께 간통을 저지른 다른

이들도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엄격함으로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보다 사랑으로 회개시키는 것이 더 쉽다.

12. 내 가르침은 양심에 새겨졌으며, 그 의미는 너희가 지닌 영처럼 불멸하므로 지워질 수 없다.

13.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는 배우고, 다른 나라에 사는 이들에게 가르쳐라. 내 "제3의 시대"에 대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질 때까지, 그들에게 제2의 시대에 대한 내 말씀을 상기시켜 주라.

14. 나는 너희가 다른 나라 주민들이 나의 새로운 계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기 전에, 나의 말씀이 그 나라들에 전해지도록 돌보기를 원하며, 너희가 서로 만날 때 서로를 오해하지 말고, 오히려 증언하여 *그들이* 나의 말씀과 행적을 확인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는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나의 계명을 이루기 위함이다.

15. 나는 너희를 가르치고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내 가르침으로 너희를 "이끌어" 왔다. 너희의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 나의 용서는 그보다 더 크다. 살아가며 경험을 쌓고, 시련과 변덕이 가득한 이 길에서 나의 법을 깨달아라. 그리고 양심의 인도에 따를 때, 너희는 나의 법도, 세상의 법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수를 저지른다면, 그것을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면 여정의 끝에 이르렀을 때, 고통도 양심의 가책도 없을 것이며, 너희는 평안 속에 있을 것이다.

16. 이 "제3의 시대"에 스승의 책은 제자들 앞에 다시 펼쳐져, 그들에게 참된 삶의 교훈을 가르칠 것이다. 너희 육신이 고요와 명상에 잠기는 동안, 너희 영혼은 내 말씀으로 활력을 얻기 위해 솟아오른다. 영혼은 생명을 주는 유일한 빵으로 양식을 얻기 위해 내 식탁으로 나아온다.

17. 이 순간에 영적으로 고양되는 법을 아는 모든 이에게, 내 말씀을 전달하는 육체는 사라지고, 그는 신성한 근원에서 직접 그 말씀을 자신의 영으로 받아들인다. 너희는 나를 처음 들었던 그 순간부터 너희의 이성에 빛이 비추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너희의 길을 비추기 시작하는 내 지혜의 빛이다. 비록 내가 너희에게 말해야 하겠지만, 나를 듣고도 내 가르침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어둠 속을 걷고 있다. 그들의 영혼의 빛은 여전히 꺼져 있다.

18. 내 뜻은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의 자녀를 표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표징을 받은 자들만이 내 빛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이가 '빛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19.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떠벌리지 말고, 자비의 행실로 그것을 증명하라. 어떤 이들은 자신이 나의 선택받은 자에 속한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그러나 나는 그가 용서하기는커녕 오히려 되갚아 준, 내 형제의 뺨을 때린 것보다 더 심한 타격을 가한 바로 그 원수의 마음속에 숨어 그를 시험한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양심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고, 내 제자임을 자랑하던 그는 미약한 회개를 담아 내게 말하였다. "용서해 주십시오, 스승님."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정화되었고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긴 채,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때 나는 마음과 청춘이 향기로운 장미와 같은 한 처녀가 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의 덕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삶에서 시련을 막아줄 방패가 될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명과 나의 가르침을 잊은 채, 저급한 본능에 사로잡혀 그 소녀를 불순한 의도로 바라보았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그 불량한 제자에게 내 존재를 알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인가?" 들킨 그는 내게 대답했다. "주님, 주님께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며 하루 일과를 계속했지만, 그가 내 본을 따른다고 자랑할 때마다 내 목소리는 용서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네가 내 사도냐?" 그 후 나는 그가 굶주리게 내버려 두었으며, 곧바로 금으로 가득 찬 상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릴 건강은 없는 부유한 병자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다. 그가 자기 지역에 내 제자 중 한 명이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에게로 향하며 말하였다. "네가 내 건강을 되찾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나는 부자이지만, 내 모든 부가 내 병의 치료법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도는 그 고백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니, 병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네게 건강을 되찾아 주마. 하지만 이 은혜에 대해 너는 넉넉히 보답해야 할 것이다." 부유한 환자는 그에게 대답했다. "내 명절 옷과 상자, 집, 모든 것을 가져가십시오. 다만 저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자 환자는 낫게 되었다. 그의 믿음과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스승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환자는 기쁨에 차서 자신을 고쳐 주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넘겨주었고, 그 악한 사도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내가 싸우고 애썼으니,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보라, 바로 그 순간 내 무자비한 목소리가 그의 양심 속에서 울려 퍼지며 다시금 그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과연 나의 가르침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의 사랑에 대한 대가를 받으셨던 적이 있었는지 기억하느냐? – 그분은 단지 손만 대어도 치유하시고, 그분의 부르심만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왕관을 쓰시고 모든 보물을 소유하실 수 있었음에도 말이다.”

20. 그 제자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었고, 그는 스승께 말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완고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스승은 자애로운 목소리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선택받은 그 순간, 참된 보물을 얻기 위해 세상의 허영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21. 제자는 여전히 반박했다. “길은 험하고, 하루의 수고는 길며, 우리는 많이 일하지만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도 거두지 못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그들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스승은 그가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듣고 말씀하셨다. “좋다, 아이야. 네 뜻대로 가거라. 네가 그토록 열망하는 것을 얻으거라.” 그리고 스스로를 나의 종이라 칭하고, 자칭 나의 사도라 떠벌리며, 양심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그 사람은 길을 떠났고, 그 길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만났다. 그는 그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모든 병을 고치는 치유 연고의 주인이라고 말했으나,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도 말한다. "나는 궁핍하니,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에 대해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가난한 자들은 그에게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고통을 이겨내고 일하여 그의 대가를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 거래는 병자들에게 손을 얹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손에서 점점 더 커지는 대가를 받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로 보였다. 그는 병자들을 “기름 부어” 주었지만, 그들은 낫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해졌다. 그는 그들을 격려하려 했으나, 그들은 점점 더 쇠약해져만 갔다. 그러자 사도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을 보고, 거금을 챙겨 몰래 그들 사이에서 사라져 버렸고, 그들을 두려움 속에 남겨두었다.

22.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는 한 부자의 저택으로 향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주인님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저를 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님이 슬플 때 위로해 드릴 수 있고, 지치셨을 때 주인님의 이익을 대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부자가 묻자, 사도는 대답했다. “저는 한 법칙, 한 가르침의 소유자입니다. 그 가르침은 너무나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어, 만일 당신의 부하들이 당신에게 반기를 들더라도 제가 그들에게 말하기만 하면 다시 순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3. 그 부자는 이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 남자를 믿으며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말은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말한 대로 이를 이루어낸다면, 나는 그것을 영원히 진실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 남자에게 직책을 주고 자신의 궁전 열쇠를 건넸다. 그는 아첨으로 주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나, 그러나 그는 주인을 마음속에서 내쫓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에, 곧 그 저택의 삶에 변화를 일으켰다. 그는 하인들을 모욕하고, 아첨하는 자들을 높이 세웠으며, 가장 훌륭한 하인들이 집을 떠나게 만들었고, 주인의 등 뒤에서 잔치를 벌이며 재산을 낭비했다.

그러나 그 영지의 주인이 진실을 깨닫게 된 날이 왔고, 자신이 전적으로 신뢰했던 자의 거짓을 확신하게 된 그는, 그가 큰 권능과 지혜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를 불러들여 분노에 차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네가 전파하는 가르침인가? "네가 가진다고 주장하는 그 힘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는 즉시 그를 감옥에 가두게 했고, 나중에 교수형에 처하도록 판결했다. 감옥에 갇힌 그는 신성한 스승의 제자가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다. 그는 이러한 시련들이 회개를 촉구하여 그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경종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속였던 부자에게 간곡히 청하며, 다시는 누구도 설득하거나 속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부자는 이를 믿고 그를 풀어주었다.

24. 그 남자는 자유의 몸이 되자 새로운 길을 탐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느꼈고, 그 길을 찾자마자 그 길로 뛰어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그 어느 때보다 쾌락에 탐닉했으며, 그의 입술은 신성모독을 일삼는 입이 되어버렸다. 그의 몸은 병들었고, 그의 마음은 가장 깊은 혐오감에 빠졌다. 그는 단계마다

점차 추락하여, 마침내 의지 없이 (타락의) 심연 속으로 떨어졌다. 그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알지 못했으나, 깨어났을 때 그는 물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유산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아버지께 말하지만, 그분은 내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는 병들고 낙담했지만, 그분은 나를 도우러 오지 않으시고; 나는 위로와 격려의 한 마디를 구하지만, 그분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내게 주셨고, 그로 인해 내가 이 큰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가르침과 치유의 연고는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내 상처를 감싸고 싶으나, 오히려 피가 더 흐른다. 나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싶으나,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진다.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어쩌면 속임수였단 말인가?” 그리고 그는 가슴이 찢어질 듯 울었다.

25.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그를 지나치며 무관심하게 쳐다보았으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걱정하거나 멈춰 서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그때 깊은 어둠이 그를 감싸는 듯했고, 더 이상 이 큰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영혼이 더럽혀진 몸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는 익숙한 자비로운 목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떨어진 이곳까지 내려와 너를 돕기 위해 왔다." 그 남자가 용서와 다정함으로 가득 찬 아버지의 자비로운 목소리를 듣자, 그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주님께 말하였다. "내 곁으로 오지 마십시오. 이 심연으로 내려오지도 말고, 이 악의 소굴에 발을 들여놓지도 마십시오. 이곳은 어둠과 진창뿐이니까요. 가시덤불에 옷자락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저주한 이 나를 이곳에 남겨 두십시오."

26. 아들은 울었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얼마나 의로우신지 깨달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더러움도, 그를 둘러싼 어둠도, 그가 빠져 있는 진창도 보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직 그가 자신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만을 보시고 물으셨다. “어찌하여 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그러자 아들은 그분께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저와 그리 가깝지 않으시다고 생각했고, 제 양심의 목소리가 아버지의 목소리라고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치유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제가 치유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심연 속에서 저를 고통받게 하시고, 제 죄를 속죄하게 하소서.” 아버지는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잘못의 심각성을 깨달았음을 보시고, 더 이상 그를

고통받게 하지 않으셨으며, 그 존재 안에 빛이 비치게 하시고, 그 눈물이 치욕의 얼룩을 씻어내게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굽은 이마에 평화의 입맞춤을 남기셨다; 그분은 연약하고 패배한 몸을 일으켜 무한한 사랑으로 품에 안으셨다.

27. 그 마음이 아버지의 다정한 사랑을 느끼자, 영원히 그분을 따르고 늘 그분을 사랑할 준비를 했다. 그때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마에 얹어 주신* 빛이 다시금 빛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은 결코 자녀들에게서 거두어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의 은총이 그들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것은, 바로 내 율법을 어긴 그들의 죄들이다. 그리하여 그 영은 삶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했으나, 더 큰 빛, 즉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얻은 빛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는 양심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가르침이 있을 때면 때때로 14만 4천 명의 선택된 자들에 속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때 주님께서는 상징적인 형태로 그 사람의 이마에 당신의 빛을 얹어 주셨다.*

28. 날마다 나의 가르침을 받아온 자들 중 누가 고통의 길을 다시 걷기를 원하겠느냐? 너희는 이미 그 길을 걸어왔으며, 너희 영혼은 이미 큰 시련을 겪었음을 깨달아라. 그 시련 덕분에 너희는 오늘 단호하게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이다.

29. 나는 너희의 씨앗을 번성시키기 위해 너희를 파송하였으며, 이를 위해 너희 이마에 나의 빛으로 표식을 남겼다. 이는 너희가 준비되었을 때, 사람들이 너희를 기다리는 (세상의) 길로 흩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집들의 문은 너희를 환영하기 위해 열릴 것이며, 마음들은 환호하며 너희를 맞이할 것이다.

30. 그곳에는 치유를 바라는 병자들이 있을 것이다.

31. 나, 신성한 구세주는 나의 충실한 제자들을 통해 모든 이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러나 제2시기와는 다르게, 오늘날 나는 — 나의 사자들의 마음속에 숨어 — 그들의 입을 통해 말하고 그들의 마음에 나의 영감을 쏟아붓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제자들의 사랑과 자비의 행위를 통해 병든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평화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32. 자기들의 길을 막지 않고 내 사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나라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나라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33. 이 투쟁 동안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고 선택될 것이나, 모든 이에게 그 시간이 올 것이며, 모든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일을 더 일찍 시작하고 끝낼 것이며, 다른 이들은 나중에 올 것이나, 마침내 너희가 완전함의 경지에 도달할 때면, 큰 자도 작은 자도 없을 것이며, 너희 모두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동등하게 그분의 완전한 가족에 속하게 될 것이다.

34. 나는 모든 이에게 생의 시작*에 동일한 은사를 주었으나, 어떤 이들은 덕을 함양하여 높이 올라 위대해지는 법을 알았으나, 어떤 이들은 제자리에 머물렀고, 또 어떤 이들은 길을 잃고 말았다.

**영적 창조에 있어서*

35. 나는 내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이 큰 은사를 나누어 주었으므로, 너희는 어떤 이에게 다른 이보다 더 많이 주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어떤 사명이 다른 것보다 더 크다고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의 완전한 지혜와 공의, 그리고 내 모든 자녀들의 죄를 아시는 바에 따라, 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주었다.

36. 나는 너희가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명을 해 주는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운명과 과거, 그리고 너희가 짊어져야 할 속죄의 짐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7. 내가 나를 드러내는 나의 자녀들을 매우 은총을 받은 자들로 여기고 심지어 그들의 은사를 부러워했다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은 실로 지대한 은총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께 지닌 영적 의무 또한 그러하며, 그들의 책임은 한계가 없다.

38. 각자는 사랑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그러나 쾌락이나 명예, 보상을 추구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고통만을 거두게 될 것이니라.

39. 내가 내 사랑으로 너희를 치유했고, 너희의 오점을 씻어 주었으며, 너희의 상처를 아물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 입술의 쓴맛을 없애 주었고, 너희가 입고 있던 더럽고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겨 내어, 눈송이처럼 하얀 다른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가장 천대받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너희는 아무것도 없이 왔으나, 오늘날 너희는 자신이 선물을 가지고 있음을 안다. 더 이상 고통을 자초하지 말고, 다시는 천민처럼 되지 말며, 죄인들에게로 돌아가지도 말고,

모욕을 당했을 때 용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지도 말라.

40.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너희를 모욕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나에게 얼마나 자주 약속했느냐. 너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나에게 구했고,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서약을 지킨 적은 얼마나 드문가.

41. 용서를 베풀려고 노력한 자들을 나는 세 그룹으로 나눈다. 첫 번째 그룹은 모욕을 당했을 때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의 가르침을 잊은 채 어두운 감정에 휩쓸려, 한 대 한 대 되갚음으로써 복수했던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무리는 유혹에 패배한 자들이며, 자신의 정욕의 노예이다.

42. 두 번째 그룹은 모욕을 당한 후 내 본보기를 떠올려 입을 다물고 감정을 억누른 뒤,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주님, 제가 모욕을 당했습니다만, 복수하는 대신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나는, 그 사람 안에 내가 그의 형제에게 내 공의를 쏟아부어 그를 갚아 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발견했다. 이 무리는 아직 싸움 한가운데에 있다.

43. 세 번째 무리, 즉 가장 작은 무리는 예수를 본보기로 삼는 자들로, 모욕을 당했을 때 형제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아버지께 나아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다.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나를 상처 입혔지만, (사실은) 나를 상처 입힌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위해 당신의 자비를 구하며, 그들에게 오직 선으로만 갚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것이 승리하신 무리입니다.

44. 너희에게 완전한 행실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너희 양심은, 너희가 이웃에게 진정한 용서를 베푸는 법을 터득할 때까지 너희를 쉬지 못하게 할 것이다.

45.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이 단지 너희가 내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일 뿐인데, 왜 그들을 미워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용서하면 공덕을 쌓게 될 것이며, 천국에 이르렀을 때, 땅에서 너희의 영적 상승을 도왔던 자들을 알아볼 것이다. 그때 너희는 아버지께 그들도 구원받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해 달라고 간구할 것이며, 너희의 중보 기도가 그들에게 그 은총을 얻게 할 것이다.

46. 또한 이웃의 숨겨진 감정을 파헤치려 하지 마라. 모든 존재 안에는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 형제에게만 속한, 너희에게 있어서는 신성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그 베일을 찢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더 두껍게 하라.

47. 나는 사람들이 형제의 마음속을 파고들어, 그의 도덕적 혹은 영적 약점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즐기며 즉시 퍼뜨리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았는가.

이처럼 동료의 사생활을 모독한 자 중 누구도,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누군가 자신을 드러내고 조롱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그때 그는 자신을 재는 것이 정의의 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형제들을 재었던 것은 불의의 자였기 때문이다.

48. 남을 존중하고, 자비의 망토로 드러난 자들을 덮어 주며, 사람들의 험담에 맞서 약한 자를 지켜라.

49.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을 가르치는 책들을 공부하지 말라고 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일 그런 책들을 찾지 못한다면, 여기 내 가르침이 있다. 이 가르침은 그 모든 소박함과 겸손함 속에서 모든 책보다 더 많은 지혜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깊이 음미하여, 너희의 모든 행실을 이끄는 지침이 되게 하라.

50. 삶의 온갖 시련을 겪으며 울면서 이 나무 그늘 아래로 온 이들은, 내 사랑의 위로와 힘을 얻었다.

51. "제3의 시대"에 내 말씀을 경청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그의 영혼은 영생으로 부활하여 이 생을 넘어 기다리는 길을 안전하게 걸을 것이다.

52. 자신의 고통을 인내로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온유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발전의 길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힘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53. 모욕을 겸손히 견디고 자신을 모욕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그를 의롭다 하리라. 그러나 이웃의 행위를 심판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도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라!

54.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키고, 모든 피조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5. 자신의 옳은 일이나 그릇된 일을 *내게* 맡겨 심판받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6. 내 가르침이 너희를 새롭게 하고, 너희 영혼을 굳건하게 하여, 너희 입술이 내 가르침을 되풀이하기 위해 열릴 때, 모독이나 저주를 위해 닫히지 않게 하라.

57. 이 시대에 나는 "제2의 시대"에 너희 마음에 심어 둔 씨앗을 다시금 적시기 위해 왔다.

58. 태초부터 나는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내 뜻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식을 찾아왔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과 예언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그들의 말과 행실로 내 뜻과 계명의 전령이 되게 하였다.

59. "첫 번째 시대"에 나는 아브라함이 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근거로 그와 사랑의 언약을 맺었고, 그의 굳건함과 열정, 그리고 충성을 보상하여 그의 후손을 축복하고 번성하게 하였다. 그의 순종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나는 그가 지극히 사랑하던 아들 이삭의 목숨을 요구하였고, 위대한 영혼의 순종심으로 그는 기꺼이 그를 제물로 바치려 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이미 마음속으로 순종을 증명했기에 그를 막았으며, 그것으로 내게는 충분했다.

60.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였는데, 야곱에게는 영혼의 완성을 향한 길을 볼 수 있는 은총이 주어졌으니, 이는 땅에 세워져 무한한 곳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로 상징되며, 그 위를 천사의 형상을 한 영혼들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61. 이 세 조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줄기를 이루며, 그곳에서 열두 가지와 무수한 잎이 싹텄으나, 그 열매는 아직 익지 않았다.

62.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산 기슭에서 순례의 여정을 이어가던 중 율법을 받았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율법판을 받고 (신성한) 계시를 받았다. 사막을 횡단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고양시키며,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불태우기 위함이었다.

백성이 약속의 땅에 이르러 그곳을 차지했을 때, 그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영혼 깊숙이 새겨 두었으며,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 준 소박하지만 숭고한 신 숭배를 실천했다. 그러나 보라, 그 자손들은 믿음과 영성 안에서 꾸준히 머물지 못하였고, 다른 이방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와 미신을 들여오자, 그들은 영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백성을 분열시켰다. 이에 선지자들이 나타나 백성들을 훈계하며, 그들의 불충실과 죄로 인해 그들에게 내 심판이 임할 것임을 선포하였으나, 선지자들은 조롱을 받았고 일부는 죽임을 당했다.

63.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진실로 그 첫 조상들의 자손이며 모세의 "양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너희가 이 시대에 열매를 맺어 인류에게 생명과 활력을 주어야 할 자들 중 하나임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64.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 생명의 나무에 당신의 피를 뿌리셨고, 오늘날에는 그 나무에 다시금 당신의 신성한 말씀으로 물을 주러 오시니, 이는 모든 자녀들의 사랑과 자비의 열매가 익어가게 하려 함이라.

65. 이 시대에 나는 너희 마음속의 모든 광신과 우상 숭배를 물리치기 위해 온다. 왜냐하면 영성화는 물질화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영적 가르침을 광신적으로 실천하는 자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내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도 아니다.

66. 내가 "초기"부터 내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을 통해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이나 그림으로 나를 숭배하는 것을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나의 신성을 물질적으로 숭배하는가?

67. 이 시대에 내 말씀은 양날의 칼처럼 싸워, 인간의 마음에서 모든 오류를 제거하여, 무지에서 벗어나 내 신성으로 승화하고 영과 영의 교감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45

1. 내 영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의 보물을 주러 오며, 겸손의 예복으로 너희를 입히러 온다. 만일 인류가 너희의 예복을 찢어발기려 한다면, 그대로 두어라. 그 찢어진 조각들이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데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2. 이곳에 모인 무리 중에는 나를 보지 못했음에도 나를 믿고, 사랑하며, 따르는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은 약속의 땅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오늘 너희는 너희 스승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거니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많은 이가 내 말씀의 빛을 통해 은총의 삶으로 부활할 것이다.

4. 나는 오직 인간으로서 태어나고 죽었으니, 하나님으로서 나는 시작도 없었고 끝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에서 태어나셨으니, 창조주께서 미리 택하신 순결한 동정녀의 태중에 육신을 입으셨다.

5.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그분이 너희에게 제시하신 길, 곧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길이었다.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셨고,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으며, 영으로 어둠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그곳에서 영적 존재들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던 그 숭고한 순간에 예수님의 고통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자연의 힘에 채찍질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상태였다. 그때 그가 외쳤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 사람들은 그를 그들 가운데서 내쫓았고, 그의 영은 그를 떠났다.

6. 나의 능력으로 인해 예수께서는 육체적 고통에 무감각하실 수도 있었으나, 나는 내 인간적 본성에 관해 너희를 속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다. 나의 고통은 유례없었고, 나의 죽음은 실재했으며, 나의 피는 참된 피였다.

7. 스승의 육신이 무덤에 누워 계시는 동안, 신성한 영은 의인과 죄인들이 그분을 기다리던 곳들을 비추셨으니, 이는 그분의 자비가 그들을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게 하려 함이었다. 어린 양의 피는 이 세상의 존재들뿐만 아니라 영적 계곡의 존재들에게도 영적 발전의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이에게 그 사랑의 사명이 완수된 후, 그리스도의 육신은 그가 인간의 형상을 취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성한 영과 합쳐졌다.

8. 예수님의 육신은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으니, 어찌하여 그분이 모든 사람처럼 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겠는가? 그분은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즉, 지구의 자연 법칙에 따라 생겨난*

9. 내 가르침을 들을 때, 너희의 영은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날 것이니, 이는 내 말씀인 영생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내 가르침으로 힘을 얻으라. 사람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너희에게

달려들어 심판하려 할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가 너희의 믿음과 평화를 박해자들의 손에 맡기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니라.

10. 내 가르침이 이 형태로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그 시간을 잘 활용하라. 오늘 너희가 등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내일 이 가르침과 은혜의 시간이 지나간 뒤에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내 말씀을 다시 한 번 듣고자 하는 갈망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말하리라. "스승님, 제가 그토록 불완전하다고 단정했던 그들을 통해 당신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들을 수만 있다면, 무엇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11. 내가 선택하고 준비시킨 이 내 자녀들을 통해 너희에게 베풀고 있는 지금, 내 가르침을 진정으로 활용하라. 나는 그들의 입을 통해 지혜와 사랑의 말씀을 흘러나오게 하였다. 그들은 순종하며 세상에서 등을 돌렸고, 너희를 위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12. 비록 이 시대에 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소박한 모임 장소들로 서둘러 오더라도, 너희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올릴 수 있다. 조용한 방 안이든, 생계를 꾸리는 곳이든, 길 위든, 골짜기든, 강가든 — 어디서든 나는 너희의 간구를 듣는다.

13. 너희가 (나와의)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정화하고 너희 영을 나에게로 들어 올리는 법을 배우라.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나를 품고 있음을 잊지 말라. 나를 향해 마음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래야 1950년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너희 영혼이 공포에 사로잡혀 "스승님, 당신은 우리를 외면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준비하는 자는 그 순간부터 영과 영으로 나의 신성과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14. 내가 너희에게 준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단 하나라도 활용하고, 그 가르침이 너희 삶의 모든 행동을 이끄는 법이 된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오늘까지 들은 것 안에 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15.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노니, 너희 영혼이 영생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려 함이라. 내 사도 요한이 저 세상 세계의 계시를 묵상하며 힘을 얻었듯이, 너희도 힘을 얻으라.

16. 이 시기에 너희 가운데 모든 불신은 사라질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를 사람들 가운데서 밝혀진 믿음의 등불로 남겨 둘 것이기 때문이다.

17. 내가 너희 곁에 임할 때마다, 그리고 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때마다, 너희의 고통은 사라지리니, 이는 너희의 영이 나의 임재를 느끼고 나의 사랑으로 위로받기 때문이라.

18. 이 모임 장소에 모인 이들만이 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적 존재들도 이 모임에 함께하여 나의 빛을 받고 있다. 이 무리들 중에는 지상에서 너희의 부모, 동료, 자녀였던 이들도 있다. 그들은 모두 발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

19. 너희는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 차며, 이 순간에 주님의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시려고 펼쳐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 자신의 영광임을 느낀다.

20. 내 모든 자녀들의 발전의 길을 비추어 온 내 사랑의 빛은, 몇몇 과학자들이 창조의 기원이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사고에 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나는 "산 꼭대기"에서 그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목소리의 위력은 사물을 통해 땅을 떨게 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 줄 것이다.

21. 백성아, 만일 네가 나의 신성과 교제하고자 한다면,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이 목소리의 매개체들을 마치 더 높은 존재들인 양 바라보지 말라. 내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탐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마치 내 성소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며, 내 가르침의 영적 의미를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것이 바로 제3의 시대이며, 내가 이 시대에 성령으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음을 증언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22. 나는 지금 인류 중에서 나의 새로운 제자들을 택하고 있으며, 남자들에게는 "새로워지라"고, 여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한다. 너희 모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나의 용서로 정화되었다.

23. 많은 괴로움을 겪은 너희여,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미는 이 사랑의 잔에서 젖과 꿀을 마시라.

24. 너희가 이 영적인 선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뻐하라. 육신의 양식을 위해 지나치게 근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25. 나는 너희 모두가 길을 잃은 것을 보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끝까지 나를 따르라"고 말함으로써 너희에게 길을 보여주었다.

26. 나는 누구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며,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에게도 위협하지 않는다. 물론 속죄의 법칙은 존재한다. 이는 각자가 스스로 초래하는 것으로, 영혼이 성장하여 정화와 빛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나 영원한 불의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형벌도 없다. 과거에 상징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말라.

27. 오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있으며, 각자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있다. 한편 엘리야는 주님의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서, 이 백성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의 아이들, 총 144,000명의 새로운 제자들을 모아, 그들이 이마에 삼위일체-마리아 영성주의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받게 하고 있다.

28. 너희가 삶의 여정에서 지쳐 있다면, 이 말씀을 경청하며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29. 이 말씀은 내가 너희 입으로 가져다주는 양식이다. 그 영적 의미는 너희 영혼을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이 씻어 주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다.

30. 너희는 폭풍이 너희를 이 길에서 휩쓸어 갈까 두려워하며, 다시 육신의 정욕 앞에 약해진다. 너희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그들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수많은 유혹으로 너희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을 두려워한다.

31. 너희는 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고 거절하라고 요구한다고 믿지만, 사실 나는 너희에게 영에게 마땅한 것은 영에게, 물질에게 마땅한 것은 물질에게 주라고 가르치고 있다. 너희가 "눈물의 골짜기"에 있는 한, 너희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영적인 골짜기에 이르러 너희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너희 이웃들 사이에 퍼뜨리는 사랑과 자비로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32. 내가 너희에게 드러내는 비밀은 야곱의 사다리 너머에 있는 나 자신의 영이다. 나는 "사다리" *위에* 있지 않으니, 나는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 위에는 오직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만이 있다. — 누가 내 가르침이 자신의 영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겠는가? 그 무게를 십자가의 무게와 비교해 본다면, 너희는 *내가* 지금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록의 주석 8 참조*

33. 내가 어디에나 계시니 누가 내게서 멀어질 수 있겠느냐? 어떤 이들은 내 앞에서 벗어나, 내가 그들에게 맡긴 씨앗을 *몰래* 뿌리고 수확을 독차지하려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옥한 밭을 선사하노라. 떠나려 하는 자는 사막으로 가야 할 것이다.

백열하는 모래 속에서 어떤 씨앗이 싹트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곳에서 그들은 너희가 나와 함께 누리는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며, 너희를 노래로 황홀하게 했던 새들의 지저귐을 고독 속에서 듣지도 못할 것이다.

34. 마음속으로 십자가를 저버리고 싶은 욕망을 느낀 자는 자신의 사명도, 운명도 깨닫지 못한 것이다.

35.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이가 내 앞에서 유죄와 죄를 고백하면서도 (정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 속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떠들어대면서도 나에 대한 믿음조차 없는가! 그들은 은혜를 받을 때는 믿지만, 시련이 닥치면 나를 부인한다!

36. 이 제3의 시대는 너희 영혼을 향한 초대였으며, 너희가 '세 시대의 신성한 열매'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무리에 속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도록 하는 부르심이었다.

37. 인류가 타락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내 영의 빛이 —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변하여 — 그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 그 빛은 그에게 속죄의 길을 보여주고, 속죄를 완수하도록 돕며, 그를 기다리는 상을 깨닫게 한다.

38. 나를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샌들'에 더러운 먼지를 묻히지 말고, 나를 찾으라. 나는 너희의 구원이다. 나는 너희를 난파에서 구해 내고, 죄의 거친 바다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준 배이다.

39. 너희는 왜 인생의 길에서 고통을 만났느냐? 왜 너희 발은 길가의 자갈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느냐? 왜 지친 여행자처럼 목마름이 너희를 괴롭히느냐? 그것은 너희가 예전에 그 길을 걸었으면서도, 너희 뒤를 따르는 이들을 위해 길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곳을 다시 지나가야 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목마른 이의 갈증을 한 번도 해소해 준 적이 없다면, 어떻게 누군가가 너희의 갈증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40. 오직 나만이 너희 영혼의 사랑과 평화에 대한 갈증을 달래줄 수 있다. 나의 말씀은 너희 가운데 쏟아지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다. 그것을 마실 때 그 맛을 만끽하고, 너희 이웃들을 초대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마침내 영혼 속의 일체감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41. "제2의 시대"에 내가 사람으로 왔기에 너희의 육안으로 나를 보았다면, 오늘은 영으로 온다. 너희의 육안으로 나를 보지 못했더라도 — 너희 영혼의 감수성은 분명 나를 느꼈을 것이다. 내가 내 존재를 너희가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나를 듣는 이들 중,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으로 나를 느끼지 못한 자가 누구인가? 내 말씀이 마치 빛으로 너희 영혼에 닿는 꿰뚫는 시선과 같기에, 내 말에 떨지 않은 자가 너희 중에 누구인가?

42.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심판자로 찾지 말라. 나는 판결 대신 너희 가운데 위로와 생명을 퍼뜨리고자 하노라.

43. 내가 너희의 눈을 열어, 내 법이 땅에서 더럽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였으나, 그것을 어기는 자를 심판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 법을 숨길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또 어둠 속을 걷는 자를 인도할 줄 알도록 내 법을 알아가라.

44. 너희는 누구를 모욕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차라리 내 일을 말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낫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너희의 생명을 끊어버릴 것이다.

45. 백성아, 너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오늘까지 들은 것이 내가 너에게 할 말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더 큰 가르침을 드러낼 것이며, 너희 가운데서 매우 큰 은사들이 펼쳐질 것이다.

46. 나의 가르침은 너희가 영과 영으로 너희 아버지께 연결되도록 돕기 위함이니, 그 안에 너희의 구원이 있느니라. 너희 마음을 열어, 너희 이웃에게 그것을 드러내야 할 순간이 올 때까지 그 안에 내 말씀의 보물을 간직하라. 이는 죄인을 변화시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47. 이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흔적은 피가 아니라 빛이다. 제자들아, 내게로 와서 너희의 고통에서 쉬어 가라. 내 말씀으로 사랑과 평화에 대한 너희의 굶주림과 갈증을 달래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선물을 풍성히 내려줄 때, 너희가 내 비유 속의 처녀들처럼 될 수 있으리라. 불타는 등불을 들고 순결한

신랑을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 그리하여 그가 너희 문에 두드릴 때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라.

48. 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는 자는 세상의 길에서 평화와 행복을 누릴 것이며, 내 왕국으로 이끄는 길 위에서 영적 승화를 이룰 것이다.

49. 나는 너희에게 참된 생명을 주며,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사랑으로 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너희 형제들에게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가는 길에서 이웃을 축복하기는커녕 비방하거나 심판한다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스스로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남을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재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50. 너희가 나를 상처 입혔다면, 내게 용서를 구하라. 너희 형제가 너희를 상처 입혔다면, 그를 용서하라. 어쩌면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받은 가르침을 통해 그토록 많은 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를 준다면, 너희는 자신이 무죄하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 *너희가* 상처를 준다면, 너희는 바위보다 더 단단한 자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이웃에게 고귀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51. 죽음이 너희를 준비되지 않은 채로 덮치지 않게 하고, 너희 영혼의 어둠이 그 발전의 길을 가리지 않도록 내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 나의 가르침은 첫 번째 말부터 마지막 말까지 진리를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다. 나는 너희를 영생으로 깨우고 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이 시대에 이 책을 다시 너희 앞에 펼쳐 놓았다. 나는 너희가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52. 여기 세상의 고난에서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들을 부르는 분의 목소리가 있다. 내 자녀들 중 어떤 이들은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으나,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 시대의 물질주의에 눈이 멀어 영혼이 그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왕국인 사랑의 우리 안에 아흔아홉 마리 양을 둔 목자인 내가, 길을 잃은 자를 찾아 지상으로 내려왔다.

53. 너희는 참된 생명의 열매가 주는 달콤함을 잊게 만든 쓴 열매로 얼마나 오랫동안 배를 채워 왔느냐? 그리고 비로소 내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영혼의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도다.

54. 예전에는 너희가 죄로 인한 고통에 짓눌려 헛되이 영적 승천의 길을 찾아 나섰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너희를 하나로 모으고, 너희의 수를 늘리며, 너희의 은사를 깨닫게 하였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은혜로 인해 교만함에 빠지거나 죄인을 심판하려 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자를 모욕하려 하기 전에 — 내가 "제2의 시대"에 간음한 여인이 내 앞에 끌려왔을 때 너희에게 주었던 가르침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라; 바리새인과 세리,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라. 그 가르침들의 영적 의미는 영원히 유효하다. 오늘,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는 그것을 너희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비유들은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전해 준 것들로서, 때로는 강가에서, 때로는 광야나 산 위에서 전한 것이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 심판하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전한 신성한 메시지였다.

55. 내 뜻은 내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살아서, 그로부터 자비와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고, 너희가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선을 행하므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병자들을 치유하러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었다.

56. 너희가 마음속으로 병자들을 혐오하거나, 그들의 몸이 누더기로 감싸여 있을 때 역겨움을 느낀다면, 스스로를 영성가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 마음이 오염될까 두려워하여 죄인들과 거리를 두는 한,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리라.

57. 보라, 이것이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주었던 말씀과 결합해야 할 나의 새로운 말씀이다. 나는 이 시대에 여러 지성적 통로를 통해 너희에게 이를 주었으니, 이는 *한* 입을 통해 말해진 것이 모든 이를 통해 말해진 것임을 너희가 확신하게 하려 함이다.

58. 남자와 여자들아, 준비하라. 너희 가운데 내가 내 말씀을 전할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59. 여기 처녀들의 문을 두드린 신랑이 있으니, 처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문을 열어 그를 들여보내었고, 그들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

60. 너희 중 일부는 사랑의 상에 앉아 내 말씀의 빵을 먹고, 내 말씀의 신성한 정수인 포도주를 마셨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두 번째 시대"에도 나와 함께하며 내 말씀을 들었는가. 다른 이들은 지방에서 내 사도들을 보았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병자들을 고치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사람들에게 진리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당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은 오늘 먹을 것이며, 세상에 없었던 자들은 오늘 세상에 있을 것이다.

61. 나는 지금 다시 제자들을 택하고 있다. 기억하라. 내가 "제2의 시대"에 나의 자비로 택한 열두 사도에게 발을 씻겨 주고 사랑의 입맞춤을 해주었던 것은, 너희가 깨달아야 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면, *너희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62. 나는 너희를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 온유함으로 오니, 너희가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 주라는 사명을 수행할 때 그 길에 온유함의 흔적을 남기게 하려 함이라.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발"을 씻지 않은 자가 과연 어떤 순결의 흔적을 남길 수 있겠느냐?

63. 여기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한 어린 양이 있다. 그분의 피가 모든 자녀들에게 생명의 상징이 되고, 그분의 발자취가 사람들의 영적 발전의 길을 제시하게 하려 함이다.

64. 나는 너희 가운데 나를 따를 자들을 보지만, 눈물을 흘리며 큰 서약을 하고는 나중에 내게 등을 돌릴 자들도 본다. 나는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순간들을 잘 활용하라. 곧 나는 너희를 떠나 무한한 곳에서 이 유산을 받은 자들이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기 때문이다. 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마음을 정화하는 자는 누구나 그 순결함과 자비, 사랑, 겸손으로 인해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높이고 내 일을 배반하는 자는 유혹 앞에서 약해질 것이다.

65. 너희 민족은 그 문을 열어, 여러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 시대에는 열두 명의 선택된 자가 아니라 열두 지파 각각에서 만 이천 명씩, 즉 인류에게 내 말씀을 전할 백사십사만 명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영적인 영역에 있고, 다른 이들은 물질적인 영역에 있다. 저 세상에서 살며 이 가르침을 알지 못한 자들을, 나는 다시 육신으로 오게 하여() 그들을 모두 땅에 모을 것이다. 바로 그들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괴로움의 잔을 마실 자들이다.

66. 오늘 너희는 내 가르침의 영적 의미를 통해 천국의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나니, 인류는 여전히 이 가르침을 지상의 빵과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다.

67. 서로를 보호하고 힘을 얻기 위해 내 주위에 모여라. 늑대들이 너희를 노리고 있으며, 군중 속에 숨어 있는 바리새인들은 바로 어제의 그들이다. 그들의 감각이 혼란스러워져서 아직은 나를 알아볼 수 없다. 그들은 위선적인 순결함 뒤에 자신의 죄를 숨기는 위선자들이다.

68. 깨어 기도하라. *그들은* 내가 거짓 그리스도라고 너희에게 가장 먼저 말할 자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첫 번째 시대'의 예언을, 또 다른 이들은 '두 번째 시대'의 예언을 들어, *이 사람이* 거짓으로 예언되었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하려 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이러한 선포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과 오직 내 말씀만을 내세우면서도 그 진리로 설득할 만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조심하라.

69. *너희는* 양심 앞에서 스스로를 살펴보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었는지, 내 말씀을 들을 때 평화를 느꼈는지,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났는지, 너희가 새롭게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 "그렇다"고 너희 양심이 대답했을 것이다.

70.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고 되새겨 보라. 여기 영생을 주는 음식이 차려진 상이 있다.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 몸과 피는 내 말씀으로 대표된다. 이 빵 한 조각만으로도 한 영혼에게 영생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 빵을 맛보는 병자들은 건강을 되찾을 것이며, 영혼을 고양시키고 내 가르침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평화를 얻으리라.

71. 인간의 죽음이 임하는 숭고한 순간에 내 말씀을 기억하는 자의 영혼에는, 그(내 말씀) 안에 있는 은사와 은총이 함께하여, 그가 죽어가는 순간에 내 성령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72.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생각은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드러났다.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자신의 영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며, 죽음을 두려워하여 마시지 않으려 입을 다무는 자 안에는 죽음이 있을 것이니, 오직 나의 사랑만이 그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 뜻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나아가 말하리라. "왜 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느냐? 일어나라. 나는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이요, 오늘 너를 은총의 삶으로 일으키시는 바로 그분이다. 나 외에 누가 죽은 자를 살릴 권능이 있겠느냐?"

73.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동안,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이의 마음을 살피고 있다. 어떤 이들은 내 말씀으로 양육받아

사랑과 위로에 대한 갈증을 채운 마음을 내게 바친다. 다른 이들은 이 일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그들은 이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모임 장소에 열렬한 마음을 품고 몰려드는 수많은 군중 때문에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74. 이 빵을 먹으라. 그 안에 영생이 있느니라. 포도주를 마시라. 그 안에 담긴 신성한 맛은 내 말씀이 지닌 신성한 풍미이니라.

75.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잊지 말고, 너희 형제들에게도 그대로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궁핍한 자들을 너희 식탁에 모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라.

76. 내 모든 말씀*에는 너희가 그 연구에 깊이 몰두할 수 있도록 풍성한 계시가 담겨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때 너희는 외로움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마치 늑대들 가운데 있는 양처럼 남겨지게 되겠지만,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그때 너희의 사명이 시작될 것이며,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가까운 지역인) 고향으로, 어떤 이들은 지방으로, 또 어떤 이들은 다른 나라들로 갈 것이다. 너희는 내 밭에서 훌륭한 일꾼이 되어, 평화와 사랑의 씨앗을 지칠 줄 모르고 뿌려야 한다. 그러나 여행을 위해 두 배의 식량 주머니를 챙길 필요는 없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는 날씨의 혹독함도, 자연의 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임재는 모든 피조물 안에 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용어는 개별적인 단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통해 신성한 생각이 표현되는 것을 총체적으로 가리킨다.*

77. 나는 너희를, 너희의 믿음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사는 집들로 인도하리라. 그들은 기쁨으로 너희를 맞이할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는 또 다른 이들을 불러모아 기도에 함께하고 그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이 "마지막" 이들은 "첫 번째"가 되어, 너희가 가르친 대로 씨를 뿌리기 위해 새로운 사도로서 나아갈 것이다.

78. 내 밭은 매우 넓으나, 씨 뿌리는 자들은 아직 매우 적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형태로 가르침을 주는 이 시기에, 백사십사천 명이 표를 받게 하려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내가 인류를 통해 나를 드러내게 할 매개체가 될 것이며, 나를 증언하는 자마다 나도 그에 대해 증언할 것이요, 마찬가지로 나를 배반하는 자는 누구나 내 심판 앞에 서야 할 것이다.

79. 보라, 너희는 모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가운데서 나를 배반할 자를 보노라. 바로 이 순간도, 오늘 밤도 아니요,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형제들을 배반하는 대가로 반짝이는 은전을 받아들일 때일 것이다. 누가 그럴지 아무도 모르기에, 너희는 마음속으로 묻는다. "스승님, 누구입니까?" — 나는 너희에게 다만 이 말만 하리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80. 이 시기에 나를 부인할 자도 있으니, 곧 있을 일이다. 오늘 밤에도 누군가는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를 부인할 것이다. —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자가 없기를 바란다. 그의 고통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81. 한때 예수께서는 희생의 시간이 다가오자 기도하러 감람원으로 가셨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그 본보기를 기억하여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 밤 내가 마신 잔은 매우 쓰디쓰었으나, 오늘날 이 인류가 다시 내게 건네는 잔 또한 얼마나 쓰디쓴가! 그 안에는 모든 사람의 눈물과 피와 고통이 담겨 있느니라.

82. 그러므로, 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큰 시련에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모든 사람의 죄가 한 사람에게만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의 죄를 그 어깨에 지셨다.

83. 이 계시들을 마음속으로 조롱하는 자들은 내 얼굴에 침을 뱉었던 자들이며, 지금 나를 심판하는 자들은 그 '두 번째 시대'에 나를 채찍질했던 자들이다. 이 인류의 죄와 어둠은 내가 모든 고문을 감내하는 감옥이다.

84. 준비하라. 불신자들의 무리와 혼란에 빠진 영혼들의 군대가 너희를 쫓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내 제자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은* 죄가 없다.'

85. 깨어 기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양육되므로, 너희 영 안에 나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86. 그리스도, 곧 신성한 스승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시던 때,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었으나 나를 기다리던 영혼들을 내 임재가 비추어 주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할 때가 왔다.

87. 이 “제3의 시대”에 인류는 새로운 골고타에서 나를 높이셨고, 나는 나의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바라보고 있노라, 오 인간들아. 내 영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으니, 마치 그 옛날 내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인류 위에 쏟아지던 때와 같도다. 나의 신성한 수난은 사람들의 배은망덕과 죄악을 마주하여 터져 나오는 상처와 같다. 그러나 오늘 그 상처에서 은총의 물이 솟아나,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악한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무를 상하게 하면 그 나무에서 생명의 수액이 솟아나오듯, 나는 너희가 파괴하려 할 때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생명의 나무이다.

88. 이 시기에 누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도와줄 것인가? — 바로 너희, 제자들이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울며 뉘우치고 새롭게 되는 자는, 내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던 그 죄녀처럼 인류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89. 마음속으로 주님의 고통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 이들은 복이 있나니, 내가 그들을 저 세상에서 나의 모든 영광을 보게 하리라.

90. 지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겨드린 죽음이 그분을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의 품에서 떼어 놓았지만, 오늘날 영원 속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신성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말씀이시라면, 마리아는 하느님의 모성적 자애이시며, 너희가 다시금 내게 마련해 준 십자가 곁의 무한한 곳에서, 그녀는 사랑으로 자신의 망토를 펼쳐 너희를 덮어 주시고, 용서 가득한 모성적 시선을 너희에게 보내신다.

91. 이 계시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1950년이 지나면, 다시 모여 이 가르침들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때 너희의 눈에는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눈물이 넘쳐흐를 것이다. 슬픔은 너희가 내 말씀을 경청하던 시절을 떠올리기 때문이고, 기쁨은 마침내 영과 영이 소통하는 시대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46

1.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누리기 위해 영적인 잔치에 초대하는 사랑의 부르심을 듣고 서둘러 달려온 너희는 복이 있도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너희 영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것을 너희에게 가져왔다.

2. 내가 너희가 성장의 길에서 지쳐가는 것을 볼 때, 나는 너희에게 다가가 힘을 채워 주며 이렇게 말하노라. "약속의 땅에 도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삶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거기서 너희는 너희 영혼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축복받은 참된 평화 속에서, 너희의 믿음과 인내에 대한 상을 얻게 될 것이다."

3. 오, 내가 기뻐하는 백성,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른 빛의 자녀요 성령의 제자들아: 너희 몸이 누더기로 감싸여 있거나 발이 맨발이라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말라. 너희의 영적 존엄은 물질적인

것에 달려 있지 않다. 너희 양심의 빛으로 너희 삶의 행실을 살펴보아, 너희 영혼이 죄에서 깨끗한지 알라.

4. 동료들의 의심과 조롱을 마주하여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을 받아들여라. *너희는* 그 당시 빌라도에게 소리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과연 알겠느냐? 너희는 내 사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고난의 잔을 마시게 했던 자들 중 하나가 아니었는지, 과연 알겠느냐?

5. 이 질문에 너희는 침묵하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욕을 당하더라도 용서하라. 내 말을 남을 상처 입히는 양날의 칼로 삼지 말라. 이 시기에 너희의 성숙한 영혼은 평정심을 얻어야 하며, 그것이 너희의 모든 행실과 말과 생각을 이끌어야 한다. 너희의 영적 나이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나이가 아니며, 나의 가르침을 통해 너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고 제자가 되었다. 나의 가르침 안에서, 그것을 변형하거나 더럽히지 말고 너희의 행실을 이루어라. 비록 형제 중 한 사람에게 결점이나 잘못을 발견하더라도, 누구도 너희의 교제에서 배제하지 말라. 누군가 내 가르침에 불완전한 생각을 섞거나 자신의 은사를 잘못 사용한다고 해서, 그를 '잡초'라고 말하지 말라. 사랑으로 그를 바로잡고 자비로 인도하라.

오직 그가 악한 성향에 고집을 부리고 너희를 오해할 때에만, 그에게서 물러나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내게 맡겨라.

6. 나는 너희가 내 빛으로 은총의 삶에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을 가져다주도록, 그리고 너희의 기도가 그들을 구원하고 너희의 행실이 형제들에게 유익한 본보기가 되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내 자녀들아, 너희가 아버지의 면전에 섰을 때 그분께 무엇을 바칠지 생각하라.

7.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너희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알아보았고, 맑은 물로 이 샘을 알아보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흔적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향한 이 지대한 사랑을, 모든 이기심과 이웃과의 모든 다툼에서 깨끗이 씻어내어, 그것이 순수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창조주께서 너희 존재 안에 큰 은사를 두셨다고 느낀다 해도 겸손하라. 내가 누구에게도 왕관을 씌워 왕으로 삼은 적이 없음을 명심하라.

9. 모여서 내 말씀을 경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아, 너희가 더 이상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비록 내 영적 임재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 홀로 있다고 느낄 날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 그때 새로운

시기가 시작될 것이니, 그 시기에 나는 너희의 몸과 영혼을 정화할 것이며, 이 백성의 신앙과 그에 따른 관습을 정화하여, 그들이 다른 지방과 다른 나라로 나아가 내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행실로 내 가르침의 사랑의 교훈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10. 나는 1950년 이후에는 이 민족을 이루는 무리가 이미 영과 영 사이의 계시를 얻으려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때가 되면 나는 더 이상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는 내 계명과 내 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너희의 모임에 들어올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영성, 순종, 믿음의 본보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너희가 후대에 남길 본보기와 씨앗은 무엇이 될 것인가?

11. 그 때가 이미 가까웠으며, 그것이 영적 계시의 시작이자 우상 숭배와 종교적 광신주의의 종말이 될 것임을 깨달으라.

12. 먼 나라에서 이 증언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로 올 것이다.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맞이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으로 엮은 "참된 생명의 책"을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의 행실과 감정이 너희가 제시하는 그 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13. 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가르침과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남은 세월을 잘 활용하라. 이 시간이 심판과 비난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 계시의 시작에 사자 엘리야가 너희에게 전한 첫 말씀부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불순종 때문에) 속죄와 고통으로 대가를 치르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14. 모든 모독을 피하기 위해, 나는 이 "사역의 현장"을 정화하고 직분을 받은 모든 이를 심판하리라. 이 정화는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너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내 율법을 모독한 자들은 그들이 그 위에 남긴 오점을 씻어내도록 해야 한다.

15. 백성아, 나는 내 평화가 너희의 정신과 시선, 그리고 미소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한다. 나는 고통으로 쇠약해진 얼굴에 쓴맛이나 불화가 비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는 고통 속에서 태어나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할 사명을 지닌 백성이다. 희생과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고개를 숙이며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백성이다. 인내로 너희 잔을 비워라. 내 신성한 말씀이 언제나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음을 깨달아라.

16. 이 말씀은 언제 온 인류에게 전해질 것인가? 이 "나이팅게일들의 지저귐"*은 멀리까지 닿지 못했으며, "내 가르침의 달콤한 소리를 권력자들의 호화 저택이나 강자들의

거처까지 전하지 못했다. 그 소리는 사람들의 피로 물든 전장에도, 새로운 바벨탑을 세우느라 분주한 영혼들에게도, 혹은 새로운 소돔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러나 내 계시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너희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은, 내일 너희 모든 형제들에게 전해져야 할 메시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 내가 지금 이 순간 너희를 정화하고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신성한 말씀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

17. 너희 귀에는 과부와 고아들의 탄식과 더불어, 너희가 아직 경험하거나 겪지 못한 큰 궁핍과 비극에 대한 소식과 전쟁의 소문만이 들려왔을 뿐이다.

18. 너희는 나를 통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임을 알게 되었으며, 역사를 통해 이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 즉 선택받은 백성이라 불렸음을 알고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든 은총이 쏟아졌던 바로 그 백성 말이다.

오늘 나는 너희가 이 시대에 내가 다시 땅에 보내신 그 백성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사랑받은 적이 없으며, 비록 내게서 많은 은총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다른 (민족)들과 이를 나누어 모든 이웃에게 빛과 길, 열린 책, 구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9. 과연 이 백성이 과거에 그 사명을 다했는가? 과연 이 백성이 현재 사랑과 형제애의 법을 실천하고 있는가? — 너희가 이 백성의 옛 역사를 안다면, 그들의 배신과 불순종 때문에 그들에게도 큰 재앙과 궁핍, 포로 생활, 굶주림, 전염병, 그리고 굴욕이 닥쳤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책을 쓴 것은 그 백성의 사랑도, 내 법에 대한 순종도, 영성화도 아니었다. 그 백성의 책은 형제들과 예언자들, 의인들의 피로 쓰여졌으며, 시기심과 불순종, 불화로 얼룩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봉인되어 있다.

20. 이 백성은 그 모든 오점을 씻어내고 정화하며, 책에서 모든 죄과를 지우고 그 자리에 선한 행실, 곧 주님께 합당한 행위들을 기록해야 한다.

21. 제자들아, 이 시기에 불순종과 신성 모독으로 가득 찬 새로운 책을 쓰지 말라. 나중에 그 책에서 너희의 오점을 지우기에는 눈물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역사를 쓰되, 그것이 도덕적 갱신과 화해, 형제애, 순종, 그리고 영성화로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 시기에 너희의 (하나님과의) 언약은 너희 양심에 의해 기록된다.

22.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베풀고, 내 떠남을 준비하게 하는 이 몇 년 동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사람들이 그 속임수를 알게 되기를 원치 않으며, 너희의 현재 불완전함도 알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라. 그 때가 오면, 사람들은 내가 나의 "금 깃털"*들에게 맡긴 기록을 통해 나의 말씀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사역을 연구할 때, 시련으로 인해 마음이 동요될 때, 혹은 위로를 갈망할 때 이 책에 깊이 몰입하게 될 것이다.

**이 비유적인 표현은 신성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수집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23. 내 영의 빛이 너희의 마음에 쏟아져, 너희의 발자취를 따를 자들을 인도하는 법을 알게 하리라.

24. 오늘 나는 너희와 함께 살며 내 모범을 통해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었던 그 시절과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내 가르침을 전한다.

25. 인류는 그 교훈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무고한 피가 다시 한 번 흘려지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신성한 스승께서 영으로 오셨으니, 그 사랑의 증거는 같은 형태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나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며, 너희가 구원을 얻고 너희 영혼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길을 걷게 하려고, 내 지혜를 주는 무수한 빛의 광선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26. 나는 많은 민족의 마음속에 나의 사랑과 겸손의 가르침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음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서로 대립하고,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짓밟으며, 통치자들에게 평화와 화합을 불어넣는 임무를 맡긴 나의 영적 사자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슬픔을 안고 내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나는 인류가 그 잔을 비우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고통이 그들을 깨우쳐 더 높은 발전의 길로 돌아가게 하려 함이라.

27. 이 시련의 시간에 너희에게는 악에 대항하도록 기도와 선행을 일깨워 주는 엘리야가 있다. 너희에게는 그 조언과 경고를 듣지 않은 이 인류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서 지켜보는 하늘의 중재자가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희에게

다시금 갱신하고 영을 펼칠 기회를 주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상을 얻게 하는 너희 아버지인 내가 있다.

28. 너희 나라 밖에서 너희 형제들이 무자비하게 서로를 해치고 죽이며, 평화를 파괴하고, 약한 민족들을 멸망시키며, 가는 길에 공포와 비참과 슬픔을 퍼뜨릴 때, 내가 준비시킨 너희,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들을 예고해 온 너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 평화의 생각을 보내라. 너희 마음은 이웃들 사이에 사랑과 자비를 퍼뜨려야 한다. 나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기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악에 대항하게 될 것이다.

29. 나는 이 인류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를 선택하여 내 가르침과 뜻을 알렸으며, 모든 영혼에게 (내 계명을) 실천하는 길에서 온전해지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에 더 큰 책임이 있다.

30. 자연의 요소들과 힘들이 풀려나, 인간에 의해 땅 위에서 더럽혀지고 모독당한 모든 것을 정화하고 회복할 것이다.

31. 이 시대의 아이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순수한 마음은 통치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의 결정에 올바른 인도를 내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에게로 향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다른 강대국의 멍에 아래 고통받은 민족들을 위해 나에게 중보하며, 그들이 다시 자유를 얻게 해 달라고 간구한다. 사랑과 정의라는 그들의 미덕은 그들 안에 살아 있으며, 그들의 탄원은 사람들 사이에 평화와 선의를 갈망하고 있다. 나는 그들의 기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쟁 중인 이 나라들의 고통 위에 치유하는 연고처럼 내려주리라.

32. 나의 어린 영혼들이여, 순종과 복종, 그리고 선한 마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악의 영향에 물들지 말고, 그 영향에서 도망쳐라. 나를 신뢰하고, 나의 빛이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성장의 길을 비추게 하라.

33. 어른인 너희를 나도 아이들로 여기며, 너희의 행실을 살핀다. 내 가르침의 빛을 받아들이고, 너희의 근심을 내게 맡겨라. 고통 앞에서 강인하게 버티고, 너희의 운명에 순종하라. 너희는 기도 속에서 고통받는 형제들을 내게 맡기며, 나는 너희의 중보를 받아들인다. 너희에게도,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내 사랑을 베푼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받아들이며, 너희를 통해 나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의심하고 아직 나를 부인하는 자들까지 내 모든 자녀들을 축복한다. 예전에는 바위처럼 무감각했던 너희의 마음을 내가 어루만졌으니,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항상 요구해 온 것이다. 이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법, 즉 사랑의 법, 자비의 법이며, 오늘날까지 인류는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34. 오늘 너희는 고통을 지워주고, 거센 폭풍에 시달린 너희 마음을 어루만져 줄 말씀을 갈망하며 내게 다가온다. 나는 많은 마음속에 겨울이 찾아온 것을 보았기에, 사랑스러운 종달새가 새끼들에게 그러하듯 너희에게 온기를 준다. 어떤 이들은 추위에 떨고, 어떤 이들은 죽어 갔다. 나의 임재는 시련 속에서 너희에게 힘을 준다. 나는 너희의 믿음이 꺼지기를 원치 않는다.

35. 이 고통의 시기에, 너희가 이웃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너희의 행실로 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면, 오직 믿음만이 너희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강해져라, 준비하라, 깨어 살아라. 그리고 내 가르침이 너희에게 전하는 바를 실천으로 옮겨, 사람들이 너희를 믿게 하라. 나는 내 가르침을 통해 너희가 강하고 깨달음을 얻어,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만회하기를 원한다.

36.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 마음이 변할 것이다: 너희는 생기로 가득 차고, 영적 승화를 위해 싸우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며, 삶의 역경이 닥쳐도 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며, 속죄의 과정에서 겪는 시련을 나에게 탓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기꺼이 동의할 것이니, 이는 영혼이 이러한 시련 속에서 정화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37.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받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라. 이 기간이 지나면 너희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것이 너희가 돌보아야 할 마음의 수이다"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그어주는 경계이다. 사랑이나 용서에서의 경계가 아니라, 너희 사역에서의 경계이다. 왜냐하면 — 설령 너희가 내게 빈약한 수확을 바친다 하더라도 — 그것이 사랑으로 가꿔진 것이라면, 나에게는 충분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받아들이고 너희의 사역을 축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발걸음이 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야 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빛이 모든 영혼의 길을 비추는 등대처럼 되게 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너희의 행동에 확신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바른 길을 벗어나면, 그것은 언제나 너희에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돌아오라고 촉구할 것이다.

38. 나의 다른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노라. 조급해하지 말고, 그 책임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지 않고는 나에게 직분을 청하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 곧 지쳐버릴 것이니, 그 지루함이 너희를 잠들게 하여 (다시) 다른 시기에 깨어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삶의 여정은 길고 길은 험난하니, 멈추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육신의 유혹을 이겨내고 영혼을 고양시킬 수 있다면, 너희는 더 높은 차원에서 살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는 영적인 삶을 가장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39. 나의 사랑을 깨달아라. 내가 모든 것을 자기 것만으로 차지하려는 부자처럼 인색하지 않음을 명심하라. 내 것은 모두 너희 것이니, 너희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40. 너희는 이 시대에 나의 계시를 받도록 선택된 세대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은총과 축복을 부어 주었으니, 이는 너희가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임무를 완수한 후, 내 왕국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

41. 너희는 나에게 지구가 고통과 고뇌의 장소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임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을 불행과 분쟁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순종과 복종을 가르쳤으며, 항상 선을 행하도록 권면해 왔다. *나는* 너희가 평화를 심어 평화를 거두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대를 위해 길을 닦고 그들에게 너희의 씨앗을 주어, 그것이 그들 안에서 꽃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42. 나는 너희를 나에게 더 가까이 이끌어 줄 은총을 베풀었다. 나는 너희가 너희 세상을 넘어 바라보게 하고, 제3시대에 내 가르침을 증언하게 허락했다. 아무도 이 영적 은사들의 드러남을 막을 수 없듯이, 또한 아무도 내가 너희에게 베푼 자비를 가로챌 수 없다. 오직 성령만이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총이 얼마나 큰지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너희 자신을 정화하고 노력하여, 조속히 내 곁에 이르러 내 계명을 이해하고 따랐다는 만족감을 얻도록 하라.

43. 속죄의 시기인 오늘, 너희가 믿음 안에서 '죽인' 이들에게 평화를 되돌려 주라. 너희의 말로 상처 입힌 이들을 치유하라. 너희의 빚을 갚고, 너희의 사랑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넘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의 율법을 이행하게 될 것이다.

44. 인간은 — 내 율법을 지키는 데서 등을 돌렸을 때 — 인류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며, 영혼을 물질에 묶어 자유롭게

상승하는 것을 방해하는 다양한 사상, 이론, 종교, 교리들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내 성령의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며, 양심이라는 단 한 명의 인도자만이 있는 참된 삶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45. 큰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랑과 내적 연민이 부족한 과학자들이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할 수 없을 때, "일꾼들", 즉 제자들이 나타나 사랑으로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여 동료 인간들을 치유하고 위로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되는 영적 세계는 고통에 짓눌린 인류에게 그 은혜를 베풀 것이다. 깨어 기도하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성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내일은 준비된 자들만이 나의 영감을 받아 나와 영과 영의 대화를 나눌 것이기 때문이다.

46. "금 깃털"들은 다가올 세대를 위해 나의 가르침을 기록해야 한다. 내 말씀은 사라져서는 안 되니, 그것은 너희가 시대를 초월하여 간직할 보물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씀의 깊은 곳에서 신성한 뜻을 발견하는 자가야말로 가장 큰 끈기와 확고함으로 나의 모범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마치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자신의 길을 비추는 사람과 같아서, 잘못된 이론이나 듣기 좋은 말들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때 진리를 찾는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품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며, 내가 모든 내 자녀들과 함께하여 그들에게 삶의 길을 계속해 나갈 용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7. 너희는 너희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 버린 폭풍과 폭우를 견뎌냈으나, 기도로 일어나 내 자비가 너희 등불이 꺼지는 것을 막아 달라고 간구하였고, 너희는 너희를 도우러 오실 스승을 찾았느니라.

48. 그 길은 고통스럽고, 이 세상에서는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련과 심판의 때에 마음속의 작은 평화와 식탁 위의 마른 빵 한 조각은 아름다운 옷이나 풍성한 음식, 심지어 이 땅의 주인들의 왕좌보다도 더 귀중하니라.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마음은 무덤과 같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쓴맛이 깃들어 있느니라.

49. 이 겸손의 길에는 기쁨과 만족, 그리고 영혼에게 큰 가치가 있는 보물들이 있다. 이를 알아볼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도다.

50. 너희 중에는 세상의 쾌락에 혐오감을 느껴 이곳으로 온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여전히 세상이 주는 거짓된 즐거움에 이끌리고 있다. 하지만 악한 친구가 그들을 악한 길로 유혹할 때, 바로 그 순간 병든 자가 그들에게 다가와 한 방울의 "향유" 한 방울을 청한다면, 영과 육은 내면에서 서로 싸우게 되나,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감정이 승리하여, 그들은 유혹하던 자에게서 멀어지고, 곤경에 처한 자에게 그 "일꾼"을 위한 구명정이 되어 준 이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 병자가 건강해진 것을 보았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과 평화를 누렸는지! 그때 그 마음은 기도로 일어나 내게 말하였다. "스승님, 시련 속에서 승리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51. 보라, 너희의 중보로 인해 치유받은 자들이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라, 너희의 도움으로 병상에서 일어난 자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너희가 선의 길로 다시 인도한 그 길 잃은 자들의 감사의 말을 들어보라. 너희가 임무를 완수할 때 너희 마음이 얼마나 상쾌해졌는지! 그러나 이 기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52. 내가 인간의 매개를 통해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인간의 이론이 아니다. 이 계시의 핵심은 신성한 계시이다.

53. 너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아무리 영감과 고양을 얻는다 해도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그러나 나의 비밀로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없기에, 나의 영은 너희의 무지의 문턱을 넘어 영생을 너희에게 드러내야 한다.

54.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계시, 즉 제3의 성서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삼위일체자이다. 이 시대에 이마에 영적인 표식을 받은 모든 이는, 이미 그 이전 두 시기에 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다.

55. 나는 너희가 인류 가운데서 큰 싸움을 이겨내도록 너희를 보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삶의 전투에서 찢겨진 너희의 "옷"*을 나에게 자주 보여준다. 그러나 너희는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사랑이 넘치는 스승이 너희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듯이, 너희도 내 이름으로 병든 형제들의 고통을 치유한다는 것을.

** 이것은 "성령의 옷",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악의와 배은망덕함으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며, 슬퍼하고, 짓눌려 있는 영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56. 나는 너희가 밤을 새워 지킨 시간과, 고통받는 이에게 베푼 위로와 애정, 세상에서 고통받는 내 아들( )을 위해 흘린 눈물, 그리고 너희가 바친 모든 것을 받아들이노라. 너희가 이웃에게 행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께, 그리고 너희 자신에게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 내 밭에서는 단 한 알의 씨앗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57.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은, 너희의 영혼이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이다. 양심의 빛으로 비추어질 때, 너희 영혼이 선한 행위를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라.

58. 너희 중 누가 이 생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겠느냐? 환생을 겪고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자들 중, 누가 아버지와의 계산을 다 마쳤으며, 자신의 '수취' 쪽에 아직 공덕이 남아 있다고 증명할 수 있겠느냐?

59. 아무도 자신이 어느 단계의 완전함에 도달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끝까지 투쟁하고, 사랑하며, 인내하라.

60. 어떤 이들에게는 육신 속에서의 '하루 일과'가 아직 길겠지만, 다른 이들은 곧 영으로 그 일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상에서 임무를 완수했다면 영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너희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해서, 너희가 완전함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믿지 말라. 영적 완성을 향한 사다리는 매우 높으며, 그 정점에 도달하려면 일곱 단계를 거쳐야 한다.

61. 시련 속에서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올해에는 고통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난히 크게 느껴질 것이니, 과학과 인간의 권력 추구가 맺은 쓰라린 열매가 다시 한번 수많은 대중을 오염시키고 죽일 것이기 때문이다.

62. 모든 더러운 것은 깨끗해질 것이며, 모든 잡초는 뿌리째 뽑힐 것이다. 바로 오늘날 길을 잃은 자들을 내가 내 신성한 공의를 행하는 데 이용할 것이며, 지금까지 눈물의 골짜기였던 이 "골짜기"는 피의 골짜기가 될 것이니, 피가 땅 위에서 강물처럼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63. 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나, 만일 그가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를 탓하기까지 한다면, 나는 그에게 의지력과 이성도 주었다고 말하리라. 동시에 나는 그에게 넘어지거나 길을 잃지 않는 길인 나의 율법을 계시하였고, 영혼의 길을 비추어 영생으로 인도하는 내면의 등대인 양심의 빛을 그 안에 밝혀 주었다.

64. 왜 죄가 존재하며, 악이 우세하고, 전쟁이 일어나는가? — 사람이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자유 의지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다.

65. 사람들은 자기 길의 끝에 다다라 그곳에서 되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들이 뿌린 모든 것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속에 회개가 솟아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66. 새로운 세상이 준비되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가 곧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굶주린 늑대들이 양들을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제거되어야 한다.

67. 너희는 평화의 전사로서 파견되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종파와 교파의 대표자들에게 위축되지 말라. 너희의 모든 겸손함 속에서도 너희는 그들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

68. 완성에 이르는 길, 이 끝없는 사다리 위에는 항상 앞서가는 존재들이 있었고, 뒤따르는 존재들이 있었다. 그러나 모두는 같은 고향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신성(神性)의 영역에는 서열이 없고, 오직 나의 영이 깊이 사랑하는 자녀들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이 안에 있으며, 권력자의 마음속에도 거지 마음속에도 똑같이 숨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문 앞에 궁핍한 이가 오는 것을 보거든, 그에게 너희의 사랑 어린 도움을 거절하지 말라. 이는 너희 마음을 두드리는 이가 바로 너희 아버지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69. 오,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의 사랑을 갈망하노라!

70. 이 시기에 내 계시는 내가 너희에게 내 사랑을 베푼다는 또 다른 증거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을 준비하라. 이 계시는 곧 끝날 것이니, 내가 1950년의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하노라. 왜냐하면 그날 이후에는 너희가 영적인 방식으로 무한한 곳에서 나를 찾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준비가 되면, 영감의 형태로 내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니, 이제는 인간의 목소리가 지닌 불완전함 없이 말이다.

71. 기도하라, 백성아. 너희가 기도하는 순간 전쟁의 소용돌이는 가라앉고, 마음은 안식을 얻으며, 어머니들은 위로를, 아이들은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니.

72. 준비할 줄 몰랐던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땅 위에서 고아처럼 느껴질 것이니라!

73. 세상에는 위대한 영적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며, 각 나라에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일곱 인( )의 내용이 모두에게 알려질 것이며, 여섯 번째 인의 빛이 이 시대에 비추는 빛으로 인식될 것이니, 이 계시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지상의 모든 신앙 고백과 민족이 하나로 합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47

1. 인류여, 내가 이 시대에 내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치니, 너희가 내 가르침을 이해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영혼들에게 부르짖음을 보내어 그들에게 영적 은사를 알리고, 그들이 내 계시를 연구하여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이 시대에 약속된 바가 확인되기를 원하노라.

2. 나는 너희 각자가 제자로서 내가 그 자리에 세운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한다. 너희 모두는 한 가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다. 나는 그 실현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 왔고, 너희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전히 온전해지지 않았다. 너희는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이 새로운 시대를 활용하지 못한 채 지나가게 내버려 둘 것인가? 시간은 너희 것이나, 그것은 한정되어 있다. 나는 너희가 내일 일을 시작할 때, 무덤의 가장자리에 서서 영적 계곡으로의 임박한 이별을 앞두고 육체의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부터 일하라 — 비록 너희가 어린아이이든, 전성기이든, 노년기이든 상관없이. 거두기 위해 씨를 뿌리고, 너희의 곡식을 내 곡식 창고에 간직하라 — 그곳은 시간이 훼손하지 못하고 도둑이 훔쳐갈 수 없는 곳이다.

3. 오늘날 인간은 거대한 투쟁에 휘말려 있다. 어떤 이들은 잔혹한 전쟁을 벌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정욕을 이기고 영혼을 해방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인류는 분열되었고, 삶은 폭풍 한가운데서 전복되는 배와 같다. 심지어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해 온 이 나라에 사는 너희조차도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너희 모두는 고통의 잔을 비우고 있다.

4. 왜 어떤 이들은 하늘의 종소리를 듣는데도 여전히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이 종소리는 바로 나의 목소리이며, 이 시대에 내 자녀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들리게

된다. 내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목소리의 메아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가 너희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너희에게 용기를 주고 생명을 준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5. 나는 너희에게서 오직 순수한 경배만을 받아들일 것이며, 오직 너희의 사랑과 자비의 행실만이 너희에게 나의 평화를 줄 것이다.

6. 내 아버지의 충고를 들으라, 내 앞에서 도망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한 지역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의로울 수 없다면*, 적어도 자신을 고치고 수고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은총을 되찾고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사자가 될 것이다. 고통 앞에서 무관심하지 마라 ; 너희의 기도가 내게 닿을 때, 그 기도로 인해 많은 눈물이 마르고, 너희 형제들은 평화와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인류가 십자가의 무게 아래 무너져 내리기 전에, 내가 그들의 도우미가 되어 그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리니, 그리하여 그들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리라.

**이는 온전히 하느님의 사랑의 법과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7. 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정화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말씀이 그들을 영원히 양육할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들이 처한 파탄된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고통받는 이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기도가 내게 닿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덕이 꽃피고 회복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8.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나는 너희가 내 영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영을 너희에게 알렸으며,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했던 말씀을 상기시켜 주노니,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 믿음을 통해 내게로 오라. 너희의 불신을 버리고, 내가 무한한 곳에서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아라. 그곳은 열린 문으로 내 사랑하는 제자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9. 내가 너희에게 "떡"을 풍성히 주었으니, 너희가 배부르게 먹고 오늘 경시하는 이 말씀에 내일 굶주림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발전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고양되라.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가 동료 인간들의 삶의 길 위에서

빛줄기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 인류라는 그 양 떼의 선한 목자가 되어라. 영 안에서 빛과 이성과 영감을 가진 너희 모두는 길을 잃은 자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0.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너희는 기도하고 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평온을 유지할 것이니, 매 순간 나의 힘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계시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니, 그들의 의심은 시련 속에서 그들을 낙담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 온 자들이니, 고통이 인류를 압도하는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침묵하며 준비하라.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11. 내 법과 심판에서 물러나 달라고 나에게 청하지 마라. 겸손히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구원을 얻도록, 정의에 따라 너희에게 마땅히 주어질 것을 주리라.

12. 내가 "제3의 시대"에 지칠 줄 모르고 너희에게 전해 준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고 이해하라. 내 말씀은 길을 잃은 난파선 승객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빛나는 등대처럼 너희 곁에 나타났느니라.

13. 나의 가르침은 너희에게 영적인 힘을 주었으니, 이는 세상의 역경에 맞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온 영적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전파할 때 모든 사람이 두 팔 벌려 환영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어떤 이들은 너희를 넘어뜨리기 위해 함정을 놓을 것이다.

14. 나는 너희를 정화하고 영적, 육체적으로 준비시켜, 너희가 아버지의 영감을 이해하고, 나중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 것과 같은 순수함으로 그것을 형제들의 마음에 심으며, 너희의 행실로 내 가르침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리라.

15. 내 자비로 은혜를 입은 마음들 속에서 나는 이 기도를 들었다. "주님, 주님은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며 너희의 필요를 알고 있다. 너희의 기도와 간구 앞에서 내 영이 어떻게 감동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작은 방에 홀로 있을 때 위로해 주었고, 너희의 경건한 기도가 유익하도록 너희를 깨우쳐 주었다. 너희는 서둘러 내 말씀을 듣기 위해 내게로 오지만, 그 전에 너희 마음을 제단처럼 준비하여 그 위에 너희의 행실을 제물로 바친다.

16. 너희는 길을 인도해 달라고 아버지께 손을 내미는 아이처럼 내게로 온다. 참으로, 내 앞에서는 너희가 어린아이들이다! 그러나 보라, 나는 양 떼를 돌보며 양 우리에서 사랑 어린 목소리로 그들을 부르는 목자와 같다. 너희는 이 '제3의 시대'에 인간의 이성이라는 도구를 통해 내 목소리를 들었으나, 너희의 입술이 갈증으로 메말라 있을 때, 즉 너희가 정욕의 사막을 건너갈 때 비로소 나를 찾았다. 그때서야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부르심을 들었다.

17. 너희가 나를 도와달라고 부를 때마다, 너희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는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듣고자 하는 갈망을 느끼고, 나의 가르침을 갈망하며 길을 나선 순간이 왔다.

18. 모든 이에게 영원의 시계는 그 시간을 가리켰고, 종은 울리며 너희 영혼이 갈증을 해소할 물을 찾을 때가 왔음을 선포했다.

19. 어떤 이들은 나를 만난 그 뜻밖의 방식에 의문을 품었으나, 그 후 그들이 들은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의 "맛"과 영적인 뜻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면에서 기쁨으로 가득 차 내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인간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당신의 새로운 계시를 믿습니다!" — 너희는 영적인 은사로 장식된 자신을 보았고, 마음속에서 평화를 경험하였으며, 너희 집안에서 화합의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임재와 시선 아래서 활기를 되찾는 동안,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도덕적 쇄신을 목격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애정을 받아들이시며, 사랑에 대한 갈증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셨다.

20.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를 따르라. 나는 이미 내 임재의 증거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믿음의 빛이 이미 너희 마음속에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 순간부터 너희는 삶의 여정에서 시련이 닥칠 때마다 낙담하지 않았으며, 내 법에 반항하지도 않았다."

21. 너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을 보았고, 일할 문이 닫히고 식탁 위의 양식이 부족해지는 것을 겪었으며, 세상의 재물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믿음은 등대처럼 너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었다. 시련 한가운데서 약해져 내 말씀에 의문을 품고, 자신의 믿음이 꺼져가는 것을 느낀 이들도 있었다.

22. 그러나 양심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닿은 나의 말씀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약해졌느냐? 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말씀을 잊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택함 받은 자들은 항상 시험을 받게 되어 그들의 믿음과 굳건함, 그리고 사랑이 검증되도록 하리라.”

23. 굳건히 버틴 이들은 폭풍이 지나가고 그들의 길에 다시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했다. 그들은 평화와 건강,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다.

24. 이와 같이 나는 내일 인류 가운데서 나의 좋은 증인이자 종이 되어, 그들에게 내 진리의 씨앗을 뿌려야 할 자들, 곧 내가 사용하실 자들의 굳은 마음을 점차 다듬어 간다.

25. 영혼은 내 말씀의 훈계에 고귀한 마음을 품지만, 육신은 연약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 영혼을 강하게 하고 일으켜 세우면, 영혼은 그 길을 가며 육신을 새롭게 소생시키고 보존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

26. 너희는 큰 시련을 겪어 왔도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모든 시련에는 너희를 위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너희는 그것이 너희를 싸움에서 강하게 하려는 것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잘못을 속죄하기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결코 시련 앞에서 물러서지 마라. 시련은 그런 목적으로 보내진 것이 아니며, 또한 너희의 도덕적 또는 영적 힘을 넘어서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27. 큰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는 자들이 되라. 너희로부터 빛과 은총으로 가득 찬 세대를 내가 일으키리라.

28. 너희의 준비를 위해 내 사랑의 가르침을 받으러 오라. 이를 통해 너희가 지상에서 쌓아 올렸을지도 모르는 모든 뒤얽힌 생각들이 너희의 마음에서 제거될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길을 잃었다면 참된 길을 보여 줄 것이다. 나의 하늘의 목소리가 너희 마음에 다가와 제3의 시대를 알리고 그에 대해 말하리라.

29. 너희의 잘못과 불완전함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하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니, 오히려 그것이 계시의 이유가 되었다. 너희가 길을 잃고, 그곳 추방지에서 병들고 고통으로 지쳐 있었기에, 나는 너희를 찾아 온다. 그때 너희의 스승이 내려와 너희에게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너희는 서둘러 창조의 주인이시며 주인이신 그분이 기록하신 율법의 길을 따르기 위해 길을 떠났다.

30. “제3의 시대”의 빛이 길을 비추니, 너희의 시선이 가시를 발견하여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라. 이 길은 시련으로 가득 차 있느니라.

31. 내 사랑은 너희가 깨어 있도록 끊임없이 너희 “집”의 문을 두드렸다. 이토록 많은 사랑의 증거를 보았음에도 여전히 내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 그것은 그들이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이성은 있으나 깨닫지 못하며, 마음은 있으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32. 너희는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는 영적 은사에 대한 지극히 큰 깨달음과 이해를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 마음속에 가득한 선한 감정이 너희 입술을 통해 말해질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마음속에 사랑을 품지 않은 자가 어떻게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이 바로 내가 다른 때에 이미 사랑의 가르침을 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너희를 뒤흔들지 않는가? 보라, 나는 아버지이자 스승으로서 내 사랑으로 이 가르침을 책 한 권처럼 너희에게 맡기노니, 주님의 신성한 은총이 그 안에 담아 두신 순결과 지혜로 이를 간직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되었을 때 — 그들 중에는 나를 시험하려는 새로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정탐꾼들도 섞여 있겠지만 — 너희가 그들에게 완전한 작품, 넘쳐흐르는 의와 사랑이 담긴 영적 가르침, 즉 내면은 깊고 겉모습은 소박하며 형제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과 자비의 행위로 입증되는 하느님 숭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말이다.

33.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 내 가르침은 박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계시들이 너희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현실이 될 때, 너희가 병자들을 고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중에 그 일이 너희를 놀라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나는 생명나무의 수액이 너희 각자에게 있음을 허락함으로써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이 식탁에, 이 그늘 아래에 앉으라. 그러나 눈부시게 하얀 식탁보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순백은 너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의 색과 같다. 나의 사랑의 망토는 나의 모든 자녀들을 덮고 있으며, 나의 자비는 이 시기에 나를 듣게 될 모든 이들의 삶의 길을 마련해 준다.

34.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자연의 힘은 매 순간 인류를 뒤흔들고 있다. 그 힘이 너희 땅에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35.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오게 하라. 모든 마음과 영혼은 각자 슬픔을 품고 있다. 이 계시가 전해지는 이 시기에, 그들을

나의 영적 세계와 연결시켜 주어, 내 왕국에서 내려오는 영적 치유의 약을 받게 하라. 나는 너희가 내 사랑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매진하며 준비된 모습을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너희가 병자를 고치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며, 진리를 갈망하는 자를 가르치고, 길을 잃은 자를 지도하는 중에 나의 심판의 시간이 너희를 찾아오게 하라. 명심하라: 그날이 너희가 이 사명을 다하는 중에 닥치지 않는다면, 너희가 슬퍼할 자들이 될 것이다.

36. 나는 너희가 내 면전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가 언제나 품위 있고 기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 내 작별의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이 평화와 이 힘을 가지고 너희를 사람들 가운데 남겨두고 떠나려 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싸워야 할 것이다. — 이 시련 속에서 나는 나를 따를 자들과 내게 등을 돌릴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각자를 강하게 하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고 시련을 주었기 때문이다.

37. 나는 너희가 이루는 나무의 잎과 열매가 치유와 활력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의 신중한 돌봄이, 마시는 잔이 너무나 쓰기 때문에 단지 부름받을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줄 것이다.

38.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병든 자들, 과부와 고아, 무력한 남녀들, 사랑과 평화를 갈망하는 자들이 그들의 짐을 내려놓고 믿음을 되찾기 위해 이곳으로 올 것이다. 올 수 없는 자들을 위해 너희는 기도하고 나에게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39. 갱신에 꾸준히 머물라. 육신의 본성이 (더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이 진전을 이룬다면, 너희는 영성화의 초석을 다진 것임을 깨달아라.

40. 오, 백성들아, 신성한 영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느끼실 때 느끼시는 기쁨을 느껴 보라. 너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비밀들에 내 말씀이 얼마나 많은 빛을 비추는지 보라.

41.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믿었던 이 시대의 사람들아, 나의 가르침이 새벽빛처럼 너희를 놀라게 하여 너희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42. 이 시대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발을 디디는 밭은 내 말씀에 비옥할 것이며, 그들은 그곳에 내 가르침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 것이니라.

43. 제자들과 제자들이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너희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진정시키며, 영적 창공에 평화의 무지개가 나타나게 하라.

44. 너희는 나의 신성한 가르침을 통해, 너희 존재 속에 숨겨진 무수한 은사와 힘을 발견하게 될 때 놀라게 될 것이다. 그것들로 너희는 장차 시련을 이겨내고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45. 이 시대의 너희 인도자는 나의 영이 될 것이다. 나는 모세의 시대처럼 새로운 홍해를 가로질러 너희를 위한 길을 열어 주겠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광야에서 지켜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내 사랑의 모범을 지치지 않고 실천하며, 끝까지 충실할 것뿐이다. 너희의 영혼이 약속의 땅 문 앞에 다다를 때, 비로소 최종 목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니, 그곳에서 너희는 인간적인 투쟁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고, 이 세상의 정욕과 비참함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성령의 참 빛인 ‘ ’를 알게 될 것이며, 이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태양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 진리를 풍성하게 보여 줄 것이다.

46. 너희는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야 할 것이니, 그때 너희는 본래의 순수함뿐만 아니라, 내 신성한 법들을 이행할 때 너희가 지닌 은사들의 꽃피움이 너희에게 줄 위대함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홀로 내 면전에 나아오지 않을 것이며, 각자는 자신이 구원하고, 치유하고, 위로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한 모든 이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너희 영혼이 발전의 길을 걷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나는 이 시대에 사랑의 가르침을 주었다.

47. 지금은 배움의 때이다. 보라, 내 영이 모든 육체와 모든 영혼 위에 쏟아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황홀경 속에서 내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이들은 황홀경 없이 선포한다. 노인들과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이 내 영적 왕국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내 예언자들과 나 자신이 한때 내 새로운 계시에 관해 너희에게 예고했던 증거들이 아니겠느냐?

48.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하여, 너희 영혼이 고양되고 정화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존재를 통해 내 빛을 드러내고, 너희의 사랑의 행위로 인류를 경탄하게 하리라. 나는 아이를 통해 노인에게, 무식하고 무지한 이를 통해 학자에게, 그리고 겸손한 이를 통해 교만한 자에게 말하리라. 오늘 너희는 아직 너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지만,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며, 기꺼이 길을 떠나 오늘 (아직) 잠들어 있는 지방들로 갈

것이며, 내일 내 신성한 메시지를 받게 될 때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49. 오늘 너희는 너희 스승이 내려와 너희를 가르치고, 옛날의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깨어 있으며,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뛰는 마음을 품고 있다. 너희의 이성은 경청하며 — 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후, 고요함 속에서 너희는 나의 조언과 계명을 떠올리며, 그것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이해하려 노력한다. 그러면 너희는 내 가르침이 얼마나 순수하고 너희의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되며, 더 열성적으로 임하기 위해 먼저 오늘날 입고 있는 육신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영적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지 내게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것이 너희의 영적 상승과 사명 완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 육신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내가 헛되이 그것을 창조하여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안다면, 그것은 너희의 협력자가 될 것이며, 너희는 이웃들에게 뿌린 사랑의 씨앗에서 거두는 결실을 통해 지상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50. 너희는 나의 선택받은 자들이니, 나를 본받아 기적을 행하라. 너희 형제들의 의사이자 조언자가 되고, 사람들의 변호인이자 옹호자가 되어, 그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고 그들이 속죄의 길 위에서 안전한 땅을 밟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너희의 온 영혼을 그 일에 쏟으라.

51. 내가 준비해 둔 밭으로 가서 그 안에 씨를 뿌려라. 훌륭한 농부처럼 너희의 사랑으로 흙을 갈아엎어라. 인간의 마음은 굳어져 버렸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가꿔야 하기 때문이다. — 너희가 완고한 영혼들을 만났을 때, 너희는 그들을 피하려 하며 말하곤 했다. "그는 하느님께서 찾으시는 자들 중 하나가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원하신다." — 내가 바로 이러한 마음을 찾고 변화시키기 위해 왔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너희가 내게 왔을 때, 너희의 마음은 이미 나를 위한 집이나 성전과 같았느냐? 뒤를 돌아보아라. 너희가 이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고, 참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깨달아라.

52. 왜 너희는 때때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전해지는 나의 계시를 의심하며 나에게 증거를 요구하고, 너희가 청한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때면 믿음이 부족한가? 너희는 믿기 위해 내가 더 고상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며, 나의 높은 뜻에 간섭한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너희는 이미 내 영감을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영성의 정점에 이르렀느냐? 너희는 이미 내 영 안에서 내 뜻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높이 발전했느냐? — 너희는 아직 나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나와 영적인 교감을 이루고 내 신비를 알게 될 길로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53. 너희는 너희 영혼에게 맡겨진 사명을 헛되이 만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영생의 평화와 완전함으로 이끄는 운명을 부여해 주었다.

54. 너희가 겸손하면 위대해질 것이다. 위대함은 많은 이들이 믿는 것처럼 교만과 허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것이 내가 언제나 너희에게 말해 온 말이다. 나를 아버지로서 인정하고 사랑하며, 너희 육신을 위한 왕좌나 다른 이들보다 너희를 돋보이게 할 이름을 추구하지 말라. 그저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너희 안에 선한 뜻을 품으라.

55. 너희가 나의 모든 영광을 보고 나에 대해 증언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리고 너희가 영적으로 더 높이 올라갈수록, 나는 내 지식을 너희 안에 쏟아 부을 것이다.

56. 오, 세상의 허영에서 벗어나 영의 법칙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에게 눈물을 안겨주는 이 땅을 사랑하며, 너희가 이곳에 보내진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곳으로 돌아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사명을 완수하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의 여정을 준비하라. 그리하여 너희를 맞이하고,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행실로 얻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는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57. 이 시대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내어 무장하고 이웃을 도와라. 너희는 그들 가운데 고통으로 인해 낙담한 많은 이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보게 될 것이니, 너희는 모두를 위한 치유의 향유와,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빛의 광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너희의 아픔으로 삼으라. 그러면 너희는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것이 된다.

58.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위로를 찾아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기도하기 위해 상징이나 형상을

구하지 않았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알고 너희 마음속에서 나를 찾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몸과 영혼에 힘을 흘려보냈다.

59. 무리를 인도하는 법을 알고,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 때 나를 도우미로 찾은 이들이 복이 있도다. 나는 영적 영역과 물질적 영역에 사는 모든 존재의 길을 밝혀 주리라. 서로를 낯선 이로 여기지 말고, 서로에게 온기를 나누며 진실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 곧 나를 사랑한 것이니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침48

1. 넓게 뻗은 나무 그늘 아래로 모여 쉬는 너희 무리여, 여기에서 너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여 너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

2. 너희 영혼이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엘리야에게 그의 지팡이를 청하라. 그리하여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아버지의 수정처럼 맑은 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라. 그곳에서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의 물이 순례자들에게 격려와 기쁨이 되어 넘쳐흐르고 있다.

3. 내가 너희에게 참된 성전을 세우는 법을 가르치노라. 믿음의 기초를 다지지 않고 성소를 세운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나의* 성전은 마치 가지가 온 지구를 사랑스럽게 감싸고 있는 나무와 같아야 한다. 그곳에서 새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뻐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때 창조주께 바치는 조화롭고 사랑스럽고 완벽한 합창을 이룬다. 그때 너희의 영은 주님을 찾으러 위로 올라갈 것이니, 그분을 아버지로서, 스승으로서, 의사로서 찾으라. 그러나 결코 그분을 심판자로 찾지 말라.

4. 참 하나님은 진실하게 사랑받으실 것이며, 거짓 신들은 멸망할 것이며, 불결하고 불완전한 숭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의 노래가 될 영에 대한 숭배로 대체될 것이다.

5.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많은 말을 하였으나, 때로는 너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너희가 내 말을 헛되이 내버려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의 말씀의 메아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를 듣게 될 것이다.

6. 만일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변한다면, 너희는 지금 이 순간 엄청난 크기의 식탁에 앉아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며, 너희 각자 앞에 내 말씀의 빵이, 정성껏 차려진 음식으로 표현되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7. 점차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이들은 내게, 내 말씀을 가장 맛있고 유혹적인 음식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한다. 아직 물질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이들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영적인* 선물과 선물을 가져다주는 대신, 세상의 부를 풍성하게 가져다주기를 더 선호할 것이다.

8.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 식탁 위에 내가 그토록 큰 사랑으로 대접한 음식을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두었는가. 언제 다시

지금과 같은 은혜의 시기를 경험하게 되겠는가? 이 시기에 그들은 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은총( )을 받았는데도 말이다. — 그들은 거친 바위와 같아서, 풍파를 겪고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부드러워진다. 그들이 그것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지 못하는 한, 그들의 유산은 그들에게서 박탈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신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해 간직될 뿐이기 때문이다.

9. 이것이 바로 그 거대한 나무니, 그 그늘 아래에서 방랑자들은 지친 여정을 멈추고 쉬며, 그 열매로 배를 채워 힘을 되찾는다.

10. 나는 이 나무 아래에서 모든 이를 기다린다. 어떤 이들은 완수한 사명으로 만족하며 돌아올 것이요, 다른 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다.

11. 너희 마음에서 평화가 사라지고 뺨을 따라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릴 때, 너희는 슬픔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양심이 너희에게, 너희의 근심과 불안의 원인이 너희가 가진 영적 성숙의 부족, 너희 사명의 미완성, 즉 너희 삶의 업적 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결여되어 있음에 기인한다고 밝혀 주었다.

12. 너희의 현재 삶은 그에 대한 속죄였다. 왜냐하면 너희는 지난 생에서 너희 영혼을 더럽힌 수많은 죄들 중, 오늘 얼마나 많은 죄를 씻어내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마음속에 평화가 없었던 이유이다.

13. 평화의 마지막 흔적마저 잃어버린 자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그 은총이 오직 정의와 선의 길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매 순간 양심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내 말씀을 들은 이들은 내 발자취를 따르려고 애쓰는데, 이는 내 길에 평화가 있음을 알고,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칠 때 나를 일으켜 세울 내 자비가 가까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14. 나의 법은 초인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노예 상태를 의미하지도 않고, 누구도 사슬로 묶지도 않는다. 물론 그것은 십자가이지만, 사랑으로 지는 십자가다.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북돋워 주는 십자가이다.

15. 너희는 인생의 여러 순간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던 때를 떠올려 보라. 그러면 너희가 선을 행했을 때, 용서했을 때, 누군가와 화해했을 때, 편안한 침대를 떠나 병자의 곁으로 가서 그에게 위로를 전했을 때, 바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내 왕국의 평화가 너희 영혼에 잠시 머물렀다. 평생 평화를 지키도록 내가 가르치는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태초부터 너희의 사명은 이웃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나를 드러낼 때마다, 너희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부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생각과 같은 의도로 연합된 너희 영혼들은 행복과 평화의 숨결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는 영적 계곡에 (너희에게는) 보이지 않게 거하는 존재들에게 내면의 평온과 빛, 그리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가르침과 권한을 받았다.

16. 세상의 길은 위험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들은 비록 깨달음의 빛과 예지력을 갖추고, 스스로를 방어하고 승리할 무기와 수단을 지니고 내게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세상과 물질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17. 나는 너희가 패배한 모습을 보았으나, 너희는 자비로 너희를 찾던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하여 믿음과 희망으로 다시 일어섰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때가 되면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길 잃은 자나 패배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18. 이 때에 가장 멀리 떠나고 가장 크게 길을 잃었던 자들이야말로 나를 가장 열렬히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19. 내 사랑의 끌은 가장 단단한 바위도 깎아낼 것이다.

20.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는 너희의 영을 찾는다. 왜냐하면 *영은* 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전에 나는 너희의 마음에 말해야 했기에, 나는 목소리의 매개체를 통해 나를 제한하고 내 말씀을 인간화하였다. 이것이 너희를 영과 영 사이의 계시로 이끌어 줄 단계이다. 그때에는 너희의 속죄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영감으로서 내 영적인 목소리가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육체는 때로 너희가 물질 너머를 볼 수 없게 하는 무거운 사슬이나 짙은 장막이 되기 때문이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 여기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인간의 말로 변형된 나의 신성한 영감이 있으니, 이는 너희의 이성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애무처럼 너희에게 다가온다.

21. 지금은 기억의 날들이니, 너희는 경건함과 준비에 전념해 왔다. 아, 너희가 광신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이 영적 성찰을 너희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간직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성장은 얼마나 위대하겠는가.

22. 이 수많은 청중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 앞에 천상의 잔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스승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시며, 참된 생명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23. 당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둘러앉았던 식탁은 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자녀들에게 둘러싸인 아버지가 계셨고, 생명과 사랑을 상징하는 음식들이 있었으며, 신성한 음성이 울려 퍼졌고, 그 본질은 온 세상을 아우르는 조화였으며, 당시 지배하던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평화 그 자체였다.

24. 너희는 이 경건의 시간 동안 스스로를 정화하려고 노력해 왔으니, 스승께서 말씀으로 너희에게 새 언약을 가져다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연 그러하다. 오늘 나는 너희가 내 몸과 피를 상징했던 빵과 포도주를 기념하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새로운 시대에 너희는 오직 내 말씀의 신성한 의미 안에서만 그 양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몸과 피를 찾으려 한다면, 창조의 신성함 안에서 찾아야 한다. 나는 오직 영이기 때문이다. 그 빵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되, 내 잔도 채워라. 나도 너희와 함께 마시고 싶다. 나는 너희의 사랑을 갈망한다.

25. 이 메시지를 너희 형제들에게 전하고, 피는 생명인 만큼, 참된 사랑인 영생의 상징일 뿐임을 배우라. — 너희를 통해 나는 나의 새로운 계시로 인류를 비추기 시작한다.

26. 남녀, 어린이, 청년, 노인들이 이 "제3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찾는 것은 마음보다도 오히려 영이다.

비록 온 인류가 내 말씀을 듣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그들이 이 축복받은 시간에 내 현존을 느끼기를 원한다. 가정의 가장들은 각자의 집에서, 병자들은 병상에서, 정의를 갈망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벌을 받은 자들, 마음에 평화를 찾지 못한 자들, 모욕을 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 — 너희 모두, 조용히 내 성소로 들어와 너희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분은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다.

27. 백성들아,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 마치 그 옛날처럼 — 이제 영으로 계신 나의 사도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장로와 차남), 다대오, 토마스, 마태오, 바르톨로메오, 시몬, 필리포, 안드레아, 그리고 심지어 고통으로 가득 찬 유다까지. 그들 모두가 이 새로운 성찬식에서 나를

동반하고 있다. 이 땅의 그 어떤 다른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 광경을 너희 눈앞에 펼쳐 보일 수 있겠느냐? —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형상들을 보여줄 것이나, 나는 그 영적 존재들이 생명과 빛의 온전한 힘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할 수 있다.

28. 그 때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에는 기쁨과 동시에 고통이 있나니, 아직 내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9. 너희가 내 식탁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 말씀을 듣는 동안, 너희의 생각은 혼란스러운 순간에 스승과 형제들을 배반했던 그 제자에서 떠나지 못한다. 그러고는 너희는 이 시대에도 배반자가 있을지 자문하며, 너희의 영혼은 내게 묻는다. "혹시 내가 그 배반자가 될까?" — 눈물이 고이며, 너희는 결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내게 간구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에도 나를 배반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2시대 때처럼 내 육신을 배반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은 자신의 행실로 내 가르침의 진리를 감추려 할 것이며, 그로 인해 사람들이 신성한 지혜의 가르침이었던 것을 속임수로 여기게 만들 것이다.

30. 너희는 모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맹세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깨어 기도해야 하리니, 유다 또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하였었기 때문이다.

31. 그 당시 내 육신의 고난이 하룻밤과 하루 동안 지속되었고, 죽음이 육신의 고통을 끝냈지만, 지금 나는 영 안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아픔을 느끼고 있다. 모든 피고인 안에서 나는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심판을 받고, 모든 감방 안에서 나는 그 속죄를 겪는 이들의 마음속에 갇혀 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겪으신 그 고통의 시간들을 떠올리며 울지 마라. 내 수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32. 너희의 영은 이미 나의 슬픔에 동참하기 시작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의 영은, 끝까지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내 말씀이 약속하는 기쁨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사랑과 자비의 행실을 통해 아직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33. 단순한 기도로 너희의 영을 높이 들어라. 기도는 주님과의 연결이자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34. 이 성찬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를 잊지 마라. 식탁에서 빵을 취하여 형제들과 나누라. 그리고 너희 모두가 영원 속에 있게 될 때, 내가 지금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이 계시가 영생의 상징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리 오라, 수많은

사람들아. '두 번째 시대'에는 내 식탁에 앉은 자가 열두 명뿐이었으나, 오늘은 백사십사만 명이 될 것이니, 그러나 나의 사랑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향한다. 나는 너희 모두가 이 시기에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어떤 이들은 내 말씀에 떨고, 어떤 이들은 울며, 또 다른 이들은 이를 들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 너희 각자가 누구인지 아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내 가르침을 듣기 위해 무리 지어 달려오는 이 백성들 가운데에는, 한때 나를 믿게 하기 위해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도 와 있으며, 예수를 의심했던 자들과 빌라도 앞에서 외쳤던 자들, 곧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35. 너희 중 많은 이가 내가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로 가는 것을 보았으나, 누구를 따르는지 알지 못하였고, 마리아의 눈물을 보았으나, 울고 있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보라, 내가 지금 그 당시 나를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을 다시 가르치고 내 제자로 변화시키고 있다.

36. 십자가 위에서 나는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기에 너희를 위해 용서를 구했다. 그 용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로 드러났으니, 이는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으며, 내게로 나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말씀에서 불완전한 점을 찾아내어 믿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을 구실을 삼으려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씀의 영적 본질에는 그 어떤 흠도 없다. 오히려 나는 이 소박하고 단순한 말씀으로 너희 마음속의 많은 흠을 지워 주었다.

37. 너희 모두는 나의 심판 아래 있다. 너희를 내 사랑의 자비보다 더 강력하게 감동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니, *나의* 심판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38. 그 당시 요셉 아리마대인은 제자들이 아직 그 명절에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실 줄 알지 못했을 때, 스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의 집에서 유월절을 지내시도록 집 문을 열어 드렸다.

39. 이제 나는 너희가 마음속에 숙소를 마련해 주기를 청한다. 내가 그곳에 머물며, 내 피로 인봉했던 그 당시의 행적과 가르침을 내 말씀으로 너희에게 상기시켜 주려 함이다. 그러나 이 기념일 동안에만 내 수난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말라. 너희는 너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성소를 세워야 한다. 그곳에서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사랑의 교훈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 성소는 인류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40. 오늘 나는 많은 이들이 부르심을 받도록, 내 목소리가 수많은 지방과 도시, 마을에 울려 퍼지게 하고 있다. 나는 내 길을 따라 사람들의 마음에 치유와 위안, 평화를 뿌리고, 은총의 삶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희망을 일깨우며, 악행과 죄로 인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41. 그 당시에도 나는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다니며, 나의 임재는 궁핍한 자들과 병든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모든 이가 나의 발자취를 따르지는 않았으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행한 기적들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남았다. 남녀노소가 예수님께로 나아왔는데, 그들의 근심 어린 얼굴과 탄식은 나에게 그들의 비참함과 고통을 말해 주었다. 그들은 나의 기적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들었고, 갈릴리의 랍비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분께 손을 뻗어 그분의 능력의 증거를 구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그분의 손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단지 만지는 것만으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능력이 그분의 손에 드러나는지 보려 했다.

42. 나의 연민은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향했다. 나는 모든 자녀를 고통에서 구원하러 오신 아버지였다. 의사이신 예수님은 온전한 치유제이셨기에, 병자의 몸을 만지지 않아도 그에게 건강을 되돌려 주실 수 있었다. 때로는 – 믿음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기 위해 – 나는 어떤 병자가 내게 다가와 내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그를 낫게 하기도 했다.

43. 오늘날에는 더 이상 죄인과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 너희 세상에 오신 인간 예수님이 아니시다.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어,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끝까지 그분께 충실할 새로운 제자들을 찾아내고 계신다. 영적인 식탁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내어주셨으니,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영에게는 실재하는 것이다.

오늘 내 말씀을 간절히 듣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한때는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지금 나를 듣고 있으면서도 나의 계시를 믿지 않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기적과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내가 학자나 신학자가 아니라 교육받지 못한 소박한 사람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의심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언제나 '가장 작은 자들'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44.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신성한 의미를 찾아낼 때까지 깊이 탐구한 이들은, 내일 사람들 사이에 전파해야 할 영성화의 씨앗으로 이 말씀을 간직할 자들이다.

45. "첫 번째 시대"에는 지성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두 번째 시대"에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사랑의 가르침을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 내 말씀을 듣게 될 것이며, 내일은 아버지와 그 자녀들 사이의 가장 깊은 유대 안에서 모든 영혼을 비추는 나의 영감이 될 것이다.

46. "두 번째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몸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빵은 단지 하나의 상징일 뿐이었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씀의 빵을 먹고 그 영적 의미의 포도주를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는 영원히 양식을 얻으리라.

47. 내가 평화의 나라에서 눈물의 골짜기로 오며, 의인들의 거처에서 내려와 죄인들과 대화하려 함을 깨달아라. 나는 왕의 면류관도, 홀도 지니지 않았으며, 오직 겸손함으로 너희에게 다가와, 내 빛으로 변화시킨 서툰 육신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내 가르침의 무한한 진리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 한다.

48. 나는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너희의 죄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자녀임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리라. 오히려 여러 차례 나를 부인할 때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다.

49. 오늘 나는 너희 가운데 내 영을 부어, 너희가 물질주의와 전통, 광신주의에서 벗어나 영적이고 소박한 경배를 나에게 드리는 법을 배우게 하리라.

50. 과거에 숭배하던 거짓 신들을 무너뜨린 너희는, 내가 지금 내 말씀으로 너희 영혼 안에 세우고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51. 나는 너희 마음속에 내가 너희 곁에 머물며 이 모습으로 계속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보지만, 이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만일 내가 너희의 청을 들어준다면, 너희는 사랑의 행실을 통해 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단지 나의 가르침을 듣는 데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2. 옛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적으로 보아도

이 땅은 *너희의* 고향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나라는 그분의 빛과 완전함, 거룩함 안에 있다. 이것이 너희의 참된 고향이며, 이것이 너희의 유산이다. 너희가 천국의 상속자라고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 행성은 너희를 일시적으로 머물게 하는 거처와 같으며, 너희 영혼이 정화의 시련을 겪게 하여,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갈 때 더 큰 발전과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을 찾지 못했는가?"라고 자문하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순결했던 자들조차 이 지상의 골짜기에서 참된 평화를 찾지 못하였다.

53. 만일 이 땅이 너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주었고, 그 위에 큰 영적 시련이 없었다면, 너희 중 누가 내 왕국에 오기를 원하겠느냐? 너희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고통을 비방하거나 저주하지도 말라. 인내로 그것을 견디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를 정화시키고, 내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4. 너희가 이 세상의 영광과 만족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아느냐? 자, 너희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려는 갈망이 매우 격렬해질 때가 올 것이다.

55. 영적 고양을 통해 시련을 이겨내는 자는 그 극복 속에서 평화를 경험한다. 땅 위에서 하늘을 향해 시선을 두고 걷는 자는 비틀거리지 않으며, 속죄의 길에 있는 가시덤불에 발이 찔리지도 않는다. 나를 듣는 너희여,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너희의 시련을 견뎌라. 너희는 점점 더 완전해져 가도록 힘쓰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오늘 왜 이곳에 온 것인가? 왜 너희는 일을 제쳐두고 이 딱딱한 의자에 앉은 것인가? 너희가 평화를, 빛을, 그리고 향유(香油)의 치유력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무리들 중에는 내 지혜와 계시를 구하여 내일 이 메시지를 각 지방으로 전하려는 이들도 있다. 또한 많은 죄를 지은 자들, 눈물을 흘리며 내게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이들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바로 너희를 위해, 즉 발전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 온 것이다. 나는 결코 땅에서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을 더 이상 찾지 못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그들에게 나는 나의 축복과 다정한 사랑을 베푼다.

56. 너희 중 누구라도 자신의 죄로 인해 영혼이 망했다고 들었으나,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구원받고자 한다면,

내게로 오라. 내가 그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일으켜 세우리라. 그는 마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신 나사로와 같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어나 걸어가라."

57. 마찬가지로 나는 무지한 자를 찾아, 그 눈앞에 "참 생명의 책"인 진리의 책을 펼쳐 보이리라. 나는 예전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모독했던 자들이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 영성, 겸손, 그리고 이웃 사랑의 모범이 되는 백성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들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 내 가르침을 증거할 것이다.

58. 내가 보기에 너희는 내 가르침을 잘 활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다. 너희는 아직 연약하니, 겨우 세 걸음도 못 가 유혹에 넘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59. 강해져라. 만일 너희 부모나 자녀들이 내 가르침 때문에 너희를 오해하더라도, 굳건함과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능력과 너희의 모범이 그들을 이 진리로 확신시킬 것이니라. 너희를 오해했던 이들 중 일부가 너희가 그들을 회심시키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그들에게 심어 놓은 씨앗은 그들이 영혼 속에 간직해 갔으며, 그것은 다른 세상에서 꽃을 피울 것이기 때문이다.

60. 내가 "제2의 시대"에 나의 수난을 통해 너희에게 준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라. 나는 너희가 나와 함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초대한다. 내가 그 가르침에 대해 너희에게 말할 기회는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하라. 너희는 그 뒤에 무엇이 올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줄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그 기념일이 너희에게 닥쳤을 때, 너희가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한다면, 궁핍한 이들에게 자비의 행위를 베풀고, 원수들을 용서하며, 누구와도 "미결된 계산"을 남기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말을 할 때, 너희 영혼에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 그 말들이 너희 마음에 얼마나 쓰라리고 고통스럽게 꽂힐 것인가! 그때 너희 양심은, 내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청했을 때 너희가 내게 쓸개와 식초를 마시게 했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61. 기도하라. 너희는 유혹과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 평안한 자들이 몇 순간 후면 다투거나 하느님을 모독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하는 말을 항상 마음에 새겨, 너희가 언제나 (영적) 경계와 기도에 준비되어 있도록 하라.

62. 보라, 나의 신성한 본질이 죄인의 입을 통해 너희에게 닿을 수 있음을. 이것이 권능과 사랑의 기적이 아니겠느냐? 이는 내가 바위에서 물을, 어둠에서 빛을 솟아나게 하는 이이기 때문이다.

63. 나는 겸손한 중재자들을 통해 "가장 작은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세상의 주인들이 인류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더라면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은사를 알지 못했을 것이며, 너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분도 없었을 것이다. 너희는 이 잔치의 음식을 먹지 못했을 것이며, 멀리서 잔치를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을 것이다. 반면 이론이나 과학, 종교적 편견에 물들지 않은 이 이성의 도구들(목소리의 매개자들)을 통해, 나는 사회적 계급이나 국적, 종교, 언어를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온 인류에게 부르심을 보냈다.

64. 나의 목소리는 내가 왕으로 계신 영의 왕국, 즉 너희 모두가 디마스처럼 십자가 위에서 겸손하고 믿음으로 나에게 "주님, 주님께서 당신의 왕국에 계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주님 곁에 있게 될 그 낙원에서 나옵니다. 너희의 십자가는 내가 너희에게 이 사명을 맡기며 맡겨 준 바로 그 십자가이다. 곧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며, 위로하고, 인류에게 나의 신성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이다. 이 사명은 책임이 따르고, 까다로우며, 더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동안, 내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지 않았던 불신자들과 비방자들,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65.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배은망덕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십자가의 짐을 지셨습니다.

66. 여기,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의 행적들을 상기시키고 이를 현재의 행적과 연결해 주는 스승이 있다. 나는 이 가르침이 온 세상에 퍼져 인류를 깨우쳐, 그들이 알지 못했던 삶을 마주하고 깨어나, 세상에서 하나의 집, 하나의 가족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는 혈통과 사회 계급, 부족 간의 차이가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 나온 가지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모든 이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나의 율법을 실천할 것이다.

67. 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진 너희는, 인류에게 내 계시와 기적의 진리를 보여줄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고귀한 마음가짐과, 하나님과 인류에 대하여

너희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기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너희에게 영성화의 가르침을 준다.

68. 이러한 방식으로 준비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이 싸움의 훌륭한 전사들이요, 참된 "영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이며, 충실한 제자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전파하신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자신의 육신이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분은 이미 자신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그 육신의 생명을 지키려 하셨겠는가? —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 여러분의 영을 기다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게 많은 야심 찬 목표들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69. 너희 형제가 영혼에 지니고 있는 어두운 얼룩을 없애고자 한다면, 먼저 너희 자신이 흠 없이 되어야 한다. 용서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너희가 용서해야 한다.

70.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평화로 가득 찬 영혼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너희 영혼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느냐. "주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 49

1. 너희의 기도는 꽃향기처럼 내게로 올라오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2. 너희 영혼이 영생의 양식을 누리게 하라. 이것이 내 신성한 영이 너희에게 주는 첫 가르침은 아니다. 나는 이미 다른 때에 인간으로 현현하여, 너희가 겸손을 실천하고, 타인을 위해 선을 행하며, 사랑의 십자가에서 죽는 법을 가르친 바 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너희 영혼이 받는 첫 가르침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너희가 이전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다시금 병든 자들을 찾아왔으니, 그들은 모두 나의 자녀들이다. 너희 모두가 이 속죄의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너희의 탄식이 내게 닿기 때문이다.

3. 고통이 매우 심해지면, 사람은 하느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비록 내 가르침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굴었더라도 말입니다. 그는 내 자비를 갈망하며 눈을 나에게로 돌리고, 절망 속에서 이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제가 그토록 간절히 청하는

것을 왜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까? 만약 내 간구를 들어주실 수 없다면, 이 땅에서 내 날들을 단축해 주소서. 고통만 겪으며 이 땅에 머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너희가 자녀들을 향한 사랑 그 자체이신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말할 때, 너희는 얼마나 큰 무지를 드러내는가!

4. 그러므로 나는 이 시기에 나의 가르침으로 너희를 무지의 어둠에서 이끌어 내어, 너희가 아무리 큰 고통 속에서도 빛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리라. 곧 너희는 내가 너희를 고통받게 하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고통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길가의 가시덤불에 조각조각 남겨진 빛과 순결을 되찾기 위해 그 모든 길을 다시 걸어가야 한다.

5. 비록 너희의 삶이 때때로 가라앉을까 두려워하는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을지라도, 너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그렇게 깊이 가라앉았으니, 적어도 시련이 매우 가혹할 때면 그 순간에 내 현존과 내 능력을 믿으라. 내가 "두 번째 시대"의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말하게 할 기회를 주지 마라. 그들은 나와 함께 배를 탔으나, 바다가 요동치고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그분께 "스승님,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던 자들이다. 그때 내가 꾸짖으며 대답한 것은 이러했다. "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6. 사랑하는 백성아, 내 가르침을 깊이 음미하고, 그 제자들의 모범을 따라 너희 삶을 이끌어 가라. 너희도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 자녀들아, 1950년부터는 이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할 것임을 기억하라. 지금 이 말씀을 활용하여 너희가 정화되고 더 이상 죄의 길에 머물지 않도록 하라.

7. "제2의 시대"에 드린 나의 사랑의 희생은 너희가 몸과 영혼에 지니고 있는 더러움,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가 유산으로 남긴 것들*까지도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지를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순종과 사랑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나를 희생했다.

**이는 소돔 사람들의 주된 죄, 즉*
성적 타락이며,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8. 이제 내가 너희에게 셀 수 없이 많은 가르침을 주었으니, 너희는 스스로를 구원하고 정화할 준비가 되었다. 나는 그 당시

너희에게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오겠다고 예고했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 와 있다.

9.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물질주의와 죄,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뿌리내린 생각들이 그들을 스승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개의 순간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영혼 속에서 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 사랑의 빛은 베드로가 스승의 질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했을 때처럼 그들을 비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악행을 청산하고, 과거를 두려움으로 돌아보며, 순결하고 유익하며 가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형제들이 죄와 악행이라는 짐을 지고 너희 가운데로 들어올 때 그들을 심판하지 말라. 그들을 물리치지 말라. 그러한 의도는 간음 현장에서 여자를 붙잡아 내 의로움을 시험하려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그 무리의 의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내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 여자에게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했을 때, 간음한 여인과 비교하여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여겼던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엄한 교훈을 주었는지, 그들은 부끄러워하며 물러났느니라.

10. 내가 너희를 위선자라고 부르지 않게 하려면, 얼마나 이해심 있고 진실하며 겸손해야 하겠느냐? 내가 겉은 아름답게 꾸며 놓고 속은 더러운 '회칠한 무덤'이라 불렀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다.

11. 나의 시선은 예리하여 너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과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는다. 나의 자비는 너희의 행실을 너희 생명의 책에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책은 너희 심판의 책이 될 것이다. 그 책에 오직 선한 행실만이 기록되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그로 인해 얻게 될 평화는 영적 삶에서 큰 상을 받을 징조가 될 것이다.

12. 오늘 너희는 예수께서 사람들의 피고인이 되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어른들의 본을 따라 어린아이들조차도 순진한 마음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그날을 기억한다.

13. 나는 재판관들 앞에 섰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받았을 때 내 죽음을 바라는 자들 사이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나는 온유하게 고개를 숙이고 기록된 대로 순교를 받아들였습니다.

14. 오늘 나는 다시 내 재판관들 앞에 서 있다. 너희가 그것을 탐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내 진리를 너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그 안에 결함을 찾아내어, 실은 없는 결함을 근거로

그것을 정죄할 것임을 안다. 내 일을 심판하되,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하게 한 모든 이들을 평화 가운데 두어라.

15. 너희 가운데에는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품 안에서 오늘날까지 지상에서 자신의 큰 잘못을 씻어내어, 영적인 공간을 거할 때 깨끗해지기를 갈망해 온 영혼들이 있다. 이들은 바로 이 시대에 나의 현존을 믿어 온 자들이며, 그들은 나의 사역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떤 불완전함 때문에 너희는 이 가르침을 비난하느냐?" 마치 당시 빌라도가 군중에게 물었던 것처럼: "너희는 이 사람을 무엇으로 고발하느냐?" — 내 목소리는 침묵할 것이며, 그 때 예수님의 입술이 침묵했던 것처럼, 나는 어떤 이들은 내 말씀을 심판하는 동안 다른 이들은 그것을 변호하도록 허락하리니, 이 투쟁 속에서 빛이 비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 어린 시선은 모든 이를 감싸 안을 것이며, 나의 용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에게 미칠 것이다.

16. 나는 한나와 카이파 앞에 끌려가 고발당했고, 그 후 빌라도와 헤롯 앞에 끌려가 심판을 받았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에 나의 사역과 나의 말씀 또한 '대제사장 회의' 앞에 나아가고, 그 후 새로운 빌라도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새로운 선포와 이 메시지를 믿는 정부 관리들이 있을 것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침묵할 것이며, 내 가르침과 내 제자들이 박해받는 것을 방치할 것이다. *그들은 손을*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하되, 자신들의 영혼에 짊어진 치욕의 얼룩은 씻어내지 못할 것이다.

17. "제3의 시대"에 나에게 새로운 십자가가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 높이에서 나는 인류에게 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며, 내 말씀의 영적 정수인 나의 피는 영혼을 위한 빛으로 변할 것이다.

18. 당시 나를 심판했던 자들은 오늘날 그들의 영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의 빛을 가져다주어, 그들의 잘못을 속죄하게 한다.

19. 인간의 악함에 대한 나의 가르침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기둥에서 채찍질당하고 조롱받으셨던 것처럼, 그 가르침도 먼저 채찍질당하고 조롱받아야 한다.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모든 상처에서 나의 빛이 흘러나와야 한다.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의 보이지 않는 피가 인류 위에 쏟아져야 한다.

20. 지금 너희가 내게 지우는 십자가는 제2시대의 것보다 더 무겁다. 그 당시 너희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너희 모두가 그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정죄할 것이다. 이번에는 너희가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헐떡이며 너희 집 앞을 지나가는 예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영혼이 너희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너희는 "인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는 내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나, 내 목마름은 사랑을 향한 목마름일 것이다.

21.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피 묻은 자국과 자신의 눈물을 섞지 않으실 것이나, 하늘나라에서 너희의 배은망덕함에 대해 온 우주의 어머니로서 그분의 다정한 사랑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22. 나는 나의 새로운 골고다로 가는 길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나를 돕기 위해 누군가가 나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는 강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시선은 제자들을 찾아갈 것이니, 그들이 나의 사도요한처럼 충실하기를 기대하며.

23. 이 기념의 시간에 스승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기에 신성한 스승의 가르침을 경청한 너희는 축복을 받으리라. 인류의 죄로 인해 형성된 짙은 어둠이 바로 스승께서 순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시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이다.

너희는 지금 제3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여전히 너희 주님께 고난의 잔을 내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인다. 내 얼굴 위로 피와 눈물이 흘러내리니, 이는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흘리는 것이며, 내 말씀을 들을 때 너희에게도 눈물이 흘러나와 회상과 회개를 이끌어 낸다. 이 눈물은 너희를 정화시키고 나를 더 가까이 오게 한다.

24. 너희의 잘못을 속죄한 여인들아, 안심하라. 너희의 악은 너희에게서 제거될 것이니, 그리하여 너희가 삶의 길에서 강해질 수 있도록 하리라. 너희는 막달라 마리아를 따랐으나, 넘어진 후에 회개를 느꼈다. 강해져라.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어 온전해지라.

25.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왔으니, 그러니 분개하지 마라. 나는 내 모든 자녀, 건강한 자와 병든 자, 깨끗한 자와 더러워진 자를 모두 사랑하며, 모두를 돌본다. 어떤 이는 자녀들을 위한 빛을 내게 청하고, 또 다른 이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중보하며, 나는 그들 모두에게 내 자비를 베푼다.

26. 너희가 많이 울었다면 위로받으라. 다른 이들이 너희를 대신하여 죄를 뉘우치며 울 수 있는 감수성을 달라고 나에게

청한다면, 그 청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라. 울음은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으로 무거운 마음에 위로와 평화를 주기 때문이다.

27. 기억하라: 희생이 완성되었을 때, 나를 박해하던 자들은 제자들의 길을 비추던 빛이 영원히 꺼졌다고 믿었고, 내 목소리가 잠잠해짐으로써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나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영원의 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울 수 없는 빛줄기를 보았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나를 오해했지만, 다른 이들은 나를 사랑했고, 나를 따르는 법을 알았기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들은 깨어 기도하며 나의 귀환을 기다렸으며, 나의 모든 계시 속에서 나의 현존을 느꼈기 때문이다.

28.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 가르침의 핵심을 꿰뚫어 본 이들은 계속해서 깨어 있으면서 경외심으로 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것이나, 다른 이들은 내가 그들에게 베푼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려는 나의 열정을 잊어버릴 것이다.

29. 나는 모든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보고 있다. 입술은 느끼는 바를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침묵하지만, 영혼은 일어나 나와 교감한다.

너희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영이 뛰고 계시니, 너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리라. 또한 나는 너희의 용기를 북돋우고, 너희의 눈물을 닦아 주며, 1950년 이후로는 인간의 이성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늘 이곳에 모인 너희 모두를 축복하노라.

너희는 나의 "제2시대" 사도들과 닮았으니, 그들도 나에게 귀를 기울여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 말씀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여, 목소리를 통해 나를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라.

30. 너희는 지상에서 너희 스승이 이 세상을 거치시며 행하신 위대한 업적을 상기시키는 특정한 시간과 날들을 기념하고, 너희가 내 업적을 기억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내 존재와 임재로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오직 사람들만이 내 수난을 기념하는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 정해진 날들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기념하지 않으니, 영원에는 (특정한) 시점이나 날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뿐인 "날"이 있을 뿐이며, 그 날은 계속되고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신성한 업적은 창조주와 가까이 사는 의인들의 영 안에 현존하며, 그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는 정해진 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드리는 것이다.

31. 오, 내 잔치에 참여하여 너희 영혼이 갈망하던 영생의 빵을 먹은 제자들아! 너희는 내가 매년 죽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다고 믿지만, 이는 오직 너희의 상상 속에만 있는 일이다. 나는 영원 속에 살아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영이 타락의 소굴과 속죄의 장소로 내려와 길을 잃은 자들에게 빛을 가져다준다고 믿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원하고, 내게 청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길을 잃은 자들이 구원의 길을 찾도록 항상 내 은총을 베풀기 때문이다. 나의 시선은 항상 속죄의 사슬을 몸에 지고 있는 자에게 머물러 있으며, 나의 영은 모든 세계와 모든 차원에서 영원히 현존하느니라. 누구에게나 그 지식의 깊이나 영적 성숙도의 차이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으시니라.

32. 오, 나의 새로운 제자들아, 너희의 경배와 주님께 드리는 헌사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는 것처럼, 그것을 드리기 위해 특정한 시간이나 날을 기다리지 말고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함을 알라. 그러나 너희가 광신에 빠지지 않으면서 매일 나의 사랑의 업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알고자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의 삶 자체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 드리는 끊임없는 경배가 되어야 한다.

33. 그렇게 행하면, 너희가 겸손히 청하는 바, 곧 너희의 잘못이 용서받게 해 달라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안식을 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이 너희를 책망할 때, 기도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다해 무장하라. 그래야 너희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의 말씀은 너희가 상승하여 빛과 영성화에 이르게 하려고 가르치는 것이다.

34. 이 가르침은 너희를 나에게로 이끄는 길이다. 너희는 약속된 왕국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가? — 나는 너희가 나와 영원토록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며, 그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다시금 새롭게 한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내가 예언들을 확증하고 성취하며, 인내로 너희를 가르치고 있는 지금, 나를 느껴 보라. 그리하여 장차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내 사랑으로 미리 준비된 너희 영혼에서 솟아나, 너희 형제들을 향한 자비의 행위로 변모되게 하라.

35.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고통을 견디며, 이마에 땀을 흘려 너희의 양식을 얻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하여 '진주'라 불렀으며, 내 은총의 선물을 담아 둔 이 나라를 위해 깨어 있으라.

36. 내가 너희를 시험에 들게 할 때, 도마처럼 행동하지 말라, 믿기 위해 내 옆구리의 상처에 손가락을 대게 해 달라고 내게 요구하지 말라. 내가 너희 영혼을 떨리게 할 가르침을 주어야 할 때, 나를 오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며 울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삶은 시련과 기적, 고통과 그 뒤따르는 기쁨의 길이며, 그 안에서 영혼은 완전함을 향한 사다리를 오르며 다듬어지기 때문이다.

37. 베드로처럼 되지 마라. 너희에게 그토록 큰 사랑으로 가르침을 주신 분을 부인하지 말고, 이 백성에 속해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맡긴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니, 그 제자처럼 세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니, 이는 너희의 수가 불어났고, 너희의 믿음의 부족이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8. 깨어 있으라. 그리하여 내 일이 배반당하지 않게 하고, 유다의 씨앗이 마음속에 싹트지 않게 하라. 그리고 — 이 마음들에게 깨어날 때가 올 때 — 그들이 혼란 속에서 그 제자처럼 육신의 죽음이 저지른 과오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없애 줄 것이라고 믿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죽지 않는 자신의 영혼을 위한 평화를 찾지 못한 채 영적인 골짜기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39. 보라, 내가 너희 곁에 다가가 내 임재를 느끼게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참된 생명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보라. 그러나 그것을 알고자 하는 너희는 소수에 불과하다. 나머지 너희는 내가 "제2의 시대"에 사람이 되었을 때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부족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오늘날 너희는 내가 단지 너희를 영적인 삶으로 깨우고 진리를 알게 하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내 말씀과 명백한 행적들을 의심하며 나를 시험하고 있다.

40. 내 영은 끝이 없는 수난을 겪고 있다. 매 순간마다 그분은 십자가에 높이 들려 계시고, 가시관으로 내 관자놀이가 꽉 조여진다. 내 상처들이 다시 터져 나오고 나는 새롭게 희생당하고

있으니, 너희가 나의 본보기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교훈을 얻고 영원히 살게 하려 함이다.

41. 오늘 나는 영으로 너희에게 와서, 너희는 종종 죽어 왔으나 나는 영원히 살아 계심을 말하노라. 이는 너희가 나를 곁에 두고 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자가 흙을 갈아엎어 씨앗이 싹트도록 돕는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의 씨앗이 내 뜻대로 백 배의 열매를 맺고 번성하지 못한 것이다.

42. 이 때에 나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내 사랑의 빛이 모든 영혼과 모든 육신 위에 쏟아지리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영광과 찬사를 거둘 것이니라.

43. 때가 되면, 사랑하는 백성아, 너는 일어나서 네 형제들에게 나의 거룩한 말씀을 실감나게 전해야 한다. 너희는 훌륭한 제자로서 온 세상에 흩어질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이 새로운 복음이 널리 퍼질 것이다. 여섯 번째 봉인에서 발산되는 이 빛은 그 시대의 인류를 비출 것이며, 그 빛으로 인해 모든 비밀이 밝혀질 것이다.

나의 가르침은 다른 나라들에 뿌리를 내릴 것이며,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모든 것을 일곱 봉인이 주는 빛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받은 이 가르침들에 대해 말하고, 사람들에게 내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

44. 내 자녀들이 내 가르침의 핵심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영과 영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했음을, 내 언약이 깨질 수 없기에 그들에게로 돌아왔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45. 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살아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제자라고 할 수 없다. 나는 길을 잃은 영혼들을 되찾아 무지와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왔다.

46.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신을 정화하고 내 사역을 위해 살아라. 그녀는 사랑과 회개로 회개했다. *세상이* 내 사랑에 눈을 뜨지 못했으니, 적어도 나를 들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행함으로써 나를 공경하라.

47. 오늘날 전쟁 속에 살고 있는 나라들은 깨어 있으려 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처녀들'이며, 신랑이 나타나 그들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은 잠들어 있었다. 이곳의 백성은 나를 깨달았기에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

48. 나는 너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너희의 종이 되어 왔다. 너희가 정당한 마음으로 나를 청할 때마다 나는 그것을 허락해 주었으니, 너희의 뜻은 곧 나의 뜻이다.
너희는 생계에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 가정에 결핍이 닥치지 않도록 나에게 간구하며,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 나는 너희가 청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허락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 아버지이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 아이에게 있을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입에 넣을 빵이 없는 자, 옷이 없는 자, 또는 지붕이 없는 자가 누구인가? — 나는 나의 모든 자녀들을 지켜보고 있다. 맑은 공기가 너희를 기르고, 들판은 너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씨앗과 열매를 제공한다. 너희의 갈증을 해소해 줄 물을 주는 샘이 부족했던 적은 없다. 나는 인간에게 지성을 부여하여, 그가 생계를 위한 수단을 찾고 자연 속에서 자신의 안녕에 필요한 것을 발견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였다. 존재들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며 모든 피조물에게 그 운명을 부여하는 나임을 깨달아라.

49.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영으로 나타난 이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제3의 성서를 실천하라. 너희의 영이 서둘러 내게로 오게 하고, 나의 은총을 받아들여 내 빛이 너희 안에서 빛나고 "말씀"이 너희 입술에 있게 하라.

50. 속죄와 회개의 눈물로 너희 자신을 씻어라. 기도를 통해 너희의 이해력을 높여, 너희의 추론이 올바르게 되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영감의 빛을 너희 안에서 느끼게 될 것이며, 너희의 기쁨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 신성한 영감을 받은 후, 너희는 형제들에게 내 일을 전하러 떠날 것이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말은 진리의 증거가 될 것이다.

51. 나는 많은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 수많은 모임 장소 안에서, 똑같은 영적 의미와 동일한 형식으로 선포된 말씀을 통해 내 가르침을 너희에게 알렸으니, 그 말씀은 (모든 이에게) 동일한 길을 제시하고 동일한 목표를 가리켰다.

52. 이 시대에 나를 들은 자들 중 누구도 거짓말하지 않고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없으니, 부름받은 자는 누구나 미리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말씀은 신성한 보물이며, 나는 너희가 그것을 오직 너희만을 위해 간직하기를 원치 않는다. 탐욕스러운 자들이 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 많은 지혜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면서도 —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기심은 어둠이며, 영혼 속의 어둠은 무지이다.

53. 제3시대에 내 가르침은 상세하고 명료하며, 이는 엘리야가 그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설명해 주는 가르침이고, 게다가 너희의 영적 형제들이* 그들의 조언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너희가 오류 속에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받은 내 제자 중 누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나의 계명을 이행하기에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느낄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보호 대상자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게 된 보호 영들을 가리킵니다.*

54. 나는 너희가 실천적인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가능성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가 내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니,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제 빵이나 돈을 이웃과 나누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 너희가 자비를 베푸는 법을 모른다면, 이 가르침으로 이웃을 지도할 수 없다.

5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궁핍한 자를 마주할 때 너희의 손이 빈 경우가 많더라도, 너희 영혼은 그 안에서 줄 것을 항상 찾아낼 것이다. 물질적으로 형제들과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너희 영혼이 소유한 많은 것 중에서 내어주게 하라. 그러나 알아두라. 만일 너희의 이웃 사랑이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 (선한) 의도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말하며 너희의 의무 이행에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영혼과 육신 모두를 위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너희 아버지께 배우라.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라고 가르치신 예수님께 배우라.

56. 인내와 사랑으로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내 자녀들 중 몇몇의 마음속에서 나는 거센 폭풍을 보노니, 그들에게 이르노니 깨어 기도하라. 폭풍우는 지나갈 것이요, 너희는 다시 평화의 무지개가 빛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57. 내일 환난이 인류를 휩쓸 때, 너희는 오늘 겪고 있는 시련 덕분에 너희 영혼을 굳건히 다질 수 있었기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전쟁 중인 나라들에서 수백만 번이나 반복되는 고통과 굶주림, 비참함의 광경을 볼 수만 있다면, 너희는 감히 불평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형제들 중 많은 이가 나를 축복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나를 모독하지는 않는다!

58. 깨어 기도하라. 내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기도로 인간의 타락을 야기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라.

59. 다가오는 혼돈이 지나간 후, 사람들은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찾게 될 것이며, 나의 모든 자녀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3의 시대"에 온 인류가 나를 알게 될 것이며, 모든 이가 영적으로 동일한 하느님 숭배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60. 사람들은 마치 '탕자'처럼 행동해 왔으나, 자신들이 상속받은 유산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탕진해 버리면,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분께로 돌아올 것이다.

61. 나는 내 예언의 말씀으로 너희 모두에게 경고한다. 이를 듣고 널리 전파하여, 내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신 것임을 깨닫게 하라.

62. 인류는 자신들에게 닥칠 영적 투쟁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내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한 번도 없는 내 자녀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곳곳에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게 될 것인가!

63.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형제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여길 때에만 내 이름을 불러야 한다.

64. 세상의 모든 도덕과 미덕, 정의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것들의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속에서 내 가르침의 위대함이 드러날 것이다.

65. 내 가르침이 너희 마음속에 꽃피게 하라.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영적 사명에서 서로 돕고, 시련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라.

66.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며 준비가 되면, 나는 인류에게 너희의 연합을 알리는 표징을 주리라.

67. 너희 동료들이 마음속으로 이 백성의 품에서 살고자 하는 갈망을 느낄 수 있도록, 너희는 언제쯤 준비가 될 것인가? 이 계시 시기에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를 들은 자들의 사명과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지 깨달아라.

68.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나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 참된 자비와 사랑의 본보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형제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으면, 너희 존재 안에서 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때 너희 영혼에게 평화보다 더 큰 상은 없을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50

1. 새끼들을 덮기 위해 날개를 펼치는 종달새처럼, 나의 사랑이 너희 위에 펼쳐진다.

2. 너희를 부르는 이 목소리는 신성한 스승의 목소리이며, 이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것이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께서 너희 마음의 돌을 사랑과 고양의 성소로 바꾸시고, 어둠만이 있던 곳에 빛을 비추실 것이다.

3. 너희 중 일부는 나의 가르침을 통해 변화되고 준비되어,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들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다. 내가 보는 인간의 삶은 바로 광야와 같기 때문이다. 수많은 영혼들 한가운데서도 홀로라고 느끼며, 그에게 물 한 모금 건네줄 이 없이 갈증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다. 내가 바로 그곳으로 나의 새로운 사도들을 보내리라.

나는 내 이름이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으로 다시 불려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감동 속에 들리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내 존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즉 노인들과 여성들, 아이들이 있다. 나는 모든 이가 나를 알게 되고, 그들 안에 가장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가 계심을 알기를 원하며, 모든 이가 나를 듣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4. 너희는 준비해야 한다. 내가 너희 영혼 안에서 내 존재를 느끼게 할 그 순간이 매우 가까웠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각 마음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나를 맞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이들에게는 빵을, 다른 이들에게는 물을 청할 것이니, 이는 내 제자 요한이 너희에게 예언한 바와 같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 그도 나와 함께 하리라."

5.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의 사랑의 행실임을 깨달아라. 내 배고픔과 목마름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사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6. 내 사랑을 너희 마음속에 싹트게 하고, 그 사랑으로 이 인류를 집어삼키는 갈증을 해소하라.

7. 나는 너희를 기다리는 데 지치지 않았으나, 너희는 너무나 많은 방황으로 지쳐버렸으니, 너희가 너희의 (성장의) 길을 길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나를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지팡이가 되리라.

8. 인류가 영성화되도록 힘써라. 너희가 그것을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면 기뻐하며 너희 아버지께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씨앗을 뿌려 두어라. 너희가 여기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너희를 기다리는 그 삶에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삶보다 무한히 더 아름답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에는 신성을 묘사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으며, 내가 어떤 형태로든 그 삶을 여러분에게 설명한다 해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가 도달하는 모든 세계와 모든 단계에서, 나는 그곳에서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을 말해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많은 것을 계시하여, 너희가 길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너희를 기다리는 이들에게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9. 나는 사람이 겸손하면서도 자비로운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 보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조금의 지식만으로도 교만해지고, 스스로를 위대하게 여기며, 권력의 지팡이를 움켜쥐고 동료들 앞에서 스스로를 왕으로 추대하는지. 마음속 깊이 겸손하고, 소박하며, 사교적으로 지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왕관을 씌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허영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인류가 이 상을 볼 필요는 없다. — 너희에게 줄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상을 찾지 말라. 온전한 정의이시며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께서 너희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갈망하라.

10. 인생의 여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너희의 발전에서 후퇴하지 마라. 너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변덕스러운 운명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하라. 마음의 어부가 너희를 해방시키고 안전하게 인도하였으니, 다시는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너희를 이 땅에 보냈지, 죄를 더 늘리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본다고 해서, 나의 심판이 결코 너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위대함에 대한 꿈에서 깨어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의 사랑의 평화가 내 뜻대로 너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드러내게 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나의 심판의 고통이 되지 않을 것이다.

11. 배우고, 신성한 가르침을 활용하여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라. 이것이 너희가 나에게서 배웠음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랑 어린 가르침으로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너희가 들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모든 것이 낯설다고 대답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 말을 들었던 너희가 너희의 행실로 나의 사랑과 나의 공의를 거짓으로 드러낸다면 — 너희는 이 땅에 어떤 씨앗을 남기게 되겠느냐?

12. 이 순간, 내가 원하시는 바는 너희가 세상의 모든 민족과 너희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내가 이미 너희에게 내려왔던 것처럼 모든 이에게 "종달새"*로서 내려가겠다고 너희에게 약속한다.

**"종달새"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마치
종다리가 지저귐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 날개로 새끼들을
날개로 보호하듯이.

13. 사랑과 기쁨으로 나는 너희 모두가 나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것을 본다 — 어떤 이들은 선한 행실로, 어떤 이들은 고통으로, 또 어떤 이들은 영적인 참회로. 너희는 가시가 무성한 길을 지나야만, 그 노래가 마음에 평화를 주는 꾀꼬리가 노래하는 나무에 도달할 수 있었다.

14. 너희가 삶과 체험과 성장의 길로 나섰을 때, 너희는 너희의 유산을 지니고 갔으나, 이제 너희가 도중에 너희를 놀라게 한 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나는 너희가 유산 없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15.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산은 무엇입니까? — 바로 영의 유산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잃어버렸고, 또 다른 이들은 세상의 허영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적인 은사에 대한 필요를 느낀 순간이 왔고, 너희 자신 안에서 그것을 찾지 못하자, 두려움에 차서 이 길 저 길로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종종 "잃어버린 아들들"이라 부르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비유로 너희에게 말한 그 사람과 같기 때문이다.

16. 너희 마음에는 지나간 폭풍의 흔적이 새겨져 있고, 너희 발에는 길가의 가시들이 남긴 상처가 아직 생생하며, 너희 온 존재 속에서 나는 오늘 너희가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삶의 고된 여정을 보노라.

17. 너희의 영혼은 잠 못 이루는 긴 밤과 눈물을 겪었으나, 너희가 나를 찾아 나서며 두었던 희망은 헛되지 않았다. 아름다운 새벽녘이 너희를 놀라게 하여 잠시 동안 너희 영혼을 눈부시게 했기 때문이다.

18. 마침내 '탕자' — 현재 이 백성을 이루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현존하는 — 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다시금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무한한 사랑에 감싸인 것을 느꼈다. 옷이 찢어지고 발에 샌들이 없음을 드러내는 수치심은, 오랫동안 아들의 귀환을 기다려 온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용서했다는 증거 로서 이마에 아버지의 입맞춤을 느낄 때 사라졌다.

19.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니, 너희는 모두 나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으며, 나의 어루만짐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느니라. 너희가 안식을 얻고 가슴 속의 흐느낌이 그쳤을 때, 너희 아버지는 스승으로 변모하시어 너희가 창조되고 이 땅에 보내진 그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하도록 가르침을 주셨다.

20.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더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자는 그 후로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여, 그곳에 지배하는 순결과 완전함을 목격하고는 감히 그것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리라.

21. 초심자는 신성한 스승의 가르침을 들을 때 기쁜 열정에 휩싸이며, 그 가르침의 진의를 깊이 깨달을 때, 자신이 삶의 여정에서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유산이 항상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의 눈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그의 마음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영적 은사에 대해 귀머거리이자 눈먼 자이며 무감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힘을 얻고, 확고하며, 신뢰에 차 있는 그는 — 창조주를 사랑하고 그분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기에 — 자신이 뒤로 남겨둔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고 싶은 갈망을 품게 된다. 그러나 길을 잃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길을 밝히고 가시를 제거하며, 길을 잃은 방랑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자신이 생명과 믿음을 되찾았던 그 나무로 가는 방향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22. 진리를 지칠 줄 모르고 찾는 이들은 복이 있으며, 진리를 찾은 후 그것을 자신만 간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 빛으로 형제들의 길을 밝혀 주는 이들은 더욱 복이 있다.

23. 나는 너희를 "일꾼"이라 불렀으니, 너희는 진실로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시간, 씨앗, 물, 밭, 그리고 농기구를 주었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비유는 단순하여, 너희가 이 가르침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25. 나는 너희 영혼에 너희를 풍요롭게 하고 어루만져 주는 나의 사랑의 이슬을 남긴다. 산에도, 골짜기에도, 꽃에도 너희에게 쏟아 부은 것만큼 큰 은총을 내린 적이 없다. 나의 사랑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겠지만, 내가 지금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는 않을 것이다.

26. 내 말을 듣고 너희 마음에 간직하라. 만일 내가 — 다시 사람이 되어 — 지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인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는 많은 이들의 소망이자 신앙적 확신과 같으나, 마찬가지로 나는 1950년 말로 정해진 시기가 지난 후에도 너희가 이 형태로 나를 계속 듣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너희는 그 시기가 지난 후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27. 나는 너희가 병자들을 고치고, 과부와 고아들을 위로하며, 권위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며, 너희 이웃들의 영적 길을 빛으로 채우도록 너희를 준비시키려 한다.

28. 나는 너희에게 생명과 사랑과 영성의 씨앗을 다시금 물려주고 맡긴다. 너희 삶에서 이 유산을 다시는 잃지 말라.

29.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화를 남기노니, 이는 내가 온 세상에 퍼지는 평화이기 때문이라. 마치 둥지에서 새끼들을 덮어주는 종달새의 날개와 같으니라. 언제쯤 *너희는* 영적으로 평화의 종달새와 같으리요?

30. 나는 너희가 이 사랑의 둥지에서 태어나게 하였으니, 그곳에서는 너희에게 양식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고, 나의 가르침이 너희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 주었느니라. 너희는 아직 연약하고, 날개는 아직 자라지 않았으며, 깃털은 드문드문하도다. 그러나 너희가 날아오를 만큼, 먼 거리를 넘을 만큼, 그리고 거센 폭풍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고 느낄 날이 올 것이다. 제때가 되기 전에 둥지를 떠나려다 날개를 퍼덕이는 법을 아직 몰라 땅으로 추락했던 자들처럼 행동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길을 가리켜 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마치 큰 종달새 떼처럼 흩어지며,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를 들고 나무의 잎사귀 사이에 새로운 둥지를 지을 것이다.

31. 너희는 왜 내가 이 시기에 너희에게 왔는지 묻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깨닫지 못하느냐? 최근 세상에 일어난 일들과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이, 내가 사람들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알리는 전조임을 모르느냐?

32. 보라, 전쟁이 가장 선진화된 국가들을 휩쓸고, 악이 그 최고조에 달했음을. 거짓말이 마치 진실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과학은 인류에게 위대한 비밀을 밝혀주면서도 이를 파괴에 이용하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많은 부도덕한 행위들을 선 한 것으로 인정해 왔는가! 바로 그때 내가 너희 곁에 나타나 너희의 이성을 깨우치고, 심연으로 치닫는 너희의 광란의 질주를 막으리라.

33. 나는 나의 영원한 진리로 너희에게 말하며 이르노니, 너희가 즐거움을 찾고 과학을 갈망한다면, 너희는 내 안에서 참된 과학과 참된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34. 너희의 행성은 얼마나 작은가, 그런데도 너희는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가! 너희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불화가 있는가!

35. 인간은 더 이상 무지하지 않으며, 그의 영적·지적 발전은 대단하다. 그러므로 이 시련의 순간에 그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 이 시대의 인간은 어쩌면 내 법과 내 공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 안에 빛의 영혼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법을 어기는) 이유는 영혼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굴복하여, 자신의 영적 은사를 그것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그것들 앞에 고개를 숙이기 때문이다.

36. 인류여,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가 내려와 이 형상으로 육화하였다. 나의 영은 심연으로 내려가고, 나의 도움의 손은 길을 잃은 양을 구원하기 위해 뻗어 나간다. 나는 너희에게 입술이 아니라 영혼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간구해야 할 것은 육체가 아니라, 둘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영혼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형제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었다.

37. 영혼의 언어는 너희의 언어와 사고를 초월한다. 육신이 어떻게 영혼이 느끼는 바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표현 방식은 언제나 빈약할 것이며, 기도 속의 이러한 발화는 불완전할 것이다. 너희 눈에서 흘러내리는, 종종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한 방울의 눈물이 아버지께 더 잘 말할 것이다. 가슴속에서 억눌리는 흐느낌, 너희가 침묵하며 내 앞에 가져오고 인내로 견뎌내는 고통,

혹은 꽃에서 향기가 피어오르듯 그 영적 내용이 내게로 올라가는 너희의 선행들 말이다.

38. 나는 내 가르침이라는 사실로 너희 가운데 내 임재를 증명한다. 누군가는 말할지 모른다. "스승님, 당신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는 어렵고,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물질주의적인 시대에는 부적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2의 시대'에도 내 말씀에 대해 똑같은 말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우상 숭배자들이야말로 가장 빨리 그분께로 돌아온 자들이었다.

39. 내가 너희에게 이 큰 고통의 시기를 예고했던 것처럼, 혼란이 지나가면 사람들 사이에 조화가 찾아올 것임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40. 교만한 자들, 자만하는 자들, 이웃 사랑과 정의가 없는 자들은, 선과 평화와 정의가 지상에서 발전하고 그 가운데서 영성과 올바른 학문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내세에서 한동안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신비로운* 삶을 살 필요는 없으며, 또한 아무도 나를 따르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제로 내게 바치는 행위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선한 의지에서 우러나온 헌물, 진실한 충동, 자발적인 사랑만이 내게 닿을 것이다. 또한 나는 너희가 벌을 두려워하여 나를 섬기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이다. 그러니 (나에 대한) 너희의 잘못된 판단으로 더 이상 나를 상처 입히지 말라.

**영적인 것에 온전히 몰입하여 세상에서 물러나 있는.*

41. 결코 이기심이 너희를 이끌게 해서는 안 되며, 미리 보상을 생각하며 무언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는 사랑도 자비도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 영혼은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세상에서 사랑을 거두기를 기대하지 말라. 너희는 사랑을 *거두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을 *뿌리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 수확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42. 이 생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한 이들은 마음속에 평화를 품고,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만족과 겸손으로 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들이 뿌린 사랑을 위해 겪은 모든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이를 축복했다. 나는 너희 행위에 대한 완전하고 의로운 보상이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형제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내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음을 잊지 말라.

43. 짧은 회개의 행위와 영적 고양을 위해 내 신성한 광선이 이 몸들(음성을 전달하는 자들) 위에 내려와, 너희를 감동시키고 그 사랑으로 떨게 하는 나의 신성한 가르침을 담은 말씀을 그들의 입술에 얹어 준다면 – 너희가 영혼에 공로를 가득 안고 저 다른 세상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

4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왕권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다, 내 자녀들아, 구하는 법을 알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언젠가 내 왕권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내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한다.

45. 세상에서 학식이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의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에 놀라지 말라. 내가 오래전에 너희에게 "아버지여,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당신의 진리를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시고, 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나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는 내가 내 진리를 누군가에게 숨기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무거운 짐 없이 자유로운 이들은 자신의 (영적) 빈곤이나 무의미함 속에서 나를 더 잘 느낄 수 있는 반면, 이론과 철학, 교리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재능 있는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이를 위한 진리는 정해진 때에 각자에게 다가올 것이다.

46. 많은 이들이 와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고, 이 말씀 속에 쏟아지는 것이 나의 신성한 본성이 아니라고. 그러면 너희 중 몇몇은 의심을 품고 슬픔에 잠겨 내게 말하리라. "스승님, 어떻게 *제가* 믿음을 잃고 (이제) 법도 없이, 신도 없이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느끼고 체험한 자는 더 이상 나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47. 사상과 어둠의 세력들이 일으킨 폭풍이 오랫동안 사람들을 갈라놓았다. 빛의 폭풍이 이 시대에 그들을 하나로 모을 것이다. 사람들이 세운 바벨탑은 무너졌으나, 민족과 인종의 마음속에서는 그 오만의 탑이 계속 자라났다. 오직 영적인 폭풍만이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 폭풍우가 이제 그 기초와 성벽을 흔들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 탑이 무너진다면, 그 자리에 또 다른 탑이 세워질 것이니, 그것은 무너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견고한 기초는 불화가 아니라 형제애와 조화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48.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마음속에 나를 받아들여, 이 시대에 내가 너희에게 계시하는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너희를 영생으로 인도할 새 언약이다. 이 말씀의 높은 가치를 깨닫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그는 저 세상에서 그곳에 존재하는 높은 가치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믿기 위해 증거를 요구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고대의 이방 민족들을 흉내 내게 될 것이니, 지금은 다른 시대이다. 너희의 물질주의와 의심을 너무 심화시켜, '첫 번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의 예언자들을 부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지 마라. 너희는 발전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다시 육신으로 태어났지, 같은 교훈에 머물러 있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만일 나의 새로운 가르침이 더 심오하다면 —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그것을 설명해 주리라.

49. 너희는 모두 같은 가르침을 받지만, 환생의 횟수는 모두 같지 않다. 너희는 제3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이들은 자신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한다.

50. 지금은 빛과 영의 시대이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나의 공의에 대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반면, 다른 이들은 잘못되고 근거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나는 제자들에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행동하고, 세우고, 파괴하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깊은 고통 속에서 내게 "주님, 어찌하여 저를 징벌하십니까?"라고 말할 때,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얼마나 불공평한가! — 나는 내 자녀들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지 않으며,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지도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에게 관을 씌우며, 스스로에게 고난을 쏟아붓는다.

51. 의로우신 예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씌운 면류관과 너희가 그분께 지운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 그분의 희생과 피만이 그분의 모범을 통해 너희가 죄에서 정결해지기 위해 올라가야 할 길을 제시할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52. 나는 너희의 심판자이지만, 내 심판은 돌이킬 수 없고 무자비하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 나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노라. 그러나 누가 산 자이고 누가 죽은 자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진리를 위해 죽었던 자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깨우노라. 나는 왕으로 오나, 허영의 왕관은 쓰지 않으니, 나의 왕국은 겸손의 왕국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에게 나는 죽은 자로서 부활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나는 영으로 인류에게 와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다시금 말하기 위함이며, 너희의 왕이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영혼을 고양시켜 그분께 나아가야 함을 알리기 위함이다.

53. 지상에 머무는 동안 유혹에 굴복하여 세상과 자신의 정욕의 노예가 된 자, 그에게는 힘도 없고 영혼의 성장도 없는 죽음이 닥칠 것이니, 이는 마치 그가 죽음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

54. 세상에서는 악을 위해 왕좌를 세우고 온갖 형태로 숭배한다. 선(善)은 마치 해롭거나 무익한 것처럼 조롱받고 대적받는다. 그러나 내가 무한한 곳에서 너희에게 소리쳐, 선의 길로 내게로 오라고 부를 때, 그것이 바로 내게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너희의 창조주이며, 너희가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찾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내가 모두를 위해 준비해 둔 행복을 그 누구도 잃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도둑처럼 나는 너희를 놀라게 하러 왔으나, 내가 찾던 것은 너희의 영혼이었다. 너희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에, 나는 나의 심판으로 그 무게를 더 늘릴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그것을 지는 것을 돕는다.

55.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고 있기에, *아직* 너희에게 완전한 행실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내 말씀의 권능으로 너희 마음에서 미덕이 싹트게 하리라는 것을 너희에게 확신시켜 주노라. 너희 영 안에 있는 은사들, 즉 인류가 오직 의인과 다른 시대의 예언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믿던 것들이, 이제는 큰 죄인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 은사들을 통해 인류는 구원받을 것이다.

56. 나는 너희의 사랑을 갈망하고, 너희의 평화를 갈망한다. 그러나 너희도 배고프고 목마르다면 — 그때 너희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의 영적 사명은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깨어 기도하여,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은사가 현실이 되도록 하라. 매일 잠시 기도하고, 남은 시간은 너희의 영적·물질적 의무를 다하는 데 쓰라.

57. 사람들에게 내가 죄인들의 길을 밝혀 주어 그들이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고 말하라. 나는 길을 잃은 자들을 찾아 오니, 의인들은 이미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58. 내가 너희에게 온유함과 동시에 확고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리라. 이 시대에 나의 계시가 시작되었을 때, 너희가 누리게 될 모든 영적 은총에 대해 누가 너희에게 말해 줄 수 있었겠느냐?

59. 너희는 과거의 예언들을 연구하여 내 새로운 계시가 예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너희의 하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계시를 받았을 때, 어떤 이들은 의문을 품었다. '마리아의 현현 또한 예고되었어야 하는가?'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사도 요한( )의 예언을 올바르게 해석했다면, *그의* "현현" 또한 이 시대에 있어야만 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60. 이 백성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성경을 연구조차 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영의 감화와 마음의 믿음이 내면 깊은 곳에서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신성한 스승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 어머니이시다.'

61.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영이 드러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리아의 모성적인 다정함과 자비가 함께할 것이다.

62. 왜 많은 이들이 그녀를 오해하였는가? 생각해 보라. 만일 그녀가 단지 한 여인으로만 살았고, '말씀'이 현현하신 그 육신을 세상에 낳는 데 그 사명이 국한되었다면, 나는 십자가 아래에서 그녀를 너희의 어머니로 직접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며, 스승이 떠나신 후 제자들도 그녀를 자신들의 어머니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인류의 일부는 그녀의 순결과 신성을 부정하고, 또 다른 일부는 그녀를 보편적 어머니로 인정하며 광신적이고 무지하며 우상 숭배적인 의식으로 숭배하는 이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나의 빛을 보내고 그녀의 현존을 허락하노니, 너희가 그녀의 말씀을 통해, 그 모성적 본성이 무한한 다정함, 그리고 신성한 위로를 전하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아가, 너희 마음속에 성소를 품게 하려 함이니, 그곳에서 너희가 하늘의 어머니께 바치는 가장 다정한 헌물이 되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마땅히 삼위일체-마리아 영성주의자라는 이름을 지니게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침 51

1. 제자들아, 오늘 너희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과 다정함으로 나를 맞이하는가! 그 이유는, 앞서 너희의 영적 어머니께서 너희 가운데 계셔서 그 신성한 존재로 너희를 감싸 안으셨기 때문이다.

2. 너희 영혼이 한때 자신을 가두고 있는 물질 밖에서 평화의 영역에 살게 되고, 하늘의 어머니의 음성을 마치 신성한 노래처럼 영원히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라.

3. 너희 영적 어머니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너희가 형제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가꾸도록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씨앗이다. 나의 자비로 이마에 표식을 받은 모든 이들은 앞장서서 길을 밝힐 것이다.

오래전, 나는 바로 이 영혼들에게 언약과 정화의 상징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집 문을 표시하라고 명했다. 오직 나만이 내가 왜 너희를 모든 시대에 걸쳐 표식했는지 알고 있으며, 오직 나만이 너희의 운명과 속죄의 길을 알고 있기에, 너희가 악을 멀리할 수 있도록 나의 공의가 끊임없이 너희를 찾아오는 것이다.

4. 이 시대에 내 목소리가 울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을 때, 너희는 즉시 *누가* 부르시는지 알아차리고, 나를 듣고 나중에 나를 따를 수 있도록 길을 떠났다. — 너희 중 누구도 내게서 받은 은사나 부여받은 존엄 때문에 자신을 왕이나 주인이라 여기지 말라. 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겸손하면서도 가장 열심 있는 자들이 되라.

5. 지금은 너희가 영적으로 활동해야 할 때이며, 발전의 길에서 쌓아온 경험이 너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지상에 있을 때는 언제나 안락함과 즐거움을 추구했고, 저 세상에서 살 때는 관조적인 삶에 머물렀다. 이제야 비로소 너희는 존재의 목적과 영적 사명의 진정한 본질을 서서히 깨닫고 있다.

6. 사람들은 매일 도덕적 타락을 위한 새로운 밭고랑을 파고 있으며, 바로 그곳에 너희는 이 씨앗을 뿌려야 한다, 예수님의 일꾼들이여. 그래야 너희 선행의 모범이 내 가르침의 진리를 증언하고, 너희 이웃들을 그들의 "물질주의"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너희의 삶이 언제나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죽음이 영원의 문을 열 때, 너희 형제들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보라, 저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그리고 너희가 내 면전에 올 때, 아버지가 너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다. "오라, 너희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리라!"

7. "제3의 시대"의 영적 목자인 엘리야는, 주님의 양 우리에 속한 양들로서 영혼들이 맡겨진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바로 내가 나의 신성의 표징으로 표기할 백사십사천 명을 모을 것이며, 그들이 표기된 후에야 비로소 나의 심판이 땅에 내릴 것이다. 오늘

엘리야는 시험의 때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모든 영혼 속에 빛을 밝혀 주고 있다.

8. 백성아, 나의 빛줄기는 나의 대변자들을 통해 말씀이 되어 너희에게 나의 가르침을 설명해 준다. 이 말씀은 너희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너희에게 행복으로 이끄는 길을 제시하고 너희 십자가의 짐을 가볍게 해 주었다. 내 말씀으로 힘을 얻어, 너희의 시련을 용감하게 견뎌내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라. 사람들의 험담하는 혀를 두려워하지 말라 — 너희가 큰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9. 인류가 다시금 나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것이 필요하며, 사람들이 나의 일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그들은 진리와 의로운 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오직 그렇게 해야만 그들은 나의 임재를 찾고 나의 지혜와 사랑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10. 이 싸움에서 너희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 율법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율법은 곧 나이며, 너희는 그저 그 해석자일 뿐이다.

11. 누구도 파괴할 수 있는 웅장한 성전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라. 너희는 소박한 방에서든, 계곡에서든, 산 위에서든 모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자녀들이 모여 나를 부르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뜻으로 정해진 그 날까지 끊임없이 너희에게 전해질 이 말씀을 막을 인간의 힘은 없을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 때 이전에 내 제자들의 입을 막거나 그들을 죽인다면, 그들의 죽은 시체가 소리칠 것이다!

12. 내가 내 말씀으로 너희에게 준 예언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속이지 않았고, 빵 대신 돌을 주거나 물고기 대신 뱀을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3. "두 번째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내가 왔던 곳,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야 할 그 나라에 대해서만 알려 주었다. 이제 나는 이 신성한 아버지의 집이 지닌 수많은 아름다움을 너희에게 드러내려고 온다. 이 새로운 삶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평화의 왕국의 시작이다.

14. "첫 번째 시대"부터 나의 발자취는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 길을 걸어가라. 너희의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십자가 없이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5. 사람들이 파괴한 것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16. 여섯 번째 봉인, 곧 너희의 운명이 기록된 그 책의 빛과 영적 의미를 깊이 깨달아라.

17. 나는 너희에게 위로의 가르침을 주는 말씀도 주고, 교훈을 주는 말씀도 주며, 또 경계를 일깨우는 말씀도 주고, 너희의 여행 가방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무장시키는 말씀도 준다.

18. 내 예언자들의 예언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이미 성취되고 있는가! 요엘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라"고 말하였다. 사도 요한은 그의 예언적 환상 속에서 이 시대를 보았으며, 내 말씀은 영원토록 계속해서 성취될 것이다.

19. 신성한 말씀이 이 백성의 마음에 메아리치고 있다. 너희는 거처를 마련하였고, 여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참된 생명의 책이 너희 앞에 펼쳐져 있으며, 너희가 그것을 연구할 때마다 새로운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무관심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자들은 1950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내 울림 큰 종소리가 나의 작별을 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나를 듣기 위해 나서려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알려 준 그 해가 지나면, 나와 내 영적 세계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20. 나는 너희를 해방시켰으며, 나의 피는 내가 너희에게 품은 사랑의 상징이었다. 나는 너희가 죄와 어둠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21. 전 세계적인 재앙이 다가오고 있으니, 내 백성이 준비되어 폭풍우 한가운데서 난파당한 자들의 길을 비추는 희망의 등대가 되기를 원한다. 진실로, 진실로, 지구의 4분의 3이 재앙을 당할 것이며, 고통이 그들을 정화할 것이다. 내 말을 들으라, 백성아. 네가 이 말씀을 모든 이웃에게 전해야 하리라.

22. 너희는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기심을 죽이고, 이웃 사랑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설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 위선의 가면을 얼굴에 씌우기 전에,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시험하여, 너희 마음속에 진실함이 싹트게 할 때까지 계속하리라.

23. 내가 떠나는 날이 올 것이며, 준비할 줄 알았던 자들은 영적으로 주님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순종하는 자들, 곧 금단의 경계를 넘어선 자들의 수는 많을 것이다. 그들은 비록 내게 자주 귀를 기울였으나, 그 가르침을 활용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며, 그들의 무지함으로 인해 아버지께 잠시만 더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할 것이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여러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은 왕의 말씀이며 결코 철회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사라지거나 왕의 별이 빛을 잃기 전에는, 내 말 중 단 한 마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계시의 첫날부터 이 현현의 끝까지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 내 뜻이었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이를 알고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24.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나의 임박한 도래를 알렸으며, 또한 로케 로하스의 입을 통해 1950년을 나의 작별의 해, 즉 인간의 지성을 통한 계시의 시기가 끝나는 해로 지목했다.

25.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가르침은 훨씬 앞서가고 있으며, 너희는 뒤처지고 있는 중이다. 심판의 날에 약해지지 않으려면, 서둘러 내 가르침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는 영과 영 사이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다음 시대로 들어갈 만큼 충분히 강해질 것이다.

26. 나는 너희가 형제들의 가까움을 느끼고 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적 세계의 존재를 너희에게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너희에게 영성을 전하기 위해 왔다. 그런데 왜 너희는 매 순간 그들을 물질적인 세계로 끌어내리려 했는가?* 비록 너희가 성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 이는 그들을 물질적, 금전적 또는 사업적인 일들로 부담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27. 이 영적 존재들은 나의 신성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나니, *너희는 그들이* 깨우려 하는 죽은 자들이다. 나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준비하라!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 만일 너희가 위험과 함정이 도사리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는 눈앞에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엘리야들, 그리고 거짓 "빛의 영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8. 세상이나 사람들, 혹은 고통이 너희의 잘못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임을 의미한다. 순종과 복종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나 내 사도들 가운데에는 언제나 배신적이고 이기적이며 거짓된 제자가 있을 것이니, 그가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다시 희생의 죽음으로 넘겨줄 것이다 — 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거나 내 얼굴에 침을 뱉게 하려면 내가 육신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더라도 말이다.

29. 나는 너희 모두가 순종하기를 원하며, 이 엄한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는 자를 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 동료들이 나에 대해 묻거든, 너희는 숨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게 나를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시험의 순간에 아무도 나에게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하며, 아무도 자신의 유산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30. 나의 가르침은 매번의 설교에서 상세히 이루어진다. 이는 내가 너희 마음속에 내가 거하는 영적인 성소를 세우고, 너희 형제들을 위한 평화의 장소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31. 나의 말씀이 목소리의 매개자를 통해
너희 영혼을 어루만지는 이 시간을 활용하라. 마음을 열고 그 안에 이 책을 간직하라,
그 순간이 올 것이니, 너희가 깊은
무감각에서 깨어나 빛을 찾아 그분께로 향하게 될 순간이 올 것이니.

32. 나는 사랑의 십자가 위에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내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피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광선으로 터져 나오는 빛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씀의 은사와 영감의 빛을 주었다. 인류가 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일곱 봉인의 신비를 설명하는 말이 *너희* 입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사람들의 눈에서 어두운 장막을 걷어낼 것이다. 모든 잡초는 뽑혀 나갈 것이며, 그 자리에 좋은 씨앗이 뿌려질 것이다.

33. 너희는 피와 악행과 죄의 흔적을 밟으며, 그 흔적을 남긴 자들을 저주하지만, 그 흔적이 바로 너희가 전생에 남긴 것이 아닐지 모른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너희가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내 정의가 아무리 가혹하고 무자비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오직 사랑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에 나는 나의 대변자들을 통해 지혜의 보물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1950년 내가 떠난 후, 나의 나이팅게일들이 이 신성한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너희는 이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34. 나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며, 나의 뜻은 하나뿐이다. 그 때가 오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의 계명과 결단의 순서를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1950년이 아직 멀었고 자유 의지를 누릴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며, 나중에 회개하고 나의 법을 이행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자는 얼마나 비참하고 무지한가! 누가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갈 날들을 알겠는가? 누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연장할 수 있는 주인인가?

35. 누구도 자신의 육신이 사라질 때 영혼이 비참한 잔해가 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 영이 빛의 강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영혼을 문에서 문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빛의 자선을 구걸하는 고통받는 그림자로 만들지 말라.

36. 들어라, 새로 온 자들아: 스승은 이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될 때,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맡긴 새로운 세대인 너희 자녀들의 영적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영성과 도덕성을 가르쳐야 하며, 그러면 너희의 씨앗은 나의 곡창에 받아들여질 것이다.

37. "제2의 시대"의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내 행보마다 내 길을 가로막았으니, 내 업적에 흠을, 내 말에 거짓을 찾아내기를 바랐으나 결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38. 오늘날 너희는 예수님처럼 심문받게 될 것이나, 너희는 스승의 힘과 지혜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적어도 너희가 올바른 길 위에 서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 온 모든 것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시간을 고려할 때, 너희의 기도는 거의 영적인 경지에 이르러야 마땅하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 세상을 이기지 못했고, 영혼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였다.

39. "제2의 시대"에 나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찾았고, 나를 따를 자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에게 "오라!"고 말하니 그들은 나를 따랐다. 그들은 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다.

내 말씀을 믿은 군중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를 듣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재물을 궁핍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나는 내 왕국으로 이끄는 길을 가르치노라." 후에 사랑과 진리의 사도들이 된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 가 설교하신 바를 통해 당시 민족들의 영적·도덕적 토대를 뒤흔들 줄 알았다. 그들은 사랑과 피로 아버지께 대한 헌신의 업적을 확고히 했다. 나를 듣던 그 무리들 가운데서, 그리고 훗날 내 제자들의 말을 듣게 된 그 민족들 가운데서, 내 가르침에 충실한 자들, 곧 순교자들이 나왔다.

40. 오늘 나는 너희의 목숨이나 피를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다른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사랑과 자기 부인과 믿음으로 행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너희도 할 수는 없겠느냐?

41. 어떤 이들은 내게 말하길 "아버지, 저는 당신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대답하노라. "아니라, 내 아들아,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네 목숨을 바치지 마라. 차라리 네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것을 보존하라. 그리고 네 사명을 완수했을 때, 겸손히 그것을 내게 맡겨라."

42. 오늘 너희는 말한다. "주님, 우리는 빵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주십시오."

43. 너희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너희는 나를 기억한다. 너희는 '강한 백성'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떠올리며 그분께 힘을 구한다.

44. 너희는 나를 찾고 따를 만큼 강했으며, 사람들이 (참된) 길의 빛과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 '제2의 시대'에 대한 나의 예언, 그리고 나의 사도 요한의 계시를 숨기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직감이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었다.

45.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우상 숭배와 광신주의에서 벗어나 너희 영혼의 믿음을 수호하는 법을 깨달았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셨고, 현재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부르심에 응했으며, 그분이 나타나신 방식의 소박함과 장소의 겸손함,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이들의 검소함을 통해 그분이 바로 스승이심을 알아보았다. 만약 그분이 인간의 궁전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했다면, 너희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갈릴리의 랍비의 겸손함에 대한 기억이 아직 너희 영혼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이 다시 한 번 인간으로 육신화하셨다 해도 너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이 영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너희는 이 빛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느꼈으니, 이는 내가 같은 모습으로 두 번 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떠드는 말과 형성하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어리석음을 품고 있음을 명심하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 믿음의 빛을 꺼버리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하라.

46. 나는 너희가 참된 생명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도록 이 비밀을 너희에게 계시한다. 이 시대에는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 비밀은 양심에 이끌리는 데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47.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에게는 지도자가 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너희는 어디로 이끌려 갔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모두 내게 "고통과 심연, 그리고 파멸로 이끌려 갔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48. 나는 너희가 지상에서 순결하게 살도록 가르침으로써, 너희의 영적 예배가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순수해지도록, 나에게로 이끄는 길이 어떠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나는 너희가 (진정한) 사람이 되어, "황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한 너희의 신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법을 아는 영적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49. 인간의 삶에는 그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너희가 지켜야 할 법칙들이 있다. 자연은 너희에게 그 대가를 요구한다. 각 법칙에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이행하라. 그러나 세상이 받아야 할 대가를 나에게 바치고, 나에게 바쳐야 할 제물을 세상에 바치는 실수를 결코 저지르지 말라. 깨달아라. 영적인 법칙과 물질적인 법칙,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키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며 내게로 나아갈 것이다.

50. 그러므로 나의 가르침은 영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삶과 인간이 지녀야 할 도덕에도 관련된다. 너희가 이 가르침에 깊이 몰입하면, 삶은 하나이며 그 길 또한 하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족에게 존엄을 부여해야 한다고,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고,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남자는 여자를 하녀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동반자로 보아야 한다고, 여자는 남자를 자신의 보호자이자 방패로 여겨야 한다고, 부모는 세상에 선의 길로 인도할 건강한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51.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황제"(즉 국가)가 너희에게 노동의 대가를 요구할 때, 이를 따르라. 이는 또한 인간에게 부과된 법이기 때문이다. 노동 도구를 들고 땅에서 그 보물과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52. 인간 삶 안에서 너희의 발전을 추구하되, 결코 과도한 야망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자유를 잃게 될 것이며, 물질주의가 너희를 노예로 만들 것이다.

53. 너희의 모든 행위에 양심이 지시하는 바를 담아, 그 안에 정의가 깃들게 하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호소에 따르며, 모든 이의 복지를 위해 그들과 협력하라. 동료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고, 그들의 교회에 들어갈 때는 진실한 경건함으로 머리를 숙여라. 모든 예배 속에 내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 나를 따르기 위해 세상을 등지지 말고, 세상에 의무가 있다는 핑계로 나와 분리되지도 말라. 두 법칙을 하나로 융합하는 법을 배우라.

54. 나는 너희 영혼을 쓸모없는 것과 거짓된 것에서만 해방시켜, 세상의 힘든 시련 속에서 어떤 비참함이나 속박, 모욕 위에도 솟아오를 수 있게 하노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땅에는 너희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노라.

55. 나는 내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이 내린 잘못된 해석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오늘 나는 나를 드러내는 이 사람들을 통해 이를 행하고 있다. 그들은 의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가 선택한 자들이다.

56. 그들은 알고 있다. 그들의 준비와 순결이 클수록, 그들의 마음에 닿는 영감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과거에 죄를 지었으나 오늘날 내 말씀을 선포할 자격을 얻기 위해 애쓰는 이 내 자녀들이 새롭게 되고 개선되는 이유이다.

57. 너희가 완전함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목소리의 전달자들 속에서 찾지 못할 것이다. 내 말씀의 영적 의미 속에서 그것을 구하라. 거기서 너희는 나의 임재를 발견할 것이다.

58. 백성아, 자비를 그 모든 다양한 형태로 실천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나 칭찬이나 찬사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의 행실을 드러내지 말라. 그러한 보상은 미미할 뿐이며,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해 둔 큰 상을 잃게 될 것이니라.

59. 나는 너희에게 영혼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서 태어날 새로운 세대가 건강하고 그들의 영혼이 어려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육신을 강건하게 하라고 말한다.

60. 기도하라. 그러나 너희의 기도는 짧아야 한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율법을 실천하는 데 쓸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기도는 단 5분뿐이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너희는 내게 온전히 맡겨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너희 영 안에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모두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 내 예리한 시선은 너희가 종종 스스로조차 들어갈 수 없는 너희 마음속 깊이까지 파고들어, 너희가 그 안에 숨겨 둔 모든 것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61. 지금은 인류에 대한 심판의 때이다. 사람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내 신성하심으로 심판받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였고, 또 그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영으로 임하여 인간의 이성 기관에 내 광선을 내리셨고, 이를 통해 너희에게 누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지, 너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의 사명이 무엇인지 계시하였느니라.

62. 나는 나의 세 유언의 내용을 이 백성의 마음에 심어 두었으나, 너희는 진리와 율법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서로를 오해하고 있다. 이는 열국 위에 드리워진 전쟁의 영향이 너희에게도 미쳤기 때문이다.

63.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다. 그분은 너희가 시나이 산에서 그분의 능력을 보시고 율법을 계시하셨을 때 여호와라고 불렀던 분이시며, 그분 안에 내 말씀이 있었기에 너희가 예수라고 불렀던 분이시며, 내가 진리의 영이시기에 오늘날 너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분이시다.

64. 오직 한 분만이 존재하시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세 분의 신을 보게 되었느냐? 너희는 모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 땅에서 형제자매로서 서로 사랑해야 함을 깨닫지 못하는가? 너희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피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을 뒤덮은 고통이 너희 마음을 뒤흔들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기도하라.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전쟁이나 굶주림, 전염병 혹은 알 수 없는 질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이러한 재앙에서 자유로운 것은, 너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게 하려는 것이다. 기도의 힘을 의심하지 말라. 기도는 영의 가장 큰 무기이니라.

65. 인간의 어리석은 손이 인류에게 닥친 정화의 힘과 원소들을 막아두었던 문들을 열어 버렸다.

66. 지상의 모든 민족들아, 너희는 매우 쓰라린 잔을 마시고 있으며, 너희가 그렇게 원했기에 그 고통을 마음 깊은 곳까지 느끼고 있다. 인내하며 마시라. 그래야 너희가 참된 길 을 찾아 나서, 너희가 스스로 파괴하고 다시 세워야 할 성전의 폐허에 도달할 때, 이 경험에서 너희 영혼을 위한 빛과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리하여 그 안에서 내 목소리가 너희에게 말하게 하고, 너희가 다시 내 율법을 갖게 하리라.

67.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라, 백성아. 전쟁이 너희 나라를 노리고 있으니. 너희의 영적 사명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굶주림과 질병, 죽음이 너희 가운데 들어오게 두지 말라. 만일 너희 믿음에 힘이 부족하다면, 너희 동료들이 서로를 죽이고 너희 자녀들이 굶주리는 것을 목격할 때, 절망에 빠져 머리를 쥐어뜯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마시는 물은 쓰게 될 것이며, 너희의 산과 골짜기는 말라버리고,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그 풍요와 풍족함으로 인해 많은 이가 약속의 땅으로 여기는 이 땅은, 자유나 빵을 찾아 다가오는 이방인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68.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계시와 자비로 가득 찬 나의 감춰진 지혜의 보물은 인류가 아버지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순수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일 그 순간만을 기다리며, 내가 그들을 위해 준비해 둔 모든 것으로 그들을 풍성히 채워 주려 하고 있으나, 너희는 끊임없이 나의 공의를 도전해 왔고, 이 시기에 나는 너희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나는 전쟁을 치르러 오나니, 나의 권능은 크고, 나의 군대는 많으며, 나의 무기는 무적이다. 결국 내가 승리하리라. 그러나 나는 죽은 자들 앞에서가 아니라, 산 자들 앞에서 승리하리라. 나는 아무도 낮추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이가 고개를 들어 내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백성인 너희 가운데서, '일꾼'과 '일꾼' 사이,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화합과 자비, 존중과 사랑을 보고자 한다.

69. 내가 너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와 광신, 그리고 너희의 습관과 신앙 생활 속에 존재하는 모든 무익하고 악한 것들을 제거하게 하려 함이다. 인류에게 내려오는 신성한 말씀을 느끼되, 나의 심판 한가운데서도 나의 평화를 느끼라.

70. 오, 눈물과 피의 골짜기여!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기 위해 왕좌를 세우고, 그 후 자신의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도다! 나는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노라. 그들은 스스로를 묶고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은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므로, 매 순간 그들을 밀어내고 있도다.

71. 희생적이고 인내심 깊은 어머니처럼 사람들을 품어 주었던 이 땅은, 이제부터 그들의 발걸음마다 그들에게 길을 안내할 것이니, 그 길은 이 땅의 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이라. 그곳에는 또 다른 어머니, 곧 하늘의 어머니께서 자녀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계시며, 그들을 영원한 행복의 약속인 그분의 망토로 감싸 안으실 것이다.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침52

1. 나의 신성한 본성에서 양분을 얻고, 나의 율법을 지키는 데 힘쓰라. 그러면 너희는 그 대가로 너희의 행실에서 평화와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너희 형제들의 진정한 중재자가 되어, 너희의 기도와 공로를 통해 그들에게 내 영의 평화를 전하라. 유혹이 가득한 이 시대에 내 은총을 스스로 박탈하지 말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너희의 영을 굳건히 하라.

2. 중보 기도를 드리고, 심지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공로를 쌓아라. 너희의 하늘의 어머니이자 신성한 중재자이신 마리아처럼 행하라. 그분은 그분께 희망을 두는 자를 위해, 또한 그분께 마음을 닫은 자를 위해, 혹은 그분의 순결과 신성한 본성을 부인하는 자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신다.

3. 백성아, 네 임무는 어렵고 네 소명은 고귀하다. 내가 네게 제시한 길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마라. 나는 너희 마음속에 성소를 세웠으니, 그곳에서 믿음의 불꽃이 꺼지거나 너희를 영성화하려는 이상이 죽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너희 성전을

어둠으로 감싸지 말라. 누군가 그 문을 두드릴 때, 그가 찾는 빛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며, 내 목소리의 메아리도 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속에 나의 현존과 나의 말씀을 간직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성소를 파괴하거나 너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물러서게 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4. 내 빛은 모든 이성의 마음속에 비추고, 내 목소리는 모든 양심 속에 울려 퍼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깨닫고자 하지 않는다.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백성'이 준비되어야 하며, 나는 이 백성이 바로 내가 내 신성한 말씀을 듣게 하려고 선택한 이 백성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내 계시를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 증언은 너희가 나에게서 배운 교리를 반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완고한 죄인을 회개시키고, 포기된 병자를 치유하거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어떤 다른 일들을 행함으로써 영적 권능의 증거를 보여야 한다. 기억하라: 만일 너희가 먼저 삶의 갱신과 영성화의 시작을 이루지 못한 채 사역에 나선다면, 사랑과 자비를 설교할 때 너희는 거짓 미덕을 과시하고 타락을 숨겼던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새로운 제자들 가운데 위선자나 거짓된 자를 원치 않는다.

5. 너희가 내 가르침이 땅에서 꽃피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그대로 순수하게 뿌리고, 너희의 선한 행실의 물로 이 신성한 씨앗을 적셔라. 내 보호를 신뢰하며 너희의 길을 가라.

6. 내 신성한 빛에 영감을 받아 너희가 일을 시작한다면, 누가 너희를 막거나 침묵시킬 수 있겠느냐? — 아무도 없다, 내 백성아, 마치 그 당시 아무도 예수를 침묵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그분이 어떤 죄인들 앞에서는 침묵하셨을지라도, 그것은 그분의 *행실로* 말씀의 진리를 증거하셨기에, 너희에게 겸손의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다.

7. 이 목소리들을 통해 내 말씀이 울려 퍼진 지난 세월을 되새겨 보라. 그 누구도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신성한 목소리를 막을 수 없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1950년이 오더라도 그 소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해가 끝나면, 내 가르침을 전하던 내 나비들은 침묵할 것이니, 이는 내 계시의 이 단계에서 내가 그들을 통해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그때면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8. 너희는 행실과 말과 생각으로 내 가르침을 증거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영에서 솟아나게 할 빛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침묵의 시간도 올 것이다. 내가 너희의 입술을 봉하고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올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말이 그때까지 마지막 한 마디까지 다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9. 나는 너희가 서로 다른 예배 장소를 다닌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모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모든 이에게 전해진 가르침은 하나이며, 너희의 이성을 비추는 빛은 누구에게나 똑같기 때문이다.

10. 나는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을 지키도록 수단을 주었으나, 결코 너희가 서로를 해치도록 무기를 준 적은 없다. 나는 이 백성을 이루는 자들이 나의 영적 대의의 전사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결코 그 대의의 적이 되지는 않기를 원한다.

11. 이 시기에 내 마음의 은밀한 방이 열려, 영적으로 가난하고 의를 갈망하며 목마른 자들을 영적 보물의 소유자로 만들었노라. 이 일로 너희는 기쁘지 않은가? 오, 백성아, 너희 마음은 감사함으로 떨리지 않는가? — "예"라고 너희는 내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 '예'가 말이나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너희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 표현되기를 원한다.

12.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잠시 동안 이 땅의 고된 수고에서 쉬어라. 너희는 고통의 짐을 어깨에 지고 오랫동안 걸어왔다. 구원의 물이 솟아나는 은총의 샘으로 와서 그 물을 마시라. 지금은 아직 약하지만, 머지않아 너희는 나의 대의를 위해 싸우고 시련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자들로 거듭날 것이다.

13. 신발 끈을 단단히 매라. 자비와 사랑을 뿌릴 끝없는 기회를 만날 새로운 길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아직 두려워하여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자 하지 않았다. — 너희는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심어 놓으신 것이 너희 이웃의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14. 나는 이 시기에 너희에게 *새로운* 영적 은사나 능력을 주지 않으니, 너희가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게 된 것은 언제나 너희 영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가고, 내가 너희에게 묻노라. 너희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말씀과 나의 새로운 계시를 조롱하고 곳곳에 위조물을 퍼뜨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가?

15. 내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기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방하던 입술은 잠잠해질 것이며, 거역하던 자들은 내 가르침의 해석을 찾기 위해 너희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다가올 것이며, 너희의 행실이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 있다면 그들은 내 진리에 대한 매우 크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 너희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 희망에 차서, 그들의 고통에 대한 위로를 찾으려 하며, 너희에게 그들의 가족을 데려올 것인가.

16. 내 가르침을 순수하게 전하라. 그러면 너희는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 숨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에 너희는 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지하 묘지를 찾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대낮의 빛 속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주변 사람들이 너희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단순히 다른 지방으로 가면 될 것이니, 거기서 너희는 열렬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17. 너희가 전하고자 하는 진리에 대해 가장 먼저 확신해야 할 사람은 바로 너희 자신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믿음을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의심이 너희 영혼에 스며든다면, 그것은 너희의 헌신을 치명타로 몰아넣을 단검과 같을 것이다.

18. 세 시대가 이미 너희를 지나갔다. 너희는 운명의 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서야 함을 깨달아라. 영적 나태함에서 깨어나 확고한 발걸음으로 너희 발전의 길을 나아가라.

19. 주님의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유혹에 놀라게 되는지 나에게 묻지 마라. 바로 그때가 너희가 가장 큰 시련을 받는 때임을 깨달아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늘 말하노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20. 너희 동료들이 와서 너희에게 질문을 할 날이 가까워졌다. 그때 너희는 내가 그토록 큰 사랑으로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을 숨기려 하겠느냐? — 나는 내 가르침 속에서 너희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21. 땅 위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커지고 전쟁 소식이 늘어나기를 기다렸다가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지 마라. 기도하고 매일 자비의 행위를 실천하라. 그래야만 너희는 악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22. 너희 중 누군가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그의 영에게 준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3. 내 말씀의 영적 뜻을 찾아내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이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니라. 신성한 진리를 찾는 자들은 곧 창조주를 늘 따르던 자들이니라. 이들은 이 소박한 계시 안에서 스승의 임재를 발견하리라.

24. 겉으로 보기에 이 시기의 나의 계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소를 세웠다. 내가 이 시기에 선택한 이들 사이에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 내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지닌 그 은사가 마치 그들 자신의 공로로 얻은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 은총은 너무나 커서, 오직 나의 사랑을 통해서만 사람이 이를 받을 수 있었다.

25. 이 임무는 그것을 맡은 이에게 수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십자가의 짐은 무겁다. 왜냐하면 세상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세속적인 의무를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그 목소리의 전달자는 나의 영감이라는 신성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경지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26. 너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토록 큰 사랑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너희의 놀라움은, 너희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을 의식하며, 아버지의 이토록 큰 사랑의 증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너희는 늘 *나 자신을* 너희 자신을 대하듯 판단해 왔기에, 나의 사랑이 너희를 놀라게 해 왔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안에 원한이나 복수심, 이기심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련 속에서 양심의 빛 아래서 너희의 잘못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내면적으로 스스로를 심판할 때, 너희는 내가 내 왕국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내려오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상처 입혔다는 것에 대한 너희의 슬픔이 너희가 정화되도록 돕기 때문이다.

27. 너희의 죄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이 어디든지 너희를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는 모두 나의 자녀들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부모의 사랑 안에서 신성한 사랑의 형상을 보아왔다. 너희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너희는 악한 행실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눈이 마르게 할 수 있으며,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돋게 하고, 고통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향한 축복과 용서만을 품을 것이다. 그러나

지상에서 너희가 가졌던, 온전하지 못한 이 부모들이 너희에게 그토록 크고 순수하며 숭고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었다면 – 그 마음을 지으시고 부모가 되는 임무를 맡기신 분이 너희를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어찌 놀라겠느냐? – 사랑은 최고의 진리이다. 진리를 위하여 나는 사람이 되었고, 진리를 위하여 나는 사람으로서 죽었다.

28. 이 시대에 나는 너희에게 피의 제물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내 이름으로 목숨을 바쳤는데, 잠시 광신에 눈이 멀어 불결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다. 그러한 행위는 참된 씨앗을 싹트게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계속해서 광신을 조장할 뿐이다.

29.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말할 때 너희 자신의 말을 실감해야 하며, 너희가 전하는 가르침을 너희 마음속에서 살아내야 한다. 너희 자신의 삶보다 더 잘 말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30. 내 사랑이 너희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되나, 세상에 살면서 종종 매우 쓰라린 잔을 비워야 할 때를 겪더라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사람은 깊이 추락할 수도 있고, 어둠에 휩싸일 수도 있으며,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자기 내면에서 나를 느끼고, 나를 (더 이상) 멀리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으며, 나를 낯선 이로 여기거나 나의 존재와 사랑, 그리고 나의 공의를 부정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31. 사람이 지상에서 내 왕국의 평화와 유사한 영적 평화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타락을 통해 악덕과 사악함, 양심의 가책으로 가득 찬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

32. 내세에서도 영혼은 그 성향과 타락, 그리고 정욕에 따라 어둠과 타락, 증오와 복수의 세계를 마주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이 단지 세속적인 형상과 이미지를 통해 상상할 뿐인 천국과 지옥은, 실은 영혼의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는 덕과 발전을 통해 완전함의 정점에 이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둠과 악덕, 그리고 망상의 심연에 빠진 것이다.

33. 의로운 영혼에게는 자신이 있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으니, 어디에 있든 그 영혼은 창조주의 평화와 천국을 자기 안에 품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불결하고 혼란스러운 영혼은 아무리 좋은 세상에 있다 해도, 내면에서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지옥을

끊임없이 느끼게 될 것이며, 그 가책은 영혼을 정화시킬 때까지 그 안에서 타오를 것이다.

34. 너희는 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벌하고, 너희의 모욕에 대해 영원히 복수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를 창조했다고 믿느냐?

35. 이러한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36. 어떻게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고통이 어떤 영혼들이 맞이할 결말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영원히 하느님의 자녀일 것이다. 그들이 가르침이 필요하다면 — 여기 스승이 계신다. 그들이 사랑을 필요로 한다면 — 여기 아버지가 계신다. 그들이 용서를 갈망한다면 — 여기 완전한 심판자가 계신다.

37. 나를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자는 내게로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의로움이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정화된 자만이 내게로 올 수 있다.

38. 제자들아, 너희가 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너희 기억 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떠올리며, 평온한 순간에 깊이 음미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 중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만약 너희가 (그 깨달음을) 간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올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겠느냐?

39. 나는 너희 모두를 차별 없이 내 곁으로 불러 내 가르침을 전한다.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나는 너희의 눈물을 닦아 주고,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며, 너희의 영적 굶주림과 갈증을 해소해 준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내 사랑의 증거를 주며, 너희 마음속에 믿음과 희망의 불을 지핀 후,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 모두는 부름받았다. 너희는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속하고자 하는가?"

그러자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어떤 길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 이들은 세상과 그 즐거움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이들은 나에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선택받은 자라 불릴 자격이 없으나, 당신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이들은 이미 위로 향하여 나아갈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40.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나는 세상의 평화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그들이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리라. 각국들은 곧 나에게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올릴 것이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들에게 베풀어 주려 했던 평화이다. 그전에 나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맛보게 하였으니, 그들은 인간의 피가 강처럼 흐르는 것을 보고, 고통의 광경과 시체 더미,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사람들이 가정의 황폐함과 무고한 이들의 절망, 고통에 미쳐 자녀들의 찢겨진 시신을 입맞추는 어머니들을 보게 하고, 모든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통곡을 아주 가까이에서 체험하게 하고 싶었다. 그래야 그들이 오만 속에서 굴욕을 느끼고, 양심이 그들에게 그들의 위대함과 권력, 지혜가 거짓이며, 유일하게 참으로 위대한 것은 신성한 영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해주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그들은 경악할 것이다 — 그들의 눈이 보는 (끔찍한) 광경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양심의 시선과 목소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그들 내면에서 어둠과 양심의 가책이라는 불길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모든 생명과 모든 고통, 심지어 그들 때문에 흘린 마지막 한 방울의 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41. 나는 사람들이 타인의 생명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생명과 육신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영원의 시계가 자신을 소환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영혼으로서 내게 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 아무도 없다! — 너희는 종종 조기 노화로 인해 자신의 삶을 단축시키며, 때로는 너희의 눈물 *한* 방울이나 흰머리 한 올의 가치도 없는 이유로 지쳐버리기 때문이다.

42. 나는 너희의 창조주이신 가장 순수한 사랑에서 솟아나는 무자비하고 완전한 정의이며, 나는 너희에게 오직 세상의 즐거움에서 돌아서서 나의 말씀을 듣기만을 요구한다. 스승은 기꺼이 완전한 가르침의 책을 열어 너희에게 새로운 교훈으로 기쁨을 선사한다. 내 가르침 중 단 하나만으로도 너희를 구원할 수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때 너희 영혼은 깨어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깨달았다.

43. 나는 너희 마음이 지상에서 거두어 들인 헛된 씨앗을 품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은 너희가 사랑의 행실로 맺은 좋은 열매를 간직할 곡식 창고로 변모해야 한다.

44.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큰 죄인들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정욕의 오물 속에 굴렸고, (타인의) 명예를 훔쳤으며, 노인의 흰머리를 모욕했고, 남의 재산을 훔쳤으며,

아이의 순결을 더럽히고 이웃을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죽인 자들입니다.

45. 가정을 더럽히고, 신성한 법이나 인간의 법을 어기며, 마음속의 믿음을 지워버리는 자들이 내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의 섬세한 현을 울리는 나의 말씀을 들을 때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말씀하시는 분은 심판자이시나, 얼마나 자비롭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가르치시며 바로잡아 주시는가." 그 마음들이 그 목소리를 들었던 모임의 장소를 떠날 때, 그들에게는 삶과 그들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단지 물질적인 빛으로 비춰지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의 모든 곳에서 인간에게 말을 거는 신성한 빛으로 넘쳐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정화된 자의 눈앞에는 — 그가 그저 물질과 육체적 쾌락, 혹은 죄악만을 보았던 바로 그곳에 — 경이로운 삶이 펼쳐진다. 그의 영 앞에는 그가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존재가 드러나는데, 그곳은 계시와 약속, 그리고 영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사랑의 기적입니다. 단지 말의 기적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이 겸손하고 무학한 목소리들 보다 더 정교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들 하나하나에 담긴 영적 의미는 오직 신성한 사랑에서만 비롯될 수 있습니다.

46. 내 말씀을 이런 형태로 들은 이는 거의 없으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성소의 고요함 속에서 내 음성을 듣는다. 비록 그들의 이성이 이러한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입술이 영적인 은사를 통해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말이다. 너희가 준비가 되면,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47. 이 "제3의 시대"에 엘리야는 날마다 너희를 위험에서 구해내는 목자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 침실의 아늑한 구석까지 찾아오는 이가 바로 그이며, "사막의 고독" 속에서 너희 곁을 지키고, "긴 여정"을 따라오는 이 또한 그이다. 너희를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하거나 용기를 북돋아 줄 목소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제3시대의 영적 목자 엘리야가 그곳에 있다.

48. 너희가 엘리야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자 한다면, 내가 말하노니 그것은 영적 왕국이다. 너희 중 누가 그곳까지 올라가 그를 볼 수 있겠느냐? — 아직 아무도 없다. — 그러므로 그는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의 마음으로 이끄는 길을 준비하러 온다. 그래야 그 후에 스승이 오셔서 너희의 온 존재를 비추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오직 가장 큰 순결과 완전함으로 나를 찾는

이들에게만 내려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 나는 나를 찾는 모든 이에게 온다.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도, 진리에서 매우 동떨어진 형태나 관념으로 나를 이해하는 자에게도 온다. 각자는 자신의 영적 능력에 따라 나를 찾으며, 나는 그들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품고 있는 믿음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으리라.

49. 나의 뜻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영과 영으로 그들의 주님과 교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사람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참된 성소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50. 이러한 영적 경지에 이르기 위해, 사람들은 종교 간의 거대한 투쟁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그 투쟁은 잠들어 있던 영혼들을 깨워 (그들이) 진리의 빛을 보게 할 것이다.

51. 이제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창조주께 그분을 영접하시는 분과 그분을 섬기는 자 모두에게 합당한 경배와 공경을 드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자연의 다양한 영역을 연구하고 관찰한다면, 그 안에서 본보기로 삼을 만한 무수한 사례와 교훈, 비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로 인해) 낮은 존재들이 너희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자연, 즉 온 생명이 그 저자가 하나님인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 책을 사람들 앞에 펼쳐 놓았으니, 그들이 그 안에서 나의 완전함과 사랑, 그리고 공의를 인식하게 하려 함이다. 말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말이다.

52. 거짓 학문의 책이나, 너희가 살고 있는 물질주의 때문에 대체로 잘못된 너희의 이론 속에서 나를 찾지 말라. 너희는 이미 자유 의지를 온전히 누리며 모든 길을 걸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그 급한 발걸음을 멈추고, 삶 속에서 얻은 경험, 즉 긴 여정 동안 보고, 느끼고, 겪은 모든 것에 대해 잠시 묵상하라고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빛(지식의 빛)을 활용하는 자는 진리의 길을 찾게 될 것이며, 그 길은 그를 자신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길은 곧 나다. 그 길을 아는 자는 나를 아는 것이다. 나는 그 길의 시작이자 끝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53. 나는 단순함의 스승으로, 너희에게 가장 친근한 언어로 좋은 친구처럼 말하여, 너희의 인간적 지식에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비밀들을 밝혀 주고 드러내 주리라.

54. 너희의 영혼이 신성을 묵상하고, 그 영혼을 이끄는 법칙들을 실천함으로써 활력을 되찾을 기회를 주라. 이 삶을 유일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육체적인 노동을 행복을 얻는 유일한 수단으로만 여기지도 말라. 가족에 대한 사랑에만 국한되지 말라. 너희의 영역은 그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이다. 이기심은 하나님의 씨앗이 아니다.

55. 사람들은 이 생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것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면 내 뜻에 반항하며 내가 그들에게 보내는 부르심을 듣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내 왕국의 평화를 외면하고, 세상의 재물을 계속 소유하기 위해 아버지께 지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청한다.

56. 영적인 삶을 예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라. 그리고 너희 발전의 시작 단계에 안주하지 말라. —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이니 — 그 위에는 더 높은 창조의 작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57. 내 뜻에 따라 죽음이 너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거부하려 하지 말고, 또한 과학자에게 내 결정에 저항하여 너희의 생명을 연장하는 기적을 행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말라. 너희는 이 두 가지 실수를 몹시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생에서 준비하라. 그러면 너희는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58. 너희는 너희 중 한 사람이 영적인 골짜기로 떠날 때, 그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깨닫고 평안함을 느끼기보다는 울고 있다. 반면, 새로운 존재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올 때면 여러분은 잔치를 벌이는데, 그 순간 그 영혼이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속죄를 이루기 위해 육신을 입고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마땅합니다.

59. 언제쯤 너희는 낯선 이들에게도 너희 가족에게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을 갖게 될 것인가? — 나는 단 한 번의 결혼을 통해 이 인류의 끝없는 씨앗을 싹트게 하였는데, 인류는 곧 가족, 부족, 민족, 국가로 나뉘었고, 그로 인해 풍습과 언어, 종교의 차이가 생겨났다. 이러한 차이들은 적대감을 낳았고, 서로 사이에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전쟁과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의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혼이 발전하고 너희가 이성을 단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서로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며,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가? 오늘날 너희는 모든 영혼이 나의 신성한 영에서 나왔으며, 인류가 한 쌍의 부부로 부터 비롯되었음을, 그러므로 너희가 영혼으로, 심지어 혈통으로도 형제임을 알고 있다.

60. 너희가 너희 자신의 일부인 이웃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너희는 참된 길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가! 너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를 낯선 사람으로 여겨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 반면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머리를 숙인다. 왜 너희는 살아 있는 이들에게 너희의 관심과 사랑, 자비를 쏟지 않는가?
세상에 존재하는 경계와 차이를 너희의 사랑으로 지워버리는 것이 나의 뜻이었으나,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 경계선을 없애고 사람들을 서로 가깝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피가 되기를 원하느냐? 전쟁이 인종을 융합하기를 원하느냐? 태초부터 나는 나를 알고 사랑할 한 민족을 준비해 두었으니, , 그들이 인류 가운데 횃불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민족은 때로는 강했고, 때로는 약해졌다. 오늘 나는 예언이 성취되게 하려 하여 그들을 땅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 백성은 영적으로 세 가지 성서를 받아들인 바로 그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시대에 내가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나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았기에, 감히 나를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은 '제2의 시대'에 "사기꾼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고, 그 후 쓰라린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들 중 많은 이는 나의 재림을 믿었으나,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도 1950년 내가 떠난 후에는 믿게 될 것이니, 그들은 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내게 말하리라. "주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의심하였으나, 이제 주께서 떠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니, 주님을 믿습니다."
61. 내가 (외부적으로 들리는) 내 말씀을 잠잠하게 하기 전에, 너희가 이방인이라 부르는 자들이 다가올 것이며, 그들은 언어의 차이로 인해 이 말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이 평화로 충만해지고 나의 신성한 본성으로부터 양분을 얻는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느끼게 될 것은 바로 나의 사랑일 것이니, 너희는 이미 사랑이 영혼의 언어임을 알고 있다. 이 (이방인들) 또한 나를 따르기 위해 길을 떠날 것이니, 나의 백성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62. 폭풍우 한가운데서, 나는 이 시기에 너희에게 왔노라. 평화의 무지개는 아직 빛나지 않았고, 올리브 가지를 물고 있는 비둘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 지극한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모든 이가 나를 알아보고 하나가 될 것이다. 오늘 나는 아직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다.

63. "제3의 시대"에 나는 인류가 나를 가두었던 망각의 무덤에서 일어나 그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깨우치려 한다. 나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죽을 수 없다. 심지어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끊는 자조차도, 자신의 양심이 믿음의 부족을 책망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64. 나는 너희가 점차 하나의 가족, 즉 영혼과 육체가 온전한 한 민족을 이루기를 원한다.

65. 언제 너희 가운데 아벨의 영적 고양, 아브라함의 순종, 야곱의 강인함, 욥의 인내, 그리고 요한의 영성이 나타날 것인가? 세상에서 너희의 책임을 깨달아라.

66. 남자들이여, 너희의 피가 결실 있는 씨앗이 되고 내일의 열매가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악덕을 피하라.

67. 여인들아,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니, 너희가 세상에 평화와 선의의 자녀들을 선물하게 하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르노니, 기도하라. 너희의 속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순종하라. 내가 너희를 놀라게 하여, 너희 자궁에서 새로운 생명의 심장 박동을 느끼게 하리라.

68. 오직 완전한 존재들만을 창조하신 너희의 창조주처럼 완전한 자녀들을 낳고,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신성한 계명을 이행하라.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르침53

1. 내가 너희에게 나를 드러낸 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다음 날까지, 즉 그토록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베푼 평화를 이미 잃어버린 것을 왜 내가 발견하는가? 너희 삶의 여정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총을 잃어버리지 말라. 너희는 길에서 마주치는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낙담한 채 다가오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과 용기, 그리고 믿음으로 삶의 발전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내 평화를 주었을 때, 나는 거의 항상 너희를 그렇게 보고 있다.

2. 나는 너희가 위험과 장애물, 함정과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내 의를 위하여 자연의 힘이 풀려날 때조차도 그 힘들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너희가 믿음과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았기에, 그 힘들은 너희를 건드리지 않고 지나갈 것이다.

3. 이 시기에 나는 너희의 영혼을 더러움과 심연에서 들어 올려, 너희가 오직 너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과 너희의 영적 은사도 깨닫게 하리라. 그러나 그 전에 너희는 너희를 정화할 고통의 시련을 겪어야 할 것이다. 내면의 갱신이 없이는 너희의 은사가 온전한 힘으로 빛날 수 없기 때문이다.

4. 인간의 정욕은 너희 내면의 성소를 채찍질하는 폭풍우와 같으니, 기도하는 자만이 시련을 견딜 만큼 강하고, 깨어 있는 자만이 스스로를 지킬 만큼 충분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5. 내가 너희에게 성전과 성소에 대해 말할 때, 내가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물질적으로 세운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성전이 될 것이며, 너희는 그곳에서 나의 사랑을 언제나 현존하는 것으로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6. 인류는 종교를 만들었으니, 그것은 마치 나를 향하는 길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더 이상 각자가 내 법에 부여하는 인간의 해석에 따라 행하지 말라. 이제 너희 모두가 나의 영감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어, 그 빛이 너희를 인도하게 할 때이다.

7. 때때로 너희는 스스로 묻는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이토록 많은데, 왜 이 백성*만이 내가 말한 유일한 대상인가?' — 이에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그 당시에는 오직 *한* 무리의 사람들만이 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을 목격했을 뿐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는 온 인류에게 퍼져 나가 그들에게 속죄의 길을 보여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오늘날 이곳의 공동체들에게 말하겠지만, 내 영의 빛은 온 땅에 쏟아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며, 멕시코에 거주하는 소수의 무리가 이를 대표한다.*

8. 배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나는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영으로 내 면전에 나아올 때, 아무런 결실도 없이 나타나서 육신의 완고함과 반항심 때문에 너희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주님 앞에 설 만한 공로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육체는 그 정욕과 성향, 그리고 약점 속에서 큰 힘을 지니고 있으나, 영혼은 더 높은 힘을 부여받았으며, 그 힘으로 악을 정복할 수 있다.

9. 만일 너희 영혼이 의지도 없고 자기만의 성향도 없는 육체 안에서 활동한다면, 무슨 공로가 있겠느냐? 영혼과 육체의 싸움은 힘 대 힘의 싸움이다. 그곳에서 영혼은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해야 할 시련의 시험대를 마주하게 된다. 이 시험 속에서 영혼은 종종 세상이 육체를 통해 유혹하는 유혹에 잠시 굴복하곤 한다. 육체가 영혼에 미치는 힘은 너무나 거대하여, 결국 너희는 초자연적이고 사악한 힘이 너희를 파멸로 끌고 가며 정욕 속에서 너희를 파멸시킨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

10.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짊어져야 할 책임은 얼마나 큰가! 육신은 이 책임을 떠맡지 않았다. 죽음이 닥치면 육신이 영원히 땅속에 잠드는 것을 보라. 언제쯤 너희는 공덕을 쌓아, 너희

영혼이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완전한 거처를 차지할 자격을 얻게 될 것인가?

11. 세상은 너희에게 허영과 교만, 그리고 거짓된 위대함만을 증명하는 면류관을 내민다. 이러한 허영을 초월하는 법을 아는 영혼에게는 내세에서 또 다른 면류관, 곧 나의 지혜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12. 옛날에 나는 너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골짜기와 산, 바다와 사막을 찾아다녔다. 오늘도 나는 어떤 마음은 그 평온함으로 인해 골짜기와 같고, 또 어떤 마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가실 때 거품을 일으켰던 그 바다처럼 거친 바다와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어떤 이들은 내 말씀을 들을 때 그 고양된 마음으로 산과 같고, 또 어떤 이들은 고독과 (영적) 메마름으로 사막과 같다.

13. 내 말씀을 듣는 너희여, 그것을 사랑하고, 연구하며, 실천하라. 듣고자 하는 소망을 품은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 그 은혜를 받지 못했기에 그것을 들을 수 없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메아리는 모든 이에게 닿을 것이며, 더 큰 순수함으로 닿을 것이니,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4. 오늘 나는 내 말씀의 끌로 너희 마음을 다듬으며, 타인의 고통을 느끼도록 가르친다. 동정심이 없는 자는 내 사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고통받는 이들이 — 헛되이 너희 문을 두드린 뒤 — 울며 나에게 묻기를 원치 않는다. "저들이 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까? *내가* 형제들의 근심을 맡길 수 있는 청지기, 궁핍한 이들의 신뢰받는 자이자 버팀목으로 준비한 자들이입니까?"

깨어 있으라, 오 제자들아, 그리하여 한밤중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조차 너희 문을 두드리는 손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라. 오늘 너희를 찾아오는 이 곤경에 처한 이는, 너희의 도움의 손길에 감동받아 그 역시 나의 일꾼으로 변모하여 내일 너희의 사명을 덜어줄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조금의 사랑과 이해, 혹은 정의를 구하며 찾아오는 이들 중, 내일 너희를 지켜줄 방패가 되거나 너희를 구원할 증인이 될 이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나 온갖 고통 속에서 너희 문에 두드리며 너희의 도움에 희망을 걸었으나,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한 그 사람에게서 너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악덕의 진창에 빠져 있는 자를 너희에게 오게 하라. 너희가 그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안다면, 그는 회개를 느낄 것이다. 누더기 차림의 자가 너희 집과 식탁에 어울린다고 느끼게 하라. 그러나 그의 가난을 보고 혐오감을 느끼지 말라.

어쩌면 그는 너희보다 영혼이 더 순수하고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을지 모르니. 물질적 부를 손에 쥐고 있거나 값비싼 차림새로 나타나는 이들을 위해 너희의 가장 정성스러운 배려와 가장 친절한 미소를 아껴두지 마라. 너희 마음이 이러한 차이에 얽매이지 않게 하고, 너희 선물의 은혜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라. 고통은 넘쳐나는데 — 너희는 매일, 매 순간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 수 있는가!

15. 아이들을 지켜보면, 사랑도, 법도, 빵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 사이로 들어가면, 정욕의 투쟁과 잘못된 길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성숙한 나이에 이른 남녀들 을 둘러보면 그들 가운데 비극과 매우 쓰라린 잔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과부됨, 희망과 믿음의 부재,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지탱해 줄 진정한 영적 격려의 부재와 같은 비극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6. 오직 나의 말씀만이 고통으로 인해 굳어진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수성 있게 만들 수 있다. 너희 중 많은 이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어, 타인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고 그 고통에 무관심해져 버렸다. 나는 너희에게 고통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너희가 이웃에게 가져야 할 자비를 자주 언급한다. 세상에는 인간이 존재하는 만큼이나 많은 고통이 있으며, 오늘날 인류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17. 만약 지상의 강대국들이 고통의 잔을 높이 들어 인류에게 쏟아부음으로써 세상의 '행복'을 위해 건배하는 것을 기뻐한다면, 나는 이 소박한 식탁에서 달콤함과 생명이 가득한 영적인 잔을 너희에게 건네주니, 너희는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죽음을 품고 입술에 쓴맛을 머금은 이들에게 전하라.

18. 이 사랑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폭풍우가 너희 위로 몰아쳐도 흔들리지 말라. 너희 귀는 너희가 파멸의 길에 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나,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내 말을 기억하며 힘을 내라. 내가 이 세상에서 내 고난의 피 묻은 발자취로 너희에게 표시해 둔 길을 걷는 자라면 누구든지 내 망토가 덮어 줄 것이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19. 나는 너희의 얼굴이 너희 영혼의 온유함을 비추기를 원하나, 위선은 아니기를 바란다. 너희 형제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을 강타할 폭풍이 지나간 후, 나를 중심으로 뭉쳐 있는 이들의 수는 적어질 것이니, 많은 이들이 시련 속에서 낙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게 될 이들은 바로 내 사역을 꽃피울 자들이 될 것이다. 그때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맑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말씀으로, 사람들의 악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막혀 있던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너희 영의 눈도 열렸다. 다시 한 번 말하노니, 모든 눈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올바른 회개의 목적은, 너희가 삶 속에서 갱신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위선의 '옷'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선하고 진실하며, 너희의 행실로 내 가르침의 진리를 증거하기를 원한다.

20. 너희는 인간의 책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지혜의 큰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니, 너희의 유일한 교과서는 이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 안에서 너희는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잘못된 해석, 혹은 인간의 이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오직 너희의 발전의 길을 제시해 주는 나의 법만을 갖게 될 것이다.

21. 너희 물질주의의 짙은 장막은 너희를 무지의 늪에 빠뜨렸고, 그로 인해 너희는 신성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느끼게 되었으며, 영혼의 삶을 비추어야 할 빛을 가려버렸다. 이 시기에 내 목소리는 그 장막을 찢고, 내 비밀스러운 심실에서 나온 새로운 가르침을 너희에게 계시함으로써 내 성소를 보여주었다. 나의 영적 계시 앞에서 어떤 이들은 믿음의 등불을 밝혔으나,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미약한 영적 식견이 준 빛 속에서 삶을 계속 바라보기를 선호했다. 언제쯤 너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 모아야 할 모든 (지식)을 깨닫게 될 것인가?

22. 나는 그것이 너희 인간 삶의 유익과 진보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너희가 자연을 탐구하거나 지식을 쌓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영혼을 위한 빛을 얻는 데에도 관심을 갖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가 이곳에서 저 세상으로 가져갈 유일한 것이며, 영적 여정에서 너희의 진보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각자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어, 너희가 생각으로 나에게 무언가 묻기만 하면 즉시 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아무도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서 물러나셨다고 비난할 수 없다. 사랑이 넘치는 목자로서 나는 언제나 내 모든 양들을 지켜보아 왔으며,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건대,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다. 어디에나 내 빛이 있으며, 너희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이 온 창조계 안에서 뛰고 있다.

23. 사람은 내 사랑의 법, 곧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많은 길 잃은 양들을 상향 발전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로 돌아오면, 나는 다른 이들을 이끌어 올 것이며, 결국 그들 모두를 내 사랑의 울타리 안에 모을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24. 오늘 너희는 고통이 영혼과 마음을 정화한다는 것과, 너희가 영혼의 잘못을 씻어내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고통의 잔이 그 내용물을 세상에 쏟아부었으니, 그것은 마치 새로운 대홍수와 같았으나, 더 고통스럽고, 더 쓰라리며, 더 오래 지속되었다. 앞으로 고통이 아니라 양심의 빛이 사람들을 길들이고 제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전히 고통을 재갈로 삼아야 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25. 내 자녀들아, 너희는 (완벽의) 산을 오를 때 등에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너희를 (영적으로) 들어 올릴 그 십자가는 너희의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너희의 희생의 십자가임을 깨달아라. 남자들에게 나는 그들이 사람들의 지도자, 수호자,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성들, 어머니들에게 나는 말한다: 부모도, 집도, 빵도 없는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의 기도는 새끼들을 덮어주기 위해 펼쳐지는 종달새의 날개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 너희 자녀들만을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너희의 모성애를 받고 있으니, 이 땅에서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갈망밖에 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누가 여러분보다 그 연약한 마음들의 차가움과 공허함, 그리고 갈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빵과 거처, 그리고 사랑이 곧 그들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를 베풀기에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26. 너희는 이 땅, 즉 인간이 눈물의 골짜기로 바꿔 놓은 이 행성으로 추방되었다. 비록 이곳은 창조주가 축복으로 가득 채운 아름다운 동산이었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이 시기에 세상에 태어나, 이 슬픔과 고통의 사막을 빛의 낙원으로, 형제애와 평화의 장소로 바꾸어야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곳은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나의 계명을 실천하는 곳이 될 것이다.

27. 내 말을 듣는 이들 중에는, 토마스가 그랬던 것처럼 (손으로) 만져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불신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나는, 언젠가 그들이 나와 영과 영이 하나 되어 연결될 것이라고 말한다. 먼저 그들은 내 말이 영혼을 위한 은총과 생명의 이슬처럼 그 안에 내려오도록, 자신의 그릇을 안팎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28. 병자들은 제2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내 옷자락을 만지고 싶어 하여, 그 믿음이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왜 너희는 순수한 생각과 간절한 기도로 내 신성한 영을 만지지 않는가? 그러면 너희는 너희 영혼과 육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29.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르침이니, 이를 통해 내가 모든 시대에 너희 앞에 펼쳐 놓았던 그 책을 보게 하리라. 이는 내가 오늘 여섯 번째 인을 떼어 너희에게 보여주는 나의 영원한 지혜의 책이며, 내가 준비해 둔 대변자를 통해 이를 전하리라.

30. 너희는 언제나 나의 뜻을 알고 나의 계명을 알기 위해 나의 계시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나는 너희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으니, 사랑으로 나를 찾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눈앞에 보게 되며, 나를 느끼게 되고, 나의 사랑으로 힘을 얻게 되듯이, 나의 자녀들이 사랑과 자비의 행위로 이룬 열매를 내게 보여줄 때, 그들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었음을 볼 때, 나 또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

31. 내가 다시금 너희 앞에 펼쳐 놓은 이 책에는 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으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것은 너희의 행복이 될 것이니, 너희를 상향 발전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32. 너희는 내가 언제나 풍성하게 흘려보낸 나의 영감을 받고자 갈망해 왔으나,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다. 오늘 내가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너희와 소통하고 있는데도, 너희는 여전히 나의 가르침과 너희 가운데 계신 나의 현존을 의심하겠느냐? — 나는 죽은 자나 이성을 갖지 못한 존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양심을 지니고 나를 아는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죽은 자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이미 무덤에서 일어났을 것이며, 내가 돌이나 자연의 요소들에게 말한다면, 그것들은 이미 나를 증언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자녀들의 불신은 나의 가르침을 막지 못할 것이며, 이 책은 계속해서 진리와 은총의 삶, 그리고 내세에 대해 말할 것이다.

33. 내 가르침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내 자녀들아? "빛"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우리는 평화를

찾기를 갈망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준비만 한다면 내 말씀 안에서 너희 영혼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찾을 것이다. 나는 이 나라를 비옥하고 축복받은 밭처럼 준비해 두었으니, 그곳에서 너희는 새로운 시온의 산, 곧 너희를 기다리는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일, 너희가 세상을 거치며 너희의 사명을 다한 뒤에는, 너희는 영적으로 저 세상의 길 위에 서게 될 것이며, 너희 모두는 하나의 ‘계곡’으로 연합되어 나와 함께 하나의 영을 이루게 될 것이다.

34. 너희는 이 시대의 사건들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 왜 엘리야가 이 시대에 왔는지, 그리고 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주는지 말이다. 모든 시대에 엘리야는 내 선구자로서 모든 사람의 영을 준비시키기 위해 왔었다. “첫 번째 시대”에 엘리야는 땅에 내려와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 보았더니, 그들이 이교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을 발견했다. 세상은 왕들과 제사장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었는데, 그들 모두는 신성한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 등을 돌리고 백성들을 혼란과 거짓의 길로 이끌고 있었다. 그들은 여러 신들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있었다. 엘리야는 그 시절에 나타나 의로움으로 가득 찬 말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눈을 뜨고 너희가 주님의 율법을 더럽혔음을 깨달아라. 너희는 그분의 사자들의 본을 잊고, 살아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숭배에 빠져 있다. 너희는 깨어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해야 한다. 너희의 우상 숭배를 없애고, 그분을 형상화한 모든 우상을 향해 눈을 들어라.”

35. 엘리야는 내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백성에게서 물러가라. 네가 내 이름으로 명령할 때까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전하라." — 엘리야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고 내 목소리가 명령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 그날부터 땅은 메말랐고, 비가 내릴 계절이 지나갔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 하늘에는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들판은 가뭄을 겪었으며, 가축들은 하나둘씩 시들어 갔다. 사람들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땅을 파고 물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고, 강은 말라버렸으며, 풀은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시들어 갔다. 사람들은 신들을 부르며, 그들을 먹여 살릴 씨를 뿌리고 수확할 수 있도록 그 물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청했다.

36. 엘리야는 신의 명령에 따라 은둔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들은 물이 부족하지 않을 새로운

땅을 찾아 고향을 떠나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행렬이 보였고, 모든 곳의 땅은 메말라 있었다.

37.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엘리아스가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고 있을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왕을 찾아가라. 내가 네게 표징을 주면, 물이 다시 이 땅에 내릴 것이다."

38. 겸손하고 온유한 엘리야는 그 민족의 왕에게 나아가 거짓 신을 숭배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냈다. 그 후 그는 아버지와 그분의 능력에 대해 말했고, 그러자 하늘에 번개와 천둥, 불꽃이 번쩍이는 기적이 나타났으며, 이어 생명을 주는 비가 쏟아져 내렸다. 들판은 다시 푸르름으로 물들었고, 나무들은 열매로 가득 차며 풍요로움이 넘쳤다.

39. 백성들은 이 증거를 보고 깨어났으며, 엘리야를 통해 그들을 부르시고 훈계하신 아버지를 기억하였다.

40. 그 당시 엘리야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행한 기적은 무수히 많았고 그 규모가 매우 컸다.

41. "두 번째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 회개를 권면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마음을 준비시켰다. 그 축복받은 선구자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가 가까워져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기에 군중들에게 말씀하셨다. – 그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도 물을 붓으며 그분께 말씀했다. "스승님, 당신은 흠이 없으시는데, 어찌하여 제가 당신께 세례를 드려야 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순종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으니, 이는 나를 따르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할 때 스스로 정화하고 무장할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42.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큰 권능을 지닌 영인 엘리야는 언제나 나의 선구자였다. 오늘 그는 다시 한번, 나의 대변자로서 섬겨야 할 선택받은 자들과 모든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 왔다.

43. 너희가 내 뜻을 알기 위해 준비하고 내 가르침을 연구할 때, 엘리야가 너희를 도우러 와서 너희의 버팀목이자 친구가 될 것이다.

44. 엘리야는 모든 존재를 비추고 인도하며 나를 향해 이끄는 신성한 광선이다. 그를 너희의 선구자이자 중재자로 사랑하고 경배하라.

45. 제자들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나의 일이 모든 이에게 알려질 것이며, 종교와 가르침들 가운데서 내가 사람들에게 제시한 유일한 길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46.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준비 과정을 돕겠다. 내 식탁에 앉아라. 그곳에는 나의 모든 제자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니, 그곳에서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듣게 될 것이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인인지 청년인지 아이인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씀의 신성한 의미를 찾을 때까지 내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모든 이를 통해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 이 순간들을 잘 활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47. 나무가 가지를 뻗어 자라나듯, 강이 새로운 강과 개울을 만들어 넓어지듯, 이 백성이 성장하게 하라. 한 공동체에서 지방과 도시로 새로운 공동체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라!

48. 내 영이 바로 그들(부름받은 자들)을 여러 지방으로 보내어 영성화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것이다. 왜 어떤 이들은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영성화의 원칙들, 즉 어떤 사리사욕도 없이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에서 등을 돌리고, 자신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들지 않은 은사들을 통해 행하는 봉사를 팔아넘기는가? 너희가 처음 들었던 가르침에서부터, 유혹이 너희 발걸음을 노리고 있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내게 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했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내게서 허용된 것만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49. 너희 운명의 책에는, 너희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해 저 세상의 문이 열릴 날과 시간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라. 그곳에서 너희는 지상에서 행한 모든 일과 너희의 온 과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너희를 향한 비난이나 원망의 목소리를 듣거나, 너희를 자신들의 불행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자들을 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50. 빛과 평화의 그 세계에 들어섰을 때, 희생자들의 탄식이 그곳까지 들려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영혼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될까. 너희가 이러한 위기를 겪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맡긴 밭을 가꾸고, 그 안에 내 가르침의 씨앗을 온전한 순수함 그대로 심어라. 나에게 합당한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을 반쯤만 하고 농기구를 버려둔 채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마라.

51. 서둘러 와서 내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이 형태로 더 이상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날이 매우 가까웠음을 기억하라.
너희에게는 예언자들이 백성 앞에 나서서 회개를 권면하고, 만일

그 경고의 소리( )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공의로 위협해야 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오늘 나는 너희가 인류를 깨우고 이 천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길에서 기적을 행하고, 너희가 싸워야 할 때 사용할 진리의 무기를 너희에게 주리라.

52. 나는 나의 선한 제자들의 의로움을 사용하여 많은 굽은 길을 곧게 만들 것이다. 땅에서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현존이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게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물질적인 형태로 해석되었던 것들이 높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53. 비록 이 백성을 이루었던 영혼들이 속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세상과 영적 계곡에 흩어졌을지라도, 이제 그들은 — 내 사랑으로 인해, 그들의 발전의 길을 비추는 성령의 빛을 통해 하나로 연합되어 — 자유와 평화, 진리와 정의, 사랑과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을 그들의 길로 이끌어 모을 것이다.

54.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백성은 무한하며, 너희 모두는 영적으로 그 일부이다. 그러므로 이 백성은 한 국가나 한 인종으로만 국한될 수 없었다. 초기 시대의 예언자들과 족장들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보편적 가족의 *상징이며*, 나의 계획을 위해 지혜롭게 선택된 존재들로 이루어진 백성으로서, 내가 도구로 사용하여 인류에게 내 가르침을 마치 사람들 앞에 펼쳐진 책처럼 전하기 위해 — 그 책은 영적·육체적 발전, 신성한 계시, 예언, 인간의 해석, 그 백성의 성공과 실수, 영광과 쇠퇴, 자유와 속박, 빛과 어둠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백성은 더 이상 발아래 '약속의 땅'을 밟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길을 잃은 자들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으며, 그들에게 사막 너머로 이어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사막 너머에는 새로운 예루살렘, 즉 너희가 스승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영적인 도시의 문이 열려 있다.

55. 표를 받은 14만 4천 명은 율법을 위해 열정적으로 나서는 임무를 지녔으며, 백성이 그 길을 걷도록 격려하고 믿음을 수호해야 한다. 그들은 평화의 군인이자, 내 지혜의 스승이며, 모든 병을 고치는 의사이자, 위로자이자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

56. 이 시대의 세대들은 거대한 사건들을 목격해 왔다. 너희는 자각하지 못한 채, 너희의 전장이나 전쟁 중인 국가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전투를 겪고 있다. 진정한 전투는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너희의 눈이 닿지 않는 곳, 즉 인간의 이성과 마음속에서, 과학자와 종교인들 속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 제도 속에서 말이다. 그 이유는 일곱 번째 봉인이 열려야 하고, 영혼 안에서 정의와 빛이 승리하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전에 나는 내 은총으로 가득 찬 영혼들을 지상으로 보내야 할 것이며, 그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아이들처럼 인도할 것이다.

57. 기도하며, 엘리야가 우주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질주하며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추고, 길을 잃은 자들을 구원하며, 더러워진 자들을 정화하고, 무지 속에 잠든 자들을 깨우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을 느껴 보라. 이는 그의 때이기 때문이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는 너희를 아버지께로, 너희를 기다리는 하늘의 양우리로 인도하기 위해 목자로 왔기 때문이다.

58. 나의 말씀과 모든 예언은 이루어질 것이다.

59. "두 번째 시대"에 너희는 내 손을 나무에 못 박았으니, 바로 그 손은 병자들을 고치고 아이들과 청년들, 노인들을 어루만졌던 바로 그 손이다. 오늘 나는 내 오른손을 풀어 놓았으나, 너희가 나를 높이신 그 십자가를 거부하기 위함이 아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에게 나의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 사랑스럽게 그 손을 뻗는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54

1. 나를 듣기 위해 물질적인 소유를 버리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2.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이들은 강해졌으며, 시련에 직면했을 때 절망하기보다는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그

순간들 속에서 신성한 영감이 마치 그들의 영적 발전의 길을 비추는 빛줄기처럼 그들의 마음에 닿는 것을 느꼈다.

3.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스스로를 준비하고 굳건히 하는 자는, 비록 폭풍우나 불길 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무사히 이겨낼 것이다. — 또한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괴롭혔던 시련을 이겨낸 이들에게도, 나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잠들지 말라"고 말하노니, 새로운 시련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며, 그때 그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큰 시련이 끝나고 인생의 여정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질 뻔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내 목소리가 들려와, 이미 가까워진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4. 너희가 삶의 시련을 우연의 결과로 돌린다면, 너희는 강해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속죄가 무엇인지, 정의와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너희는 믿음 안에서 고양과 순종을 발견하여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5. 나는 너희의 영혼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하고자 한다. 이는 내가 너희 영혼을 길러내고, 다듬으며,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나는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이용하며, 의인과 악인을 모두 도구로 삼는다. 때로는 빛을 이용하고, 또 때로는 어둠을 나의 종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곧 너희의 스승을 생각하라. 그분은 모든 사랑으로 그 시련의 이유를 너희에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6. 모든 이가 마셔야 할 잔들이 있다. 어떤 이는 일찍, 어떤 이는 늦게 마시게 되니, 이는 모든 이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함이다. 비참함, 질병, 비방, 모욕은 매우 쓰라린 잔들이며, 이는 죄인의 입술에만 닿는 것이 아니다. 그 '두 번째 시대'에 가장 의로운 분이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쓰라린 잔을 비우셨음을 기억하라.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에 동반되는 순종과 겸손, 그리고 사랑은 십자가를 더 가볍게 만들고 시련이 더 빨리 지나가게 할 것이다.

7. 세상은 영혼을 위한 학교이며, 너희의 몸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지상에서 너희는 영적 완성을 향한 사다리의 여러 단계를 거치며, 그곳에서 영혼들은 형제들에게 베푼 사랑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한 공로와 노력의 힘에 이끌려 나에게로

올라간다. 이 투쟁의 길을 거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할 것이다.

8. 자신의 운명을 부인하는 자는 "나의 신성의 자녀"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가 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나의 사랑을 믿을 수도 없다.

9. 어떤 이들에게 이 삶이 지독히 쓰라리고 고통스러웠다면, 이 삶이 유일한 것이 아니며, 단지 겉보기에는 길게 느껴질 뿐이며, 모든 피조물의 운명 속에는 오직 나만이 꿰뚫어 볼 수 있는 비밀이 있음을 알라.

10. 이 목소리는 너희에게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진리를 찾고, 사랑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라.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나의 가르침 속에서 이를 발견한다면, 그 길을 따르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보라.

11. 나는 너희 각자에게 나를 드러내니, 때로는 너희의 마음을 통해, 또 다른 때는 너희의 영 안에서 그러하리라.

12. 나의 용서의 음성을 통해 죽은 자들은 은혜의 생명으로 부활하여, 영혼의 혼란에서 벗어나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율법을 이행할 것이다. 용서가 없는 곳에는 — 용서는 언제나 사랑에서 비롯되나니 — 회개도 선행도 없을 것이며, 그러면 구원 또한 없을 것이다.

13.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육신의 죽음이 그들을 내 면전으로 데려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 음성은 그들을 참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고 어루만져 줄 것이다. 그들은 참된 회개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능력이 있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돌이킬 수 없이 영원히 잃어버린 자라고 여겼기에, 이 땅에서 어떻게 갱신에 대한 갈망을 품을 수 있었겠는가?

14.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잃었다고 여겨져 희망 없이 내게 온 이들 외에도, 학자들에 의해 육체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도 내 곁에 이르렀다. 생명을 소유한 나, 내가 그들을 육체적 죽음의 손아귀에서 건져냈다. 그러나 내가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맡겨 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들이 성취해야 할 그 고귀한 사명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 건강과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보내신 내가, 끊임없이 그들의 희생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15. 이제 너희가 나에게 슬픔을 털어놓고 힘을 구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나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두 위로받을 것이다.

모든 이가 너희처럼 내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내 힘과 빛은 모든 영혼을 위한 아버지의 유산이다. 그러나 너희는 약해져서 시련에 굴복하고 있다.

16. 오직 나, 너희 아버지만이 너희 마음을 듣고 이해한다. 너희는 아직 서로에 대한 참된 사랑을 찾지 못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위안을 얻기 위해 성화나 상징물을 찾지 말라. 영혼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너희 존재의 감수성 있는 섬유를 깨워, 내 임재를 느끼고 내 곁에서 내 사랑을 누리도록 하라. 너희 아버지께 낯설게 여기지 말라. 아니면 너희가 (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17. 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죄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본다. 정욕이 풀려나고,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이미 순결을 잃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있다. 인류는 악의 길로 들어섰으며, 대대로 점점 더 쇠퇴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 번 너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 왔다.

18. 기도하고 내 말씀을 깨달아라. 너희 자신만을 위해 구하지 말고, 너희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위해 구하라.

19. 너희는 오늘날 인류가 처한 영적 빈곤을 알지 못한다. 모든 영혼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 민족의 중보와 투쟁이 필요하다.

20. 더러워진 자들을 정화하라. 그들에게 그들의 영의 은사를 드러내 주고, 어린아이들처럼 그들을 길로 인도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너희는 가는 길에서 과학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많은 병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들의 고통에 치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사랑으로, 너희가 미치는 선한 영향력으로, 너희가 그들에게 권하는 쇄신으로 그들을 치유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에게 전하는 나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은 치유의 연고가 영혼의 평화와 의무의 이행,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1. 나는 내 자녀들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리라. 큰 죄인들이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 나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삶을 새롭게

세울 기회를 주리라. 나는 가장 큰 죄인들에게도 구원과 구원을 베풀기 위해 내 부르심을 전하리라.

22. 나는 젊은이들과 청년들, 처녀들의 마음에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이를 위해 나는 그들을 정화하였으며, 그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맡긴 사명을 완수하는 법을 깨닫고, 그 영혼들을 준비시켜 선의 길로 인도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며, 너희는 이 새로운 세대를 의지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이 사역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23. 내가 너희 가운데 남기는 은총을 간직하라. 머지않아 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내 도움을 간구한 뒤 기적을 받게 될 이들도 있을 것이며, 비록 그들이 내 제자가 아니더라도 나를 증거하며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말할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를 잃었는데, 그분이 다시 돌려주셨다"고 말할 것이다.

24. 거짓 증언으로 내 일을 변호하지 말고 결코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내 행적은 언제나 진실하며, 너희가 그것을 해석할 줄 안다면, 그 안에서 내가 인간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25. 어리석은 말을 듣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침묵하라. 그러나 너희의 "옷"*이 찢어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고 너희 형제들 앞에서 너희를 높이 들어 올리리라. 너희를 정죄하는 이 사람들은 그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의 행실을 잘 살피고, 항상 너희를 지켜보시는 영원한 재판자만을 두려워하라.

**이 비유적 표현은 명성, 명예, 인격의 훼손을 가리킵니다.*

26. 온유함과 영적 성숙함으로 너희가 나를 들었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많은 이들이 회심할 것이다. 이해를 얻지 못하면 침묵하고 용서하라. 너희가 육신을 영혼과 하나로 합치고 나의 율법을 지키면, 인류를 위해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27. 기억하라, 축복받은 백성아, 내가 모든 모임 장소에서 너희에게 말했듯이, 인류에게 고통과 시련과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너희의 정화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나는 그 시간이 지나면 지상에 기쁨이 가득할 것임을 너희에게 알린다.

28. 너희는 수년 동안 이 메시지들을 들어왔으니, 이는 내가 너희를 제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가르침이라. 이는 너희가 내일 형제들의 삶에 빛을 비추고, 육신을 가진 자들과 육신을 벗은 존재들 모두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 뜻은 너희가 미래 세대를 위한 씨앗으로서 좋은 본보기를 남기는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준 계시들이 너희로 하여금 내 지혜 안에서 너희의 영을, 선함 안에서 너희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오랫동안 너희 존재 안에서 자라난 모든 잡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슬픔에 차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여전히 내 말씀을 느끼지 못하고, 이 계시들에 대해 무감각하며, 너희의 행실은 내 가르침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

29. 나는 너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를 원했으나, 너희가 여전히 불화 속에 머물러 있음을 본다.

30.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모든 모임 장소에서 너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나를 드러낸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진리를 부정한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내 가르침을 영화롭게 한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31. 너희는 이 모임 장소에서 보여주는 행동뿐만 아니라, 너희 삶의 모든 행실을 통해 나를 찾고, 나를 기쁘게 하며, 나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너희는 영적인 면에서나 물질적인 면에서나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믿기를 원치 않는 초보자들일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지 않는가? —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그분 말이다. 사랑이 너희를 구원하고, 강하고, 기쁘고, 확신 있게 만들어, 폭풍과 시련의 때에 바로 그 사랑이 너희를 일으켜 세우고 보호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가?

32.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인간적 학문보다 우월한 지혜, 즉 자연의 힘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었음을 깨달아라. 그러나 너희는 순종하는 양처럼 내 목소리에 반응하는 법을 이해하지 못했다. 너희는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소들이 충실한 하인처럼 너희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바라는가?

33. 이제 너희가 내 가르침을 듣는 것이 왜 필요한지, 또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며, 실천하는 것이 왜 필수적인지 알겠느냐? 너희에게 뜻밖의 고통이 닥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내가 말했으나, 너희는 깨어 있지도, 기도하지도 않으려 했다. 시련이 너희를 채찍질했을 때, 너희는 내가 너희를 벌하거나 버렸다고 믿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기도하며,

나를 혼자 두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다. 아, 너희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과, 오히려 너희가 나를 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너희는 내가 단 한 순간도 너희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는 때가 없다는 것을, 반면에 너희는 종종 평생 동안 나에게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4. 내가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며,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시련 속에서 홀로 있고 슬프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35.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인간이 된 후, 부모의 충고를 듣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인생의 위험한 길로 뛰어들어, 나중에 여러 번 넘어지고 실망을 겪은 뒤에야 멈춰 서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배은망덕한 자녀들처럼 행동하는가? "아,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토록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바른 길에서 이토록 멀리 벗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36. 때로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있다. 그들은 죽음에 깜짝 놀라게 되는데, 죽음은 그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자신들이 권위를 부정했던 그분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37. 눈물로 부모님의 얼굴을 적시지도 못하고, 입술에서 용서의 말을 듣지도 못한 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인가!

38. 너희가 이러한 시련에 대해 생각할 때, 때때로 이렇게 말하곤 한다.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공의로 인해, 이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에게 그 기쁨을 거절하시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그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니, 영혼에게는 그 오점을 씻어낼 충분한 시간이 언제나 주어질 것이며, 마찬가지로 회개의 열매를 거둘 시간도 주어질 것이다.

39. 너희 영혼이 위험한 지상의 순례길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영혼은 영이라는 더 높은 빛을 부여받았다. 게다가 이 세상은 너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내 가르침과 계시의 빛으로 비춰져 왔다.

40. 나는 너희가 육신을 입은 영혼이 영적인 삶으로 돌아갈 때 높은 존재의 차원에 거할 수 있도록, 항상 너희를 비추어 주었다.

41. 사랑하는 백성아, 이 시대에 나의 계시를 전하는 도구여, 영성화하라. 그리하여 네가 나의 말씀의 참된 해석자가 되었을 때,

네 생각과 삶과 말을 통해 그 말씀이 되게 하라. 인류가 나를 믿게 하려면 살아있는 모범이 필요함을 깨달아라.

42. 너희 중 누가 사람들을 진정한 영성화로 이끄는 위대한 영혼이 될 것인가? 영성화, 즉 영혼의 상향적 발전은 인류의 구원이 되기 위해 이성과 감정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43. 제자들아,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귀한 마음가짐과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 너희의 성품을 갈고닦아 위대해지라. 내가 왜 너희에게 연합을 요구하는가, 백성아? 그것은 인간 사이의 형제애 결여로 인한 전쟁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회오리바람처럼 다가오고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며, 또한 너희가 깨어 있어 평화의 백성, 선을 섬기는 군인들의 군대를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 사명을 수행하러 나설 때, 너희 마음속에 나를 모시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은 하느님의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안에 나를 모시면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영원을 얻으리라.

44. 신성한 힘은 오직 겸손한 자들에게만 있으며, 결코 인간의 허영심을 아첨하기 위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45. 비록 많은 이들이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만,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 또한 내가 구원하리라. 비록 그들이 현재 나를 잊었거나, 세상에 만들어 낸 거짓 신들로 나를 대체했더라도 말이다. 그들도 내가 내 왕국으로 데려가리라. 비록 그들이 지금 거짓 예언자를 따르느라,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랑의 가르침을 전했던 자비로운 그리스도를 잊었더라도 말이다.

46. 아버지께서는 누구도 '악한' 존재가 아니시며, 누구도 그럴 수 없으니, 그들의 근원은 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길을 잃은 자, 눈먼 자, 폭력적인 자, 반역자, 내 자녀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자유 의지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빛이 비칠 것이며, 나의 자비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47. 오늘날 물질의 힘과 세상의 영향력이 너희를 이기주의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물질은 영원하지 않으며, 세상과 그 영향력 또한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인내심 있는 재판관이며, 나의 정의는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다( ). 너희는 나를 부인하는 자들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희를* 그들보다 더 유죄로 판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48. 내가 과연 내 처형자들을 정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는가? 내가 그들을 사랑과 온유함으로 축복하지 않았는가? 이 죄로 인해 한때 세상에서 길을 잃었던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오늘날 정화된 모습으로 영적 세계에 있음을 너희가 깨달았더라면!

49. 보라, 내 말씀이 너희에게 길을 보여주고 인도하고 있음을!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하고 너희 모두를 찾고 있기에, 이 말씀을 모두에게 전한다. 회오리바람이 너희를 길을 잃은 자나 잠든 자로 덮치기 전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때가 되면 "이빨을 갈게" 될 것이니. 너희는 아직 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오직 나를 신뢰하고 내게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50. 내 말씀이 얼마나 겸손한지, 내가 내 목소리를 전하는 종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리고 내가 나를 드러내는 환경이 얼마나 초라한지 느끼고 있느냐? 이 시대에 바로 이 가르침이 온 인류의 운명을 다스리고 이끌게 될 것임을 알게 되어도 놀라지 말라!

51. 신성한 생각들은 황홀경에 빠진 나의 대변자들을 통해 말로 옮겨졌으며, 이 말들은 문장으로 결합되어 계시와 완전한 가르침으로 가득 찬 영적 교리를 형성하고 확립하였다.

52. 이것이 바로 약속된 위로자이며,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예고된 진리의 영이다.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고, 너희는 영에 힘을 지닌 자, 즉 마음의 고귀함과 소박함, 지혜와 정의로 너희를 인도할 그분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53.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이들, 즉 세상과 영의 거대한 투쟁에 익숙한 이들이 필요하다. 바로 그들이 인류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 수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억압하거나 지배하려는 욕망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기심에 자리를 내어줄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고양된 순간에 그들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 이 자비를 형제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느꼈기 때문이다.

54. 너희가 단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며, 너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곧 세상의 싸움()이 닥칠 것이니, 그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빛과 믿음을 지닌 마음들로 무장된 상태로 만나야 한다. 그때 너희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동료들이 진정한 무지에서 비롯된 상처를 너희에게 입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55. 싸움이 시작되면, 나는 너희가 동료들의 모욕에 용서와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원한다.

56.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내 사명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가? — 나를 따르는 자들의 사명은 사소하지도, 가볍지도 않을 것이다. 가벼운 일은 영적으로 약한 자들, 사랑이 없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다.

57.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이 백성의 강자들이 나타나, 너희가 내 영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 높은 축제로 이끄는 길을 닦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58. 나는 여기 모인 이들 중에서, 나의 영감을 느끼고 깨달아 기쁨으로 가득 차 그 싸움을 준비하는 이들을 본다. 그들은 오직 진리와 영성, 그리고 사랑만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59. 내게로 오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부르심에 서둘러 응답하여, 고통이나 무지의 어두운 길에서 멀리 떨어져 내 평화와 빛으로 배불리 채우고, 그 후 너희 이웃들에게도 똑같이 베풀 수 있도록 하라.

60. 나는 단지 너희에게 임무나 책임을 맡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또한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의 탄식을 들어주기 위해 너희에게 다가왔다.

61. 오늘 너희는 너희 구세주를 따르고 있으며, 나는 너희가 지는 십자가를 돕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너희 여정이 끝나기 전에, 너희는 복음을 각 지방으로 전해야 한다.

62.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 세상은 영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맡겨 준 이 양식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63. 나의 가르침은 너희가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법을 보여주는 길이며, 너희가 영으로 살게 될 때 너희를 아버지께 더 가까이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친 형제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땅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가 오랫동안 밀밭에 잡초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의 무정함이 만연하고, 불화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임을 서로 알아보지 못했으면서도( ), 여전히 나를 알고 심지어 사랑한다고 주장한다.

64. 주인과 종이 있고, 재판관과 피고인이 있으며, 집행자와 희생자가 있으나, 모두 형제이다. 이 시대의 내 말씀이 인류에게

일으킬 충격은 클 것이니, 그것은 모든 영혼에게 심판자로서 다가갈 것이기 때문이다.

65. 제자들아, 깨어 기도하여 내 임재를 느끼라. 만일 너희가 잠든다면, 깨어났을 때 너희 영혼에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니라. 아무것도 너희를 준비되지 않은 채 덮치지 않도록 내 말씀에 세심히 귀를 기울이라. 그때 길이 평탄해지고 나라들이 문을 열면, *너희는* 사명을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마음들이 생명의 말씀을 갈망할 때, 그것이 즉시 너희 입술에서 나오게 하라.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희 문 앞을 지나갈 때, 그 문이 닫혀 있어서는 안 된다.

66.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을 좇을 때가 아니다. 이제 온 감각과 힘을 다해 깨어 살아가며,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이다. 이 세상에 머무는 너희의 시간은 이미 매우 짧아졌으니, 너희가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짧은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인간의 사건들이든, 자연의 징후들이든, 영적인 계시들이든, 어떤 것도 간과되지 않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준비된 자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예언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7. 사랑하는 백성아, 삶의 여정에서 형제들에게 인도자, 조언자, 또는 버팀목이 되어 준 영혼의 행복이 얼마나 클지 깨달아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강하고, 정직하며, 내 법에 순종하여 너희 이웃에게 등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68. 언제 이 인류가 꽃잎은 너희의 마음이고 향기는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인, 헤아릴 수 없이 아름다운 꽃과 같게 될 것인가?

69. 명예에 대한 탐욕과 증오심이 넘쳐흐르는 이 시련의 순간에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들이 단지 신성한 꿈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가 내게 준 십자가를 받아들였고, 이제 "구름 위"에서 너희에게 온 것은, 오직 내 사랑의 씨앗이 인간의 불완전함을 이길 것임을 알았기 때문임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어찌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가? 그리스도께서 골고타에서 피를 헛되이 흘리셨다고, 그것이 너희에게 아무런 교훈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 내 새로운 계시가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라고 믿느냐? —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실 수 없으며, 그분의 사랑의 사명에서 실패하실 수도 없다.

70. 너희 눈에는 인간의 타락이 크고, 매우 크며, 사람들이 행사하는 악의 권세와 힘이 너희에게 끔찍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것들은 나의 의의 힘 앞에서는, 운명과 생명과 죽음과 온 창조물의 주인이신 나의 신성 앞에서는 미약하다.

71. 인간은 이 축복받고 비옥한 땅을 지옥으로 만들었으니, 이는 내가 그에게 생명을 위해 둘러준 모든 힘과 요소들을 스스로 죽음을 초래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는 곧 참된 낙원의 영적 문에 도달할 것이며, 그곳에서 주님의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고 그를 영원한 평화의 왕국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며,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선의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상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가르침55

1. 성령의 빛이 모든 영혼 위에 비치고 있다.

2. 내 명령을 이행할 준비를 하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언제나 내 도움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또한 말하노니, 양심의 목소리가 너희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을 잠재우지 말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곧 나의 목소리이니라. 너희가 내게 기쁨을 드리고자 한다면, 너희의 잘못을 바로잡은 후 기도로 너희의 영을 높이 들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항상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3.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는 것을 더 깊이 느낄수록, 너희는 너희의 의무를 더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 용서를 결코 남용하지 말라!

4.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자 나서는 모든 이들은, 내 율법을 실천하는 길에서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어떤 무리의 지도자로 세운다면, 그 무리를 장악하려 하지 말라. 이 시대에 왕들조차도 백성의 종이 되기 위해 왕좌에서 내려왔음을 명심하라.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과 형제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너희는 겸손히 응답하며 내게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제2의 시대'에 내가 너희의 영적 발전을 위한 길을 표시해

둔 그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사랑으로 너희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했었다.

5. 너희가 준비한다면, 태풍처럼 인류에게 닥칠 큰 시련들도 너희에게는 너희를 어루만지는 상쾌한 산들바람과 같을 것이다. 그 후 새로운 새벽의 빛이 비추고, 해가 너희에게 그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깨어 있지 않고, 마음속에 위선을 싹트게 하며, 겉으로는 양의 가죽을 두르고 내면은 굶주린 늑대인 채로 있다면, 너희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길가의 가시들이 너희 발을 찔러 상처를 입힐 것이다.

6. 너희 영혼 속에 있는 미덕보다 악한 성향이 더 강해지고, 내 가르침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지 않으면서도 내 뜻을 행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내 빛이 너희를 깨울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희가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도록 보내셨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7. 비록 너희가 너희의 운명을 피하고자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길에서 벗어나려 해도, 나의 자비가 너희를 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의 법은 모든 영혼에 새겨져 있으며, 너희는 그 법에 순종해야 한다.

8. 나는 너희가 각국의 지도자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을 보았으나, 너희는 그들이 내가 백성들을 굽히고 다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그 나라의 운명을 이끌도록 정한 자를 돕기 위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법을 깨닫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연합과 내 뜻에 대한 순종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저항하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여 너희의 기도가 그들을 준비시키고 영적으로 지탱해 주게 하라.

9. 이스라엘아, 단합하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큰 시련을 주겠으니, 그때 너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이들, 즉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느끼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어떤 이가 다른 이의 실패를 기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는 너희 모두가 똑같은 시련을 겪게 될지, 그리고 그 시련이 닥쳤을 때 너희도 마찬가지로 연약해지지 않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0. 유혹을 물리치라. 지금은 그 세력이 수확을 배가하려 드는 때이니, 오직 기도와 선한 행실만이 너희를 그로부터 지켜 줄 것이다.

11. 많은 가르침들이 너희가 분열된 모습을 보면 연합하라고 촉구할 것이나, 나는 너희 모두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한다.

12. 너희가 고양되도록 돕기 위해,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이는 내가 너희를 내게 가까이 이끌고 내 평화를 주려 함이니라. 지친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쉬고 힘을 얻으라.

13. 제자들아, 율법을 어기고 반역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들은 바로 너희의 도움과 이웃 사랑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선을 알고, 오직 선을 행할 때만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왜 죄를 짓는가? — 그가 양심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며, 목자들이 양 떼가 여러 길로 흩어지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며, 그들의 말에는 더 이상 힘이 없고 양들을 우리로 돌아오게 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제2시대의 사도들을 따르는 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14. 현재 내 제자인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스스로를 목자나 사제라고 부르지 말라. 내가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 심판자, 가장 친한 친구이자 조언자 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오직 기쁜 소식의 전도자이자 내 계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의 은사를 통해 내 영과 연결되었을 때, 그들은 확고한 발걸음으로 발전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내 법에 기초한 일과 행동을 불어넣어 주리라. 이는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속죄와 보상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15.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속죄의 법이 주는 엄중함을 알지 못했을 것이며, 오히려 너희의 발전은 끊임없이 전진했을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너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인류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동정심도 사랑도 모르는 그 심판자의 엄격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16. *내가* 너희의 영혼을 고양시키기 위해 너희를 시련에 처하게 했을 때, 나는 너희의 힘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너희 곁에 있었으며, 너희가 내 뜻에 순종하고 그 교훈을 활용했을 때, 너희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꼈다. 너희는 이를 위해 나에게 감사하고,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17. 나는 인류에게 일치와 단순하고 영적인 삶으로의 회귀를 요구해 왔으니, 이는 영혼들이 나를 알고 사랑함으로써 하나의

믿음으로 연합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르침들은 사라질 것이며, 오직 나의 법과 나의 말씀만이 남을 것이다.

18. 나는 항상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드러내 보였으나, 너희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때, 그것이 너희가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너희의 죄를 씻어내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르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를 제자라 부를 수 있으려면, 삶의 모든 행실에서 겸손과 온유함을 실천해야 한다.

19. 너희는 수확의 시기에 있으며, 너희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거두기 위해 다시 씨를 뿌릴 때는 좋은 씨를 사용하고 그것을 가꾸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20. 깨달아라. 너희가 나를 따랐던 것보다 훨씬 더, 나는 언제나 너희를 따라다니며 너희의 사명을 보여주고, 너희의 영이 결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며, 마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종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내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쳐 왔다.

21. 너희 영혼이 마침내 온유하고 겸손해지며, 확고하게 성스러운 법( )의 길을 걷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는가! 예전에는 너희 삶의 길에 시련이 닥칠 때 너희 입술에서 모독이 흘러나왔다. 오늘날 너희가 삶의 가혹한 교훈을 겪고 있다고 느낄 때, 너희는 기도한다. 빛이 너희 영혼을 점점 더 깊이 스며들기 때문이다.

22. 내가 너희에게 "그들(과거 시대의 사람들)과 너희는 동일하다"고 말할 때, 나는 너희가 영혼의 환생을 통해 점차 그 높은 발전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음성이 "자라라,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현재까지, 너희의 발전은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얼마나 더디게 길을 가고 있는가!

23. 너희는 번성하였고, 그로써 그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는 너희 마음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가 맺히도록 새로운 계명이 필요했고, 그때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였다. 나는 '제2의 시대'에 온 율법의 요약으로서 이 교리를 너희에게 주었으나, 여전히 그것이 너희 마음속에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나는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왔으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신성한 계명에서, 또한 너희가 번성하라는 그 다른 계명에서 너희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

24. 그렇다, 인류의 자녀들아, 덕과 지혜를 키워라. 영성화를 통해 번성하라. 인종, 계급, 신앙, 그리고 세계를 가리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라.

25. 나는 잡초가 그토록 무성하게 자라고 악이 그토록 번성했던 들판에서 밀이 자라는 것을 보고자 한다. 심판의 날이 왔으니, 전쟁의 불길은 악한 씨앗을 태워 소멸시킬 것이며, 바람이 그 재마저 흩어 버릴 것이니 재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그 후 물과 눈의 홍수가 인류를 정화하고 맑게 할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고통이 극심해지면, 그들은 나에게 제단을 쌓고 향을 피우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것이 내 영을 기쁘게 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그들이 나에 대한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은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라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을 본보기로 삼아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과 자비의 행실만이 나에게 닿는 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6. 이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본보기로 삼고,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의 길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 너희가 더 이상 이 형태로 나를 듣지 않게 될 때 — 너희가 이 기도처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너희 말과 모범이 지닌 진리와 설득력으로 그들을 너희 곁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하라. 너희는 이 장소들뿐만 아니라, 상황이 너희의 헌신을 요구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광야에서, 길에서, 바다에서, 골짜기에서" 시련과 또한 나의 영감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을 잊지 말라.

27. 너희가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침을 통해 양육하는 이 백성이 내 율법을 존중하고, 그들의 행실과 모범을 통해 스승에 대해 증언하기를 원한다. 너희 집안에는 평화가 깃들어야 하며, 가족들 사이에 서로 대립해서는 안 되고,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평화가 지배하기 시작하고 너희 가정이 작은 전장 같지 않게 되면, 전쟁들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에 평화를 가진 자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자녀들을 생각하며, 너희가 아직 본보기를 통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과, 그들이 인류에게 영적인 빛을 전파하도록 예정된 새로운 세대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28. 그들의 영혼은 위대하나, 물질적 삶의 유년기에는 너희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함을 깨달아라. 이 임무를 어린아이들에게서 시작하고, 이해심과 인내심을 가져라. 나에게서 배우라: 나는 한 영혼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 수세기, 수천 년, 혹은 영원히 기다릴 수 있다. 너희 모두는 아름다운 빛을 발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연마되어야 하는 원석과 같다. 설마 너희가 그 원석에 비유되는 것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29. 내가 이 땅에 마련해 둔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예술 작품 중 하나는, 너희의 시선을 즐겁게 하고, 주위를 향기로 가득 채우며, 너희에게 영감을 주는 꽃들이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꽃보다 더 완전하고 아름답다.

30. 만일 너희가 이미 달성해야 할 영성을 갖추고 있었다면, 너희는 모든 피조물의 언어를 이해했을 것이며, 나는 이를 통해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시도록( ) 너희 가운데 육신으로 나타나셔야 할 이유도, 내가 이 시대에 불결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의 신성한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아는 것은 필수적이며, 그렇기에 나는 결코 숨지 않았고, 너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오기를 거부하지도 않았다. 내가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짓 신들을 만들어 냈다면, 내가 너희의 죄를 혐오하여 숨어버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31. 오, 제자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 때 위로를 얻으며 말하되, "스승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이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겠느냐? 기다려라, 잠시만 기다려라. 머지않아 인류는 그들의 광신과 무지 때문에 만들어낸 한계와 장애물을 뛰어넘을 것이며, 그것들은 그들이 진리의 핵심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여 단지 표면적으로만 인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32. 오늘 내가 너희에게 대접하는 음식을 먹으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평화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서 그 평화를 빼앗게 두지 말라.

33. 너희가 나의 신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으므로, 나는 너희를 제3시대의 제자라 부른다.

34. 나는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번성할* 새로운 땅을 맡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백성임을 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

너희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면, 너희가 지고 있는 큰 책임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영적으로 이해해야 할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새로운 땅"이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도록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으로 이끌어야 할 새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말한다.*

35.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왔으니 묻노라. 너희는 주님을 또다시 희생시키겠느냐? '제2의 시대'에 흘린 나의 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36. 이 시기에 너희 영혼이 어떻게 속죄의 십자가를 지고 있으며, 그 영혼에게 광활한 들판이 맡겨져 그 땅을 경작하게 되었는지 깨달아라. 그러나 그 땅에는 오직 나의 씨앗 외에는 다른 어떤 씨앗도 뿌려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 시기에 거두어들인 수확은 너희 구원의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이다.

37. 나는 수세기 동안 너희를 짓누르던 죄에서 회복되도록, 너희의 죄악의 짐을 내 십자가의 달콤한 짐으로 바꾸기 위해 왔다.

38. 너희 입술은 모독을 내뱉지 말고 오직 내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말의 은사는 너희 이웃의 명예를 더럽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39. 이제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제자로 삼기 위해 부르셨음을 알았으니, 특히 내 말씀을 들을 것을 알 때면 매일 양심의 빛 아래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라.

40. 잘못 이해한 참회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너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박탈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 몸에게 해로운 것은, 비록 그것이 희생이 되더라도 피하게 하라. 이것이 너희 영혼에 유익한 참회이며, 따라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참회일 것이다.

41. 너희는 점차 캔버스에 그려진 형상이나 너희의 뜻대로 만들어진 형상 없이도, 너희의 생각을 무한한 존재로 향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기도하려 할 때마다 너희 영혼이 마주치던 장애물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이제 너희 영혼은 주님과의 영적 교감을 이루는 길에 들어섰다.

42. 잊지 마라. 너희의 기도가 깊은 만족을 주고 참된 평화를 느끼게 하려면, 너희가 생각을 올려 보내어 내 성소에 닿게 할 때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43. 내일 너희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진리로 이끄는 깊고 빛나는 흔적을 발견해야 하며, 그 흔적은 바로 너희의 선행이어야 한다.

44. 너희는 주님께서 인류에게 빛을 밝히기 위해 지상으로 순례를 떠나게 하신 바로 그 백성임을 증언해야 한다. 너희 영에서 솟아나는 지혜는 이 시대에 풀린 여섯 번째 봉인의 빛이 될 것이다.

45.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46. 어떤 이들은 마음속으로 내게 말하길, "주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랑 때문에 나를 듣기 위해 오는 이는 극소수일 뿐이며, 대다수는 고통에 짓눌려 오는 것이다.

47. 고통이 너희를 내 곁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나는 책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제 역할을 다한 후, 다시 사라지며, 나중에 내 제자가 될 이들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 했기 때문이다.

48. 너희는 내가 인간의 고통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너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사람이 되어 고통을 겪었으니, 이는 모든 시련과 위급한 상황에서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자녀들이 걸어야 할 길에 빛과 좋은 본보기를 비추어 달라고 청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언제나 아버지의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고통을 알고 느끼며, 영으로 너희에게 왔기에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3의 시대'에 대한 나의 계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가장 큰 증거이다.

49. 너희가 쉴 때 내 말씀에 깊이 잠겨라. 폭풍이 너희를 몰아칠 때 내려오는 평화가 바로 나임을 깨달아라. 모든 시련 속에서도 이 평화를 간직하고, 그것이 너희 마음에서 떠나 내게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50. 질병이 너희 가정에 닥쳐도 반항하지 마라. 그것은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치유의 연고를 찾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신성한 의사이신 나에게로 돌아와, 내 뜻대로 너희에게 허락된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51. 삶의 고통을 통해서만 올바른 길로 돌아온 이들이 많다. 어떤 이들은 고통을 겪는 동안 신을 모독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바로 그들을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준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고통의 잔을 축복했다. 나는 그들을 내 식탁에 앉히고, 사랑과 자비의 맛있는 음식으로 변한 어린 양을 맛보게 해 주었다.

52.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배은망덕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행한다면,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큰 평화가 깃들겠느냐!

53. 평화롭게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훌륭한 증거가 될 것이다. 많은 눈들이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라. 너희가 하는 일이 진실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증거를 모아 너희의 거짓을 폭로하기 위해서든 말이다.

54. 나의 충실한 병사들이 되어라! 결코 너희 형제들이 나를 오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말라. 단 한 번도, 적어도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마음이 하나라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전한 적이 없다. 그 순간들마다 나의 말씀과 나의 계시는 모든 면에서 면밀히 검토되었으며, 나의 종들의 행동 또한 그러했다. 그들은 온갖 감각과 능력을 동원하여 내 계시를 탐구하고자 에 모였으나, 내 존재에 대한 소문이 거짓일 것이라고 기대하며 온 자들이, 그 기쁜 소식이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온 자들보다 더 많았다.

누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겠는가? *그들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동안, 나의 시선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고 있으며, 나의 목소리는 그들의 양심을 통해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 순간, 의심하던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불타올랐고, 이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 그리하여 내 제자들의 수는 끊임없이 늘어났으며, 그들은 이제 하나의 백성을 이루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내 평화를 잘 간직하여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보물이 되게 하라고 말한다. 이는 지상의 다른 민족들 앞에서 내 계시의 진리에 대해 그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55. 나는 너희가 이 민족이 성취해야 할 고귀한 사명이 있으며, 너희 각자에게는 어려운 임무가 있음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 백성은 사랑과 평화의 샘이 될 것이며,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마시러 올 것이다. 그 시기는 머지않았으나, 그전에 너희는 형제들 간의 수많은 싸움에 지쳐야 하며, 사람들이 숭배의 대상으로 삼은 수많은 거짓과 허위로부터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때 그들은 내게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제2의 시대'에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보였던 그대로 영광과 위엄을 가득 띠고 나타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56. 오늘날 너희는 내 일을 말하기에 상황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느낀다. 그러나 너희 입술이 끊임없이 내 말씀을 전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고통과 궁핍, 두려움과 혼란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을 알아내려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57. 나는 이미 지금부터 너희를 준비시키고 가르치고 있으니, 너희가 말과 행실로 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법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인류는 위선자들에게 지쳐 있기 때문이다. 순종하는 한 가족을 이루고, 영성이라는 끈으로 너희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운명을 하나로 묶으라. 그러면 너희는 강해지고 불멸하게 될 것이다.

58. 인류에게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모든 고통과 재난 속에서 깨어 기도하라. 많은 고통은 완화될 것이며, 다른 고통들은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 그 궤도가 막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59. 다른 교파와 종파의 신도들이 이 백성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게 되면, 그 한 교파들 중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침착함을 유지한다면, 성령께서 너희 입술에 빛의 말씀을 얹어 주시리니, 그 말씀은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을 침묵하게 할 것이다.

60. 나는 너희를 방어하기 위해 죽이는 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칼을 준다. 그 칼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의 섬광 하나하나가 그로부터 발산되는 미덕이 될 것이다.

61. 너희가 말로 내 사역을 박해하는 무리를 제압하고, 사랑의 행실로 그들을 회개시켜 내게로 이끌어 온다면, 아버지께 얼마나 큰 은총을 얻게 될까.

62. 이것이 바로 내가 '제2의 시대'에 너희에게 주었으나 너희가 이미 잊어버렸던 가르침이다.

63. 인간의 이성은 삼위일체-마리아적 영성 교리를 이해하려 할 때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물질화된 인간은 영적인 것에 대해 서툴기 때문이다.

64.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 번 나를 드러내고, 내가 너희가 도달할 수 없는 하늘 높은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류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왔다. 나는 너희가 기도를 통해 영혼을 고양시켜 내 현존을 발견하고, 선에 헌신된 삶을 통해 너희 영혼을 나의 신성에 더 가까이 이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오직

나의 법 안에서 사는 자만이 내가 실제로 사람 안에 계시며,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님을 안다.

65. 내 말을 듣는 너희여, 영적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지 말라. 너희의 빛을 가리지 말고, 내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해지고 고귀해지는 너희 마음이 다시 무감각하고 차가워지지 않도록 하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미 맛보았고, 그 달콤함도 이미 알았다. 이제 와서 내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즐겨라. 그러나 배가 부르면,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은혜로 너희에게 준 것을 진창 속으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라.

66. 어둠의 속박을 찢어내고 모든 영혼에 빛을 밝혀, 너희가 앞으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며, 또한 금기된 것을 분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힘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하는 내 말을 들어라. 이 가르침을 받은 자는 더 이상 무지하다고 말할 수 없다. 제자들아,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이 때에, 내 말을 듣고 이해하라.

67. 세상에서 복종하던 자라면, 내가 그에게 지시를 내릴 때 놀라지 않을 것이다. 주인이었던 자 는 그 자만을 버리고 나의 종이 되라. 그러면 너희는 모두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방식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68. 너희의 자유 의지를 내 법과 너희 양심에 복종시키라. 그러면 너희는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로움을 느낄 것이다.

69. 바로 지금, 온 땅에 잡초가 퍼져 있는 이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평화의 씨를 뿌릴 나의 일꾼이 될 준비를 하라. 이 시대에 나의 선택받은 자들 각자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고통 속에서 정화되고 단련되었으며, 종종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속에서 시험을 받지 않았는지.

70. 확신과 믿음을 얻으라. 지치지 말고, 이 계시에 익숙해지지 말고 내 말을 경청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떠나는 날 너희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오늘 너희는 올해가 지나가고 또 다른 해가 오는 것을 보지만, 나의 말씀은 변함없이 너희에게 전해진다. 그러나 1950년이 오면, 너희는 더 이상 이런 형태로 나를 듣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나는 너희가 힘을 얻고 가르침을 풍성히 받기를 원한다.

71. 내가 *모든* 대변자를 통해 계시한 나의 사역을 연구하라. 편애하지 말라. 내가 모든 이에게 내려와 모든 이를 통해 진리를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나의 임재를 활용하지도 않고 나의 가르침을 배우지도 않은 채 1950년이 오기를 바라는가? 성령으로서 내 계시에 불신하는 세상이 너희에게 덤벼들어, 너희가 약하다고 여겨 너희를 몰살시킬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지상의 정부들이 너희 사이에 분쟁과 혼란을 발견하고, 너희의 발걸음을 막는 법을 제정하기를 원하느냐? 현재의 세대여, 만일 너희가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도록 도발한다면, 너희는 얼마나 통곡하겠느냐! 그때 너희는 너희의 삶을 얼마나 힘들고 슬프게 만들 것이며, 너희 뒤를 따르는 자들의 길에 얼마나 많은 가시를 남기겠느냐! 사랑과 희망으로 일어나라. 내가 너희에게 아직 드러내고 맡겨줄 것이 많이 있다.

72.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의심하지 마라. 주님께서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 너희를 모든 악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키시는지 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펼쳐지고 강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아무도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따랐던 이들이야말로, 그들의 마음이 가장 피를 흘리는 아픔을 느꼈던 자들이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 왜 많은 이들이 그 길에서 뒤처졌는가?: — 그들이 느꼈다고 믿었던 사랑이 진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73. 영적으로 깨어나라. 무익하고 경솔한 것을 피하고, 더 이상 세상의 허영을 좇지 말라. 또한 사람들이 너희를 칭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영적 미덕을 영혼의 단순한 장식품으로 삼지도 말라. 내가 사랑의 가르침을 통해 너희에게 전한 미덕들로 너희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74. 나는 산 정상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곳에서 너희에게 상을 주리라. 과거의 흔적을 되돌아보지 마라. 너희가 직접 뿌려 놓은 가시들을 느끼지 말고, 평온하게 너희의 길을 나아가라. 그리하여 내 빛이 비추는 완성의 정점에 도달하라. 그곳에 이르면, 너희는 마침내 나의 사랑의 법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부록

주석

주석 1

옛날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고위 인사들이 취임할 때 기름을 부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특히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여 기름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사역에서는 물질적인 수단이 사라져야 하며, 기도를 드리며 안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석 2

본 계시 저작에서 “영적 세계”는 확립된 용어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재림하신 바로 그 시기에, 가르침과 조언, 그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 선택된 인간 도구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었던 빛나는 수호 영들을 의미한다.

주석 3

"영감"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여기에서와 같이 황홀경에 빠진 발화자를 통해 신성한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신자가 *완전한*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그 생각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영감을 의미한다.

주 4

혼란에 빠져 지상에 묶인 영혼들은 공간 속에서 평온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영혼이 약해진 사람들의 몸에 질병을 일으키고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육신을 떠난 영혼과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영혼 모두에서 영의 빛이 다시 주도권을 잡도록 돌보라고 촉구하신다.

주석 5

영들이 신성한 영으로부터 불꽃처럼 발현된 시점부터, 그 후 창조된 물질 세계에서 인간으로 현신하기까지의 기간은 영원과도 같은 시간으로, 그 동안 수많은 진화가 일어났으나 이 글의 범위 내에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이 엄청나게 긴 시간의 흐름을 회고하며, 게다가 이를 몇 마디로 요약하려다 보면 왜곡이 발생하므로, 본문을 완전하고 연대순으로 정확한 사건의 흐름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주 6

물질적 재화뿐만 아니라, 명성과 명예, 권력, 시기, 질투, 다툼, 쾌락과 악덕에 대한 우리의 성향은 마치 노예의 쇠사슬과 같아서, 우리 영혼이 영적 고지로 올라가 그곳, 즉 영혼의 고향에서 '날아오를' 수 없게 만듭니다.

주석 7

"악마"나 사탄이 악의 원인이며, 즉 악 그 자체라는 견해가 매우 널리 퍼져 있다. "이 사람은 악마를 품고 있다"거나 "악마가 온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서로 대립하게 만든다"와 같은 민속적 표현들이 잘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강력한 영적 존재를 상상하며, 이를 강력한 첫 번째 빛의 영인 루시퍼와 연관 짓는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루시퍼라는 영 안에 악을 창조하셨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지극히 높으신 존재이시며 사랑과 지혜와 권능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터무니없는 것을 창조하셨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악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없다. 만일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기 위해 창조된 영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은 존재하며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한다면 원인이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악이란 무엇인가? — 그것은 우리 자유 의지의 잘못된 행사이며, 신성한 인도와 질서에 대한 거부이자, 선에 대한 부정이다. 따라서 악은 영적 원창조 직후, 루시퍼의 지도 하에 일부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었을 때 시작되었다. 루시퍼는 이로써 악의 발생에 촉매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추방당함으로써 자신의 악한 행위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고, 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루시퍼는 악의 원인이 아니며,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악에 대해 그를 주범으로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그분의 미덕을 심어 주셨으며, 양심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그 미덕을 따르도록 권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지만, *우리는*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분은* 겸손을 몸소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오만하고 허영심에 차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으나, *우리는* 원한을 품고 복수심에 불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권면하셨으나, *우리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성을 가르치셨으나, *우리는* 오직 물질만을 좇습니다. 우리는 자유 의지를 잘못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저급한 정욕과 욕망, 교만, 허영, 자기애, 즉 인간의 불완전함: 이것이 악의 원인이다. 인류가 번성할수록 이러한 불완전함도 늘어났다. 이것들은 해로운 생각, 관념, 감정을 발산하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을 형성한다. 이는 치명적인 악순환이다. 악은 인간에게서 발원하여 보이지 않는 불길한 힘으로 발전하고,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와 그들을 노예로 만든다. 이 힘의 영향력은 너무나 거대하여, 결국 사람들은 그것이 거대한 영적 존재일 것이라고 믿게 된다. — 그래서 일부 종교에서는 악을 관장하는 별도의 신을 창조해냈으며, 사람들은 변덕스럽고 사악한 신의 무고한 희생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도 악마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사람들은 뿔과 꼬리를 가진 흉측하고 검은 형상의 악마와 같은 고대의 상징적 악의 묘사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더 나은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혹은 더 정확히 말해 미신—을 버리려 하지 않는데, 이는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이 악의 진정한 원인임을 인정하는 것보다, 악마가 인류에게 악을 일으킨다는 핑계가 더 편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악한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덧붙이자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악한 기운은 지구 위를 인간 주변에서 안식 없이 방황하는 무수한 어두운 영혼들에 의해 흡수되어, 인간을 향해 더욱 강력하게 되돌려진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악마의 영"이라고 믿는 미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들은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이며, 때가 되면 해방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악의 치명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방법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악과 싸우기 위한 무기도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 그것들은 영적인 무기들이다: 기도,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 내면의 깨달음을 얻는 영적 명상.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분의 계시에 대한 믿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악의 영향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선과 사랑, 평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악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고, 불행한 영혼들이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주석 8

스페인어 원문에서 "도움자"를 뜻하는 "cirineo"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지셨을 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도왔던 남자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그의 이름인 키레네의 시몬은 스페인어로 Simon C i r i n e o 로 표기된다.

주석 9

이 대목에서, 그리고 다른 많은 대목에서도 신성한 스승께서는 1950년 이후로는 더 이상 인간의 이성 기관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 그 시점에 1866년부터 1950년 말까지 지속되었던 한 시대가 끝났는데,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개별적인 남녀들을 선택하여 그분의 도구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한 도구가 하늘의 아버지께 합당하고 마음이 순수하다고 인정받으면, 그의 영이 그 목소리의 주인의 이성을 비추었고, 황홀한 상태에서 그의 입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선포했다. — 이는 “제3의 시대”, 즉 성령의 시대의 시작이었으며, 이는 영으로,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열렸습니다. — 언급된 이 기간은 청중을 교육하고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편리한 방식으로 계시를 받는 데 익숙해지지 않고( ), 스스로 영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 처음부터 그 기간을 제한하셨습니다.
1950년 이후에도 하늘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으나, 더 이상 황홀경 상태에 있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영감을 받아 전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신 도구들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자녀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지구의 여러 곳에서 길을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과 순결함으로 마음을 열고 그분의 영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자녀들을 어디서든 발견하시면,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는 영적인 환상이나 예언적인 꿈을 통해 말입니다.

영적 관점에서 본 영혼에 대한 연구*

**이 연구의 기초는 『진실한 생명의 책』과 다른 새로운 계시들입니다.*

"영혼"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영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인간의 일부임을 알고 있으며, 이를 '육체 – 영혼 – 영'이라는 삼위일체에 포함시킵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인간'이라는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며, 각 부분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몸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으로, 영혼과 영을 보호하는 외피 역할을 하며 동시에 그들이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몸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자들에 의해 조사되고 연구되어 왔으며, 그 결과 우리는 몸의 기능과 놀라운 작동 원리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게 되었다. 몸은 너무나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면에 지극히 지혜로운 영적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인간의 나머지 두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은 덜 확고하며 부분적으로 모호합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고 실험적으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은 영혼과 정신의 본질과 역할을 올바르게 설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지의 베일을 걷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인간 지상 생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도 정확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이를 해낼 수 없는데, 영적인 것은 오직 영적인

방법으로만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비밀들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한된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세계 창조는 헤아릴 수 없는 옛날부터 존재해 왔으나, 그 *이전에는* 이미 영적인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 창조주는 영원부터 계신 원초적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본질의 중심에는 그분의 주요 속성인 완전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지극한 사랑이 전달되어 증명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이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적 존재인 그릇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그분의 사랑과 지혜, 빛, 그리고 창조력을 담아두실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에서 나온 존재였으며, 동일한 신성한 속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신성한 빛의 순수한 거울이었기에, 그에게는 "루시퍼" 또는 "빛의 운반자"라는 명칭이 어울렸다. 신성한 권한 덕분에 이 최초로 창조된 존재는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곧 그로부터 다른, 그와 같은 존재들이 나왔으나 힘은 더 약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었으며, 찬란한 빛 속에, 지극한 순수함 속에 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영적 존재들 속에서 자신의 사랑이 비추어지는 것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셨다.

처음 창조된 영은 지극히 기뻤으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로서 그는 창조주의 뜻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신성한 존재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루시퍼가 창조주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막강하여, 오직 그 사랑만이 그의 의지를 신성한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로부터 이러한 사랑의 증거를 받고자 하셨으며, 이를 위해 그에게 완전한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 수많은 영적 존재들 또한 자유 의지의 결정권을 지녔으므로, 피조물의 '해야만 하는' 법칙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존재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 안에서 들릴 수 있는, 그분의 뜻의

목소리이자 표현인 양심을 통해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은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야 했는데,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사랑에 대한 응답이어야 했다.

의지의 자유를 특징짓는 것은, 그 안에 양심이 권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숨겨진 유혹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적 존재들 안에는 끊임없는 대립이 존재했으며, 이는 그들이 자유로운 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도록 이끌었다. 즉, 신성한 미덕을 실천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정반대의 행동을 할 것인지 말이다. 오랜 기간 동안 양심의 신성한 목소리가 승리했고 모든 것이 올바른 질서 속에 있었다. 그러나 루시퍼가 더 이상 창조주의 영적 인도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시점이 찾아왔다. 최초로 창조된 존재의 영광은 너무나 커서, 그는 그 영광에 눈이 멀고 말았다 . 루시퍼는 자신의 의지가 현현시킨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을 보았고, 비록 그 힘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그들의 창조자로 여겼다. 그는 창조된 영들을 볼 수 있었지만, 힘의 근원은 볼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해 드물게만 가시적인 형상을 취하시기 때문이다. 루시퍼는 결국 자신의 망상에 사로잡혀 그 힘의 근원이 자신 안에 있다고 믿게 되었고, “자신의” 영적 존재들에 대한 유일한 통치자로 자처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 루시퍼가 그들의 창조주이며, 그들은 자신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고 설득해 냈다.

루시퍼는 자신의 창조주를 거역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무수한 영적 존재들도 선택을 해야만 했고, 자유 의지로 결정할 수 있었다. — 하나님의 빛줄기가 그들을 비추었고,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신성한 아버지를 느꼈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양심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 반면 루시퍼는 그들의 의지가 변한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볼 수 있었고, 자신의 직접적인 창조주로서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이들이 그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뜻에 복종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했다. 이 배반한 영들에게 이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신성한 영의 불꽃의 주된 속성인 사랑은, 영적 존재들이 창조주를 *거역하기로* 결정한 후 그 불꽃과 함께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 신성한 생명력을 버리게 되었고, 영을 잃은 채 남은 그릇과 실행 기관(영혼)들은 굳어져 영혼의 물질로 변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중 상당수가 이 큰 사랑의 시련을 통과하지 못할 것임을 아셨으며, 이미 계획을 세워 두셨습니다. 바로 배교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존재들이 자유 의지의 잘못된 행사로 인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에, 그분은 큰 인내심을 가지고 —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끝없이 길고 험난한 여정 속에서 — 그들이 다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양육하고자 하셨다. 하나님은 루시퍼의 영혼 물질과 그에게 충성하는 무수한 존재들의 영혼 물질을 포착하여, 그것들을 가장 작은 입자로 분해하셨다 , 그리고 그것들을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창조물로 재형성하셨다. — 이성은 이를 이해할 수 없다; 오직 이미 영적 지식을 갖춘 자만이 이를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과학자에게는 물질, 즉 물질이 지향적이고 굳어진 영혼의 본질이라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거슬리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즉 온 피조물이 신음하며 우리와 함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된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무한히 긴 진화 과정에서 영혼의 물질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모하여, 항상 새롭고 더 높은 생명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물질이 왜 덧없는 것인지, 즉 왜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데, 이는 물질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야 하는 미묘한 영적 실체들의 외피에 불과하며, 따라서 영원히 같은 외피 속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물질 자체는 비록 동일한 영혼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직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더 낮은 생명체로서 창조계 내의 이미 더 높게 발전한 생명체들을 섬겨야 한다. 이들(더 높은 생명체들)은 우리에게 보통 보이지 않는 반면, 물질은 우리 육체도 물질 입자, 즉 동일한 낮은 진동의 응축된 영혼 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물질적 창조계에 묶여 있는 영혼 입자들은 발전 과정 속에서 마치 결정이 형성되듯이 서로 결합해야 한다. 상향 발전은 광물계에서 시작되어 식물계와 동물계를 거쳐 계속된다. 이는 예를 들어 동물계에서, 수많은 미생물의 영혼 단위들이 긴 발달 기간을 거친 후 육체를 벗어날 때 더 큰 단위로 통합되어, 더 큰 동물 안에서 계속 발전하는 이미 더 고도로 발달한 영혼 물질을 형성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이 과정은 마침내 영리한 동물들 안에서 영혼이 이 발전 단계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성숙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 번 반복된다. 그런 다음, 상승적 발전의 정체를 용납하지 않는 신성한 구원 계획에 따라, 그러한 여러 영혼들이 하나의 새로운 단위로 통합되어 인간 영혼을 형성한다.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라는 창조 영역을 거치는 영혼의 발전은 억 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자연법칙에 따라 전달하고 실행하는 무수한 빛의 영들로 구성된 군단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된다.

이제 성숙한 영혼은 지상에서의 첫 번째 육화(인격화)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다양한 자연계를 거치며 힘과 능력을 습득한 이 영혼은 발전의 마지막 단계인 인간으로서의 육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 영혼은 지상의 연인들에게 다가서며, 수태 시 미래의 어머니의 몸속에 깃들게 된다. 그러나 영혼이 최고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 필수적인 것이 부족하다. 새로운 지구 시민이 태어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육화(肉化)를 준비한 영을 그 영혼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를 통해 영적 존재는 다시 완전해집니다. 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두 부분은 이제 함께 완전함에 이르는 최종 발전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리며 수많은 환생을 거쳐야 합니다. 즉, 다양한 시대의 지구에서의 여러 생을 거치는 것입니다.

환생이 일어날 경우, 영-영혼-단위는 새로운 육신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태 시에는 영혼이 먼저 어머니의 몸속으로 들어가 태아와 연결을 맺습니다. 영은 그 후에야 영혼의 껍데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일찍, 어떤 경우에는 더 늦게 들어오지만, 출생 3일 전보다는 늦지 않습니다. — 영혼은 서로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무수히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태 과정에서 부모의 영혼

입자들도 흡수하게 되며, 이를 통해 — 친화력을 지닌 영혼들 간의 끌림과 더불어 —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일부 기질의 유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영혼의 기원과 발달에 대해 설명했으므로, 이제 영혼의 본질과 인간 삶에서 수행하는 몇 가지 임무를 조명해 보겠다. 우선, 영혼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묘하고 영적인 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영혼은 한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탄생하였으며, 신성한 창조물을 통해 영원히 지속된 속죄의 여정을 거친 후, 원래 정해진 사명 으로 다시 돌아왔다. — 공간적으로 볼 때, 인간 내의 영혼은 온몸에 걸쳐 확장되어 있으며, 신경계와 마찬가지로 신체의 모든 장기와 부위에 분포되어 있다. 그것은 없으면 생명이 없는 몸이 될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육체에서 분리될 때 이를 생명이 없는 껍데기로 남겨둔다. 실용적인 사고와 의지, 감각적인 감정과 지각, 그리고 듣기, 보기, 맛보기, 냄새 맡기는 영혼의 기능이다. 그것은 육체적 껍데기의 내적 원동력이며, 오직 영적 안목의 은사를 가진 자만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해당 인간의 형상을 완전히 닮았음을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아스트랄체라고도 불린다.

영혼은 신체의 자체 방어력과 함께 신체의 건강을 책임진다. 영혼이 방해받지 않고 조화롭게 진동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모든 종류의 병원체에 대항하는 방어벽을 형성한다. 그러나 만약 병원균이 이미 사람의 몸에 침투했다면, 영혼은 신체 방어 기능과 협력하여 즉시 그들과 싸워 무해하게 만들거나 쫓아내려 한다. 이는 진정한 싸움으로, 우리가 열이라고 알고 있는 체온 상승을 유발한다. — 신체의 영양 공급에 있어서도 영혼은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다. 몸이 섭취한 음식의 미묘한 생명력은 영혼에 의해 모든 신체 기관으로 전달되어, 각 기관이 자신에게 유익한 미묘한 영적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마시면, 영혼이 육체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얽매여 한동안 경쾌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혼이 무뎌지고 나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짧은 연구는 영혼과 정신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정신이 무엇이며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지 언급하지 않는다면 불완전할

것이다. 우선, 정신이 무엇이 아닌지부터 말하자면, 정신을 '이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람 안의 영은 신성한 영, 신성한 사랑, 신성한 빛의 불꽃이다. 영은 그 안에 모든 신성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이라 부르시며,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기원과 근원인 그 근원에서 끊임없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즉, 기도와 영적 고양, 그리고 신성한 계시( )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영은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유지될 수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 힘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신성한 기원을 가진 인간의 영은,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성경의 기록에 따라 창조주에 의해 아담 안에 심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 보이지 않는 은총의 행위는 영이 영혼에 깃들 때, 즉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반복됩니다. 영혼은 마치 육체가 영혼을 감싸는 껍질인 것처럼, 영을 감싸는 껍질 역할을 한다. 이제 영의 임무는 영혼을 깨우치고, 신성한 미덕으로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속에서 영은 영혼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영혼은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 영의 인도에 순종해야 한다.

인간에게 육화한 영혼은 처음에는 온전히 육체에 마음을 두고, 육체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 주려 한다. 그리고 육체가 발달하는 만큼, 영혼이 오랜 발전 과정을 거치며 여전히 내면에 지니고 있는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성향도 더욱 강해진다. 바로 여기서 영의 임무가 시작된다. 영은 사랑과 인내로 양심을 통해 영혼에게 가르쳐야 한다. 즉, 저급하고 악한 성향을 버리고, 육체의 세속적 욕망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이다. 영이 영혼에게 귀를 기울이게 한다면, 비록 영혼이 육체의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재발을 반복하더라도, 영은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 영혼이 계속해서 영의 훈계에 마음을 열어둔다면, 영적인 미덕이 점점 더 그 안에 스며들게 되며, 동시에 육체의 잘못된 욕망에 대해 점점 더 면역이 된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그 사람의 기품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는 선한 생각과 순수한 감정을 지닌 사람이며, 겸손과 인내, 자비, 그리고 이웃 사랑을 보여준다. 죽음의 시간이 오면, 영과 영혼은 완전한 조화와 큰 기쁨 속에서

육신을 떠난다. 그들은 내세에서 행복과 평화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의 존재로서 영적 왕국에서 정해진 길을 계속 나아가, 최상의 완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나아갑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수되고 “탕자”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삶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영혼이 영의 가르침과 권고를 거역할 때, 그것은 육체의 요구와 내면의 저급한 성향에 점점 더 마음을 열어 버린다. 영은 필사적인 투쟁을 벌이며 이를 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힘과 지혜를 간구한다. 영혼이 자유 의지의 결정으로 영의 모든 영향과 권고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그것은 감각적 정욕과 물질적 욕망, 그리고 모든 이기적인 충동의 노예가 된다. 그녀는 너무나 깊이 추락하여, 그 안에 있는 신의 불꽃이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은 영적 껍데기 안에 갇힌 포로가 되고, 인간은 그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다. — 이 단계에서 영과 영혼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힘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영은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양심을 통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반면, 영혼은 “양심이 없는” 사람 안에서 매우 강렬하게 살아 있으며(그렇지 않다면 육체는 생명이 없을 것이다), 그 악한 결점들은 생각과 말, 감정과 행동을 통해 사람의 외부 세계에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영혼이 양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과 온갖 고난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신다. 많은 경우 영혼은 그때서야 생각하기 시작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영의 경고를 따를 준비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며, 영혼은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게 된다. 성령은 영혼을 자신에게로 이끌고, 영적 미덕으로 그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며, 그렇게 하여 둘은 함께 더 높은 발전으로 향하는 험난한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에서 그들을 부르실 때까지 함께한다.

안타깝게도 영혼이 양심을 통해 영이 주는 선한 권고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실을 고집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그런 영혼이 죽음에 휩싸이면, 저 세상에서 끔찍한 깨달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곳에서 영혼은 더 이상 양심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는데, 그 목소리는 신의 계명을 무시한 것, 악한 행위, 그리고 저급한 정욕에 대해 가차 없이 고발한다. 이러한 자기 고발은 영혼에 지대한 고통을 안겨주며 정화의 역할을 한다. 영혼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다시 깨어난 정신이 그 영혼을 이끌어 단계적으로 악한 성향( )을 벗어던지고 신성한 미덕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영혼이 악의에 고집스럽게 머무르는 경우, 스스로 불행한 존재가 될 길을 걷게 된다. 그 영혼은 더 이상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영적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 근처에서 목적 없이 지상을 방황한다. 그러면 그 영혼은 나쁜 생각, 악한 행위, 저급한 정욕을 가진 사람들, 즉 자신의 본성과 일치하는 이들에게 끌리게 된다. 그 영혼은 그들에게 '거처'를 잡고, 그들을 악으로 이끌며, 이러한 상태는 점령에 이를 수 있어 그러한 사람들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된다. 이 땅에 묶인 영혼들은 폭력 행위를 조장하고,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며,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는 위협이 된다. 그러나 보호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하며 선한 생각과 감정을 발산하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마치 보호막으로 둘러싸인 것과 같아서, 저급한 영혼들의 악의적인 공격이 튕겨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삭임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공명을 일으키지 못하고 즉시 거부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와 빛나는 생각을 발산함으로써 정신이 혼미해진 영혼들을 도울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영혼들의 악행을 막지 않으시는데, 이는 그들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 — 대개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 그 영혼이 비참한 삶에 지쳐,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행적들을 혐오스러운 마음으로 되돌아보는 날이 온다.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와 도움을 구할 때, 그들의 영은 바로 그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을 부드럽게 인도할 수 있다. 빛의 영들과 하나님의 천사들도 그때 그들의 도움과 가르침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제 영적 영역에서 단계별로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 영 — 우리 안의 신성한 불꽃 — 은 육체와 대립하는 반면, 영혼은 그 둘 사이에 서 있다. 영혼은 영을 택할지 육체를 택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영을 선택한다면, 영혼은 자신

안에 신성을 받아들이고 영의 인도에 순종할 준비가 된 것이다. 육체를 선택한다면, 영혼은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게 되며, 그 안에 내재한 성향들이 해로운 방향으로 완전히 발현될 수 있다. 신성한 계시들에서 신성한 스승께서는 영혼이 육체의 영향력에 맞서 싸우는 것 에 대해 매우 자주 말씀하십니다. 앞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는 영혼이 완전히 “육화”되었을 때, 즉 육체의 영향력과 모든 물질적인 것에 완전히 종속되었을 때, 영과 영혼 사이의 싸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영에 의해 직접 이끌릴 수 없고, 오직 영혼을 통해서만 이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시인 괴테는 섬세한 감수성으로 이 두 상반된 힘을 느꼈으며, 그의 『파우스트』에서 한 인물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입에 담게 한다:

"아아! 내 가슴 속에는 두 영혼이 깃들어 있네,
하나는 다른 하나와 헤어지려 하고;
하나는 거친 사랑의 쾌락에 사로잡혀
세상에 매달려 있다;
다른 하나는 힘차게 먼지를 뚫고
높은 선조들의 땅으로 향하네."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두 영혼"에 대해 말한다: 한 힘, 즉 육체의 영혼은 사랑의 욕망과 세속적인 사고와 의지에 종속되어 있다. 다른 힘, 즉 영적 영혼은 감각과 물질주의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신이 비롯된 신성한 영이 계신 높은 영역으로 승화하고자 한다. 이는 — 간단히 말해 — 영과 영혼 사이의 투쟁으로, 후자가 육체적 본성의 저급한 욕망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목차

교훈 29	**구절 번호**
신성한 계시의 새로운 형태	1-4
종교와 과학의 대립 과 과학의 대립	8-10
타보르 산에서의 변모와 그것이 영혼의 발전에 대한 상징적 의미	15-25
주님께서 영적 계시를 주실 때의 영적 계시	29-31
불신은 증거와 기적을 요구한다	31-36
사랑과 희생 정신의 위대한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	37-40
모세, 예수, 엘리야 – 세 가지 계시의 시대	42-48
모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	49
세 가지 계시의 시대, 그러나 단 하나의 율법	53-55
교훈 30	**절 번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세속적인 이스라엘 백성 주님의 재림	1-7; 9-16
예수와 마리아	17-22
새 제자들을 위한 경고와 지침	24-34
사랑과 지혜의 일체성	35-37
영적 미덕과 선행의 높은 가치	38-42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	44-47
그리스도의 사역의 불멸성	48-53
헐뜯기와 비판, 그리고 판단에 대항하여	55-56, 65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필수적인 준비	56-58
새로운 바리새주의의 위험	60-61
용서에 대한 무한한 마음 –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징	62-64
교훈 31	**절 번호**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7-9
신성한 영감은 다음을 통해 얻게 됩니다 "깨어 기도함"을 통해 얻는다	10-13
주님의 겸손과 자비	21-25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세 신성한 "인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서도 나타나는 삼위일체	26-29
말씀 선포와 병 고침의 사명	33-37

자유 의지의 은사	46-49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51
영적 존재들의 창조와 자유 의지 부여의 이유	53
세 시대에 나타난 엘리야	57-67
교훈 32	**절 번호**
영적 발전의 길과 미성숙한 1-3	1-3
약속의 성취	4-5
영은 결코 죽지 않는다	7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권면	8-10
선한 영의 세계와의 교감은 허용되며 유익하다	11
다가올 평화의 왕국에 대한 예언	17
성부, 성자, 성령 – 세 분의 하나됨 신적 계시의 세 가지 형태	22-27
지구의 변혁에 대한 예언	30
영적 고도의 발전 및 완성	33-37
자유 의지의 은사를 남용하는 것은 인간 고통의 원인이다	38-49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한 지침	52-64
양심이 우리의 심판자가 될 것이다	65
교훈 33	**절 번호**
넓은 길과 좁은 길	7-8
새 언약에 따른 의무	9-12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영혼이 성장해 가는 과정의 예 현세와 내세에서	14-16
속죄의 때가 왔다	17-19
오천 명을 먹이심	21-23
주님의 재림	24-29
지상에서 지배하는 권세와 악에 대한 영적 싸움 지배하는 권세와 악에 대한 영적 싸움	32-34
죄 – 회개 – 속죄	37
인류의 타락에서 구원	41-46
새로운 바벨탑의 붕괴	52-53
구약과 신약의 예언들 오늘날 성취되고 있다	61-63
교훈 34	**절 번호**

그리스도의 새로운 메시지의 전파와 영향	1-7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있어 부모의 책임 새로운 생명의 탄생	13-14
양심은 언제나 15-19	15-19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27-31
올바르게 가르치고 진리를 증언하는 방법	35-38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	39-45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필요성	45-47
새로운 제자들의 의무와 사명	52-58
번역과 전파의 사명 59-60	59-60
물질적 가치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큰 위험	61-62
교훈 35	**구절 번호**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 – 올바른 구함	1-7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8-9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인류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러하실 것이다	12-14
새 시대의 인간	15
사도이자 예언자 요한	16-21
종말의 시대	22-26
내 영이 모든 육체와 모든 영 위에 부어지리라	28-35
영적, 육체적 준비	36-37
불순종으로 인한 인류의 타락	38-40
영적 존재들의 창조와 물질 세계의 운명	48-50
제3시대에 있어서 유대 민족의 회개와 구원 제3시대에	55-62
교훈 36	**절 번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의 중요성	1-3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해받기를 원하신다	4-7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	8
신성한 계시는 언제나 영과 영적인 것을 가리킨다	9-12
동정심과 이타적인 중보기도	13-17
인류의 거대한 위기	18-23

주님은 낮으신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다	24-26
오직 영과 마음의 희생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	27-29
주님의 사역의 확산과 사명	31-38
"말씀"이란 무엇인가?	39-40
말씀의 사자들을 위한 지침	41-46
"지옥"이란 무엇인가?	47-56
주님은 영원토록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59
교훈 37	**절 번호**
영적 발전의 단계	1-6
인류 발전의 큰 전환점	7-12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육신을 입고 지상에 보내십니다	18
유아 세례에 대하여	19
인간의 육체적 번식은 자연의 법칙이므로 죄가 아닙니다	20-23
하나님의 무한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4-27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그분께 가까이 데려가나요?	28-30
중재자를 통해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이유	31-34
오직 영성화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얻을 수 있다	34-37
모든 눈이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41-45
사람의 미개발된 능력	46-48
사랑은 영혼이 성장하는 열쇠이다	49-52
인류는 눈먼 채 심연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53-56
이타적인 삶, 이웃을 위한 헌신	61-70
주님은 모든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76
영적 세계의 수많은 징후와 다양한 계시 주님의 재림을 알리고 그 길을 함께했다	77-79
교회의 거부적 태도와 새로운 영적 공동체의 탄생	80-85
교훈 38	**절 번호**
아무도 선행을 베풀기에는 너무 가난한 사람은 없다	9-11
주님께서는 새로운 제자들을 어떻게 원하시는가?	14-18
선지자 요나의 본보기	19-22
하나님과 인간 안의 삼위일체	24-28
성별의 기원과 의미	29-30
참된 결혼과 그 훼손	31-36

결혼은 실제로 하늘에서 맺어진다	39-41
하나님의 양육 방식을 엿보다 부부를 예로 들어	50-66
신성한 도우미이자 보호자	75-76
교훈 39	**절 번호**
지식의 나무가 정화되다	3-5
신성한 정의의 저울과 낫	6-7
진정한 기도의 능력과 은혜	8-15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라!	16-20
물질적 가난 속에서도 영적 풍요와 사랑의 행실 가난 속에서도	21-24
선과 진리, 정의를 위한 투쟁	26-28
잘못된 인류 이상	30-31
대량 학살	32-35
여호와 – 그리스도 – 성령	39-49
마리아	50-54
세속적인 것에 대한 갈망은 영혼의 날개를 무력하게 한다 영혼의 날개를	67-70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71-73
교훈 40	**절 번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메시아적 약속과 사람들의 무지	1-20
자연과의 조화가 깨진 것과 그 결과	21-31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다	32-33
기도	34-48
바위처럼 굳건한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	52-53
준비된 자들의 축복	54-56
선과 악의 힘의 기원과 영향 보이지 않는 세계	57-64
지상에 만연한 악의 세력에 대한 올바른 투쟁	65-72
인류는 현실과 영향력의 실재와 효력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73-76
인간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에 대해 스스로 책임이 있다 자신을 괴롭히는 악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79-81
교훈 41	**절 번호**
죽음의 왕국과 어둠 속에서 와 어둠의 왕국	5-7

인류에 의한 첫 번째 계명의 위반	10
세상과 내세에서 두 사람의 길	11-18
경고와 약속	22-28
올바른 간구와 잘못된 간구	30
참된 평화	38-41
육체적·정신적 욕구 충족에 필요한 조화 육체적·정신적 욕구의 충족	45-48
가정은 평화와 사랑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50-52
신성한 뜻과 그 법칙의 불굴성 과 그 법칙	55-57
자녀 교육에 관한 분명한 말씀	57
전쟁은 사람들 사이의 경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반면 평화는 사랑과 겸손의 열매이다	58-60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와 그의 위대한 약속들	61-69
교훈 42	**절 번호**
하나님의 지상 현현에 대한 하나님의 지상 계시 형태에 대한 무능력	1-2
다음 세대의 영성화	5-7
권면과 경고	9-25
예언	26-28
복된 자	29
은총의 근원	30-32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전파	33-38
겸손과 검소함 — 소홀히 여겨지는 기독교적 미덕	49-50
신성한 법은 불완전함을 용납하지 않는다	52
인류의 정화와 새로운 시작	53-61
교훈 43	**절 번호**
전쟁과 고난은 인류의 정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2-8
무관심, 나태, 위선에 대한 경고	9-15
사람의 양심과 수호신이 그를 선의 길로 이끈다	18
창조의 조화와 완전을 위해 모든 피조된 영혼이 필요하다	19
영혼의 창조와 그 발전의 사명	21
천사들은 지상의 영적 형제들을 돕는다	22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간극 은 인간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23-24

죽음은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지 않는다	25
예수께서는 인류에게 영적 생명의 실재를 증명해 주셨다	26-28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은 내세의 영적 삶을 위한 최고의 준비이다	36-38
참된 그리스도의 대변자와 거짓 대변자	39
예언적인 비유	43-49
지구는 단지 일시적인 유배와 눈물의	61
교훈 44	**절 번호**
지상에서 지도하는 영들의 화신과 활동	4-6
영적인 의미에서 "빛"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8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에 대한 더 자세한 해설	11
나쁜 제자의 경고가 되는 사례	19-28
소명과 영적인 은사	33-39
용서	40-45
우리는 이웃의 약점을 찾아내어 드러내서는 안 된다	46-48
복된 자들의 축복과 축복의 약속	51-55
고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들	58-62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	63-67
교훈 45	**절 번호**
예수님의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영적 왕국으로 가는 길을	3-8
제3의 시대, 성령의 시대	21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모두 필요하지만, 하지만 올바른 균형 속에서	31
악을 분별하되, 그것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지 말라!	43-44
죄인과 교제하기를 꺼리는 자는,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49-50; 56-61
현대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의 계시를 거부할 것이다	67-68
그리스도의 새로운 고난의 잔	81-91
교훈 46	**절 번호**
길 잃은 형제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3-7
영과 신성한 영의 연합	10-11
옛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의 실패	18-20
전쟁은 신의 섭리가 아니라	26-29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결과이다	
믿음,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34-36
학식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인간의 최상의 목표이다	43-45
듣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몸소 겪어야 한다	63-65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68-69
위대한 예언	73
교훈 47	**절 번호**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진정한 연민과 그로부터 나오는 중보기도와 도움	5-7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다	20-27, 30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46
방해물이자 도움이 되는 육체	49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반항적인 사람들도 이들을 이끌어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51
헛된 명예 추구에 대한 한 마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려 하지 않는다	54-56
교훈 48	**절 번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중요성 그리고 사람들의 거부	5-9
진정한 평화는 오직 신성한 법칙의 성취를 통해서만	11-15
성찬식의 의미와 상징	21-25, 46
정화와 발전의 장으로서의 지구	52-54
진정한 그리스도 제자의 십자가	64-70
교훈 49	**절 번호**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과거 실수의 결과이다	2-5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한 구원은, 사람이 예수의 본을 따를 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한다	7-9
자기 의에 대한 경고	9-11
인간의 의견과 와 의심 속에서 – 그리스도의 새로운 고난의 길	12-23, 40
특정한 날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30-32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보살핌	48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널리 알리는 사명 전파와 확산에 대한 사명	43, 49-53
영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55

이웃을 위한	
가르침 50	**절 번호**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1-7
이방 민족들을 위한 중보 기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서 나타나시게 하소서	12
인간 – 천국의 "탕자"	13-21
영적인 기도는 입술의 을 빌릴 필요가 없다	36-37
오직 자발적인 사랑과 선함에서 우러나온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	40-41
이성적 학문은 영적 깨달음과 감상의 걸림돌	45-48
마리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 영적인 인류의 영적 어머니로 임명되었다	59-62
가르침 51	**절 번호**
계시를 대적함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9
거짓 새 계시와 이단에 대한 경고	27
인간은 오늘날 세상의 상태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세상의 상태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 그는 과거에 뿌린 것을 지금 거두고 있다	33
그리스도의 영적 재림에 수반되는 상황들	45
하나님께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 양심	46
우리는 물질적 법과 영적 법칙을 지켜야 한다	47-53
현재는 심판의 때이다	61-71
교훈 52	**절 번호**
영적 이스라엘은 말과 행동으로 전파하도록 부름받았다	1-22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그분의 길에서 벗어난 자녀들에게도 미친다	26-27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제자들에게 피의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28
천국과 지옥은 영혼의 상태이며, 사람이 스스로 선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초래하는	31-37
전쟁의 참상은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회개와 회개로 이끌어야 한다	40-41

하나님은 또한 그분을 잘못된 형태로 찾는 이들에게도 오신다	48
영성화와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의 직접적인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	49-53
사람은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도 말고, 인위적으로 미루지도 말라	55-58
모든 사람은 그 기원에 있어,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형제자매이며, 그들 사이에는 어떤 장벽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59-60
교훈 53	**절 번호**
기도의 힘	2
육체를 지배하기 위한 영혼의 투쟁	8-11
이웃에 대한 자비와 도움의 손길 - 참된 제자의 표징	14-17
지식과 지혜의 성장	20-22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의 십자가와 타인을 위한 희생의 십자가	24-25
각기 다른 시기에 나타난 엘리야의 사역	34-44
“그들의 행실이 그들을 따르리라”	49-50
옛 이스라엘 백성과 새 이스라엘 백성	52-55
세상과 영적 영역에서의 하마게돈, 그리고 빛의 승리까지	56
교훈 54	**절 번호**
완성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서의 시련과 고통 완성을 위한	2-9
주님께서는 그분의 누구에게도 묶거나 위협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으로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10-15
죄 많고 병든 세상을 위한 유일한 도움	16-21
새로운 제자들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조언	24-34
“영성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41-44
하늘 아버지께서는 누구도 “악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신다	45-48
인류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적으로 강하고 이타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67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모든 인간의 불완전함을 이겨낼 것이다	69-71
교훈 55	**절 번호**
우리는 하나님을 "학교에서 도망칠" 수 없다	6-7, 20-21
민족을 이끄는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는 모두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8
영혼의 환생	22

"생육하고 번성하라" — 새로운 관점에서	22-24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27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회개	40
설교를 듣는 청중의 마음가짐 계시	53-54
우리의 기도는 앞으로 닥칠 큰 시련을 완화하거나 심지어 없애줄 수도 있다	58
경고와 약속	71-74

참고 문헌 및 웹사이트

1866-1950년 멕시코의 신성한 가르침

참고 문헌

라이히 출판사, D-56329 세인트 고아르, 전화: +49 (0)6741 1720
진실한 삶의 책,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3의 성서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판도 있음)
멕시코의 신성한 계시 (간략한 소개)
삶의 문제에 관한 신성한 계시
제3의 시대를 위한 예언

생명을 위한 도서 서비스, 만프레드 베제, Kirchweg 5, D-88521 에르팅겐
전화: +49 (0)7371 929 66 42, 이메일:manfredbaese@gmx.de
신성한 사랑, 우리 삶과 모든 존재의 기원, 본질, 그리고 목적
El Amor Divino - 우리 삶과 모든 존재의 기원, 본질, 그리고 목적
진실한 삶의 책, 제7, 8, 9, 10, 11, 12권
제3의 성서

유니콘 재단, D-88709 메어스부르크
전화: +49 (0)7532 808162, 이메일: info@unicon-stiftung.de
『진정한 삶』 소개 (무료)

진정한 삶 영성 연구 협회 (Asociación de Estudios Espirituales Vida Verdadera A.C.)
Orinoco N° 54 Interior 5, Col. Zacahuitzco, 03550 멕시코 시티
진정한 생명의 책, 제1권-제12권
제3의 성서
및 멕시코의 신성한 계시에 관한 기타 서적

웹사이트

www.drei-offenbarungen.net
www.reichl-verlag.de
www.unicon-stiftung.de
www.drittes-testament.de
www.drittetestament.wordpress.com (다국어)
www.tercera-era.net (스페인어)
www.144000.net (다국어)
www.dritte-zeit.net